

Military History

2018.6. 제107호



- 6 · 25전쟁 중 개신교의 군내 활동과 정신전력
- 한국 해군장교 계급장의 변천사
- 메이지(明治) 시기 해군장교의 저술 속 이순신(李舜臣)
- 제주도 주둔 해병대사령부 위치에 대한 연구
- 젼바오섬 사건은 중국의 의도적 선제공격이었는가?
-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중국 전략

[서 평]

- '軍事', 韓中關係史의 새로운 視覺
- 한국학계의 새로운 연구를 자극하는 영미학계의 한국전쟁 연구





第107號 2018.6.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18. 6. 제107호

1	▶ 6 · 25전쟁 중 개신교의 군내 활동과 정신전력 - 군목과 신앙 군인을 중심으로	윤은석
53	▶ 한국 해군장교 계급장의 변천사- 금속형 계급장을 중심으로	신성재
83	▶ 메이지(明治) 시기 해군장교의 저술 속 이순신(李舜臣) - 오가사와라 나가나리(小笠原長生)의 저술을 중심으로	김준배
111	▶ 제주도 주둔 해병대사령부 위치에 대한 연구	박종상
147	▶ 젼바오섬 사건은 중국의 의도적 선제공격이었는가?- 위기관리 전략 구사의 한계에 대한 조직이론적 해석	박상연
193	▶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중국 전략	박민수







Contents | 2018. 6. 제107호

		[서	평]		
	237	▶ '軍事', 韓中關係史의 새로운 視覺			
			김경록 지음,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249 ▶ 한국학계의 새로운 연구를 자극하는 영미학계의 한국전쟁 이 연구					
- 스티븐 케이시(Steven Casey) 외 지음, 이상호 · 박성진 옮김,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접근』(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1. 연구소 동정	261	
부	н	н =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262	
	부	녹	3.『軍史』誌 投稿案内	264	

4. 연구윤리예규 267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1-52 https://doi.org/10.29212/mh.2018..10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 · 25전쟁 중 개신교의 군내 활동과 정신전력

: 군목과 신앙 군인을 중심으로1)

유은석*

- 1. 들어가는 말
- 2. 개신교의 신앙 전력 활동
- 3. 결과: 개신교는 무형의 정신전력
- 4. 결 론

1. 들어가는 말

군에서는 무형전력과 정신전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무형전력은 무 기와 물자에 대한 숙달을 의미하는 기술전력, 승리를 위한 전력 전술을 위미하는 운용전력, 전투 의지력을 의미하는 정신전력으로 나누어진다.

^{*}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¹⁾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즉, 정신전력은 무형전력의 하위 개념으로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을 중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²⁾

또한 군에서는 신앙전력화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신앙을 군의 모든 활동에 연계시켜서 부대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³⁾ 한경직 목사의 표현을 살펴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반공정신과 사기 충만한 군인이 될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신무장은 기독교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앙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리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사생관이 확립될 때에 자연히 용감한 군인이 됩니다"라고 하였다.4) 즉, 신앙전력화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 중심의 신앙을 정신전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정신전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신전력이 군복무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5) 정신전력이 군인 개인과 조직의 보안에 어떤 영향관계를 갖는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 연구도 있다. 6)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지휘관의 리더십과 장병들의 세계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다. 7)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00명의 코더에게 과거전사(戰史) 자료를 읽고 9개의 정신전력의 요소를 평가하게 하여 과거전쟁에서 나타난 정신전력과 그에 따른 승패를 분석한 이준희의 연구도 있다. 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고종장교와 정신전력의 상관관계를

²⁾ 박일, 고영건,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자: 산업 및 조직」 25 (2012. 2): 106-107.

³⁾ 백창현, 『한국군목회』(서울: 한국군목회, 2015), 47.

⁴⁾ 김병희 편저, 『한경직목사』(서울: 규장문화사, 1982), 98.

⁵⁾ 박일, 고영건,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112.

⁶⁾ 박재곤, 오영균, "정신전력이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군 조직특성과 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방연구」(2016. 9): 78.

⁷⁾ 전병규, "한국군의 정신전력 결정요인,"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 원, 2009), 2-3.

밝힌 것은 아니다.

군종장교와 정신전력 사이의 관계도 분석한 것이 있다. 최승규은 320명의 부대 장병들을 설문조사하여 군종활동이 군인의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9) 그러나 이 연구는 1995년 어간에 수행된 연구로 6 · 25 전쟁을 포함하지 않는다. 6 · 25 전쟁 당시 신앙과 정신 전력에 대해 간헐적인 언급을 한 연구가 있다. 김기태는 6 · 25 전쟁 당시 군목과 정신전력에 대한 정일권 참모총장의 언급을 기록하며 개 신교를 통한 정신전력을 짧게 설명하였다.10) 강인철은 비판적인 관점 에서 6 · 25 전쟁 당시 군목의 신앙전력화와 연관 있는 기록 두 개를 소개하였다.11)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소개일 뿐. 군목과 정신전 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다. 6 · 25 전쟁 당시 군목의 활동을 소개한 것도 있다. 유선자가 천주교의 군목활동을 언급하였다면, 허명 섭과 박보경은 개신교의 군목활동을 언급하였다. 12) 그러나 아직까지 6 · 25 전쟁 당시 한국 개신교 군목의 활동을 정신전력과 연계해서 연 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6 · 25 전쟁 당시 군목과 신앙군인들의 활동을 통 한 군 정신전력의 향상 여부를 추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정신전력을 평 가하기 위한 방법은 존재한다 13) 그러나 이것을 6 · 25 전쟁에 적용하

⁸⁾ 이준희, "정신전력 인식 지수에 의한 전쟁승패 요인분석," 「OUGHTOPIA」 26 (2011. 8): 100-101. 본 연구 107쪽에 보면, 정신전력의 요소에 신앙도 포함되 어 있다.

⁹⁾ 崔承均, "軍宗活動이 將兵들의 精神戰力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 교 지역개발대학원, 1995), 57-58,

¹⁰⁾ 김기태, "한국 전쟁과 군선교," 「선교와 신학」 26 (2010. 8): 47-48.

¹¹⁾ 강인철, 『종교와 군대』(서울: 현실문화연구, 2017), 134-135.

¹²⁾ 윤선자, "6·25 한국전쟁과 군종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2001. 2): 157-158;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1945-1960』(경기도: 서울신학 대학교출판부, 2009), 294-308. 박보경,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역할." 「선교와 신학」 26 (2010. 8): 118-119.

¹³⁾ 박경수, 한승조, "군 부대 정신전력 비교평가를 위한 AHP 모델," 「대한인간공 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2, 11): 192-197.

는 것은 설문 대상자인 당시의 군인들이 대부분 사망하였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에서 연구자가 언급한 이준희의 연구는 과거의 전쟁의 정신전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전쟁에 대한 자료를 읽은 100명의 사람들의 주관적인 정신전력 평가에 기초한 것이었다. 냉정하게 6·25 전쟁 당시 한국 군인들의 정신전력에 개신교가 군목과 신앙군인들을 중심으로 기여한 바를 현대의 측정 방법에 의해 재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당시 전선에서 싸우던 군인들의 정신전력에 개신교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언급들과 사례들과 정황들을 열거하여 추정의 형태로 정신전력 향상 여부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이다. 당시 개신교와 6·25 전쟁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자료는 개신교 신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기독공보》는 상당히 많은 전쟁과 개신교에 대한 기사를 썼다. 또한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수기도 존재한다. 6·25 이후의 개신교 통사(通史)에서도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중심으로 군목과 신앙군인의 활동과 한국 군인의 정신전력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도록 할 것이다.

용어의 정의와 시기의 범위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벌어진 전쟁에 대해 학계에서는 크게 "6·25 전쟁"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김명섭 교수에 의하면, "한국전쟁"을 사용할 경우 6·25 전쟁 발발 전에 일어난 간헐적인 군사 충돌의 연장선에서 3년간의 전쟁을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기습적 남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다. 14)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군승, 군종, 군목에 대한 용어도 분명히 정의하고자

¹⁴⁾ 김명섭, 『전쟁과 평화: 6 · 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57-59. "6 · 25 전쟁"과 "한국전쟁"의 용어 사용의 실례에 대해서는 김명섭, "전쟁명명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 · 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30 (2009. 2): 74-75. 각주 5를 참고하라.

한다. 시행 초기 군승과로 불렸으나 1951년 4월 14일에 군목과로 변 경되었다.15) 오늘날 군종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군 사제 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개신교와 천주교만 있었고. 명칭 역시 군종목사, 군목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군목, 군목제 도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연구의 시기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의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이다. 경우에 따라 이 시기를 넘어선 자료들도 사용되기는 할 것이나. 대부분 이 기간 안에 있는 자 료들이 본 연구에서 활용될 것이다. 참고로 개신교 신문의 경우 1952 년부터 발견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자료들은 1952년부터 1953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민간 개신교회의 군위문활동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교회의 활동도 다룰 경우 본 연구가 지나치게 많아질 우 려가 있다. 그리하여 군목과 신앙군인. 군인 교회의 활동으로 제한할 것이다.¹⁶⁾

2 개신교의 신앙 전력 활동

가, 군목제도의 설립과 활동 개요

1948년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었고. 이후 6 · 25 전쟁이 발발하자 신앙전력화의 차원에서 군목제도 설립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950년 전쟁 당시 미군에 복무하던 한국인 카투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군목 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쇼우(William E. Shaw, 서위렴) 목사, 천주교 캐롤 안(George

¹⁵⁾ 백창현, 『한국군목회』, 62.

¹⁶⁾ 박동찬 편저,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전쟁의 개요를 알고자 하는 독자가 있다면, 이 책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라.

Carroll, 安) 주교, 그리고 미 극동부 사령부 군종과장 이반 베넷(Ivan L. Bennett) 목사가" 군목제도 창설을 위해 협력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과 한경직, 류형기 목사, 캐롤 안 주교 등의 민간 교회들의 활동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군인들의 신앙 무장을 긍정하게 되었으나 재정 부족을 근거로 난색을 표시하였다. 이에 군에서 보급품(피복과 식량 등)을 담당하고 군목의 경비는 각 종단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문관신분으로 군목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50년 12월 21일, 6 · 25 전쟁이 한창일 때 이승만 대통령이 "비서실 지시 제29호"를 국방부에 하달하면서 군목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육본 인사명령 제31호에 따라 1951년 2월 7일에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가 설치되었다.17)

해군의 경우 더 이른 시기에 군목이 활동하였다. 정달빈 목사는 손원일 해군 총참모장의 요청으로 정훈장교로 임관하여 1949년 1월에 정훈감실에 교화과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군목 활동을 하였다. 그는 동료 목사들을 설득하여 문관 신분으로 정훈감실에 임관하게 하여 공식적인 군목제도 창설에 기여하였다. 이 교화과는 해군 군목과의 비공식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다. 해군본부의 군목실은 1950년 12월 6일에 설치되었다. 공군은 1952년 3월 30일에 조인숙 목사와 이삼복 신부가공군 군목으로 임관하면서 군목제도가 시작되었다. 18) 공군본부에 군목실이 생긴 것은 1953년 4월 3일이었다. 초대 실장은 최성곤 중령이었다. 19)

1954년 4월까지 군목은 개신교에 163명(장로교 153명, 감리교 67명, 성결교 37명, 구세군 3명, 기타 3명), 천주교 35명으로 총 298명이었다. 20 여기에는 정식군목과 보조군목이 있었다. 1952년 4월 1일부

¹⁷⁾ 백창현, 『한국군목회』, 60-62; "베네트小長," 《기독공보》, 1952년 10월 20일, 1. 군목제도 창설에 베넷 군목의 역할은 이 기사를 참고하라.

¹⁸⁾ 백창현, 『한국군목회』, 62-65.

^{19) &}quot;空軍本部에 軍牧室設置," 《동아일보》, 1953년 4월 3일, 2.

²⁰⁾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1945-1960』, 303.

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정식군목이라 하여 군모에 백색 십자가를 달았고, 신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보조군목이라 하여 군모에 청색 십자 가를 달았다 21) 휴전 이후에 이들의 군사 훈련 기간은 2주였다 22) 이 전에 군사훈련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1952년 6월 16일 이전에는 교회에서 군목들의 재정을 다 지원하였 다. 1952년 6월 16일 군인명 제 58호에 의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문관 신분이 되었다. 23) 유급문관으로 선발된 후에도 교회는 "선 교부에서 전시위원회를 통하여"지속적으로 군목을 지원하였다. 각 교파의 교회들은 군목주일을 제정하여 헌금하고 이를 군목 사업비로 제공하였는데. 장로교회의 경우 1953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을 군목 주일로 제정하였다 24) 제주도로 피난을 갔던 함정옥 장로는 군목 한 명의 생활비를 담당하였고. 조남욱, 한오권, 김관호, 김신주 집사는 군목 두 명을 파견하였다. 모슬포 피난민 교회도 군목 한 명을 파견하 였다 25) 유급문관이 되어도 생활비가 넉넉지 않아 교회의 후원을 받 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후원에 육군 총참모장은 감사장을 보냈다. 26)

²¹⁾ 백창현, 『한국군목회』, 109; "國軍救靈戰線에나설," 《기독공보》, 1953년 3월 2일, 1. 1953년 3월 경 군목을 모집하는 기사이다. 당시 정식군목과 보조군목으로 나누 어서 선발하였다. 정식군목의 경우 중학교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아야 했 다. 교단장의 추천과 한국기독교군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구비서류도 완 료해야 했다. 또한 연령은 만 25-45세까지였다. 보조군목의 경우 안수 받을 예정 인 사람으로 나머지는 정식군목과 동일했다. 즉 보조군목은 안수를 받지 않은 신 학교 졸업생이었다. 시험은 논문과 사회와 상식을 보았다.

^{22) &}quot;陸軍第五期軍牧訓練中," 《기독공보》, 1953년 12월 28일, 1. 선발된 군목 〇〇명 은 1953년 12월 7일부터 2주간 육군 제297부대에서 군목교육이 실시되었다.

²³⁾ 백창현, 『한국군목회』, 111.

^{24) &}quot;軍牧主日앞두고." 《기독공보》. 1953년 10월 19일. 2.

^{25) &}quot;十一條로軍門에敎役者派遣" 《기독공보》. 1953년 10월 12일. 2.

^{26) &}quot;各教團軍牧輔助實熊" 《기독공보》 1953년 9월 14일 1. "陸軍本部[육군본부]에 서는 軍牧制度創設以來[군목제도창설이래] 各[각]교團[단]에서 派遣[파견]된 軍 牧[군목]에 對[대]하여 各[각]교團[단]이 直接[직접] 그 生活費[생활비]를 負擔

군목은 전선을 순회하는 일도 담당했다. 군목들이 합창단을 조직하여 전선을 순회하기도 하였다. 27) 전선에서 근무하던 군목도 있었다. 채규락 군목은 1952년 12월에 문관 3급 8호로 육군 군목에 임관하여 1953년 6월 30일 수도사단 1연대에 배속되었다. 휴전을 앞두고 공산군과 접전이 계속되던 때에 공산군들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간신히 피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28)

전선을 넘나드는 왕성한 활동은 종종 사고로 이어졌다. 최초의 군목 전사자는 1952년 2월 22일 오후 8시에 순직한 윤광섭 군목이었다. 그는 어떤 용무 차 "連絡[연락]을 가다가 自動車事故[자동차 사고]로 전사하였"다. 29) 김관수 군목도 순직하여 1952년 10월 12일에 대은감리교회에서 추도예배가 거행되었다. 30) 박춘심 군목(육군제3사단)은 1953년 1월에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치료 받던중 2월 4일에 사망하였다. 그는 후방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받았지만,계속 전방에 남아 근무하다가 외상이 내부로 감염되어 순직하였다. 31) 1956년까지 군목은 총 6명이 순직하였다. 32)

[[]부담]할 뿐 아니라 수많은 종교 書籍[서적]과 粉乳[분유] 衣類 等[의류 등]을 기贈[증]하여 준데 對[대]하여 國軍[국군]의 士氣昂揚[사기앙양]에 많은 功績[공적]이 있었음을 높이 찬揚[양]하고 있으며 이에 對[대]한 具體的[구체적]인 統計[통계]를 作成[작성]하여 總參謀長[총참모장]의 感謝狀[감사장]을 수여키로되었다 한다."

^{27) &}quot;軍牧合唱團音樂예拜," 《기독공보》, 1953년 1월 12일, 1. "육군군목단에서는 지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一선각지로 순회하다 돌아온 군목합창단이"

²⁸⁾ 백창현, 『한국군목회』, 314.

^{29) &}quot;弔!尹光燮從軍牧師金化全線서殉職," 《기독공보》, 1952년 3월 3일, 2; 백창현, 『한국군목회』, 85.

^{30) &}quot;故金寬秀軍牧追悼禮拜," 《기독공보》, 1952년 10월 20일, 1.

^{31) &}quot;朴春心軍牧殉職," 《기독공보》, 1953년 4월 6일, 1; 백창현, 『한국군목회』, 520. 박춘심은 1951년 10월 1일 문관 2급 6호로 임관한 장로교 군목이었다.

³²⁾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韓國基督教宣教100周年紀念韓國說教大全集』, 한국설교대전집출판위원회편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166.

나. 군목과 신앙전력: 설교. 예배. 세례

군목의 목적 중 하나는 신앙을 중심으로 군인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 키는 것이었다. 군목을 통한 정신전력은 반공정신함양과 신앙을 통한 사기 진작이었다. 장로교 총회 군목 위원장 등의 명의로 각 장로교회에 발송한 통지문에는 멸공통일을 위한 신앙무장이라는 군목의 목적이 나 와 있다 33) 그에 따라 정신전력강화를 위한 군목 교육도 진행되었다. 1952년 "七月 二十九日부터 八月二日까지 慶南울山[경남울산]에서 正式 軍[정식군]목 00명이 第二미[제이회]째 軍목補充敎育[군목보충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 2번째는 군 설교에 대한 것이었고, 3번째가 "軍人精神 强化研究도議"[군인정신강화연구토의]. 4번째는 군인봉사에 대한 것이 었다 34) 실제로 군목들은 신앙 장병의 신앙 지도와 불신자에게 신앙을 전함으로 "國軍將兵[국군장병]의 十氣昻揚[시기진작]에 *作[작]을 꾀할 뿐 아니라 最前線[최전선]에까지 軍牧[군목]을 파견하여 戰傷[전상]자를 慰勞看護[위로간호]하"는 활동을 하였다.35) 나사행 군목도 "전선에서 쓰러지는 장병들에게 영혼을 구워하고 절망에 빠진 장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부름받아 군대에 들어온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36) 군목들의 설교는 개신교 선교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신앙 전력화를 위한 메시지도 있었다. 1952년부터 1953년 7월 27일(휴전)까지 개신 교 신문에 나오는 설교 주제들을 분석하는 것은 군목들의 설교의 지향

^{33) &}quot;十一月첫主日은 軍牧主日," 《기독공보》, 1952년 10월 20일, 1. "國軍將兵[국군 장병]으로 滅共統一[멸공통일]의 偉勳[위휴]을 이룸에는 各樣[각양]의 條件[조 건]이 要求[요구]되나 最大急務[최대급무]는 信仰武將신앙무장]의 强化[강화]일 것이다 即人生[즉인생]의 死生觀[사생관]과 來世觀[내세관]을 確立[확립]시켜 良 心力[양심력]을 傾注[경주]하기 위해 지난 總會[총회]에서 軍목委員會[군목위원 회를 구성코 來十一月 첫 丰日은 軍牧主日[군목주일]로 決定[결정]하였으니" 현대 한글에 맞추어 인용하였다. 앞으로 인용될 신문도 현대 한글에 맞추어 인 용하겠다.

^{34) &}quot;軍當局의積極協助밑에." 《기독공보》, 1952년 8월 11일, 1.

^{35) &}quot;國際的聯關性巴軍牧諮問委遂組織," 《기독공보》, 1952년 12월 8일, 1.

³⁶⁾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166.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먼저 신앙전력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설교들을 살펴보자. 1952년 4월 27일에 오천 여명이 해군사관학교 사격장에 운집하여 드린 군민연합예배에서 정달빈 해군본부군목실장(중령)은 "조국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37) 1952년 5월 4일 부산의 해병대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정달빈 군목의 설교 제목은 "소국의 위기"였다. 38) 1952년 6월 8일 "중부전선 보병 제 5202부대"에서 진중교회가 설립되었을 때에 박웅천 군목은 "오늘의 싸움은무력보다 신앙"이라는 격려사를 하였다. 39) 1952년 7월 첫 주에 중부최전선에 진중교회가 설립될 때 신임 유(유영근으로 추정) 군목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남북전쟁과 조국"이었다. 40) "육군제—〇〇부대"에 군목부 창설예배를 드릴 때 박형순 군목은 "군인과 신앙"이라는 설교를 하였다. 41) 1952년 7월 13일에 백령도에 군교회가 설립될 때, 전덕성 군목(대위)의 설교 제목은 "기독교와 공산주의란"이었다. 42) 개신교 신문에 나오는 군목의 설교 제목들 중 총 6편이 신앙전력화와 관련이 있었다.

신앙전력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군목의 설교들도 살펴보자. 육군군의학교에서 1952년 2월 20일에 거행된 주일예배에서 김봉삼 군 목이 한 설교 제목은 "우리의 생활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였다. 43) 5105부대 군인교회가 설립되어 1953년 3월 15일에 현당식을 할 때 이영백 군목은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설교를 하였 다. 44) 해군본부군목실 주최 해군참모총장과 참모부장 취임축하예배 시

^{37) &}quot;군·민연합대예배." 《기독공보》, 1952년 5월 5일, 2.

^{38) &}quot;해병대교회준공," 《기독공보》, 1952년 5월 12일, 2.

^{39) &}quot;진중교회감격," 《기독공보》, 1952년 6월 30일, 2.

^{40) &}quot;진중교회," 《기독공보》, 1952년 7월 28일, 2; 백창현, 『한국군목회』, 585.

^{41) &}quot;육군제百부대 군목부창설," 《기독공보》, 1952년 6월 16일, 2.

^{42) &}quot;해병대도서부대에 군인교회," 《기독공보》, 1952년 8월 11일, 2.

^{43) &}quot;20日主日禮拜," 《기독공보》, 1952년 2월 4일, 2. 백창현, 『한국군목회』, 520. 김 봉삼은 1951년 10월 1일 임관했던 군목이다.

^{44) &}quot;軍人敎會獻堂式盛大," 《기독공보》, 1953년 4월 13일, 1.

정달빈 군목의 설교 제목은 "SOS"였다. 45) 해군본부교회에서 1953년 4 월 2주차 세례식을 거행할 때 정달빈 군목은 "인생의 화학적 변화"라는 설교를 하였다 46) 손원일 해군참모장(중장)이 국방장관에 임명되어 해 군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해군본부군인교회에서는 이임송별예배를 드렸 다. 이 때 정달빈 군목은 "國防국방이 起草[기초]를 兵力[병력]과 經 濟力[경제력]에 둘 것은 勿論[물론]이지만 더욱 重要[중요]한 것은 『참 사랑」이다라고 强調[강조]하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 原因[원인]이 義人 [의인]이 없음에 起因[기인]한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47) 개신교 신문에 나오는 설교 제목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중 5개는 신앙전력과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절기 설교(성탄절, 부활절 등)나 상이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목의 설교는 그 독특성으로 인해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절기설교로는 1952 년 12월 1일에 해군본부에서 있었던 반(반병섭으로 추정) 군목의 "크리 스마스의 환희"라는 설교외48) 1952년 육군1801부대 군인교회의 성탄 축하예배 때 김세환 중위의 "크리스마스의 의의"가 있었다. 49) 상이군 인을 위한 설교로는 1952년 9월 28일 "제 十五육군병원 군인교회"에서 학습 및 세례식이 거행될 때 양세언 군목이 한 "새로운 건설자가 되라" 라는 설교와50) 정달빈 해군군목이 해병대 내의 직업교도소 1회 수료식 때 상이군인들에게 한 "인생항해"라는 설교가 있었다. 51) 총 4편의 설 교는 대상과 시기의 독특성으로 인해 신앙전력화를 강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5) &}quot;海軍總參謀長參謀部長就任禮拜," 《기독공보》, 1953년 7월 27일, 1.

^{46) &}quot;海軍教會聖禮式." 《기독공보》, 1953년 5월 4일, 2.

^{47) &}quot;孫元―海軍中將國防長官就任." 《기독공보》、1953년 7월 13일、1、

^{48) &}quot;海軍X마쓰祝賀會盛況" 《기독공보》 1952년 12월 29일 2; 백창현 『한국군목 회』. 585.

^{49) &}quot;陸軍O部隊祝誕盛況," 《기독공보》, 1953년 1월 12일, 2.

^{50) &}quot;軍人敎會洗禮式." 《기독공보》, 1952년 10월 13일, 2.

^{51) &}quot;상이군인직업교도소." 《기독공보》, 1952년 4월 7일, 2.

이로 볼 때, 개신교 신문에서 발견되는 총 15편의 군목의 설교 제목 및 내용 중 4편은 독특성으로 인해 제외하면, 11편이 남는다. 이 중 6 편이 신앙전력화와 관계된 설교로 50%를 넘는다. 당시 군목들의 일상 적인 설교가 신앙전력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나사행 군목의 언급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철두철미한 반 공사상은 군목들이 있으므로 더욱 강화되고 또 반드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52)

이러한 설교는 실제로 군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어느 날 제3육군 병원의 이동섭 군목은 무저항주의에 대한 설교를 하였다. 이 때 감화를 받은 계 일등중사는 길에 걸어가는 여성에게 농담을 건넨 사병을 타일 렀다가 구타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병이었다. 그러나 설교에 감동을 받은 그는 무력으로 되갚기보다는 복음을 알려주고 용서하였다. 53) 군목들의 설교가 실제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례였다. 신앙전력화를 위한 설교의 효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교회의 설립, 세례, 예배 등은 군목들의 신앙전력화의 영향력 행사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6·25 전쟁 당시 개신교는 군대 내에 교회를 설립하는 활동을 하였다. 1952년 5월 하순에 박웅천 군목이 "중부전선 보병 제 5202부대"에 부임한 이후 동년 6월 8일에 진중교회가 설립되었다. 54) 1952년 7월 첫 주일에는 중부최 전선에도 진중교회가 설립되었다. 55) 1952년에는 "제주도 모슬포에 있는 육군제일훈련소"의 댄스홀이 장도영 준장의 부임 이후 군의 풍기문 란을 이유로 교회로 바뀌었다. 56) 그리고 제주도 제일훈련소에는 훈련소장과 참모들과 박치순 군목이 중심이 되어 석조교회당 설립 계획을

⁵²⁾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168.

^{53) &}quot;無抵抗主義의 勝利," 《기독공보》, 1952년 9월 15일, 1. 이 설교는 제목이 분명하지 않아서 위의 숫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54) &}quot;진중교회감격," 《기독공보》, 1952년 6월 30일, 2.

^{55) &}quot;진중교회," 《기독공보》, 1952년 7월 28일, 2.

^{56) &}quot;댄스·홀이 예배당으로," 《기독공보》, 1952년 3월 10일, 2.

세웠다. 57) 군병원에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1952년 10월 25일에 "민간 인 목사 위두찬"의 노력과 해군부인회와 해군상이군인 20여명의 협력 속에 300명을 수용 가능한 교회가 건립되었다. 58) 1953년 7월 28일에 대전63육군병원 군인교회의 헌당식이 있었다. 59) 개신교 신문에 다 언 급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많은 군교회가 설립되었다. 군목제도가 시 작된 후 1년 7개월 만에 일선군인교회는 52개. 후방의 군인교회는 75 개가 설립되었다. 60) 1956년 4월 25일까지 280개의 개신교회가 설립 되었다. 61)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에서는 개신교 예배가 거행되었다. 62) 예배 참석자들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들도 있다. 경주의 18육군병원에 주일 회집 인원은 4-500명이었다. 63)제주도의 해군교회(군병원 교회)에는 매주 100여명이 예배에 참여하였다 64) 전덕성 군목이 세운 백령도 해 볏대 교회는 500명이 모였고. 류영근 군목이 시무하는 석도에는 570명 이 교회에 모였다 65) 부흥회 때는 더 많은 군인들이 모였다. 육군제일 훈련소에 석조 예배당이 설립된 후 1952년 10월 15일에 황금처 군목의 부흥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오덕준 훈련소장(준장)과 참모들 포함 수 천 명이 참석하였다. 66) 장병대 군인교회와 모슬포 피난민교회와 98군 병원교회의 연합 부흥회가 1953년 3월 14일에 열렸고, 오 훈련소장(소 장) 및 참모들을 포함하여 1.700명이 참여하였다.67)

^{57) &}quot;壯丁精神訓練教會堂곳設立," 《기독공보》, 1952년 3월 10일, 1.

^{58) &}quot;제주도에해군교회." 《기독공보》, 1952년 11월 24일, 2.

^{59) &}quot;六三陸軍病院軍人敎會獻堂式," 《기독공보》. 1953년 8월 10일. 1.

^{60) &}quot;戰時下事業重點主義로生死岐路의軍人傳道부터." 《기독공보》、1952년 11월 17일、1、

⁶¹⁾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166.

⁶²⁾ 개신교 신문에 나온 군 예배들을 참고하라. "군민합동예배." 《기독공보》, 1952년 4월 7일. 2; "국군각부대도부활연합예배." 《기독공보》、1952년 4월 7일. 2; "陸軍 五一〇三部隊教會創立一週年,"《기독공보》, 1953년 7월 20일, 1.

^{63) &}quot;자라는 18병원군인교회." 《기독공보》. 1952년 4월 28일. 2.

^{64) &}quot;제주에해군교회." 《기독공보》, 1952년 9월 1일, 2.

^{65) &}quot;海軍軍牧活動大活潑," 《기독공보》, 1952년 10월 6일, 1.

^{66) &}quot;陸本聖歌隊에." 《기독공보》. 1952년 11월 3일. 1.

또한 각 교회들에서는 결신, 학습, 세례 집례가 있었다. 1952년 1월 24일에 "육군군의학교 군인교회"에서는 김봉삼 군목의 사회 속에 48명 에게 학습 및 세례를 주었는데, 학습인 숫자는 장교가 4명, 사관생도가 16명, 간호장교생도가 13명, 군인가족이 5명이었고, 세례자는 5명, 유 아세례자도 5명이었다.68) 해군본부교회에서 1952년 2월 10일 정달빈 군목의 사회로 세례식 및 성찬식을 진행하였는데, 김일환 국방부 차관 과 최훈섭 육군 중령. 최규남 해군 중령. 김영관 해군 중령을 등 총 15 명이 세례를 받았다.69) "三八위북양양지구"의 군인교회에 승원록 군목 이 부임하여 1952년 5월 24-27일까지 천진리 지구에서 전도 강연을 하여 72명을 결신시켰다. 70) 제주의 해군교회(군병원 교회)에는 1952년 8월 3일에 세례 15명 학습 13명을 주었다. 71) "제十五육군병원 군인교 회"에서는 1952년 9월 28일에 양세언 군목과장의 사회로 91명에게 학 습을 주고 53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72) 1952년 10월 첫 주에 "해병대 도서부대 본부 군인교회"에서는 세례식이 열렸는데. "본부 중대장 김세 권 중위 의무 중대장 소 대위 교육대장 김 중위"등 총 39명이 세례를 받았다 73) 헌병사령부 직속 90헌병대 교회에서 1952년 11월 19일에 대령 1명. 소령 1명. 중위 1명이 세례를 받았다. 74) 1952년 12월 28일 에 제주해군군인교회에서는 김용찬 대위, 윤장로 병조장 외 사병과 환 자 21명이 학습과 세례를 받았다. 75) 일선에 위치한 육군5105부대 이영 백 군목은 1953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정창운 목사(신용교회)를 전 도 강사로 청빙하여 활동하게 하여 11일에 21명에게 학습을, 3명에게

^{67) &}quot;將兵隊軍人교會復興會," 《기독공보》, 1953년 4월 20일, 2.

^{68) &}quot;陸軍軍醫學校敎會서," 《기독공보》, 1952년 2월 4일, 2.

^{69) &}quot;國防部次官도受洗," 《기독공보》, 1952년 2월 11일, 1.

^{70) &}quot;유량한군악연주리," 《기독공보》, 1952년 7월 28일, 2.

^{71) &}quot;제주에해군교회." 《기독공보》, 1952년 9월 1일, 2.

^{72) &}quot;軍人敎會洗禮式," 《기독공보》, 1952년 10월 13일, 2.

^{73) &}quot;海兵島嶼軍人敎會서," 《기독공보》, 1952년 11월 10일, 2.

^{74) &}quot;海兵將校의受洗," 《기독공보》, 1952년 12월 8일, 2.

^{75) &}quot;濟州海軍敎會聖禮式," 《기독공보》, 1953년 1월 19일, 1.

세례를 주었다. 76) 1953년 4월 5일 부활절에 국방부본부군인교회에서 는 이상수 소령 외 20명이 세례를 받았다. 77) 1953년 5월 24일에 해군 사관학교교회에서 전덕성 군목의 주례 하에 학습자 33명, 세례자 10명 이 있었다. 78) 해군본부교회는 1953년 4월 2주차에 권 대령, 민 중령, 김 중령, 구 소령 외 23명의 장병에게 세례를 주었다. 79) 1953년 6월 1 일에 제2군단군인교회에서는 박영환 군목의 주례로 김덕해 중령 외 11 명 장교와 13명의 하사관이 세례를 받았다 80) 개신교 신문에 군과 관 련된 모든 결신자. 학습자. 세례자들의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 나 당시 상당수의 군인들이 이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군목제도가 시작할 때 3%였던 군인 신자율도 1년 7개월 만에 10%가 되었다.81) 1년 7개월 만에 3배의 군인 신자의 성장은 당시 군목의 활 동으로 인해 다수가 결신, 학습, 세례에 동참했음을 의미한다.

특별히 상이군인들의 개신교인화가 눈에 띄었다. 제5육군병원의 한 달 동안의 결신자 숫자는 70명이<mark>었다</mark>. 당시 서승찬 군목이 매일 병실 을 400회 이상 방문하였다고 한다. 82) 당시 육군병원의 규모를 추정하 기 위해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단을 예로 제시하겠다. 스웨덴 적십자 야전 병원단은 1950년 9월 23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상고를 임시 병원으로 활용하였다. 이 때 16개 병실에 200병상을 갖추고 부상병들 을 치료하였다. 나중에는 600병상까지 확대되었다.⁸³⁾ 16개 병실에 200병상이라는 것은 당시 외국 의료부대의 한 병실에 12명 정도 입실

^{76) &}quot;一線軍人교회에復興會," 《기독공보》, 1953년 3월 9일, 2.

^{77) &}quot;國防本部軍人教會처음聖禮式舉行." 《기독공보》, 1953년 4월 20일, 1.

^{78) &}quot;海軍士官學校洗禮式舉行," 《기독공보》, 1953년 6월 29일, 1.

^{79) &}quot;海軍教會聖禮式." 《기독공보》, 1953년 5월 4일, 2.

^{80) &}quot;第二軍團信仰으로武裝" 《기독공보》, 1953년 7월 6일, 1.

^{81) &}quot;戰時下事業重點主義로生死岐路의軍人傳道부터," 《기독공보》,1952년 11월 17일. 1.

^{82) &}quot;군인병원교회의활동상황," 《기독공보》, 1952년 8월 25일, 2.

⁸³⁾ 박지욱.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활동." 「의사학」19 (2010. 6): 193-194; 196; "伊太利病院 再建에 着手," 《경향신문》, 1953년 1월 18일, 2. 참고로 이태리 병원도 200병상을 예상하고 재건에 나섰다.

하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당시 선진국인 스웨덴 야전병원의 병상이 600개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한국 군병원 역시 600병상 을 넘지 못했을 것을 추정케 한다. 최대치로 가정하여 제5육군병원의 병상이 600이라면, 병실은 50개 정도였을 것이다. 매일 400회 병실을 방문한 서승찬 군목은 매일 8-9회 정도 같은 50개의 병실을 방문했다 는 것이고, 한 달 사이에 최대치로 가정된 600명 중 70명이 개신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된다. 최대로 가정해서 600이라는 병상의 수치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27육군병원에서 대구영락교 회 유년주일학생들이 위문공연 할 때 모인 군인들은 100명이었다. 당 시 위문공연은 군인들이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였다. 84) 27육군병원의 위문공연 당시 모이지 않은 군인들과 중화자들을 감안해도 500명을 넘 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85) 제주 98육군병원도 400병상이었다 86) 상이 군인들의 개신교인화 비율이 높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나의 기사를 더 참고해보자. 경주의 18육군병원은 창립 후 1년 동안 세례자 30명. 입교인 5명, 학습인 123명, 결신자 4천여 명의 결실을 보았다. 1952년 4월 첫 주일에는 세례 7명, 입교 3명, 학습 71명이 있었다. 87)

이러한 세례는 단순한 예식 이상의 의미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1953년 해병서해도서부대 본부군인교회에서 1953년 1월 25일에 행해진 55명의 세례 예식의 결과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사병들은 술과

⁸⁴⁾ 백선엽, 『백선엽의 6.25전쟁 징비록 제3권 두려움에 맞서는 법』(서울: 책발, 2017), 66. 백선엽은 전쟁터라는 사선을 넘나드는 군인에게 "후방으로부터 오는 위문공연단은 그야말로 긴 가뭄 끝에 만나는 단비와 같"다라고 하였다.

^{85) &}quot;병상에피는사랑의향기," 《기독공보》, 1952년 9월 8일, 2; 윤선자, "6·25 한국전 쟁과 군종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14 (2001. 2): 172. 천주교 역시 상이군인에 대한 전도 비율이 높았다. 1951년 168명, 1952년 961명,1953년 1,030명 상이 군인에게 영세를 주었다.

⁸⁶⁾ 고성식, "한국전쟁 당시 제주 98육군병원 ··· 쓸쓸히 시라져 간다," 《연합뉴스》, 2016년 6월 2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3/02000000000AKR20160623 131100056,HTML?input=1195m(2018년 3월 30일 검색했음).

^{87) &}quot;자라는 18병원군인교회." 《기독공보》, 1952년 4월 28일, 2.

담배와 악행을 뉘우쳤고. 기도 시간에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그리고 군목에게 해병대원들이 전화로 또는 찾아와서 새사람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많았다. 참고로 세례 받은 사람 중에는 장교들도 많았 다. 88) 군목을 통한 세례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군목을 통한 교회 설립. 예배. 세례 등을 통해 개신교를 받아들인 군인 들이 군목이 강조했던 신앙전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계속 언급하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 육군 1199부대 최영환 군목은 「만나」라는 개신교 잡지 를 발행하여 문서전도를 하였는데, 성적이 좋았다고 한다 89) 이 기 사 외에 이 잡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신앙전력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 군목과 신앙전력: 위문활동

6 · 25 전쟁 당시 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싸웠다. 특히 제공된 식 사는 상당히 열악하였다. 훈련소에서는 새우젓이나 소금을 얹은 주먹 밥과 국이었고. 전선에는 국도 제공받지 못했다. 겨울에는 꽁꽁 언 주 먹밥 하나 먹고 전쟁에 나가야만 했다. 90) 열악한 식량 사정은 병사들 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1952년 26사단 양영배 군목(대위)은 소금 발린

^{88) &}quot;海兵敎會에 聖禮式盛大." 《기독공보》, 1953년 2월 9일, 2.

^{89) &}quot;陸軍第——九九部隊," 《기독공보》, 1952년 2월 4일, 2.

⁹⁰⁾ 홍원기, 『6·25 참전 언론인들의 생생한 증언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서울: 社團法人大韓言論人會, 2013), 98. 송두빈의 증언. "강원도 춘천 북방에 이르자 벌써부터 포성이 들려왔다. 꽁꽁 언 주먹밥 한 덩어리를 받아먹고 즉시 전투에 투입됐다." Ibid., 183. 이종식의 훈련소 시절 증언. "민가에서 얻어온 식 기는 거의가 밑바닥이 삭아 그릇에 밥을 푸고 그 위에 국물을 부으면 국물은 모 두 아래로 빠지고 밥은 소금기만 약간 남는 형국이었다." 이후 보충대(경기여고) 에서 제공받은 식사는 "흰 쌀밥에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새우젓을 얹은 주먹밥" 이었다. Ibid., 195. 지용우에 따르면, 훈련소 신병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설익은 보리밥과 소금국에 가까운 시금치국이 전부였다."

주먹밥 한 덩어리만 먹고 참호공사를 하는 사병들이 식사 배급에 불만을 품고 단식투쟁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91)

사회에서도 이러한 군인들의 어려운 환경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경향신문은 군인들에게 담배와 휴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92) 동아일보도 "丹誠[단성]의 慰問品[위문품]을 보내는 無名[무명]의 愛國運動[애국운동]을 全開[전개]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93) 공보처에서는 1951년 위문문을 모집하여 5편을 일선장병에게 보내기도 했다. 94)

군목들도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위한 위문과 위문품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군목들을 중심으로 위문 활동이 전개되었다. 1952년 성탄절에 해군본부 군인교회는 정달빈 군목을 중심으로 축하위문단을 조직하여 전방에 위문공연과 위문품 증정을 할 예정이었다. 95) 박창번 군목(대위)은 서부전선으로 위문을 가서 제주도도민들이준비한 위문품(미역, 간어, 오징어 등)을 나누어주었다. 이에 장병들은 "오늘은 연대장님 생일이야!"라는 환호성과 함께 만족하였다. 96) 1952년 10월 26일에 정달빈 군목이 대장으로 있던 해군어린이합창단은 국방부군인교회에서 예배의 형식으로 위문공연을 했다. 97) 1953년 4월 26일에 해병대사령부교회는 유명한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음악예배를 드렸는데. "혜델의 할렐루야"도 불렀다 98)

군목들은 사회에 군인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해병

⁹¹⁾ 백창현, 『한국군목회』, 313.

^{92) &}quot;一線의 소리," 《경향신문》, 1953년 1월 9일, 2.

^{93) &}quot;無名의 愛國者." 《동아일보》. 1951년 11월 29일. 1.

^{94) &}quot;一線의 소리," 《동아일보》, 1951년 3월 21일, 2.

^{95) &}quot;慰問文集傳達 公報處서 一線將兵에게," 《기독공보》, 1952년 12월 15일, 2.

^{96) &}quot;一線慰問記," 《기독공보》, 1952년 9월 15일, 2; 백창현, 『한국군목회』, 585. 박창 빈으로 중종 기사에 소개되는 경우가 있으나 박창번이 실명이다.

^{97) &}quot;國防部軍人教會禮拜," 《기독공보》, 1952년 11월 3일, 1; "해군 어린이 음악대," 《기독공보》, 1952년 7월 28일, 2. 정달빈 군목이 이 해군어린이합창단의 대장이라는 내용은 이 기사를 참고하라,

^{98) &}quot;海兵司令部敎會音樂禮拜." 《기독공보》, 1953년 5월 4일, 2.

대 사령부 군목실장" 박창번은 전몰유가족의 위로와 원호물자 분배의 목적 하에 제주도를 방문하였는데, 이 때 제주도만들은 제주도 출신 장 병들의 전공을 듣고, 1952년 6월 2일에 위문문과 위문품을 박창번 군 목에게 보내왔다. 이러한 위문품은 떡국과 생선 등이었고, 박 군목 은 후방의 위문품 지원을 적극 권장하였다 99) 여기서 제주도민들이 개 신교인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언급은 없다. 일반 민간인으로 보이 며, 박창번 군목에게 위문품을 보낸 것으로 보아, 박창번 군목의 제주 도 방문 당시에 박 군목이 군 위문품과 관련된 홍보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박창번 군목은 위문품의 중요성을 종종 언급하였다. 그는 서부전선을 위문하면서 군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소개하면서 "後 方國民[후방국민] 여러분에게 積極 要請[적극 요청]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慰問文品[위문문품]을 戰線[전선]에 보내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100)

하와이 동포들이 1952년 4월에 보낸 의류 555포대는 해군본부 군목 실로 들어왔다 이것은 해군과 해병대와 문관 전원에게 분배될 예정이 었다 101) 군목실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동포들이 개신교인이었을 가능 성과 군목이 하와이에 홍보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상이군인들에 대한 군목의 관심은 국가가 병든 군인들을 끝까지 돌 본다는 확신을 준다는 점에서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다.102) 참고로 군인병원의 상황은 열악했다. 군인병원은 초

^{99) &}quot;제주도민일선장병에위문품," 《기독공보》, 1952년 6월 30일, 2.

^{100) &}quot;一線慰問記." 《기독공보》, 1952년 9월 15일, 2.

^{101) &}quot;하와이거류동포의애족심," 《기독공보》, 1952년 5월 26일, 1.

^{102) &}quot;敎界聲援軍士氣에反映," 《기독공보》, 1952년 8월 18일, 1. 한국 교회는 1952년 7월 15일-7월말까지 상이군인의 보훈을 위한 의연금 모금 운동을 벌였고, 국방 부 장관은 자신의 명의의 감사장을 개신교계(구세군,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에 보냈다. 여기에는 상이군인 원호 운동이 군사기 진작에 유익할 것임이 분명히 나왔다. "이 事業[사업]의 成*는 그대로 우리 一線將兵[일선장병]의 士氣[사기] 에 反映[반영]되어 人間의 尊嚴性인간의 존엄성]을 無視무시]하며 神[신]을 冒 [모]독하는 共產侵略者[공산침략자]의 頭上[두상]에 鐵[철]추가 될 것이며"

등학교와 일반 건물들을 임시로 사용하는 수준이었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학순이 1951년 4월-5월경에 제3육군병원에 입원했을 때. 상이군인 300여명은 토성초등학교 강당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20명당 한 명의 위생병이 배치되어 돌보았다 103) 이런 상황에서 군목들은 상 이군인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육군병원에 군목으로 근무하 던 황복연 전도사는 교회와 병원을 연계시킬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상이군인을 위문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대구광유회사, 조선양조회사, 한국은행, 조선수산주식회사 등에서 위문품을 보내왔다. 104) 1953년 3월 23일에 육군군목들은 회의를 하였고. 고난주간에 시내의 여러 육 군병원에 위문하며 전도하기로 하였다. 105) 1953년 6월 28일에 육군본 부 군목부 주최로 대구중부교회에서 육이오기념음악예배를 드렸는데. 이 때 드려진 헌금 전부는 제일육군병원의 상이군인의 위문금으로 쓰 였다. 106) 그러나 이러한 군목들의 상이군인을 위한 위문활동이 당시 민간 교회들의 활동에 비해 왕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5육군병 원 2볏동 군인교회에서 7월 한 달간 12번의 위문활동이 있었는데, 이 중 군목의 활동은 사과와 수박 대접, 단 한차례였고, 하나는 사회부장 관의 우유 기부, 나머지는 선교부와 개신교 학교 및 교회들의 활동이 었다 107)

오히려 군목들의 상이군인에 대한 활동은 사회 재활 훈련에 집중되었다. 부상의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는 상이군인들이 있었다. 군목들은 장애로 전역한 부상병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정달빈 해군군목실장

¹⁰³⁾ 지학순, 『내가 겪은 공산주의』,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257. Ibid., 188. 참고로 전쟁 초기에 부산에 마련된 육군병원에는 부상병들이 매일 밀려들어 왔고, 병원인력부족으로 상이군인들에 대한 치료와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104) &}quot;大邱教會陸病慰問." 《기독공보》, 1953년 1월 5일, 2,

^{105) &}quot;傷痍軍人信仰干證會," 《기독공보》, 1953년 4월 6일, 1.

^{106) &}quot;六·二五記念音樂禮拜," 《기독공보》, 1953년 7월 20일, 1.

^{107) &}quot;군인병원교회의활동상황," 《기독공보》, 1952년 8월 25일, 2.

의 중재로 해군부인회에서 40만원을 기부 받아서 해병대 내에서 직업 교도소가 시작되었다. 소장은 박창번 군목이었고, 4달 동안 시계부, 사 진부. 영문타이핑부 등이 교육되었다. 그 결과 1952년 3월 31일 1회 수 료식 때 17명이 새롭게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08) 1953년 11월 10일에 서울 해군본부에는 해군기술교도소 서울분실이 설치되었는데. 소장은 박창번 군목이었다. 해군부인회에서 이 기관에 상이군인과 전 쟁미망인을 위한 성금을 보낸 것으로 보아 상이군인을 위한 시설이었 을 것이다 109)

라 신앙군인들의 활동

6 · 25 전쟁 당시 한국 군대에는 개신교인들이 있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 3일을 앞두고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최예송은 부산영락교회 교인 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고한 신앙인이었다. 110) 김현일 공군 대위는 월남 개신교인으 로 공군에 복무하여 전투기를 타고 출격하던 중 적에게 발견되자 적진 에 자폭하여 전사하였다 111) 최용덕 공군참모장도 신실한 개신교인이 었다 그는 미국 공군 시찰을 위해 도미하게 되었다 112) 해군총참모장 으로 복무하다가 1953년 6월 30일에 국방장관에 임명된 손원일 중장 도 개신교인이었다 113) 2대 해병대사령부 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된 김

^{108) &}quot;상이군인직업교도소." 《기독공보》, 1952년 4월 7일, 2; "신앙적직업인으로." 《기독공보》, 1952년 6월 9일, 2, 2회 수료식은 1952년 5월 31일에 있었고, 총 7명이 수료하였다. "海軍傷痍軍人," 《기독공보》, 1952년 12월 1일, 1. 1952년 11월 26일에는 박창번 군목의 사회 하에 3회 수료식이 있었다. "海軍傷痍軍人 技術矯導所四次修了." 《기독공보》. 1953년 7월 20일. 1. 4회 수료식은 1953년 8월 15일에 거행될 예정이었다.

^{109) &}quot;海軍技術矯導所서울分室設置." 《기독공보》, 1953년 11월 16일, 1.

^{110) &}quot;空軍卒業三日앞두고崔君天國에被召." 《기독공보》, 1953년 4월 6일, 2.

^{111) &}quot;信仰靑年金賢一空軍大尉敵軍에自爆," 《기독공보》, 1953년 7월 6일, 1.

^{112) &}quot;空軍參謀長崔將軍渡美." 《기독공보》, 1953년 11월 2일, 1.

석범 소장도 독실한 개신교인이었다. 이에 해군본부 군목실에서는 취임축하예배를 드렸다. 114) 김재걸 대위는 한경직 목사와 함께 월남한 고아 출신으로 6·25 참전용사였다. 115) 군인유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구제하고 자신의 모교회의 개신교 군인가족들의 생계를 구제하기도 한김응회 중령은 모친이 집사고 형은 장로인 개신교인이었다. 116) 전쟁 발발전에 개신교인으로 군복무 하던 지휘관들도 있었다. 백인기 보병제 12연대장(중령)과 전찬영 12연대 3대대장(소령)은 민간 목사들을 초빙하여 군에서 주일예배를 거행하였다.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후 정원형 중위와 한병근 소위(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 한석진의 손자)는 미군의 교회에서 개신교 집회를 개최하여 400여명이 모이기도하였다. 117) 원용덕 장군은 "북한 기독교 목사의 아들"이었다. 118) 그 외에 박경화, 오자복, 이홍균, 채명신, 박세직, 신태영, 박창원, 이민영, 정득만, 조주태도 신앙 군인이었다. 119)

개신교 군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개신교 전도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개신교 신앙의 사생관을 기초로 신앙전력화를 촉진하였을 가능성에서. 군목들과의 연대를 통해 신앙전력화의 메시지를

^{113) &}quot;孫元一海軍中將國防長官就任,"《기독공보》,1953년 7월 13일, 1. 그는 해군을 떠나게 될 때 해군본부군목실에서는 이임송별예배를 드렸다. 군인교회는 그에게 신구약 성경을 선물로 주었고, 그는 "이 말씀에 依[의]하여 忠誠충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육의 糧食[양식]보다 영의 糧食[양식]을 받도록 努力[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重責[중책]에 最善[최선]을 다할 闠다]오이다"라고 말했다.

^{114) &}quot;海兵隊司令官金錫範少將就任祝賀禮拜," 《기독공보》, 1953년 11월 16일, 2.

¹¹⁵⁾ 김병희 편저, 『한경직목사』, 70-71.

^{116) &}quot;武人信仰美談두토막," 《기독공보》, 1953년 9월 14일, 1.

¹¹⁷⁾ 백창현, 『한국군목회』, 105-106.

¹¹⁸⁾ Kai Yin Allison Haga,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American Missionaries in the Rise of Korean Nationalism, Anti-Colonialism, and Eventual Civil War," (Phd diss.,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in Virginia, 2007), 307.

¹¹⁹⁾ 군복음화후원회 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서울: 쿰란출판사, 1993) 여기에 해당 인물들의 참전 수기가 나오니 참고하라.

듣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희섭 제3육군병원 의 원장(대령)은 군목제도 설립 전부터 전도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덕성 군목이 부임한 후 1952년 1월 10일에 기독청년회를 조직 하였다. 여기에는 정희섭 대령과 전덕성 군목 외에 김남규 중령, 김종 호 대위, 전동연 전도사, 이윤실 대위, 우병익 하사 등 간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20] 육군제7758부대는 군목이 없는 상황에서 김세환 중위 의 노력으로 신앙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산주 군목이 부임하자 교회의 업무를 군목에게 이양하였다. 이 부대에는 신학교 졸업 장교가 2명이 더 있었다 121) 광주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영도 소령은 독실한 개신 교인으로 장병들에게 전도도 하고 주일을 성수하였다. 122) 사병이 전도 활동에 매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군본부통신대 소속 박재암 수병 등 은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하였고. 이에 20명이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123)

특별히 지휘관들이 개신교인일 경우 개신교의 활동이 힘을 받았다. 개신교 지휘관들은 그들의 부대의 개신교 행사에 참여하여 개신교를 지지해주었다. 1952년에 백선엽은 군단장은 "육군제—〇〇부대"에 박형 순 군목의 배속의 결과로 생긴 군목부 창설 예배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였다 124) 각 부대 개신교 지휘관들에 의해 군부대의 행사가 개신교 군목의 기도로 시작과 폐회되는 경우도 있었다. 1953년 7월 21일 공산 군 4만이 죽은 "金城會戰"[금성회전]에서 한국군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 을 했던 것이 "북한산 부대"라는 별명을 가진 한관흥 대령의 부대였다.

^{120) &}quot;第三陸軍病院에," 《기독공보》, 1952년 1월 21일, 2.

^{121) &}quot;陸軍七七五八部隊陣中教會消息," 《기독공보》, 1953년 7월 6일, 2.

^{122) &}quot;믿음으로싸운勇將," 《기독공보》, 1953년 8월 3일, 2. 그는 전투 중 부상을 입 어 제일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동래정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다시 전투에 투입하여 싸우다가 1953년 7월 22일에 사망하였다. 그는 유엔 훈장과 국군 금성훈장 은성훈장 외 많은 훈장을 받은 인물이었다.

^{123) &}quot;金水兵傳道에도勇敢," 《기독공보》, 1953년 3월 23일, 1.

^{124) &}quot;육군제百부대 군목부창설." 《기독공보》, 1952년 6월 16일, 2.

이 부대는 백암산을 돌파해서 금성천 인근 3개 고지를 사수하여 적군의 후방을 기습할 수 있었다. 이 부대의 김광순 부부대장(중령)은 독실한 개신교인으로서 중요할 때에 군목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였다. 125) 전후의 기사이긴 하지만, 참고할만한 것이 있다. 상무대 포병학교에서는 포병창설 5주년을 맞아 1953년 11월 10일에 기념식을 하였는데, 행사 전에 박영환 군목이 기도를 하였고, 폐회식 역시 박영환 군목의 축도로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심흥선 포병학교장(대령)이 신실한 개신교인이었고, 김계원 교감(준*)은 장로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있었다. 126) 육군제1*03공병단은 창립 3주년 기념식을 1953년 11월 14일과 15일에 행하기에 앞서 14일에는 신축한 군인교회 봉헌식을 하였고, 15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진행하였다. 이 부대는 모든 행사의 첫 시간은 예배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개신교인인 박기석 공병단장(대령)과모한영 부단장(중령)의 영향이 컸다. 박 대령은 군목 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모 중령은 장병의 신앙을 격려하였다. 127) 전후의 이런 모습들은 전쟁 중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개신교 지휘관들은 소속 장병들에게 개신교 신앙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중부전선의 육군제8753 박기병 부대장(준장)은 개신교인으로서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고 전 장병이 교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으며, 서종철 부부대장(대령)과 박남표 참모장(대령)도 박 장군을 도와 개신교에 협조적이었다. 128) 육군8057부대 김광순 부대장(중령)은 독실한 개신교 인으로 자비로 성경과 찬송가와 전도무서를 사서 고지의 사병들에게

^{125) &}quot;血海이룬中部戰線," 《기독공보》, 1953년 8월 3일, 2.

^{126) &}quot;李大統領信仰을激勵," 《기독공보》, 1953년 11월 30일, 1. 이 학교에서 사 관후보생들은 7시간 이상 군목교육을 받아야 했다.

^{127) &}quot;記念行事는禮拜로始作," 《기독공보》, 1953년 11월 16일, 1.

^{128) &}quot;信仰常勝의 八七五二部隊," 《기독공보》, 1953년 9월 21일, 1. 박 장군은 "공비토벌王"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 장군은 부대의 대사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참모회의 시간에는 군목의 기도 후에 시작했으며 군목의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나누어주며, 예배시간에 스스로 종을 울려 병사들의 참여를 독려하였 다 129) 해병김포부대 심희락 부대장(소령)과 김한서 부부대장(소령)은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도움과 반병섭 군목의 노력으로 매주 개신교 입 교자가 40여명에 달했고. 월 150명의 입교자가 생겼다. 130)

지휘관이 신앙전력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앙심이 깊었던 김 성은 대령은 미군 군목에게 해병대 장병들의 궁핍한 생활을 이야기하 여 구호물자 300여 상자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것을 장병들의 가족 들에게 나누어주었다.[31] 그는 수도방어에 투입된 해병대 제일전투단 의 부대장으로 1952년 11월에 부임하면서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 하며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信仰[신앙]안에서 다윗이 敵將[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民族[민족]과 궤國[조국]을 救援[구위]할 것과 같이 우 리도 信[신]앙 안에서 敵[적]을 물리치고 民族[민족]과 相國[조국]을 救 援[구원]합시다." 그리고 군목과 함께 군 복음화를 위해 활동하여 야전 예배당도 건립하였다. 오명복 부부대장(중령) 등 참모들도 개신교인이 많았다 132)

3 결과 : 개신교는 무형의 정신전력

실질적으로 군목과 정신전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2건의 글이 있 다. 6 · 25 당시 중령이었던 박창원의 글과 손원일 제독의 부인인 홍 은혜의 글을 살펴보자.

^{129) &}quot;武人信仰美談두토막." 《기독공보》, 1953년 9월 14일, 1.

^{130) &}quot;每週日決信者40名." 《기독공보》, 1953년 10월 26일, 1.

^{131) &}quot;將兵家族의生活까지돌아보는信仰武人金聖恩大領," 《기독공보》, 1953년 7월 20일, 1.

^{132) &}quot;我海兵隊의信仰武裝." 《기독공보》, 1953년 1월 19일, 1,

용문산 전투에 앞서 그분들을 모시고 전부대원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신부님은 영세를 주셨고). 세례를 받고서 정신 무장이 된 우리 부대원들은 그 전투에서 적 4천 5백명을 생포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훗날 나는 국방부에서 전사를 보고하는 가운데서 말했다. "이 전투의 승전 원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항공기의 엄호가 주효했고, 또 하나는 믿음이었다. 모든 병사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죽음의 공포를 떨치고서 담대히 나가 싸웠기 때문이다."133)

어느날 정일권 대장이 손원일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중공군의 남침이 치열하여 국군은 점점 남쪽으로 밀려내려만 오고 모두 용기를 잃고 있었으며 아무리 위험을 헤쳐나가자고[sic] 외쳐도 연대장의 명령이 도무지통하지 않아 한사람도 일어날 생각조차 안하고 있을 때였다. 연대장은 생각끝에 군목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목사는 곧 일어서서 장병들과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 후 "국군여러분, 당신들의 한발자국 전진은 대한민국의 전진이요, 당신들의 한발자국 후퇴는 곧 대한민국의 후퇴입니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다일어납시다"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국군은일제히 일어나서 고지로 고지로 전진하여 위기를 면했다고 하며 군목제도의실시에 감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134)

군목의 신앙전력화 활동이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사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군목의 세례를 통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향상하였다. 그리고 군목의 찬송, 기도, 설교를 통해 군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군목의 활동과 신앙전력화를 말하는 기록들은 이이상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추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연구자는 아래에서 다양한 기록들을 종합해서 이를 논증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135)

¹³³⁾ 박창원,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열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75.

¹³⁴⁾ 홍은혜.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서울: 가인기획, 1990), 168-169.

¹³⁵⁾ 군목과 연관된 것은 아니나 개신교의 사생관과 정신전력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기록이 있다. 채명신, "하나님의 가호로 사선을 뚫다," 『역경의 열매-기적의 수수

가. 부대장들의 개신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평가

1950년 3월부터 6월초까지 9주간 한국에서는 밥 피어스 목사 (Rev. Bob Pierce)를 중심으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부산, 개성 을 포함하는 전국복음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 에서 뿐 아니라 군대에서도 이들의 집회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 믿음이 공산주의 침투를 억제하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136) 군대에서 개신교가 반공의 도구임을 인식하고 집회를 요청했던 것이다. 개신교가 군대 정신전력에 도움이 된다면, 군 지휘관 들은 개신교를 적극 장려하게 된다. 그러나 개신교가 군 정신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개신교를 지휘관 차원에서 굳이 장려할 이유가 없다. 군대 지휘관들의 개신교에 대한 태도는 개신 교의 신앙전력화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

사실 처음 군목제도가 실행되었을 때, 부대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 았다. "師團長[사단장]이나 參謀[참모]들까지 軍牧業務[군목업무]에 對 [대]한 아무런 認識[인식]이 없던 當時[당시]의 苦痛[고통]스럽던 이야 기는 참말 후방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 장교들은 군목을 마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병들은 의무 담당관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137) 군목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 군 부대장들은 군목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았고. 참모의 자격도 부

께끼」, 조용우 편 (서울: 국민일보 출판국, 1991), 57. "태백산 공비토벌이 종료 된 뒤 6·25가 일어났다. ...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큰 공포는 없다. 그러나 내세를 믿는 이에게는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영생과 기쁨이 있을 뿐 고통이 없는 내세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 고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치밀한 작전, 골육지정의 통솔을 통한 인간적 단결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¹³⁶⁾ Kai Yin Allison Haga.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American Missionaries in the Rise of Korean Nationalism, Anti-Colonialism, and Eventual Civil War," 304-306.

^{137) &}quot;軍牧草創期의애路도듣고." 《기독공보》, 1953년 12월 7일, 2.

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 7개월가량 지났을 때에는 참모의 자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군목이 없이는 전투에서와 상이군인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인정하였고, 일부 지휘관들은 전쟁에 군목의 동행을 요구하였다. 138) 실제로 1956년 4월 27일 밤에 장도영 육군참모차장(중장)은 개신교인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대항하는 기독교가 부흥하며 군대에 군목이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만은 세계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군목들에게" 말했다. 139)이는 군목을 통한 정신전력을 부대 지휘관들이 현장 속에서 확인하였음을 말해준다. 지휘관들이 군목들의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많다. 그 사례들을 기사들을 통해 확인해보자.

부대장들은 자신의 부대에 교회가 설립될 때 참여하여 격려사와 현금을 하며 교회 설립을 돕는 경우가 많았다. 1952년 5월 4일 부산의해병대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뿐 아니라 "함태영 심계원장, 국회의원 박영출 씨, 국방차관 김일환 씨, 해군총참모장 손원일중장 및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소장 기타 여러 장성"들이 참석하였다. 140) 1952년 7월 첫 주일 중부최전선 지구에 진중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정 부대장은 격려사와 함께 십만 원의 헌금을 바쳤다. 141) 1952년 7월 13일에 백령도 해병대 교회 설립 당시 연대장이 참석하여 인사하였다. 142) 1953년 6월 4일에 육군제7255부대의 군인교회 헌당예배는 300명이 회집한 가운데 한충렬 부대장(대령)이 축사를 하였다. 143) 육군병참학교에 군인교회가 설립되고 1953년 6월 28일에 헌당예배를 드릴 때, 문태봉 학교장(대령)과 장병 200명이 참석하였고, 문 대령이축사를 하였다. 144)

^{138) &}quot;戰時下事業重點主義로生死收路의軍人傳道부터,"《기독공보》,1952년 11월 17일, 1.

¹³⁹⁾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168.

^{140) &}quot;해병대교회준공," 《기독공보》, 1952년 5월 12일, 2.

^{141) &}quot;진중교회." 《기독공보》, 1952년 7월 28일, 2.

^{142) &}quot;해병대도서부대에 군인교회," 《기독공보》, 1952년 8월 11일, 2.

^{143) &}quot;七二五五部隊軍人敎會設立," 《기독공보》, 1953년 7월 6일, 2.

군인교회의 일반 행사(부흥회 및 예배)에도 부대장들이 참여하였다. 1952년 성탄절에 육군 1801부대 군인교회 성탄예배에 박정채 부대장 (대령)이 참석하였다. ¹⁴⁵⁾ 1953년 1월 4일부터 한 주간 백령도 해병대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군민이 다수 참석하였고, 특별히 김두찬 부대장(대령)도 참석하였다. 146) 1953년 3월 14일에 장병대군인교회와 모슬포피난민교회와 98군병원교회의 연합 부흥회가 열렸을 때. 오 훈 련소장(소장) 및 참모들이 함께 하였다. 147) 1953년 4월 26일 해병대사 령부 교회에서 진행된 음악예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참여하였다. 148) 1953년 6월 10일에 31육군정양병원 군인교회가 신축되자 당일에 전재 선 목사의 부흥회가 있었다. 이 때 김남규 병원장(대령)이 참석하였 다.¹⁴⁹⁾ 1952년 6월 14일 육군군의학교 졸업 화송 예배 때 "부교장 김 영히 대령을 위시하여 오 중령, 본부사령 선우 중위가" 참석하였다. 150) 제7회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을 맞아 해군사관학교 교회에서는 1953년 5월 28일 전덕성 군목의 사회 하에 환송예배를 드렸는데. 이 때 해군 사관학교 교장이 참여하였다. 151)

개신교 행사에 참여한 군 간부의 격려사에 신앙전력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해병대의 한 연대가 새롭게 창설되는 것을 경축하기 위 한 축하음악예배가 초청된 교회 찬양대들과 진해여중 학생들의 조력 하에 해병대 군목실 주관으로 거행되었을 때. 연대장을 대신하여 부연 대장은 모인 2.500명의 "전장병에게 信[신]앙과 勝利[승리]에의 確 [확]고한 信念[신념]을 고무"했다. 152)

^{144) &}quot;陸軍兵站學校에軍牧配屬" 《기독공보》, 1953년 7월 27일, 1.

^{145) &}quot;陸軍○部隊祝誕盛況." 《기독공보》, 1953년 1월 12일, 2.

^{146) &}quot;海兵隊進駐이래活氣띠는白領島의福音運動," 《기독공보》, 1953년 2월 9일, 2.

^{147) &}quot;將兵隊軍人교會復興會." 《기독공보》, 1953년 4월 20일, 2.

^{148) &}quot;海兵司令部敎會音樂禮拜," 《기독공보》, 1953년 5월 4일, 2.

^{149) &}quot;三一陸軍靜養病院復興會大盛況" 《기독공보》 1953년 6월 29일 2.

^{150) &}quot;위정장교환송음악예배," 《기독공보》, 1952년 6월 23일, 2.

^{151) &}quot;海士第七期卒業生"迎禮拜盛大,"《기독공보》, 1953년 6월 15일, 1.

^{152) &}quot;海兵隊第O聯隊創立祝賀禮拜舉行." 《기독공보》, 1953년 9월 21일, 2.

부대장들이 교회 설립에 감사장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의 육군제일훈련소 군인교회가 천 평 규모로 설립되어 1952년 10월 14일 11시에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 때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큰 기여를한 박치순 군목, 최중갑 중위, 관대석, 서명복 하사에게 오덕준 훈련소장이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153] 훈련소장이 단순히 참관한 것을 너머 교회 설립에 노고가 있는 인물들에게 표창을 했다는 것은 당시 군 지휘관들이 교회를 군 정신전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았음을 암시한다.

개신교인들의 행사에 부대장이 감사장을 수여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군제일훈련소에 석조 예배당이 설립된 후 1952년 10월 15일에 황금천 군목의 부흥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오덕준 훈련소장과 참모들 포함 수천 명이 참석하였다. 이후 황 군목과 성가대는 각 숙영지를 방문하여 소집회를 열었다. 이러한 성가대의 활동에 오덕준 훈련소장은 감사장을 주었다. 154) 대한신학교 학생 4인이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중부전선을 방문하여 위문 활동을 하였다. 이 때 그들은 적과의 거리가 1km정도인 최전방에까지 가서 위문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최전방을 오래 순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며, 김문봉 2사단장(소장)은 감사장을 증정하였다. 155) 휴전 이후의 일이다. 1953년 8월 15일에 춘천중앙교회 신도 40여명이 육군제7839부대에서 위문공연을 하자 고광도 부대장은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156)

^{153) &}quot;陸—訓에흘入한石造敎會," 《기독공보》, 1952년 11월 3일, 1.

^{154) &}quot;陸本聖歌隊에," 《기독공보》, 1952년 11월 3일, 1.

^{155) &}quot;最前方慰問은이번이처음," 《기독공보》, 1953년 2월 16일, 2.

^{156) &}quot;春川中央教會서七八三九部隊慰問,"《기독공보》, 1953년 8월 31일, 1. 이 외에 국군 군목은 아니나 감사장을 받은 경우들도 있었다. "從軍宗教記者부쉬버氏 에感謝狀,"《기독공보》, 1953년 9월 24일, 1. "기독교 信者[신자]로서 後方地區濟州[후방지구 제주]도 第一訓련所[제일훈련소]를 비롯하여 —선지區[구]까지 慰問[위문]하여 많은 宗教書籍[종교서적]을 配布[배포]하여 주었으며 軍인教회 [군인교회] 형편을 映畵[영화]로 촬영하여 海外[해외]에 宣傳선전]하여 준 濠 洲從軍기者[호주종군기자] 「다그라스・부쉬버,씨에 對[대]하여 陸軍總參謀長

특별히 군목 파송에 총참모장이 개신교계에 감사장을 보냈다.

陸軍本部[육군본부]에서는 軍牧制度創設以來[군목제도창설이래] 各[각]교團[단] 에서 派遣[파견]된 軍物[구목]에 對[대]하여 各[각]교則[단]이 直接[직접] 그 生活 曹[생활비]를 負擔[부담]할 뿐 아니라 수많은 종교 書籍[서적]과 粉郛[분유] 衣類 뙼의류 등]을 기뻐(증)하여 준데 籿대(하여 國軍[국군]의 十氣昂揚(사기) 양에 많은 功績공제이 있었음을 높이 찬揚(양)하고 있으며 이에 對대[한 具體却구체 적인 統計[통계]를 作成[작성]하여 總象謀長[총참모장]의 感謝狀[감사장] 을 수여키로 되었다 한다 ¹⁵⁷)

더 나아가 부대장들이 교회 설립을 계획하였다. 1952년 6월 8일 중 부전선의 보병제5202부대에 교회가 설립된 것은 부대장과 참모들의 협 력 속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대장은 설립 예배에 참석하였다. 158) 육 군제5105부대 군인교회가 설립되는 데는 미군의 원조도 있었지만, 사 단장과 전 장병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부대의 가장 좋은 곳에 건축되었다. 또한 헌당식에는 백 병무감(준장)과 지휘관들이 참여 하였다 ¹⁵⁹⁾ 1953년 6월 2일에 헌당식을 한 육군제5028부대의 군인교 회는 설립에 이동백 군목의 노력과 박태양 부대장(중령)의 협조, 그리 고 풍금을 제외한 교회 비품을 마련한 장병들의 헌금이 큰 역할을 하였 다 160) 제2군단의 군인교회는 백선엽이 군단장으로 있고 김웅수 참모 장(준장)이 있을 때 크게 발전하였고, 2대 군단장으로 유재흥이 부임한

[[]육군총참모장]은 感謝狀[감사장]을 授與[수여]하였다" "전시교회의 모범." 《기 독공보》, 1952년 8월 25일, 2. 중앙교회의 노진현 목사는 전쟁 기간 동안 군인 위문 등 애국활동을 하였고, 이에 1952년 8월 3일에 오덕준 11사단장(준장)이 보낸 감사장에는 "후방 교회의 이와 같은 일은 군 사기에 큰 힘을 반영해 준 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海軍軍牧業務創設五週年맞아." 《기독공보》, 1953년 6월 22일, 1, 1953년 6월 14일에 정달빈 군목에 대한 부통령 등의 표창 수여 가 있었다. 수여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각주로 처리한다.

^{157) &}quot;各教團軍牧輔助實態." 《기독공보》, 1953년 9월 14일, 1.

^{158) &}quot;진중교회감격리에첫예배." 《기독공보》, 1952년 6월 30일, 2.

^{159) &}quot;軍人敎會獻堂式盛大," 《기독공보》, 1953년 4월 13일, 1.

^{160) &}quot;擴充되어가는陸軍軍人敎會." 《기독공보》. 1953년 7월 6일. 1.

후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교회에 주었고, 정일권이 군단장으로 부임하면서 천막 예배당을 대신하여 사령부 중앙에 수백 명을 수용 가능한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정 군단장은 참모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다. 물론 유근찬 참모장(대령)은 독실한 개신교인이었고, 정일권도 개신교인이었다. 161) 휴전 후 5103부대의 교회 설립(1953년 9월 25일에 헌당예배)에 기여했던 이는 차광훈 군목 뿐 아니라 부대장과 각 참모들도 있었다. 162) 부대장이 신앙전력화의 목적을 위해 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의 제일훈련소장은 석조예배당 건립 계획을 세웠는데, 기사에 따르면 "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걷게 되는 장정들의 정신적(精神的) 지도의 중차대함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163)

각 부대장들이 개신교 신앙 실천들을 부대에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해병대 도서부대"의 부대장 "김용국 중령은 참모회의시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규례를 만들고 이런 예배의식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다."¹⁶⁴⁾ 김용국 중령이 개신교인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기독 공보》의 기자에 따르면, "各行事[각행사]에 各集會[각집회]에 기도로서 始作[시작]되며 敎會規則[교회규칙]대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敬拜[경배]하 ... 는 恩惠[은혜]의 때"였다. ¹⁶⁵⁾ 이는 당시 군대의 행사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사례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1953년 2월 28일 백령도 해병대 김두참 부대장(대령)은 백령도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개원식을 할 때에 "一, 개회사 —, 애국가 봉창 —, 기도 김경수 군목 —, 경과보고 부원장 김문선 장로 —, 축사 부대장 미해병사령관 미육군부

^{161) &}quot;第二軍團信仰으로武裝," 《기독공보》,1953년 7월 6일, 1.

https://ko.wikipedia.org/wiki/

[%]EC%A0%95%EC%9D%BC%EA%B6%8C(2018년 2월 28일 검색했음) 정일권의 종교에 대해 확인하라.

^{162) &}quot;五—O三部隊禮拜堂獻堂式," 《기독공보》, 1953년 10월 26일, 2.

^{163) &}quot;壯丁精神訓練教會堂곳設立," 《기독공보》, 1952년 3월 10일, 1.

^{164) &}quot;祈禱하는參謀會議," 《기독공보》, 1952년 11월 3일, 2.

^{165) &}quot;諸般儀式敎會規例대로," 《기독공보》, 1952년 4월 14일, 1.

대장 면장교회대표 -. 찬양 교회성가대 -. 만세三창 부부대장 이봉출 소령"으로 진행되었다 166) 7개의 식순에서 분명한 개신교 요소는 기도 와 찬양 2개이며, 일반 식순에 참여한 개신교인 2명을 포함하면 총 4 이었다

부대장들 중에 개신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부경비사령부 이형석 사령관(중장)은 1953년 5월 30일(부임 날짜) 박 군목이 부임한 후 개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교회 출석을 제일 먼저 하고 교 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167) 한관흥 대령은 부친이 장로. 모친은 집사로 개신교인이었으나 장성한 후에는 교회를 멀리했다. 그러나 전쟁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중에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 하였고. 1953년 8월 28일부터 교회를 나갔다. 168) 위에서 살펴본 세례자들 중에 장교 및 부사관들도 많이 있었다. 전쟁 기간 중에 개신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지휘관을 포함한 군 간부들이 신앙전 력화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본인들도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 해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찾았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목들은 초창기에는 의구심 속에서 활동했지만. 이후 부대장들을 포함하여 군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169) 1952년

^{166) &}quot;白령에孤兒院誕生," 《기독공보》, 1953년 3월 23일, 2. 하나의 기사는 참고할만 하다. 나상행. "군인교회의 재미있는 부흥." 《감리회보》. 1953년 7월. 18. "一九. 五二년 十二월에 감리교회 군목 김창선 군목은 육해공 三군의 기간장병의 행정 요원을 양성하는 고급부관학교에 군인교회를 창설하여 활동 중에 종교교육과 졸 업식 때는 군목의 기도로써 개회를 시작하여 三군 장병들에게 종교적 감화를 크 게 주고 있다 한다." 고급부관학교장이 공식 행사의 기도를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휘관의 의지 없이 진행되었을 리는 없다.

^{167) &}quot;中部警備司令部軍人敎會大盛況," 《기독공보》, 1953년 7월 20일, 1.

^{168) &}quot;北漢山部隊長韓官興大領歸信." 《기독공보》 1953년 11월 30일, 2.

^{169) &}quot;將兵家族의牛活까지돌아보는信仰武人命聖恩大領." 《기독공보》, 1953년 7월 20일, 1. "軍목制度[군목제도]가 實施[실시]된 以後[이후] 海兵隊[해병대]에서 活躍 [활약]하는 軍[권목들의 배後[후]에는 戰線[전선]이나 後方[후방]을 莫[막]론하고 그 指揮지휘]관 所속長[소속장]들의 積極的[적극적]인 協助[협조]가 있어 信 [신]앙의 部隊[부대]로 育成[육성]되어 나간다 함은 旣報[기보]한 바 있거니와"

10월 27일에는 국방부관계자들과 교회 인사들, 국회의원이 모여 군목 문제와 상이군인 문제를 다루었다. 개신교가 상이군인 원조에 힘을 쓰며, 군목은 영관급으로 임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70) 육군제7839부대 박태경 군목이 "예하 단위부대순회 대전도강연회를 실시 중에 있다고 하는데 특히 동부대 정훈과의 적극적 후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다"171) 1953년에 해병대사령부 군목실에서 간행한 80여 쪽의 『기독교신앙문답』은 군 예산으로 출간된 것으로 15,000권, 30만환이 들었다. 172) 영관급으로 군목 임관, 정훈과의 전도강연 후원, 개신교 신앙서적을 군대에 보급하기 위한 군 예산 집행 등의 사례들은 국가의 군목및 개신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며, 초창기의 의심과 비교할때, 개신교의 신앙전력화의 효과가 국가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추정할수 있다.

나. 군인들의 개신교 선택: 개신교 부대의 존재와 그 이유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6월 26일자 《동아일보》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결사항쟁을 고무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때 그는 "自由[자유]를위하여 싸워서 貴重[귀중]한 生命[생명]까지 犧牲[희생]한 軍人[군인]들의 信仰[신앙]"이라고 표현하였다. 173) 일반적으로 신앙이란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승만 개인의 종교가 개신교였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신앙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당시 군인들의 상당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음과 종교를 중심으로 자유를 위한 전쟁에 나섰음을 추정케 한다. 당시 대통령의 눈에 보기에는, 군대의 종교 비

^{170) &}quot;發展途上의軍牧制度," 《기독공보》, 1952년 11월 3일, 1.

^{171) &}quot;七八三九部隊軍牧大傳道運動展開," 《기독공보》, 1953년 8월 31일, 1.

^{172) &}quot;海兵傳道文庫," 《기독공보》, 1953년 10월 26일, 2.

^{173) &}quot;民主陣營의 勝利祈願 鴨錄國境에 太極旗 휘날리자," 《동아일보》, 1951년 6 월 26일, 2.

율은 높았으며 종교와 정신전력도 연관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확인해 야 할 것은 당시 군인들의 종교 선택 비율이 어떠하였는지 여부이다. 만일 개신교가 높게 나온다면, 개신교를 통한 정신전력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 기간에 개신교를 선택한 군인들은 많았다. 스완손 목사는 1952년 9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2달간 국군 부흥운동을 진행하기 로 예정하였다. 174) 그러나 실제로는 1952년 10월 15일에 수영비행장 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동년 동월 23일에 OO보충대대에서 가진 2회 의 집회 결과 1.800명이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OO육군병원에서 가진 2회의 집회 결과 400명이 개신교인이 되었고. 26일 주일 육군본부군 인교회에서 가진 예배를 통해서도 다수의 장병들이 개신교인이 되기 를 희망하였다 175) 그가 1952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구. 영천, 경주, 밀양의 국군 각 부대들에서 한 25회의 전도 강연에 각 부 대장들은 본인들도 참여할 뿐 아니라 전 장병들 다 참여케 하였다. 이 때 전 장병의 90%가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지휘관들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산, 대전, 광주, 군산, 청주에서도 계속될 예 정이었다. 176) 앞서 2. 나. "군목과 신앙전력: 설교. 예배. 세례"에서 군인들의 개신교 선택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설명하였다. 이 외에 하 나의 기사를 살펴보자. 1952년 7월 13일에 백령도에 해병대교회가 세 워졌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매일같이 군목실 문을 두드리는 장병 의 수는 늘어가며 고달픈 동포들의 눈물을 씻기에 전 군목은 여념이 없다 한다."177)

1954년 장로교 39회 총회에 보고된 기록에 따르면, 국군의 20%가 개신교를 선택했다. 178) 해군의 경우 1953년 5월 기준 전 장병의 15%

^{174) &}quot;國軍의 信仰復興爲해," 《기독공보》, 1952년 9월 15일, 1.

^{175) &}quot;國軍將兵에傳道開始," 《기독공보》, 1952년 11월 3일, 1.

^{176) &}quot;國軍傳道史上劃期的," 《기독공보》, 1952년 11월 17일, 1.

^{177) &}quot;해병대도서부대에 군인교회." 《기독공보》, 1952년 8월 11일, 2.

가 개신교를 선택하였다. 해군에 군목은 총 26명이 배속되었고, 장교들 중 개신교 신자는 475명, 사병은 2,325명이었다. 179) 1953년 4월 29일에 종교를 가진 인구는 55,151명이었고, 개신교는 28,652명, 유교는 8,908명, 천주교는 5,694명, 불교는 5,055명, 기타는 6,842명이었다. 180) 1954년 4월 종교를 가진 군인은 총 74,751명이었는데, 이 중 개신교가 33,853명이었고, 유교가 15,891명, 불교가 8,863명, 천주교가 6,989명이었다. 181) 참고로 이 당시 개신교 인구가 500,198명으로전체 인구대비약 2.5%였다. 182) 그런데 종교를 가진 군인의 50% 이상이 개신교였다. 휴전 후에 이 비율은 타종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약간줄어들었다.

군대 내 개신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믿음의 상승부대" 또는 "신앙의 부대" 등으로 묘사되는 개신교인 비율이 높은 부대들도 생겼다. 해병대 5080부대, 해병대제일전투단, 해병대 서해부대, 육군제7296부대가 여기에 해당했다. 특별히 해병대 서해부대는 류 군목(대위)에게 소대장과 중대장이 성경공부를 하고, 부대원들은 과업 후 중대장과 소대장에게 성경을 배웠다. 매주 병사들의 생일 때 생일축하예배를 진행했다. 이 부대의 부대장과 부부대장이 신앙의 부대가 되기를 기도하며 매일 아침마다 마이크로 경건 예배를 드리며, 참모 회의 때는 군목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183)

¹⁷⁸⁾ 沈漢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록』(서울: 韓國敎會史文獻研究院, 1993), 288.

^{179) &}quot;飛躍하는海軍軍牧業務," 《기독공보》, 1953년 5월 23일, 1.

¹⁸⁰⁾ 육군본부, 『육군군종사』(1975), 42. 윤선자, "6·25 한국전쟁과 군종활동,"「한 국기독교와 역사」14 (2001. 2): 165. 재인용.

^{18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9회 총회회사록》(1953), 42.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 회의 재형성 1945-1960』, 307. 재인용.

¹⁸²⁾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I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6), 116.

^{183) &}quot;믿음의위문품," 《기독공보》, 1952년 3월 31일, 2. "해병대 五〇八〇 부대는 믿음의 상승부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韓美海兵合同禮拜," 《기독공보》, 1953년 11월 30일, 2. "信仰(신앙)의 部隊(부대)로써 有名[유명)하고 모든 戰鬪[전투]에 必勝필승]을 確信[확신]하는 勇敢無雙[용감무쌍]한 우리 海兵隊 第一

그렇다면. 전쟁 기간 높은 개신교인의 증가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군목의 활동. 신앙군인들의 활동이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 인 답을 찾는다면. 전쟁 속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군인들에게 개신 교의 하나님이 하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 육군제7296부 대 〇〇연대 소속 이종갑 소위는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에서 살고 죽는다는 확고부동한 생활이 갈망되어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 고 한다"184) "신앙의 길에서 살고 죽는다는" 표현 속에서 전쟁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고민했던 한 장교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 신앙 을 받아들여 죽음의 두려움을 신앙 안에서 승화시키려는 한 군인의 내적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전쟁 중 포병장교로 활동했던 조주 태는 "전장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생사의 기로에서 급 할 때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며 죽음 앞에서 개신교 신앙을 찾는 사람들을 소개하 영다 185)

박창원의 사례는 죽음 앞에서 개신교 신앙으로 귀의하는 단적인 모 습을 보여준다 독실한 개신교인 어머니에게서 자라났지만 신앙을 멀

戰鬪團軍牧室[해병대 제일전투단군목실]" "常勝信仰의部隊誕生," 《기독공보》, 1952년 2월 18일, 2. "서부전선 OO지구에서 싸우는 [믿음의 부대]란 칭호를 받는 해병대에 OO부대가 있다"이것은 서해부대이다. "武人信仰美談또하나." 《기독공보》, 1953년 9월 21일, 1; "信仰을激勵的는兩部隊長 西海部隊信仰部隊 를指向."《기독공보》, 1953년 8월 24일, 2; "信仰으로垂範하는—信仰武人朴慶 烈少領," 《기독공보》, 1953년 11월 9일, 2.을 참고하라. "-선에서한미합동예 배." 《기독공보》, 1952년 5월 12일, 2. "대포소리 은은한 최전선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미합동예배를 성대하게 지킨 믿음의 상승부대가 있 다. 즉 육군제七二九六부대는"

^{184) &}quot;구세주차즌장교," 《기독공보》, 1952년 5월 12일, 2.

¹⁸⁵⁾ 조주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178.

리하였다. 그러던 중 6 · 25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는 "사단 인사참모 겸 부관으로 사창리 전투에 참전했"고, 이 전투에서 적의 포위 속에서 5일 동안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그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이후 어둠 속에서 인계철선을 건드려서 그를 포함하여 24명 중살아남은 7명에게 총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인간이 간사해서 살 길이 생기니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하였다. 186) 죽음의 공포가 그로 하여금 다시 신앙을 갖게 했던 것이다.

백선엽, 김일환의 사례도 유사하다. 1950년 낙동강 방어선에서 1사단 11연대를 지휘하던 백선엽은 다부동 전투에서 11연대 1대대가 물러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천평동에서 싸우던 미 27연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에, 백선엽은 부하들을 독려하기 위해 직접 전장에 갔다. 이러한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그는 먼저 어머니를 떠올렸고, 이후 교회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번의 위기를 구해주신다면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187) 김일환은 어려서 만주에서 거하면서 초등학교 3, 4학년 시절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5학년 때 일본의 만주 진입 이후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 해방 후 그는 국방경비대에서 근무하였고, 1951년 6 · 25 전쟁 중에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곧 이어 국방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나이 37살이었다. 이 때 그는 "한 없이 부족한 인간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힘들다고 느껴,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개하였으며, 임명되던 그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188) 김일환

¹⁸⁶⁾ 박창원,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열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72-74.

¹⁸⁷⁾ 백선엽, 『백선엽의 6.25전쟁 징비록 제2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서울: 책발, 2016), 286-288.

¹⁸⁸⁾ 김일환, 『김일환 회고록』(서울: 주식회사 홍성사, 2015), 21-22.

의 경우 전선에서의 결신은 아니었지만, 전쟁 중 임무의 압박에서 벗 어나고자 신앙을 찾았다는 점은 죽음의 위협에서 신앙을 찾았던 것과 유사하다

다 군인들의 간증과 신문 기사의 평가189)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한국에서 태어난 세 명의 미국 선교사가 전투에 참여하였다. 바로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빌 쇼(Bill Shaw). 짐 램프(Jim Lampe)였다. 이 중 서 울탈환의 과정에서 빌 쇼가 속했던 미군 중대는 홍대동으로 향했다. 이 때 북한군은 잠복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총격전이 벌 어졌고, 빌 쇼는 "한국 민간인들을 구하려다가 전사했다"190)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한 미국 선교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보여준 햇듯은 개신교 신앙이 전쟁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요소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군인들이 전선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고. 개신교와 정신전력 사이의 관계 를 고찰해 보도록 할 것이다.

개신교 신문에 개신교 군인들의 편지나 단편의 글들을 직접 소개하 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것은 전투의 한 복판에서 썼다는 점에서 당 시 군인들의 심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신교 사병 안두호는 전 쟁 중 쪼가리 글을 수첩에 적어두었다. 이 글에는 전쟁 중에 안락한 삶 을 살아가는 후방의 국민들에 대한 분노가 나타났다. 191) 그러나 표재명

¹⁸⁹⁾ 여기서 소개할 자료들과 그에 따른 해석은 군목 및 신앙군인만의 영향이라 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럼에도 개신교를 통한 정신전력이라는 차원에 서 소개하겠다.

¹⁹⁰⁾ H. G. Underwood.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 주장돈 역 (서울: 연세대 학교 출판부, 2002), 170-174.

^{191) &}quot;전진습유," 《기독공보》, 1952년 6월 23일, 2. "산천초목도 잠들고 눈보라 바람 도 다 잠든 곳에 타향 외로이 전초(前哨)를 서니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을 스

소위가 1952년 10월 13일에 자신의 형인 표재환 장로에게 보낸 편지에는 개신교 신앙과 가족의 안부가 주를 이루었다. 192)

이 외의 군인들이 쓴 편지나 단편 글은 개신교 신문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신교 군인들이 전시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 지를 살펴보면, 개신교와 신앙전력을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의 극한 상 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박조준은 월남하여 국국 을지병단에 입대했다. 6 · 25전쟁 때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 분명하지 는 않으나 이 부대는 "쌀을 구하려고 황해도 연백 지역에 상륙했다가 인민군과 마주쳐 120명 중 100명이 전사했다." 그리고 박조준은 하나 님께 살려만 준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193) 박 조준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박세직도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얻은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다." 194) 조주태는 개신교인으로서 6 · 25 전쟁이 발발할 당시 육군포병학교에서 장교로 복무하였다. 그리 고 전쟁 초기에 적의 전차에 무기력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는 하나님 께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했다. 195)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지어 죄없는 보름달만 노려 보노라 봄이라 진달래도 다 피었는데 어찌도 무궁화는 안 피려는가 봄이라 쌓인 눈도 다 녹았는데 삼천만 가슴 속의 얼음은 언제나 녹나 마카오 양복에 베르베*르 치마를 입은 남녀들아 명심하라 이시각이순간도 일선에선 전우들이 쓰러지는 걸 — 총구(銃口)의 불꽃피는 일선에서 부모도 모르게 가는 그들이 너희들의 방탕을 안다하면 분노와 불안 속에 눈을 못 감으리"

^{192) &}quot;돌벼개베던 야곱과 같이," 《기독공보》, 1952년 11월 10일, 2. "그리고 기도 성경 말씀 傳전]하기 이 세가지는 CHRISTIAN LIHE[sic]에 있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될 것임을 뚜렷이 깨닫습니다. ... 一線[일선]에 오니 主님이 더욱 가까이 계심을 느끼옵니다." 이 외에 가족에 대한 안부도 나온다.

¹⁹³⁾ 박래찬, "[역경의 열매] 박조준 <3> 인민군과 전투 중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헌신"," 《국민일보》, 2016년 11월 1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5929 (2018년 5월 3일 검색했음)

¹⁹⁴⁾ 박세직,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65-66.

이 전쟁에서 임무를 다하고 살아남도록 지켜주시옵소서"였다 196) 병사 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지익도 개신교인으로 "내일 아니 끝없는 이 전쟁 속에서 오직 나의 생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싸웠 다 197)

보다 극적인 하나님 의존의 장면은 김소영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는 6 · 25전쟁에 참전하여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 때 그는 전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갔다.

빗발치는 총탄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슬퍼 할 여유가 없었다....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드렸다. 한참만에 눈을 떠보니 몇몇 대원들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금방 10여명이 모였다.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감격적인 기도회를 가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통성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어떤 전우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에는 마음 속에[sic] 가득했던 공포의 그림자가 말끔하게 씻겨져[sic] 있었다. 198)

전쟁 당시 성경책과 찬송가를 소지하고 전쟁에 나선 신앙군인들도 있었다. 강용석(일등병)은 중공군의 참전(1950년 10월 25일)으로 유엔 군이 후퇴할 때 사리원에서 국군 전차 공격대에 입대하여 동부전선에 서 싸웠다. 1951년 11월 하순경에 그는 그의 왼쪽 가슴에 적탄을 맞아 쓰러졌으나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살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왼쪽 포켓에 찬송가를 넣고 다녔던 까닭이다. 그는 전쟁 동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런 계기로 그의 목숨이 살 수 있었 던 것이다. 199) 박 하사도 김일성 고지에서 전투할 때 왼편 가슴에 성경

¹⁹⁵⁾ 조주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162-166, 177.

¹⁹⁶⁾ Ibid., 178,

¹⁹⁷⁾ 이지익. 『이지익 장로 체험수기 하나님의 손 안에』(서울: 창조문학사, 2010). 232.

¹⁹⁸⁾ 김소영. "찬송가 통일 작업 큰 보람 느껴."『역경의 열매-너와 함께 하리라』. 조 용우 편 (서울: 국민일보 출판국, 1991), 61-62.

^{199) &}quot;敵彈과 나의讚頌歌." 《기독공보》, 1952년 11월 10일, 2.

을 넣고 싸웠다. 이 때 그는 왼팔은 끊어졌지만, 왼편에 넣어둔 성경책 덕분에 총탄이 가슴을 관통하지 않을 수 있었다. 200) 월남 개신교인인 신태영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6 \cdot 25$ 전쟁에서 싸웠고, 이 때 주 머니에 항상 성경책을 넣고 다녔다. 201) 가슴 속에 넣은 찬송가와 성경책은 이들이 전선에서 신앙을 의지하며 싸웠음을 알게 해준다.

이 외에 전쟁의 상황에서도 신앙을 중시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제주도에서 징집된 한 개신교 군인은 무속신앙을 섬기던 그의 부모 (김태용 부부)에게 전도 편지를 자주 보냈다. 이후 그가 전쟁에서 죽자 그의 부모는 집안의 무속신앙을 제거하고 주초를 끊고 교회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개신교인이 되었다. 202) 이러한 김태용 부부의 회심은 아들의 편지에 나타난 전도의 간절함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선을 넘는 전쟁 속에서도 편지에 전도문을 쓴 한 개신교 청년의모습은 그가 전쟁의 두려움보다 부모의 전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짐작하게 하며, 신앙을 중심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전투에 나섰을 것도 추정케 한다. 진해에 있는 해군교회는 1953년 1월 4일에 2회 유년주일학교 졸업식을 거행하여 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러한배경에는 유년주일학교의 부장과 선생이 다 해군사병이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203) 본인들이 군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군인들의 모습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군복무는 뗼 수 없는 것임과 신앙이 그들의 군 생활을 유지하는 힘이었음을 추정케 한다.

상이군인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전선에 나가는 경우와 장애를 가지고 제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이군인들에 대한 신앙전력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군인교회에

²⁰⁰⁾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167.

²⁰¹⁾ 신태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하며 기도로 마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88.

^{202) &}quot;一線이들傳道편지에," 《기독공보》, 1952년 11월 17일, 2.

^{203) &}quot;鎭海海軍軍人敎會에서," 《기독공보》, 1953년 1월 12일, 2.

서 타자를 위한 헌금을 하거나 교회 건축을 하는 등 이타적인 삶을 보 여주었다. 63육군병원 군인교회의 상이군인들이 전재민을 위한 헌금을 하였다 204) 1953년 1-2월 즈음에 동래31육군정양원에 59평의 군인교 회가 착공하자. 정양원에서 치료 받고 있던 김흥소. 최도*는 일개월분 급여를, 신옥우는 이개월분 급여를 건축 헌금하였다. 205) 1952년 10월 25일에 해군제3병원 군인교회가 30평 규모로 건축된 것에는 20여명의 상이군인의 참여가 있었다. 206)

또한 독실한 개신교인들이 상이군인들 가운데 나타났으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5육군병원 2병동 군인교회에는 13명이 신약 을 3번 읽었고. 11명이 2번. 33명이 1번 읽었다. 이들은 성경 구매를 위해 배급용 담배를 팔았다. 207) 1953년 4월 12일 오후 2시에 부산지 구 군인교회 연합주최 하에 북한신도연합예배를 시작으로 각 교회를 순회하며 상이군인신앙간증회가 열리기로 하였다. 208) 상이군인들이 성 경을 읽고 간증을 한다는 것은 개신교를 통해 부상의 트라우마에서 벗 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김양선의 표현은 개신교와 상이군인의 신앙전력화를 잘 설명해준다.

얼마 후에 共産軍[공산군]의 南侵[남침]으로 六・二五사변이 일어나 多數[다수]의 國軍將兵[국군장병]들이 戰線[전선]에서 戰死[전사] 或[혹]은 重傷[중상]을 입어 後方病院후방병원이로 移送이송되었다. 死[사]의 恐怖공포]에서 떠는 傷痍軍 시[상이군인]들의 가슴 속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精神武裝[정신무장]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그리하여 저들은 親切[친절]한 가호[加護]의 손을 기 다리는 同時[동시]에 精神的[정신적]인 慰安[위안]과 更生[갱생]의 希望[희망]을 渴求[갈구]하고 있었다. 이때에 敎會[교회]는 저들의 要求[요구]에 應答[응답]할 者[자]는 오직 韓國敎會[한국교회] 라고 自負[자부]하고 많은 男女敎役者[남녀교

^{204) &}quot;굶주리는 同胞爲해 傷이兵赤誠의獻金," 《기독공보》, 1952년 12월 1일, 1.

^{205) &}quot;東萊에軍人敎會." 《기독공보》, 1953년 2월 2일, 2.

^{206) &}quot;제주도에해군교회," 《기독공보》, 1952년 11월 24일, 2.

^{207) &}quot;傷軍들이聖經熱讀," 《기독공보》, 1953년 12월 7일, 1.

^{208) &}quot;傷痍軍人信仰干證會." 《기독공보》, 1953년 4월 6일, 1,

역자들이 陸,海,空軍病院육,해,공군병원으로 들어가 不撤書板불철주에로 奉任[봉사]하며 그리스도의 犧牲奉任[희생봉사]의 精神[정신]을 저들에게 넣어주었다. 저들은 정말 다시 살어났다.[sic] 精神[정신]에서 다시 살어났다.[sic] 많은 傷痍軍人[상이군인]들이 다시 銳[총]을 잡고 戰線[전선]으로 나아갔다. 그들이야 말로 모든 點[점]에 있어 模範軍人[모범군인]이었고 또는 死[사]를 두려워 하지[sic] 않는 天下無敵[천하무적]의 强軍[강군]이었다. 209)

이 외에 「기독공보」에는 개신교와 정신전력의 연관성을 지지해주는 기사가 있다. "령化運動「화운동]은 大氣[대기]*을 올리는 중 特別[특별] 히 여기는 三八以北[삼팔이북] 땅이니 만치 九月山[구월산]을 눈 앞에 바라보며 感慨[감개]도 無量[무량]하게 失地回復[실지회복]을 祈願[기원]하는 兵士[병사]들의 士氣[사기]는 信仰[신앙]의 불과 함께 타오르고 있다 하며"210)당시 개신교 신문은 개신교 신앙과 군 정신전력을 연관시켜 보도하였다. 물론 개신교 신문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보도가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개신교 언론은 당시 개신교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적어도 당시 주류 개신교가 군인의 정신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은 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하면. 위 기사의 내용을 전혀 신빙성 없다고 말할 수 없다.

4. 결 론

본 연구는 6·25 전쟁 당시 군목과 신앙군인을 중심으로 개신교와 군대의 정신전력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시작되었다.

²⁰⁹⁾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十四年』(서울: 大韓예수教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1956), 137-138.

^{210) &}quot;海軍軍牧活動大活潑," 《기독공보》, 1952년 10월 6일, 1.

이를 위해 먼저 군목제도의 설립과 활동을 정리해보았다. 군목은 교계 의 요청과 이승만 대통령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속에 교계에서 생활비 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1950년 12월에 시행되었다. 1952년 6월 16 일까지 무보수 촉탁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유급문관신분으로 임관하였 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적은 보수로 인해 교회의 지원을 계속 받았다. 개신교와 천주교 성직자가 군목에 임관했고, 개신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군목들은 전선도 순회하였고. 그러던 중에 사고로 순직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군목들의 신앙전력화 활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첫째 로 군목들 중심으로 행해진 설교. 교회 설립. 세례는 군목들의 신앙전 력화의 영향력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었다. 개신교 신문을 분석해본 결과 군목들이 군인들에게 하는 일반 설교의 절반 이 상은 신앙전력화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 회에서 예배를 거행하였고. 예배와 특별행사(부흥회 등)에는 다수의 군 인들이 회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신, 학습, 세례를 주었는데, 이 러한 결과로 1년 7개월 만에 군인 신자율은 군목 초기 3%에서 10%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상이군인들의 개신교 선택은 더 두드려졌다.

둘째로 군목들은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인식하고 전선의 군인들을 위문하였고, 위문 및 위문품의 중요성을 사회에 환기 시켰다. 그리하여 실제로 군목실로 들어오는 사회의 위문품들이 있었 다. 또한 부상병들에 대한 관심은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사기와도 연관이 있었다는 점에서 군목들이 상이군인을 방문하고. 장애를 가진 상이군인들의 사회재활을 위한 직업교도소를 세운 것은 정신전력에 의 미 있는 일이었다.

당시 군대 내에 있던 신앙군인들의 신앙 전파활동은 개신교 사생관 에 기초한 정신전력향상과 군목과의 접촉을 위한 매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독려했고, 신앙 전력화의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는 군목의 신앙전력화를 긍정하는 2개의 글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신교와 군 정신전력의 관계성 여부를 3가지 측면에서 고찰 하였다. 먼저는 지휘관들의 개신교에 대한 긍정이다. 초기 지휘관들은 군목의 효과를 의심하였지만, 이후 군목들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참모로 전선에 동행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그들은 개신교 교회 설립 시나행사 때 참여하여 축사를 하였고, 교회 설립과 행사에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군목 파송에 대해 한국 교계에 감사장을 보냈고, 교회 설립을 주도한 지휘관들도 종종 있었다. 군대의 행사에 개신교의 기도와예배를 도입하는 사례들도 있었으며, 지휘관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러한 많은 사례들은 전쟁에서 개신교의 정신전력의 효과를 지휘관들이 인정하였음을 내포한다.

전쟁기간 군인들의 개신교 선택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도 개신교의 정신전력의 효과를 입증하는 예이다. 스완손 목사는 방한하여 군 집회를 열었는데, 이 때 25회의 집회에서 부대원의 90%가 개신교를 받아들였다. 당시 개신교는 한국에서 2.5%에 불과했지만, 군대에서는 종교를 가진 군인의 50%가 개신교인이었고, 휴전 후에도 50%에 육박하였다. 개신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개신교 비율이 높은 부대들(해병대 5080부대, 해병대제일전투단, 해병대서해부대, 육군제7296부대)도 나타났다. 이종갑, 박창원, 백선엽, 김일환의 사례를 보면, 다수의 군인들이 개신교를 선택한 것은 죽음과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절대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과였을 수 있다.

개신교인들이 전쟁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개신교와 정신전력의 상관 관계를 지지해준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기도하며 싸웠던 군인들, 전 쟁의 복판에서 부모에게 전도의 편지를 쓴 군인, 형에게 신앙의 이야 기를 쓴 표재명 소위, 찬송을 부르며 전투에 임한 강용석과 성경을 의 지한 박 하사 등 신앙 군인들에게 개신교는 전쟁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준 중요 요소였다. 개신교를 받아들인 상이군인들에게서 목격된 이 타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은 개신교의 신앙전력화의 효과를 잘 보여주 었다. 개신교 신문이 서술한 신앙전력화에 대한 글도 하나의 참고자료 가 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않은 6 · 25 전쟁의 시기에 군 대를 중심으로 개신교의 신앙전력화를 접근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 기서 연구자가 소개하고 정리한 정신전력에 대한 자료들이 이후의 정 신전력의 연구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반면 반세기 전 의 일들의 정신전력을 수치화 하는 것의 어려움 속에 개신교의 정신전 력을 추정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천주교를 통한 정신전력 의 효과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종교와 상관없이 거국 적으로 국군의 정신전력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다루지 않았다.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되어져야 할 하나의 숙제로 남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분명한 의의와 한계를 가 진다

반세기 이상의 휴전은 종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전쟁은 누 구도 바라지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수 있다. 본 연구가 전쟁이 발발할 시 군종장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군의 정신전력을 고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고민을 던져주었 다면, 그리고 군 지휘관들에게 종교가 가지는 정신전력의 힘을 고민하 게 했다면, 이 논문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2018, 4, 6, 심사수정일: 2018, 5, 2, 게재확정일: 2018, 5, 14)

주제어: 정신전력, 개신교, 군목, 신앙군인, 6.25 전쟁

〈참고문헌〉

- 강인철. 『종교와 군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7.
- 군복음화후원회 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 집』. 서울: 쿰란출판사, 1993.
- 김기태. "한국 전쟁과 군선교." 「선교와 신학」 26 (2010. 8): 41-69. http://uci.or.kr/G704-000811.2010..26.009
-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 부, 2015.
- _____. "전쟁명명의 정치학 "아시아 · 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 정치외교사논총」30(2009. 2): 71-98.

http://uci.or.kr/G704-001329.2009.30.2.008

- 김소영. "찬송가 통일 작업 큰 보람 느껴." 「역경의 열매-너와 함께 하리라』. 조용우 편 서울: 국민일보 출판국, 1991.
-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十四年』. 서울: 大韓예수教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1956.
- 김일환. 『김일환 회고록』. 서울: 주식회사 홍성사, 2015.
- 김병희 편저. 『한경직목사』. 서울: 규장문화사, 1982.
-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韓國基督教宣教100周年紀念韓國說教大全集』. 한국설교대전집출판위원회편, 165-168.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 _____. "군인교회의 재미있는 부흥." 《감리회보》, 1953년 7월, 18.
- 박경수, 한승조. "군 부대 정신전력 비교평가를 위한 AHP 모델."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2. 11): 192-197.
- 박보경.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역할." 「선교와 신학」 26 (2010. 8): 105-140. http://uci.or.kr/G704-000811,2010..26,004
- 박일, 고영건.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2012. 2): 105-124.

http://uci.or.kr/G704-000280.2012.25.1.005

박재곤, 오영균. "정신전력이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군 조직특성과 문

- 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방연구」(2016. 9): 75-106. http://uci.or.kr/G704-001669.2016.59.3.005
- 박지욱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활동"「의사학」 19 (2010 6): 189–208
- 백선엽 『백선엽의 6.25전쟁 징비록 제2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서울: 책 발. 2016
- 『백선엽의 6.25전쟁 징비록 제3권 두려움에 맞서는 법』서울: 책발. 2017
- 백창현 『한국군목회』 서울: 한국군목회, 2015.
- 윤선자. "6·25 한국전쟁과 군종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2001. 2): 145 - 183
- 이준희. "정신전력 인식 지수에 의한 전쟁승패 요인분석." 「OUGHTOPIA」 26 (2011, 8): 97–126.
 - http://uci.or.kr/G704-SER000012878.2011.26.2.002
- 이지익 『이지익 장로 체험수기 하나님의 손 안에』 서울: 창조문학사, 2010. 지학순. 『내가 겪은 공산주의』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 채명신 "하나님의 가호로 사선을 뚫다" 『역경의 열매-기적의 수수께 끼』 조용우 편. 서울: 국민일보 출판국. 1991.
- 崔承均 "軍宗活動이 將兵들의 精神戰力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논문, 동국 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1995.
- 沈漢輔。『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록』(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1993), 288.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 소. 2016.
-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1945-1960』, 경기도: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 홍원기. 『6·25 참전 언론인들의 생생한 증언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서울: 計團法人大韓言論人會, 2013.
- 홍은혜.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서울: 가인기획, 1990.
- Underwood, H. G.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 주장돈 역. 서울: 연세대 학교 출판부, 2002

Haga, Kai Yin Allison.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American Missionaries in the Rise of Korean Nationalism, Anti-Colonialism, and Eventual Civil War." Phd diss.,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in Virginia, 2007.

《기독공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고성식, "한국전쟁 당시 제주 98육군병원 … 쓸쓸히 시라져 간다," 《연합뉴스》, 2016년 6월 2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 06/23/0200000000AKR20160623131100056.HTML?input=1195m

박래찬, "[역경의 열매] 박조준〈3〉인민군과 전투 중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헌신","《국민일보》, 2016년 11월 1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5929

(2018년 5월 3일 검색했음)

(2018년 3월 30일 검색했음).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D%BC%EA%B6%8C (2018년 2월 28일 검색했음)

<Abstract>

The Spiritual Combat Power led by the Activities of the Protestant Churches in ROK Armed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 Focused on Chaplains Protestant worshipping Soldiers

Yun, En-seok

Main theme of the thesis is to reveal that Korean Protestantism contributed to the reinforcement for military spiritual war power of ROK armed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through the faith activities of chaplains and protestant soldiers. After the outbreak of war, the chaplains appointed by the military supreme HQ under the banner of religious principles had an another purpose that promotes spiritual war power with faith in addition to evangelical work. Their preaching would guite often relate to the strengthening of spiritual war power, they had achieved this purpose through the actions of foundation of church, and worship. baptism on soldiers. It also gave assistance to promote spirit of soldiers that they comforted the soldiers who were fighting at a battle fields and disabled veteran

This study presumes Protestantism might contribute to military spiritual war power from three aspects. One is the commanders' change into positive attitude about chaplains and Protestantism. Another is a large percentage of solders who chose Protestantism in the war. The other is the behaviors Protestant soldiers showed in the war. Through these examples, this study can estimate that the level of the spiritual war power that Protestantism gave soldiers.

52 | 軍史 第107號(2018, 6.)

The study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search. Many articles on war relating to Protestantism is in Protestant newspaper. War veteran's writing can be the channel through which we understand wartime. With these materials, this study reveals the spiritual war power through Protestantism.

Key Words: spiritual war power, Protestantism, chaplain, Protestant soldiers, the Korean War.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53-82 https://doi.org/10.29212/mh.2018..107.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해군장교 계급장의 변천사

- 금속형 계급장을 중심으로 -

신성재*

- 1. 머리말
- 2. 초창기(1946,2,~1946,11,)
- 3. 과도기(1946.12.~1954.4.)
- 4. 정착기(1954.5.~1975.8.)
- 5. 완성기(1975.9.~1980.1.)
- 6. 맺음말

1 머리말

계급장(階級章)은 군복이나 군모에 부착하여 군인의 지위나 계급을 나타내는 표지장(標識章)을 말한다. 군인의 계급 고하를 표시하는 상징 물이기 때문에 계급장은 계급체계의 형성 및 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 질 수밖에 없다.

^{*} 해군사관학교 軍史戰略學科 교수

전통시대 군인의 지위 표시는 다양한 소재와 장식, 상징물 등을 통해 구분되었다. 군복의 옷깃 색상으로 구분되는가 하면, 갑옷이나 투구 장식 등을 통해서도 구분되었다. 이같은 구분 방식은 특정한 문양의 계급 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오늘날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군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계급장 문양의 제정과 사용은 근현대시기로 들어와서야 가능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 해군장교의 지위 고하를 나타내는 계급장에 대해 계급체계의 변화와 연계하여 금속형 계급장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한다.¹⁾ 해방과 더불어 등장한 현대적 문양의 계급장이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정착기에 이르러 금강석(위관급), 대나무 잎사귀(영관급), 별(장관급)로 대표되는,²⁾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의 계급장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해군장교의 계급장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전론으로 다룬 논고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군의 군복식(軍服飾)을 정리한 '90년대 말의 단행본을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해볼 수 있다. 김순규가 저술한 『한국의 군복식발달사 Ⅱ 현대편』이 그것으로, 이 책의 해군편 부분에는 계급장의 변화 과정이 핵심 내용 위주로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1894~1980년까지 사용된 해군장교 계급장의 문양을 글과 함께 그림 혹은 사진 자료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시각적

¹⁾ 금속형 계급장은 주로 근무복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훈련복이나 전투복, 군모 등에는 천으로 제작된 포제형 계급장이 사용되는데, 재질만 다를 뿐 문양은 금속형과 동일하다. 동·하계절용 정복의 소매 및 어깨에 부착하는 계급장(수장, 견장)은 금속형과 달리 세계 해군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줄을 이용하여계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줄로 표시하던 계급장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해군장교의 계급체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래의 금줄 계급장에 금속형 문양이 추가되는 등 혼란의 시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금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환원되었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계급장은 근무복에 부착하는,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금속형 계급장에 국한한다.

²⁾ 위관급과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을 상징하는 금강석·별 문양에 대해서는 일반 독자들에게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에 대해 대나무 임사귀가 아닌 무궁화로 오해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인 이해도를 높여주었다. 3) 백기인도 그의 저서 『건군사』에서 계급장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김순규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해군창설 기에 사용된 문양을 간략히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4) 김순규의 선구 적인 성과와 백기인의 관심에 의해 해군장교 계급장의 변천에 대해서 는 대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 은 부분도 있다. 예컨대 초창기 및 과도기적 단계의 계급장에 나타나는 문양적인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날과 같은 계급체계로 정착되 어 가는 과정에서 장교의 계층(위관급, 영관급, 장관급)을 구분하는 문 양으로 금강석·대나무 잎사귀·별이 사용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위 관급. 영관급. 장관급 장교를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된 금강석. 대나무 잎사귀, 별 문양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졌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해군장교 계급장의 변천 과정을 초창기(1946.2.~1946.11.). 과도기(1946.12.~1954.4.). 정착기(1954 5 ~1975 8). 완성기(1975 9 ~1980 1)로 설정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5) 이 과정에서는 장교의 계급장 문양이 정착기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금강석, 대나무 잎사귀, 별 문양으로 확정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각각의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당대 기록을 중심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군본부가 2013년 말에 해방 이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생산해낸 복제사 관련 문서들을 보존하기 위해 제작한 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 CD본)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6)

³⁾ 金舜圭,『韓國의 軍服飾發達史 II 現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8.

⁴⁾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⁵⁾ 각 시기의 구분은 김순규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되 문양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 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초창기·과도기·정착기·완성기라는 용어로 의미를 부여하 였다.

⁶⁾ 논지 전개와 주석 처리의 편의를 위해 CD본 자료집의 명칭을 잠정『海軍禮式服制 記錄物資料集』으로 명명하였다. 현재 이 자료집은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이 별도의 명 칭 없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고 있다(관리번호: 14-D-전-000020).

이 글을 통해 해군 구성원들이 창군기 이래 장교의 계급장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노력과 과정을 점검해 보고 각 계층별 문양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해군장교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양과 상징체계⁷⁾에 대한 이해와 연구적 관심을 환기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해군의 역사 발전에 대한 인식을 한차원 심화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초창기(1946.2.~1946.11.)

주지하듯이 현대적 개념의 해군장교 계급장은 해방 이후가 되어서야 등장한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이 근대식 해군 창설을 시도하던 19세기 말 ~ 20세기 초를 비롯하여⁸⁾ 국권을 침탈당한 일제강점기에는 장교의 지위를 나타내는 계급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처럼 현대적 개념과 흡사한 계급 구조와 직제는 고종(高宗)이 근대 해군 창설을 추진하던 즈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894년(고종 31) 12월 4일, 고종은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를 칙령 제10호로 반포하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아래 내용의 해당 기사가 나온다.

칙령으로 짐이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를 재가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라. 대장(大將)은 정·종1품계이고, 부장(副將)은 정2품계이며, 참장(參將)은 종2품계이고, 정령(正領)·부령(副領)·참령(參領)·정위(正尉) 이상은 3품계이다. 부위

⁷⁾ 해군장교 정모휘장(모표)을 소재로 문양사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의미를 부여한 성과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성재, 「한국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천과 그 함의」 『軍史』 94, 2015a; 신성재,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 『대한민국 해군 우리의 미래(해군장설 70주년 기념 특별전)』.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2015b 참조.

⁸⁾ 대한제국기 근대식 사관 양성과 군함 확보 노력은 金在勝, 『近代韓英海洋交流史』, 仁濟大學校 出版部, 1997; 金在勝, 『韓國近代海軍創設史』, 혜안, 2000; 심헌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참조,

(副尉)·참위(參尉) 이상은 6품계이고. 정교(正校)·부교(副校)·참교(參校) 이상 은 품계 외이다. 9)

고종은 칙령을 통해 육군장관직제를 대장에서부터 참교에 이르기까 지 계급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제정하였다. 이 때 반포된 직제는 무관의 최고 관등인 대장이 내각의 총리대신과 같은 정·종 1품 계까지 오를 수 있도록 크게 상향 조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 같은 조 치는 당시 무관의 위상이 크게 제고된 것을 의미한다.10)

무관의 위상 제고와 함께 주목해볼 점은 당시 반포된 직제가 해방 이후 해군이 창설되는 시기는 물론 오늘날의 해군 계급체계와 비교해 볼 때 상당 부분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대장·부장·참장 이 장관급 장교에 대응하고, 정령·부령·참령이 영관급 장교에 해당하 며. 정위·부위·참위가 위관급에 해당하고. 정교·부교·참교가 하사관 (부사과)에 해당하는11) 계급 구조는 이러한 유사성을 입증하기에 부족 함이 없어 보인다 물론 인용한 사료는 육군의 장관직제 개정과 관련한 조칙으로 해군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계에 입각한 계급 편성 방식은 해군의 직제에도 직 가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군 역시 육군의 장관직제와 유사한 계급체계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고종이 칙령을 통해 반포한 위 직제에 보이는 계급 중 일부는 해군이 창설되던 해방 직후의 시점에 다

^{9) 『}承政院日記』 3053책(탈초본 139책), 고종 31년 12월 4일. "勅令 朕裁可陸軍將官 職制 使之遵行 大將正從一品階 副將正二品階 參將從二品階 正領副領參領正尉以 上三品階 副尉參尉以上六品階 正校副校參校以上階外".『日省錄』고종 31년 12월 4일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¹⁰⁾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41~42쪽.

¹¹⁾ 칙령 반포 이듬해에 군인의 연령 제한을 정한 규정을 보면 대장부터 참위까지 연 령을 언급한 다음 별도로 하사관(부사관)을 언급하고 있음이 주목된다(『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4월 27일). 이 같은 계급 구조에서 보자면 정교·부교·참교는 하 사과(부사과)에 해당한다.

시금 그 명칭이 등장한다. 손원일(孫元一)을 비롯한 해군 창설의 주역들은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海防兵團)을 결성한 다음 이를 해안경비대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해방병단은 1946년 1월 15일에 총사령부를진해기지에 설치하고, 이어서 인천기지에 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확장일로의 과정에 있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방병단 내에는 일원적인 계급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해방병단 소속의 장교들에 대한 정식 계급 부여는 단원이 증가하고 기구가 확장되어가자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1946년 2월 1일부로 구한말시대(대한제국기)의 계급을 참고하여 부여하였다. 13) 이 때 단원들에게 부여된장교의계급은 참령, 정위, 부위, 참위 등이었다. 14) 해방병단을 창단한손원일에게는 당시 최고 계급인 참령이 부여되었고, 초대 인천기지사령관이던 백진환(白鎭煥)에게는 정위의 계급이, 기타 나머지 장교들에게는 부위 및 참위의계급이 부여되었다. 15) 이들에게 부여된계급을 오늘날과 비교하면 소령, 대위, 중위, 소위에 해당한다.

계급이 부여됨에 따라 장교들이 사용할 계급장 제식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해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 군의 제반 인사근무 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¹⁶⁾ 복제 규정이 제대 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점이었으므로 아직 적절한 형태의 계급장이 확 정되지 못한 상태였다.¹⁷⁾ 이에 따라 해방병단은 국방사령부 관할하에

¹²⁾ 백기인, 앞의 책, 2002, 292쪽.

¹³⁾ 海軍本部, 『海軍 30年史 1945~1975』, 1978, 11쪽; 國防部, 『國防史 ①』,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4, 309~310쪽.

¹⁴⁾ 金舜圭, 앞의 책, 1998, 336쪽.

¹⁵⁾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第1輯, 1954, 25~26쪽. 이후 1946년 6월 1일에 미 해군의 계급을 참고하여 사병의 계급을 兵曹長(상사)·上等兵曹 (중사)·一等兵曹(하사)·二等兵曹(병장)·一等水兵(상등병)·二等水兵(이등병)· 見習水 兵(이등병) 등 7단계로 구분하여 계급을 부여하였다(海軍本部, 앞의 책, 1978, 11쪽).

¹⁶⁾ 창군기 해군의 열악한 상황과 복제의 실상은 金省三,「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海軍』創刊號제1권 1호), 1951, 29~30쪽; 박원규,「海軍服制 變遷懷要」『海軍』제272호, 海軍本部政訓監室, 1977, 151~153쪽; 신성재, 앞의 논문, 2015a, 250~252쪽 참조.

있던 경비국의 국립 경찰들이 사용하던 모자에 부착된 무궁화 문양 귀 단추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해방병단은 경찰이 사용하던 무궁화 문 양의 귀단추를 모방하여 이를 임시적으로 차용하는 방안을 마련하 였다. 18) 당시 차용된 계급장 문양은 자료 ①에서 보는 바와 같 다 19) 활짝 핀 무궁화를 바탕으로 삼고 그 중앙에 태극 형상을 새겨 넣은 문양이었다.

(자료 ①: 초창기 계급장 문양(1946.2.1.~11.30.))



무궁화와 태극을 문양으로 하는 이 계 급장은 해방병단이 창 설된 이듬해인 1946 년 2월부터 장교들 사이에 임시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최 고의 계급이던 참령

계급장에는 태극이 새겨진 무궁화 문양 4개를 부착하였다. 그 아래의 정위 · 부위 · 참위에게는 각각 3~1개를 부착토록 하여 계급적 차이를 드 러내도록 하였다

1946년 2월 1일에 제정된 이 계급장 문양 제식은 동년 11월 30 일까지, 그리 길지 않은 동안 사용되었다.20)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

¹⁷⁾ 해군의 복제는 1952년 '해군복제규정시행안'이 공식적으로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통일된 복제를 갖게 된다(백기인, 앞의 책, 2002, 296쪽).

¹⁸⁾ 金舜圭. 앞의 책. 1998. 173쪽; 백기인. 앞의 책. 2002. 282~283쪽.

¹⁹⁾ 金舜圭, 앞의 책, 1998, 337쪽,

²⁰⁾ 김순규는 194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된 계급장에 대해 자료 ①을 제시하고 있다(김순규, 앞의 책, 1998, 337쪽). 그러나 문양을 설명하는 부분(336 쪽)을 보면, "이 계급장들의 제식은 미 해군 준위 계급장인 가로 1.5cm × 세로 4.5cm의 황금색 구형(矩形: 사각형 모양) 금속 바탕 중앙에 태극 무늬를 넣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 자료 ①에서 제시한 무궁화 바탕에 태극을 넣은 문양과 차이가 발생한다. 사실 김순규가 설명한 문양의 계급장은 육군장교들이 1946년 4 월 6일부터 임시적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다(173~174쪽). 해군장교와 육군장교의 계급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기에 제시한 자료 ①의 문양과 서술

화외²¹⁾ 태극으로 문양을 구성한 점에서 당시 계급장에는 해방병단의 국가적 정체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타 기관이 사용하던 문양을 모방하였던 점에서 독자적인 수준의 계급장을 제정하지 못한 문양사적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초창기 해군장교의 계급장은 정연한 계급체계가 성립하여 그에 걸맞는 문양의 계급장이 등장하기까지는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그 문양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3. 과도기(1946.12.~1954.4.)

1946년 2월 초부터 사용된 해군장교 계급장은 약 10개월 정도 존속되다가 이전과는 다른 문양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사용되던 국군 장교의 계급 호칭이 대한제국기에 사용하던 그것과 같아 시대적인 감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었다. 22) 이에 따라 1946년 12월 1일부로 해군장교 계급체계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새롭게 제정된 계급체계는 위관급 장교는 대위·중위·소위·준위로 하고, 영관급 장교는 대령·중령·소령으로 하며, 영관급 상위에 장관급 장교의 계급으로 대장·중장·소장·준장을 추가하였다. 23) 이는 미군의 계급제도를 참작해서 체계화한 것이었다. 24)

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는 자료 ①에 근간하여 무궁화와 태극이 초창기 해군장교 계급장 문양으로 사용된 것으로 잠정 서술하였다.

²¹⁾ 무궁화(근화)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국화로 제정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역사 적으로 한민족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꽃으로서 대한제국기가 되면 국가의 꽃으로 부각된다(이경미, 『제복의 탄생 - 대한제국 서구식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변천』, 민 속원, 2012, 227~232쪽).

²²⁾ 金舜圭, 앞의 책, 1998, 336쪽.

²³⁾ 金舜圭, 앞의 책, 1998, 336~337쪽.

²⁴⁾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장교의 계급이 세분화되고 계급체계가 새롭게 정비됨에 따라 계급장 의 문양에도 변화가 수반되었다. 당시 개정된 계급장의 문양을 제시하 면 자료 ②와 같다



(자료 ② : 과도기의 계급장 문양 도안(1952.10.19.))

자료 ②는 당시 새롭게 개정된 계급장의 문양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CD본)에 수록되 것으 로 작성된 시점은 1952년 10월 19일자로 기록되어 있다 25) 이와 같은 문양의 계급장 도안이 나타나는 시점에 주목해보자면 적어도 1950년으 로 접어들면서 해군장교의 계급장 문양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계급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시점과 사용된 시기에 대해서는 김순규의 연구를 통해 일찍이 밝혀진 바 있다. 즉 그의 연구 에 따르면 새로운 계급장은 1946년 12월 1일부로 개정되어 1954년 5월

¹⁰⁸쪽.

^{25) 「}海軍服制規定案表」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4285년 10월 19일 작성. 작성 한 〈해군복제규정안표〉의 다음 페이지부터 장교모자 치양. 장교모표. 사관모자 카 바, 외투 등 당시 개정을 추진하던 복제품 관련 전 품목이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 려져 첨부되어 있다.

초까지 사용되었다고 한다. ²⁶⁾ 그는 계급장이 사용된 시기를 서술함과 동시에 개정된 문양을 그림 자료로 제시하였는데, 현대적으로 채색하여 알기 쉽도록 재현하였을 뿐 그 문양은 1952년 10월 19일자(자료 ②)의 도안과 완전히 일치한다. ²⁷⁾ 계급체계도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 장관급 계급에 중장·소장·준장이 있고, 영관급 계급에 대령·중령·소령이, 위관급 계급에는 대위·중위·소위·준위가 있다. ²⁸⁾이 같은 사실은 김순규가 해군장교 계급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1952년 10월 19일자로 작성된 자료 ②를 활용하였음을 짐작케한다. ²⁹⁾

해군장교들이 자료 ②와 동일한 문양의 계급장을 사용하였음은 해군 사관학교 졸업앨범에 남아 있는 사진 자료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자료 ③). 좌측부터 2명은 해사 3기생 졸업 앨범에 수록된 병기관 이우용 대위와 측기교관 박기정 중위의 사진이다. ③이 해사 3기생의 졸업 일자가 1950년 2월 25일이었으므로 ③1) 이들이 촬영된 시점은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상의 옷깃 좌우에는 대위와 중위계급을 나타내는 ⑥이 계급장 문양으로 새겨져 3~2개씩 부착되어 있다. 맨 우측의 사진은 해사 5기생 졸업 앨범에 수록된 수학실장 김병수중령의 모습이다. ③2) 5기생이 졸업한 일자가 1952년 3월 2일이었던 점

²⁶⁾ 金舜圭, 앞의 책, 1998, 336~337쪽; 백기인, 앞의 책, 2002, 282~295쪽.

²⁷⁾ 金舜主, 앞의 책, 1998, 338쪽 <해군 계급장(1946년 12월 1일~1954년 5월)》. 자료 ②와 다른 점은 각각의 문양 하단에 계급이 기록되지 않은 점이다.

²⁸⁾ 김순규의 저서에는 개정된 계급에 대장이 포함되어 있고, 위관급의 준위는 일등준 위와 이등준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주 23)과 같음]. 그러 나 자료 ②에는 대장 계급장이 존재하지 않고, 준위는 일등준위와 이등준위로 구 분되어 있다. 대장 계급장의 누락은 실제 대장으로 진급되었던 장교가 부재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며, 준위 계급장은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등준위와 이등 준위로 세분화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²⁹⁾ 당시 일등준위의 계급장이 금색인 점을 제외하고 개정된 계급장은 모두 은색이었다. 계급장의 규격은 영관급은 직경 2cm, 위관급은 가로 1cm × 세로 2cm였다.

^{30) 『}해군사관학교 3기생 앨범집』참조.

^{31) 『}부대역사자료』 1권(1946.1.1~1980.12.31.). 해군사관학교. 15쪽.

^{32) 『}해군시관학교 5기생 앨범집』참조.

을 감안하면³³⁾ 김병수 중령의 사진 역시 그 이전에 촬영되었을 것이 다. 김병수 중령의 근무복 상의에도 자료 ②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문양의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다.

〈자료 ③ : 과도기 계급장을 부착한 해군장교의 사진〉







앞서 제시한 자료 ②·③에 근거하여 1946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 지 사용된 해군장교 계급장에 대해 문양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별을 문양으로 하여 그 개수에 따라 계급의 고하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전해져오던 한국 의 고유한 문양을 반영한 것이 아닌 당시 해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미 해군이 사용하던 별 문양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둥근 원판에 점과 실선을 연결하는 곡선 무 늬를 새기고 그 중앙에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으로 사용된 ◎를 작 게 축소하여 안착시킨 형상이다. 이는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이 위관급 장교의 문양을 토대로 삼았음을 일러준다. 위관급 장교를 상징하는 계 급장 문양(◐)이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군본부가 1952년 11월 28일자로 국방부에 보고하기 위해 기안한 '해군복제규정안'의 계급(약)장 착용 및 제작 규정을 보면. "은색 금속지로서 각 계급에 따라 우측 옷깃에 단다. 일등준위(一准)는

^{33) 『}부대역사자료』 1권(1946.1.1.~1980.12.31.). 해군사관학교. 19쪽.

금색 금속지로 하고, 이등준위(二准)는 은색 금속지 앵커 중앙에 금색 귀갑형(龜甲形)을 배(配)한다."³⁴⁾고 명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같 은 사실은 위관과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으로 사용된 문양이 거북선의 지붕을 보호하는 갑옷, 즉 귀갑(龜甲)을 형상화하여 만든 문양이었음을 말해준다.³⁵⁾

한편 귀갑 문양은 사관생도들의 급생(학년)³⁶⁾을 표시하는 문양으로 도 사용되었다. 1급생은 닻 위의 원형판 중앙에 4개의 귀갑을, 2급생은 닻 위에 3개를, 3급생은 2개를, 4급생은 1개를 새겨넣은 문양이었다.³⁷⁾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문양의 명칭이 벤젠으로도 기록되고 불리 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문서를 취급하던 행정 담당자들이 편의적으로 사용하던 것일 뿐 본래의 명칭은 귀갑이었다.

해군본부가 1956년 3월 20일자로 시달한 공문서에 수록된 사관생도의 약장(略章) 설명 부분을 보면(자료 ④), "금속표(金屬表) 도금으로한다. 귀갑(龜甲)은 은색, 앵커는 금색으로 한다."³⁸⁾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약장 설명과 함께 급생별로 부착하는 약장의 문양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문양은 확실히 거북선의 지붕을 덮고 있는 갑옷을 철조각으로 형상화한 문양이다. 자료 ④에는 사관생도의 급생을 구분하는 약장 문양으로 귀갑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³⁹⁾

^{34)「}海軍服制規定'案'提出의 件」『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한 제2489호 (4285년 11월 28일 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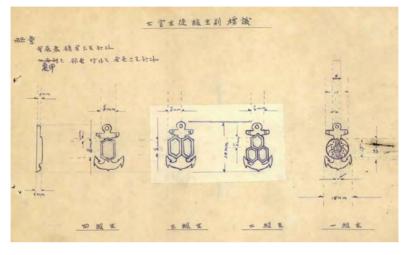
³⁵⁾ 이런 점에서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은 거북선의 지붕(덮개) 전체를 형상화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둥근 원판에 귀갑 4개, 점과 실선을 연결한 문양은 거북선 지붕의 전체적인 문양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³⁶⁾ 당시에는 학년이 아닌 급생으로 표기하였다. 1급생은 오늘날의 4학년, 2급생은 3학년, 3급생은 2학년, 4급생은 1학년이었다.

^{37) 「}사관생도 복제규정 송부 의뢰 "회신"」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사발 제 667호. 4292년 5월 29일.

^{38)「}海軍禮式服制 委員會 決議事項 報告의 件」『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業務連絡(4289년 3월 20일).

³⁹⁾ 주 38)과 같음. 귀갑이 시관생도의 급생(학년)을 표시하는 문양으로 사용된 배경에 대해서는 1954년 5월에 국군장교의 위관 및 영관급 계급장이 금강석과 대나무 잎



〈자료 ④ : 사관생도 급생별 표지(1956.3.20.)〉

자료 ④는 귀갑이 벤젠의 화학식 기호와 흡사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 와 같은 호칭으로 불리어졌던 사정을 적절히 설명해준다 40) 뿐만 아니 라, 거북선을 보호하는 갑옷을 형상화한 귀갑 문양이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에 사용되었던 이유 또한 일깨워준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귀갑이 거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이. 귀갑 문양의 계급장을 패용하는 장교들 또한 해양을 수호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이는 해군장교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임을 강조하 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다 41)

사귀로 통일됨에 따라 충무공 이순신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양이 사라지게 될 상황 이 되자 이를 계승하기 위한 차워에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⁴⁰⁾ 벤젠(방향족 탄화수소)의 화학식 기호는 귀갑의 문양과 아주 흡사하다.

⁴¹⁾ 귀갑 문양의 사용 배경에 어떠한 역사적인 연원이 내재한 것인지 현전하는 기록 상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인 귀부에(경주 서악동 소재) 보이는 기하학적 무양이 일부 유사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특히 주 목되는 것은 고려 초기 여주에 건립된 고달사지에 남아 있는 원종대사탑비의 귀 부이다. 이 귀부에는 귀갑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자료 ② ④ 요의 문 양과 동일하다.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통 시대 이래의 문양을 고려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개연성 또한 완전히 배

과도기적 단계의 영관 및 위관급 장교 계급장에 귀갑 문양이 반영된 것은 충무공 이순신을 근간으로 하는 해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 으로도 이해된다. 비록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세계 해군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별 문양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위관과 영관급 장교의 그것 만큼은 귀갑 문양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에 서 이 시기의 계급장은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4. 정착기(1954.5.~1975.8.)

1946년 12월 1일 계급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개정된 해군장교 계급장은 1948년 정부 수립기를 거쳐 6·25 전쟁기는 물론 전쟁이 종료된 이후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전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만큼 당시해군장교들은 전투복 위주의 복장을 착용하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전쟁 이후 안정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복과 예복을 착용하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정복에 어울리는 문양의계급장이 요구되어졌다. 42)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방부가 그동안 각 군이 독자적으로 사용해오던 계급장을 3군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군계급장'으로 개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래 자료에는 그러한 사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금번 국군장교 계급장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위로부터 대령까지만을 채택하고, 준위는 각 군별로 위관급 계급장에 준하여 개정키로 되어 별지와 같이 도안하였으니 오는 7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 따라서 본안보다 더 좋은 창안이 있으면 첨부할 것임.⁴³⁾

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해볼 생각이다. 42) 金舜圭, 앞의 책, 1998, 337쪽.

위 자료는 해군본부 인사국장(人事局長)이 동 소속의 고급부관(高級 副官)에게 1953년 7월 11일자로 준위 계급장 개정과 관련하여 업무 연 락차 발송한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시 계급장을 개정하고자 하 던 이유과 개정 방향이 반영되어 있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 방부가 계급장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3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새로운 국군계급장을 제정하기 위합이었다. 제정의 핵심은 장관급 계급장은 각 군이 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두되. 영관과 위관급의 문양을 통일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준위 계급장에 대 해서는 기존과 같이 각 군별로 위관급의 계급장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료 ⑤ 계급장 문양 도안(1953.7.11.)〉

風量階級賣富在益失会四日 棵根北水 尉官 书軍第一案 當軍第二案 (三 准) 多軍第一、二米 栗面

국방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하자 해군에서는 일등준위 와 이등준위의 계급장 개정 안 2개를 놓고 해군본부 소 속의 주요 부서와 예하 부대 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 결과는 위관급 의 소위 계급장과 동일하게 금강석을 문양으로 하되 계 급장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 고 그 중앙에 두께가 다른 청색의 일자형 줄무늬를 삽 입하여 계급적 차이를 구분 하는 1안이 채택되었다.44)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국군장교 계급장 심사위원회에서

^{43)「}會報 揭載 依賴의 件」『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業務連絡(4286년 7월 11일).

⁴⁴⁾ 주 43)과 같음. 당시 부서별 종합된 준위 계급장 신규 채택 의견서 결과는 「准尉 階級章(略章) 改正의 件」『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补圣.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당시 채택된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은 자료 ⑤의 도안과 같다. 45)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이이미 채택된 것은 국방부가 이전 시기부터 계급장을 개정하기 위해 국군장교 계급장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모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개정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국군장교 계급장 심사위원회는 1953년 5월 1일에 계급장 견본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등위별 우수작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결과는 동년 5월 20일에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1등으로 선정된 계급장 견본은 부산시 충무로 4가 5번지에 거주하던 접수번호 573번의 이동훈(李重勳)46)이 제출한 견본이었다. 2등과 3등은 마땅한 작품이 없었기에 선정되지 않았고, 가작으로는 10명이 선정되었다. 47)

1등으로 선정된 이동훈의 계급장 견본은 기존과는 다른 문양이었다. 위관급은 능형의 금강석을 문양으로 하여 그 수에 따라 계급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영관급은 밑바탕이 되는 문양을 대나무 잎사귀로 하고, 그 중앙에는 위관급 문양으로 사용되는 금강석을 반영하였다. 그 문양은 대나무 잎사귀 9개를 원형의 꽃무늬 형상으로 배열하여 바탕을 만들고 그 중앙에 작게 축소시킨 금강석 1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⁴⁸⁾ 당시 견본으로 도안된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을 제시하면 자료 ⑥과 같다. ⁴⁹⁾

⁴⁵⁾ 주 4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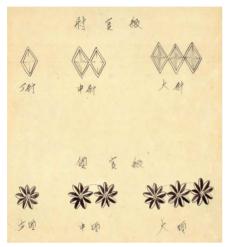
⁴⁶⁾ 견본 1등에 당선된 이동훈은 이후 해군본부가 1950년대 중반에 추진하던 장교모표 개정 작업에도 응모하였던 것 같다. 같은 이름의 한자와 거주 지역이 부산으로 동일한 이동훈이 장교모표 개정에도 지원하였던 사실이 이를 추정케한다. 이동훈은 장교모표 개정 공모전에 응모하여 가작을 수상하였다(신성재, 앞의 논문, 2015a, 266~267쪽).

^{47)「}國軍將校 階級章 審査 結果의 件」『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한 제1894 호(4286년 7월 26일).

⁴⁸⁾ 영관급 계급장 문양에 위관급의 금강석 문양이 반영된 것은 과도기적 단계에서 위관의 귀갑 문양이 영관장교의 계급장에 반영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⁴⁹⁾ 주 43)과 같음.

〈자료 ⑥ : 영관·위관급 계급장 문양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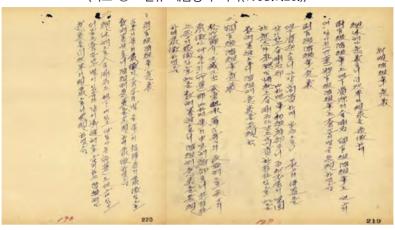
새롭게 도안된 계급장 문양에는 특별한 의미가 반영된 것이었다. 우선 총체적인 의미로서 자연계의 현상에 존재하는 사물을계급을 나타내는 상징 문양으로삼았다. 50) 위관급의 계급장은금강석을 소재로 삼았고, 영관급은 대나무 잎사귀(竹葉)를, 장관급의 경우에는 창공에 떠 있는별을 소재로 하였다. 각 계층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선정된 이 소재들은 금강석이 지하에 있고,

대나무는 지상에 있으며, 더 높은 창공에 별이 위치하고 있다. 공간적 위치를 고려한 이 같은 계층별 계급장 문양 구성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계급적인 의미를 자연계의 현상을 빌어 표현한 것이었다. 즉 우주공간의 천체로서 지하(위관), 지상(영관), 창공(장관)의 위계적 질서와 층위를 표현한 것이었다. 51) 새로이 개정된 계급장의 의의를 설명한 당대기록을 제시하면 자료 ⑦과 같다. 52)

⁵⁰⁾ 이하 개정된 신규 계급장에 반영된 문양사적 의미는 주 47) 문서 참조.

⁵¹⁾ 金舜圭, 앞의 책, 1998, 176쪽,

⁵²⁾ 주 47)과 같음.



〈자료 ⑦ : 신규 계급장의 의의(1953.7.26.)〉

총체적인 의미 부여와 함께 각 계층별 계급장에도 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부여되었다.

위관급 계급장 의의. 지하 자원으로서 가장 고귀하며 보석(宝石)으로서 최상의 가치를 차지하는 금강석(金剛石), 즉 비유하면 군 초급 간부로서 백절불굴(百折不屈)의 견고한 의지(意志)와 기백(氣魄) 및 정열(情熱)은 금강석과 같은 고귀한 존재이므로 이를 수적(數的) 누진(累進)으로서 계급적인 의의를 표현함.53)

위관급 장교는 군을 이끄는 초급 간부로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견고한 의지와 기백 및 정열을 가진 존재이기에 지하 자원 중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이자 최상의 가치를 지닌 금강석에 비유하여이를 계급장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삼았다.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⁵³⁾ 주 47)과 같음.

영관급 계급장 의의 소나무와 대나무(松竹)의 절개는 불멸(不滅)・불출(不出)하 고. 무용(武勇)을 계승함은 만고(萬古)의 청청(靑靑)함이니 민족적으로 무사(武士) 의 상징인 '대잎사귀(竹葉)', 즉 비유하자면 군의 중견적(中堅的) 간부로서 그 존재는 무사의 상징이므로 이를 수적(數的) 누진(累進)으로서 계급적 의의를 표현 하여 상징하였음 54)

영관급 장교는 송죽(松竹)의 절개를 지닌 불멸불출의 영원한 존재이 자 군의 중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민족사 적으로 무사를 상징하는 대나무 잎사귀에 비유하여 이를 계급장의 상 징적인 문양으로 삼았다.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반영된 것이었다.

장관급 계급장 의의 고래의 군의 상징인 창공(蒼空)의 별은 군의 지휘자의 상징이 므로 수적(數的) 누진(累進)으로서 계급적 의의를 표현하여 상징하였음.

장관급 장교는 과거로부터 군을 상징하는 것이 창공의 별이었으므로 군을 지휘하는 상징적 문양은 곧 별이 된다. 55) 따라서 장관급 장교는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존재이므로 별을 그 핵심 문양으로 삼았 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3군에 통일적으로 제정된 계급장은 지하-지상-창공 으로 이어지는 자연계 현상의 위계적 질서를 반영하여 그 지위 고하를 표현하였다. 또한 각 계급장은 자연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소재인 금강석과 대나무 잎사귀. 별을 소재로 하여 문양을 제작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초급 간부인 위관급에는 백전불굴의 기상과 의지 를 상징적인 의미로 반영하였고. 중견 간부인 영관급에는 불멸불출과 만고청청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장관급에는 고래의 군을 상징하는 지 휘관의 의미를 반영하였다.

⁵⁴⁾ 주 47)과 같음.

⁵⁵⁾ 물론 별은 전통적인 문양이라기보다는 미국 등 서구의 영향을 받은 문양이다.

3군 통일형 계급장이 제정됨에 따라 영관 및 위관급 장교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온 귀갑을 특징으로 하는 해군 고유의 계급장 문양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금강석과 대나무 잎사귀를 소재로 하는 문양이 대신하게 되었다. 정착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해군의고유한 문양이 반영된 체제에서 3군 공통의 통일된 문양 체제로 새롭게 정착되어가던 사정을 반영한다.

3군 통일형 계급장으로 공식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1954년 5월 15일이었다. 56) 앞서 제시한 금강석과 대나무 잎사귀 문양으로 제작되었고, 그 규격은 영관은 지름 2cm, 위관은 세로 2cm×가로 1cm로 하였다. 57) 개정된 통일형 계급장이 사용되었음은 자료 ⑧을 통해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료 ⑧ : 3군 통일형 계급장을 부착한 사진(1950년대 중반)〉







자료 ⑧은 1955년 4월 7일에 졸업한⁵⁸⁾ 해사 9기생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교수들의 사진이다.⁵⁹⁾ 좌측부터 당시 선박의 기관(박용기관) 교육을 담당하였던 박창성 대위, 수학 교육을 담당하였던 이용두 소령, 역시 수학을 교육한 김병수 중령의 모습이다. 이들의 근무복 상의 깃에

⁵⁶⁾ 金舜圭, 앞의 책, 1998, 337쪽.

⁵⁷⁾ 金舜圭, 앞의 책, 1998, 338쪽.

^{58) 『}부대역사자료』 1권(1946.1.1.~1980.12.31.). 해군사관학교. 27쪽.

^{59) 『}해군시관학교 9기생 앨범집』 참조.

부착된 계급장에 유의해보자. 이 문양은 1954년 5월에 새롭게 개정된 계급장의 문양이다. 사진 상태가 다소 흐릿하지만 이들이 사용하고 있 는 계급장은 금강석과 대나무 잎사귀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것임을 분 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통일형 계급장은 장교들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어졌 다. 그러나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부착 요령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 여 올바르지 않게 부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60) 이를 통일하기 위 한 후속 작업이 추진되었다. 즉 해군본부는 "영관급 계급장 부착 방법 에 있어 상하를 반대로 부착하는 사례가 있으니 다음과 같이 부착함이 정식이니 착오가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예하부대 전 반에 시달하였다.61)

개정된 계급장은 1960년 초까지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계급 장을 정복의 견장에 부착하였을 경우 규격이 작아 식별이 곤란한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1961년 7월 1일부로 그 크기를 조정하게 되었 다.62) 새롭게 크기가 상향 조정된 견장은 정장(正章)으로 명명되었고. 그동안 사용하던 작은 크기의 계급장은 약장(略章)으로 호칭되었다. 당 시 정장용 계급장 크기는 영관급의 경우 직경 3㎝였고. 위관급은 세 로 3cm×가로 1.5cm였다.63)

^{60) 「}국군장교 신규 계급장 부착 요령에 관한 건」『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 경리발 제 924호(4287년 7월 5일).

^{61) 「}영관급 계급장 부착에 관한 건」『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발 제1497호· 해본고부발 제279호(4287년 7월 6일).

⁶²⁾ 金舜圭, 위의 책, 1998, 337쪽.

⁶³⁾ 위와 같음.

5. 완성기(1975.9.~1980.1.)

1950년대 중반에 정착된 금강석과 대나무 잎사귀, 별을 문양으로 하는 계급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1975년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발생하였다. 1975년 9월 27일, 국방부는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에 대한 군인복제 개정령을 공포하였다. "군인복제 개정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인복제 부칙 규정에 의하여 1975년 9월 29일을기하여 장군의 신계급장 부착을 지시하니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할것."64) 이는 9월 30일자 대통령령 7837호의 '군인복제 일부 개정'으로최종 시달되었다.65)

국방부가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을 개정한 것은 그동안 사용해온 계급장 문양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계급장과 동일하여 고유성이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66) 이에 따라 개정된 계급장은 장관급장교를 상징하는 별 형상은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그 아래에 활짝 핀무궁화 1개와 무궁화 잎사귀 6개를 추가함으로써 한국의 장관급 장교라는 문양적인 특징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개정된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은 자료 ⑨와 같다. 67)

^{64) 「}군인 복제 개정령 공포」 『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인근 203.1-164호(1975년 9월 27일); 「군인 복제 개정령 공포」 『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인근 244-5537호(1975년 9월 27일).

^{65) 「}군인복제」(대통령령 7837호, 일부 개정 1975.9.30.).

⁶⁶⁾ 金舜圭, 앞의 책, 1998, 337쪽.

^{67) 「}복제 일부 제정 및 개정 시달」 『海軍禮式服飾配錄物資料集』, 해본인근 244-4938 호(1975년 8월 28일).

대 기타 장성 계급장 및 로지 1 平是 **M** 식 네 / 별에 무당했 받길 추차 マタタオココン 2. 才型 (242.244) 전폭복: 은생 자수세 过程号) 기 라: 무성철제 1. 虫에 무亞針 學從 辛朴 办선 否对: 导轨/11, 智虬是 对新生用测 6.4 6.78 꽃 왕오리 그게 그, 지절: 윤병색 자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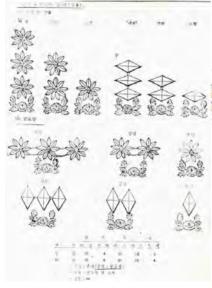
(자료 ⑨ : 장관급 계급장 개정 문양(1975.8.28.))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에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가 추가된 것은 해 군장교의 계급장 문양이 한국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완성된 체제로 나 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군장 교의 계급장은 과도기에 독특한 형상으로 제작된 귀갑이 영관 및 위관 급 장교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착기에 들어와서 3군 공통의 대나무 잎사귀와 금강석 문양으로 대체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일부 계급장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해군이 고유하게 사용해오던 문양 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사실 은 귀갑을 대신하여 새롭게 채택된 대나무 잎사귀와 금강석을 소재로 하는 계급장 역시 매우 독창적인 문양이라는 점이다.

개정된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이 한국군의 독창적인 특 징을 나타내고 있음에 비해 장관급 장교의 그것은 미군이 사용하던 계 급장과 차이가 없었다. 결국 장관급 장교 계급장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그 해결 방안은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즉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에 무궁화와 무궁화 잎시귀 형상을 추가함으 로써 타국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문양체제를 갖 추도록 하였다.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에 한국적 특징을 나타내는 문양이 추가된 뒤,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추 진되었다. "장관급 장교가 사용하던 계급장과 같은 문양의 무궁화 받침 을 전 장교를 대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일원화를 기하고자 한다"는 1980년 10월의 공문서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68) 당시 영관 및 위관급 계급장에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 문양을 반영하고자 하였던 것은 전 계급장을 일관성 있는 체제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료 ⑩ : 3군 공통의 영관 및 위관급 장교 계급장(1980.4.16.)〉



이에 따라 군인 복제령 중일부가 대통령령 제9713호('80.1.10.)로 개정되었다.69) 개정의 핵심 내용은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도 장관급 장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해군장교의 전 계급장에는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 문양이모두 반영되어지게 되었다. 무궁화 문양이 반영된 3군 공통의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도안을 제시하면 자료 ⑩과 같다.70)

^{68) 「}장교 계급장 소요 판단 자료 제출」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인근 203,2-50 호(1979년 10월 17일); 「장교 계급장 소요 판단 자료 제출」 『海軍禮式服制記錄物 資料集』, 해본인근 244-9252호(1979년 10월 25일). 당시 준위부터 대령까지(8,472 명) 소요 판단된 수량은 예비량을 포함하여 총 84,720개였다.

^{69) 「}군인복제」(대통령령 9713호, 일부 개정 1980.1.9.). 당시에 작성된 공문서에는 1 월 10일로 나오지만, 해당 대통령령을 보면 1월 9일로 기록되어 있다.

^{70) 「}개정된 장교 계급장 부착요령 시달」『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인근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가 모든 장교의 계급장에 공통적인 문양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해군이 어느 국가에 소 속되었는가 하는 국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이는 이전 시기에 사용하던 계급장과 비교하여 통일된 문양으로 일원화되었음은 물론 보다 완성된 형태의 해군장교 계급장 문양체제가 확립되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71) 결국 이 시기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장교의 계급 장 문양체제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 군장교와 국군장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문양으로 자리하고 있다

6. 맺음말

계급장은 군복이나 군모 등에 부착하여 군인의 지위나 계급을 나타 내는 표지장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군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계급장 중 특별히 금속형 계급장에 주목하여 그 변천 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군장교 계급장은 해군이 창설되던 해방 직후의 초창기를 시작 으로, 과도기, 정착기를 거쳐 완성기에 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 었다.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계급장의 문양과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초창기에 사용된 계급장은 활짝 핀 무궁회를 바탕으로 그 중앙 에 태극 형상이 새겨진 문양이었다. 이 계급장은 이듬해인 1946년 2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이

²⁴⁴⁻⁵⁴⁴⁷호(1980년 4월 16일).

⁷¹⁾ 개정된 계급장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전 장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위와 같음); 「개정 장교 계급장 보급 방침」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국방부 물자 952.3-481호(1980년 3월 25일).

문양은 국방사령부 경비국 소속 경찰들이 사용하던 모자의 귀단추를 임시적으로 차용한 것이었다. 무궁화와 태극을 문양으로 사용한 점에 서 해군의 국가적 소속과 존재적 의미를 반영한 것이지만, 타 기관에서 사용하던 문양을 차용한 점에서 독자적인 계급장을 제정하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 또한 내포한 것이었다.

과도기에 사용된 계급장은 미 해군의 영향을 받은 별 문양과 더불어 한국 해군장교임을 상징하는 귀갑 문양이 반영된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별 문양은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으로 사용되었고, 귀갑은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으로 사용되었다. 사용된 기간은 1946년 12월부터 1954년 4월까지였다.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으로 사용된 귀갑은 거북선의 지붕을 보호하는 갑옷을 형상화하여 만든 문양이었다. 귀갑이 해군장교의 계급장 소재로 사용된 것은 이를 문양화하여 해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해군이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라는 의미를 귀갑으로 상징화함으로써 자주적이면서도 고유한 성격을 갖는 한국 해군만의 계급장 문양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정착기의 계급장은 3군 통일형 계급장으로 개정된 특징으로 보인다. 장교의 계급장 통일화 작업은 국방부 차원에서 1953년 즈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금강석(위관급), 대나무 잎사귀(영관급), 별(장관급)이 해군장교의 계급장 문양으로 채택되었다. 이 문양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계급적 의미를 자연계의 현상을 빌어 표현한 것으로 그동안 해군이 독자적으로 사용해오던 문양체제에서 3군 공통의 통일된 문양체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군 통일형 계급장은 1954년 5월부터 1975년 8월까지 전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해군장교 계급장은 1975년 9월에 이르러 부분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 이유는 장관급 장교의 별 문양 계급장이 미국을 비롯한외국군 장교의 그것과 동일하여 고유성이 부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무궁화 임사귀를 계급장

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1980년 1월에 이르러 전 장교 의 계급장에 모두 반영하여 통일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가 장교의 계급에 공통적으 로 반영된 것은 해군이 소속된 국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 로 보다 완성된 형태의 계급장 문양체제가 확립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시기에 완성된 계급장 문양체제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계승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군장교와 국군장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문양으로 자리하고 있다.

(원고투고일: 2018, 1, 13, 심사수정일: 2018, 5, 9, 게재확정일: 2018, 5, 14)

주제어: 해군장교, 계급, 계급장, 문양, 상징, 금강석, 대나무 잎사귀, 별, 귀갑

〈참 고 문 헌〉

1. 사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録』

『부대역사자료』1권(1946.1.1. ~ 1980.12.31.),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3기생 앨범집』.

『해군사관학교 5기생 앨범집』.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관리번호: 14-D-전-000020).

2. 저서

國防部,『國防史 11』,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1984.

金舜圭,『韓國의 軍服飾發達史 I 現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8.

金在勝. 『近代韓英海洋交流史』, 仁濟大學校 出版部, 1997.

金在勝、『韓國近代海軍創設史』、 혜안、2000.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심헌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이경미, 『제복의 탄생 - 대한제국 서구식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변천』, 민속원, 2012

海軍本部, 『海軍 30年史 1945~1975』, 1978.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第1輯, 1954.

3. 연구논문

신성재, 「한국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천과 그 함의」 『軍史』 94, 2015. http://uci.or.kr/G704-001528.2015...94.003

신성재,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 『대한민국 해군 우리의 미래(해군창설 70주년 기념 특별전)』,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2015.

4. 기타

金省三, 「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 『海軍』 創刊號(제1권 1호), 1951. 박원규. 「海軍服制 變遷概要」 『海軍』 제272호, 海軍本部政訓監室, 1977. <Abstract>

The Transitional History of the Korean Naval Officer's Rank Insignia:

- Focused on Metal Grade Insignia -

Shin, Seong-Jae

Rank insignia means a symbol that, attached to military uniform or cap, and shows soldier's status and rank.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nsition of metal grade insignia especially. Design features of periodical changes in the insignia are summed as follows.

First, the rank insignia in early period was designed Taeguk symbol at the center of the bases of Mugunghwa pattern. This insignia had been used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1 1946 to November 30. The insignia borrowed the retaining button of police officer's cap in the National Security Guard temporarily, which indicated the limits that the navy failed to establish its independent rank insigni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rank insignia of the Korean navy reflected its original characteristics. Of course, the star-shape rank insignia of flag officers was influenced by that of the US Navy, Unlike this, the rank insignias of officers below flag grade were manufactured following the tortoise shell shape that symbolized the armor protecting the rooftop of the turtle ship. It meant the birth of Korean navy's original rank insignia with independent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since the insignia was granted with the symbolic significance that the navy was the posterity of Admiral Yi Sunshin.

In the settlement period, the Korean naval officer's rank insignia was revised to the triservice common insignia. The Ministry of Defense to commonize rank insignia in 1953 and began

diamond(Company grade officer), bamboo leaf(field grade officer), and star(flag officer) designs. These designs represented the gradually escalating ranks in terms of the natural world; they also meant that individual rank insignias of each branch of the armed forces became a triservice common system. The common insignia was in use between May 1954 and August 1975.

In September 1975, naval officer's rank insignia went through a partial revision. It was because the star—shape rank insignia of flag officers was identical to that of foreign armed forces and thus lacked originality. Therefore, Mugunghwa and its leaves were added to the insignia as the flower reflected Korean character. This design was expanded to the entire officer ranks in January 1980.

The application of the design that symbolized Korea to the entire officer's rank insignia meant the complete establishment of naval officer's rank insignia system as the design demonstrated clearly the national identity. This complete rank insignia system continues today, making itself the core symbol of the identity of officers of the navy and the Korean armed forces.

Key Words: naval officer, rank, rank insignia, design, symbol, diamond, bamboo leaf, star, tortoise shel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83-110 https://doi.org/10.29212/mh.2018..107.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메이지(明治) 시기 해군장교의 저술 속 이순신(李舜臣)

-오가사와라 나가나리(小笠原長牛)의 저술을 중심으로-

김준배*



- 1 머리말
- 2. 오가사와라 나가나리의 약력
- 3. 해상권의 중요성과 이순신
- 4. 군인의 귀감으로서의 이순신
- 5. 맺음말

1 머리말

근대 일본 해군 중 이순신(李舜臣)을 가장 깊이 연구하고, 존경했던 인물을 들자면 사토 데쓰타로(佐藤鉄太郎)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해군본부 대위 본 논문은 해군 보안성 검토를 필한 논문임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육군이 작전의 중심이었던 일본의 메이지(明治) 국방사상을 해군 중심의 '해주육종(海主陸從)'으로 바꾼 해군의 사상가로서 유명하다. 그는 초급장교 시절 조카이(鳥海)함 근무 중 인천에 기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순신의 전사를 깊이 연구했다고 하며,1) 그러한 그의 초급장교 시절의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은 그가 중장(中將)이되어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의 저작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육주해종(陸主海從)'을 해주육종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이론을 제공했던 1908년의 『제국국방사론(帝国国防史論)』인데, 이는 그가 해군대학교 교관을하던 1907년 당시의 강의록 『해방사론(海防史論)』에 수정·가필을 가한 것이다.2) 이 책에 이순신에 대한 극찬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의 강의를 들은 일본 해군의 고급장교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순신에 대해 알게되었다.

그런데 사실 일본 메이지 해군 중에서 사토보다 이른 시기에 해군 및 국민일반에게 이순신을 알린 것은 오가사와라 나가나리(小笠原長生)였다. 그는 1908년 사토의 『제국국방사론』보다 10년 이른 1898년에 『제국해군사론(帝国海軍史論)』을, 1902년에는 『일본제국 해상권력사강의(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이하 해상권력사강의)』를 발표한바 있는데, 두 저술에서 모두 이순신을 다루면서 그를 높이 평가하고있다. 『제국해군사론』은 해군 수뇌부(首腦部)의 명을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술, 메이지(明治) 일왕의 서견(書見) 이후 전국 중학교로배포된 것이며,3》 『해상권력사강의』는 사토의 『제국국방사론』처럼 오가사와라가 해군대학교 교관일 당시의 강의록을 책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해군 고급장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만큼 이 두 저술이

¹⁾ 佐藤鉄太郎, 『帝国国防史論(上)』, 原書房, 1908, p.4.

²⁾ 石川泰志 著,戰略研究學會 編、『戰略論大系』9,芙蓉書房出版,2006,p.121.

³⁾ 오가사와라는 당시 이토 스케유키(伊東祐亨) 해군 군령부장의 명을 받아, 해상제패 사실을 정리한 「제국해군사론」을 1898년 가을에 탈고, 천황의 서견(書見)이후 인쇄 하여 전국 중학교에 기증하였다.(田中宏巳,「佐藤鉄太郎-海主陸従の理論的旗手」, 「歴史読本」10巻4号, 新人物往来社, 1985, p.149).

일본 내에 이순신을 전파하는 데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저술 속에서 이순신의 활약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파하고 있으며, 이순신의 활약을 주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록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사토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오가 사와라이지만, 그가 일본 내에 이순신을 전파하는 데에 일익(一翼)을 담당했음에는 틀림없다.

사토 데쓰타로에 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이루어졌으 나. 지금까지 오가사와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에서 다양한 방면으 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 郎)와의 관계. 그의 청일전쟁·러일전쟁사 편찬. 그와 쇼와(昭和) 시대 군국주의(軍國主義)와의 관련성 등에 주목해왔으며, 그의 이순신 서술 에 주목한 연구는 극히 적다. 또한 이순신에 관한 연구는 오가사와라의 저작 중 『해상권력사강의』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발행 된 『제국해군사론』에서의 이순신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연 구에 의하면 사토와 오가사와라 두 사람이 저술 속에 이순신을 등장시 킨 것은 당시 메이지 해군의 해주육종론 달성을 위함이었다고 하지 만.4) 오가사와라의 저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해주육종론을 주장한 적은 없으며, 때문에 그의 저술 속 이순신 또한 해주육종론 달성을 위 해서 등장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순신은 당시 메이 지 해군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속에서 오가사와라의 저술 속에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오가사와라의 개인적 행 적을 고려해보면 그의 저술 속 이순신은 해군력 확장 이외에도 또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의 논지 전개를 통해 확인해 볼 예정이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소설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는 그의 저서 『메

⁴⁾ 宋判權、「旧日本軍関係者文書に見る李舜臣」、『北東アジア文化研究』25号、鳥取女子 短期大学院, 2007, p.48.

이지라고 하는 국가(明治という国家)」에서 '이순신을 발견한 것은 메이 지 일본해군이었다.'5)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는 또한 '1904, 5년경의 일본 해군사관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학교에서 배우고, 책으로 읽어 서 잘 알고 있던 것이다. '6'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학자로 유명한 박은 식(朴殷植) 또한 1915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기초한 『이순신전』 서문에 서. '저 일본인이 이(이순신)를 스승으로 삼았도다 '라는 말과. 이순신 으로 인해 '일본 군사계의 교육이 실로 그 혜택 받은 것이 많다'고 한 바 있다.7) 이들의 주장은 1914년 일본 해군장교들의 친목회 '스이코샤 (水交計)'에서 발간한 『이순신전』을 비롯하여. 1900년대 오가사와라나 사토와 같은 이들이 해군대학교에서 이순신 강의를 하고. 그 강의록을 책으로 출판한 것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굳이 시 바 료타로나 박은식의 서문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1915년 이전에 일본 에서는 이미 이순신에 관한 연구와 서적이 다종다양하게 발간되었다. 오가사와라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메이지기 해군 내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전파 되었는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보다 이른 시기 에 일본 해군 내에서 이순신을 연구한 오가사와라에 대한 주목은 반드 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오가사와라 나가나리의 약력

오가사와라는 에도 막부(江戸幕府)의 로주(老中: 막부에서 정무를

⁵⁾ 司馬遼太郎, 『明治という国家』, 日本放送出版協会, 1989, p.210.

⁶⁾ 司馬遼太郎, 前揭書, p.210.

⁷⁾ 박현규·권혁태, 「朴殷植『李舜臣傳』의 全文 발굴과 분석」, 『이순신연구』 창간호, 순 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3, 233쪽.

총괄하던 직책)였던 오가사와라 나가미치(小笠原長行)의 장남으로서 1867년 에도(江戸, 지금의 도쿄)에서 태어났다. 무가 출신의 자제로서 전통적 한자교육을 받고 메이지 정부의 의무교육을 받은 그는 8) 1880 년 가쿠슈인(学習院)을 거쳐 1884년 9월 해군병학교(海軍兵学校)에 입 학했다. 14기로 해군병학교를 졸업한 그의 동기에는 후에 총리대신을 지낸 스즈키 가타로(鈴木貫太郎)와 사토 데쓰타로가 있었다.9) 1894년 다카치호(高千穂) 함의 분대장으로서 청일전쟁(清日戰爭)에 출전한 그 는. 이후 군령부(軍令部) 청일전사(淸日戰史) 편찬위원이 되어 군사사 (軍事史)에 관한 문필활동을 시작한다. 러일전쟁 당시에는 군령부 참모 로 근무하였으며. 전쟁 이후 해군대학교 교관 등을 거쳐 1914년 4월부 터 1921년 3월까지 도구온가쿠몬쇼(東宮御学問所, 일왕가 태자 교육기 관) 간사로 일하게 되었다. 도고가 당시 도구온가쿠몬쇼의 총재였기 때 문에 그를 가까이서 모시며 함께 태자 시기의 쇼와(昭和) 일왕의 교육 을 담당했다 10) 그는 이 시기 도고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으 며, 외부인이 보기에는 오가사와라와 도고가 표리일체(表裏一體)의 관 계로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11) 그는 도고를 충군애국(忠君爱國)의 귀감 으로서 존경하였으며, 다이쇼기(大正期)부터 쇼와기(昭和期)에 걸쳐 도 고에 관한 저작과 선전활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여, 도고 헤이하치로 의 이미지를 '성장(聖將)'으로 만드는 데에 크게 공헌했다. 12) 1918년에 해군 중장(中將)이 되었으며. 1921년 예편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 했다. 그는 저작. 강연활동을 비롯해 서도가(書道家)로도 명성을 떨쳤 으며, 가부키(歌舞伎)계와의 교류는 물론 종교계와도 교류했다. 화족 (華族) 출신인 만큼 화족회관에서의 활동도 산견(散見)되며, 그가 졸업

⁸⁾ 田中宏巳,「小笠原長生と東郷伝説」,『歴史読本』49(4), 新人物往来社, 2004, p.145.

⁹⁾ 石川泰志 著. 김일상 역. 『일본해군국방사상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5. 29쪽.

¹⁰⁾ 飯島直樹、「翻刻と紹介「小笠原長生日記 昭和八年」」、『東京大学日本史学研究室紀 要』21巻,東京大学人文社会系研究科, 2017, p.211.

¹¹⁾ 田中宏巳, 前掲書, p.145.

¹²⁾ 飯島直樹, 前掲書, p.211.

했던 가쿠슈인의 원장 취임을 요청받기도 했다.¹³⁾ 말년에는 2·26사건 당시 쿠데타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¹⁴⁾ 1958년 향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문재제독(文才提督)이라고 불릴 만큼 저술활동으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명문가의 장남이었던 그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은 덕분에 문학적 자질이 매우 뛰어났다. 14·15세의 그가 이미조루리(浄瑠璃: 일본의 전통인형극)와 가부키(歌舞伎: 일본의 전통가면극)의 대본을 썼다고 하니, 문장력이 이미 일반적인 어른 이상이었던 것이다. 15) 이러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다. 임관 후 청일전쟁의 체험을 기반으로 1895년 『해전일록(海戰日錄)』을 저술하고, 1898년에는 『제국해군사론』, 1902년에는 『해상권력사강의』를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도고의 전기를 비롯, 『대해전비사(大海戰祕史)』, 『격멸(擊滅)』 등 수많은 전쟁사 서적을 간행한다

해군에 있어 최초의 전사편찬이었던 청일해전사 편찬¹⁶⁾이 오가사와라에게 맡겨진 것은 그가 청일전쟁 중 『해군전기(海軍戰記)』를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연재하고, 그 이후 『해전일록』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저작을 간행하여 세간에서 평판을 얻고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그는 이후 해군의 전사편찬 작업 중 하나였던 러일해전사 편찬에 있어서도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¹⁸⁾ 일본역사에대한 소양, 편찬능력 면에서 그와 겨룰 인물은 없었으며, 그 때문에 그

¹³⁾ 飯島直樹, 前掲書, p.215.

¹⁴⁾ 岡田貞寛, 『父と私の二·二六事件』, 講談社, 1989, pp.266-270.

¹⁵⁾ 太平洋学会,「太平洋人物誌 佐藤鉄太郎」,『太平洋学会誌』51号, 太平洋学会, 1991. 7. p.102.

¹⁶⁾ 田中宏巳,「日清・日露海戦史の編纂と小笠原長生」,『軍事史学』第18巻第3号, 軍事 史学会, 1982, p.39.

¹⁷⁾ 田中宏巳, 前掲書, p.40.

¹⁸⁾ 田中宏巳. 前掲書. 1982 p.38.

에게 청일 · 러일전쟁사의 편찬사업이 맡겨지게 된 것이다 19) 이처럼 오가사와라는 전사의 대가였으나, 전사편찬은 철저히 비밀주의에 입각 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전사를 편찬한 것을 주위에 그다 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20)

앞서 언급한 사토 데쓰타로와는 같은 해군의 대표적 지장(智將)으로 서 뮤핔(文筆)상의 라이벌이었다. 다양한 대중서를 발간한 덕분에 국민 적 지명도는 오가사와라 쪽이 훨씬 높았지만, 해군 내에서의 연구가. 이론가로서의 명성은 사토 쪽이 단연 높았다. 21) 그러나 둘은 해군병학 교 동기일뿐 아니라 매우 친했으며 22) 사토의 처는 오가사와라의 여동 생이었다.23) 또한 사토가 앞서 언급한 도구온가쿠몬쇼에서 태자에게 전사(戰史)를 강의한 바 있는데, 이 또한 동기생 오가사와라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 24) 1934년에는 왕실 방면에 영향력이 있던 오가사와라 의 후원으로 사토는 귀족원(貴族院) 의원이 되기도 했다. 25) 이렇듯 관 계가 깊은 두 명의 해군장교가 이순선에 대해 같은 견해를 나타내며. 그에 관해 저술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제국 국방사론』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을 표출한 사토와 는 달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고에 경도된 오가사와라는 러일전쟁 이후 이순신에 관한 언급을 그다지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에 관해 서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러일전쟁 이전에 집필된 두 저작. 『제국해군사론』과 『해상권력사강의』에는 이순

¹⁹⁾ 田中宏巳、「小笠原長生と東郷伝説」、『歴史読本』49(4)、新人物往来社、2004、p.145.

²⁰⁾ 田中宏巳「佐藤鉄太郎ー海主陸従の理論的旗手」『歴史読本』10巻4号、新人物往来社、 1985, p.149.

²¹⁾ 田中宏巳, 前掲書, p.153.

²²⁾ 오가사와라의 첫 저작 『해전일록』에는 「포함 아카기(赤城)의 항해장 사토 대위, 2 번 분대장 마쓰오카(松岡) 대위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라는 서술이 있다.(小 笠原長生, 『海戦日録』, 春陽堂, 1895, p.86).

²³⁾ 太平洋学会, 前掲書, p.102.

²⁴⁾ 田中宏巳, 前掲書, p.148.

²⁵⁾ 田中宏巳. 前掲書. p.153.

신의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상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이후의 내용을 통해 두 저술의 집필 목적과 두 저술 속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3. 해상권의 중요성과 이순신

오가사와라가 1898년 집필한 『제국해군사론』과 1902년 집필한 『해상 권력사강의』는 동일하게 일본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 양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국해군사론』이 일반대중을 겨냥하 고 집필되었기 때문에 보다 평이한 문체로 서술되었다면, 『해상권력사 강의』는 해군대학교에서 고급장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전문 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된 내용과 주제는 거의 비슷하며, 후에 나온 『해상권력사강의』가 앞서 간행된 『제국해군사론』을 보충하는 느낌이 강 하다. 이 두 저술의 주제는 '해상권(海上權, 혹은 해상권력)'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두 저술의 전반에 드러난다.

해상권력이 쇠하면 종종 우리 국경지대의 백성이 침략을 받았다. 26)

군략(軍略)의 대요소(大要素)는 적의 해상권을 제압하는 것27)

적에게 해상의 권력을 장악당하면 우리 항해의 통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통상무역도 뜻대로 할 수 없다.²⁸⁾

위의 서술을 통해 오가사와라가 『제국해군사론』과 『해상권력사강의』

²⁶⁾ 小笠原長生, 『帝国海軍史論』, 春陽堂, 1898, p.36.

²⁷⁾ 小笠原長生. 前掲書. p.120.

²⁸⁾ 小笠原長生, 前掲書, p.131.

에서 이순신을 소개하고, 그를 높이 평가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는 이순신을 소개하며 말하기를. 그가 '팔도무쌍(八道無雙)의 명장(名 將)'29)이며 '조선을 평안케 한 인물'30)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순신 은 '만사에 장군다운 기량을 갖춘'31) 사람으로서, 그가 출진하면 일본 수군은 모두 '싸울 용기를 잃었다'32)고 주장한다. 두 저술에서 모두 이 순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오가사와라가 위와 같이 이순신을 높이 평가한 원인 또한 '해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었다. 그는 이순신을 서술하는 내내 그와 함께 '해상권'의 중요성을 논 하다

특히 다른 부대도 이순신이 나온 것을 듣고 기가 꺾여. 모두 섬 그늘 혹은 만내에 작복하여 겨우 얻은 해상권을 다시 이순신이 점령하게 되었다.³³⁾

이순신은 한산도에 주둔하여 해상 권력을 장악하여 우리로 하여금 반걸음도 서쪽으로 내딛을 수 없게 했다.34

순신은 일단 우리 손에 돌아온 해상 권력을 다시 휘탈했다 35)

순신은 한산도를 근거지로 하여 확실히 이군의 서진을 막고, 그 후 수회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다. 우리 수군은 수개월의 기나긴 동안 부산포 내에 숨어있는 것뿐으로. 다시 나와 싸울 용기가 없었다. 해상의 권력은 전부 그가 확고히 지키고 있었기에. 전쟁의 대요소(大要素)는 이에 전부 소멸되어서, 질풍같이 맹진했던 우리 육군도 스스로 고립된 형세가 되었다. 36)

²⁹⁾ 小笠原長生, 前掲書, p.43.

³⁰⁾ 小笠原長生,『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学校); 1904(春陽堂), p.133.

³¹⁾ 小笠原長生. 前掲書. p.136.

³²⁾ 小笠原長生, 前掲書, p.119.

³³⁾ 小笠原長生. 前掲書. p.129.

³⁴⁾ 小笠原長生, 『帝国海軍史論』, 春陽堂, 1898, p.45.

³⁵⁾ 小笠原長生, 前掲書, p.49.

³⁶⁾ 小笠原長生、『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1902,11(海軍大学校);1904(春陽堂)、p.119.

이 모두 해상권을 잃으면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만세불변의 원칙에 반하였기 때문이다. 37)

이처럼 오가사와라가 해상권을 강조하면서 이순신과 해상권을 지속적으로 결부지어 논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상권력사강의』「자서(自序)」에 의하면, 오가사와라는 이토 스케유키 당시 해군 군령부장의 명을 받아 『제국해군사론』을 저술했다고 한다. 저술의 목적은 일반인에게 해상권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해군을 확장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토와 오가사와라의 서문에 나와 있다.

해군 경영은 지난(至難)하다. 때문에 진실로 해군의 확장을 도모하기 원한다면 먼저 국민 일반의 해사사상(海事思想)을 발달시켜 온 나라의 일치의 실(實)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오가사와라 대위가 이 책을 저술한) 그 뜻은 생각건대 해국(海國) 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곰곰이 음미하게 하여 해상 권력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자 함에 있다.38)

세상에는 무적의 일대 세력이 있다. 이는 해상권이라고 한다. 이는 단지 국운융성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승패의 대국을 결정하는 원동력이 된다. (중략) 논의가 심오원박(深奥遺博)하여 소년 자제들이 능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가 있다. 만약 이를 평이하게 기술한 책이 없다면 우리 국민이 그 진가를 살필 자가 적고 해군의 확장에 있어서 거국일치의 결과를 바라기 어렵다. 39)

이는 『해상권력사강의』의 집필 목적과도 일치한다. 1900년 12월 해군 대학교 교관을 겸직하게 된 오가사와라는 「제국 해상권력사」라는 과목의 강의를 명받아 해군장교들을 대상으로 이를 강의하고, 이 강의록의 원 고를 기초로 하여 『해상권력사강의』를 낸 바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또 한 해상권에 관한 주요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³⁷⁾ 小笠原長生, 前掲書, p.121.

³⁸⁾ 小笠原長生,『帝国海軍史論』,春陽堂,1898.「序」.

³⁹⁾ 小笠原長生, 前掲書, 「自序」.

활안(活眼)으로 자세히 열람해보면. 역사적으로 해상권에 관한 흥미진진(趣味津 津)한 일이 끝이 없음을 느끼다 40)

'해상권-Sea power'은 당시 일본 해군에 새로이 들어온 개념으로 서. 미국의 전쟁사학자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Alfred Thayer Mahan) 의 1890년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머해은 해상무역의 발달 이 곧 국민번영의 기초가 되고. 해군력은 오로지 해상무역을 보호하는 데에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세한 해군력에 의한 제해 권(制海權)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머해의 주장이 담 긴 저서는 일본 스이코샤의 잡지 『스이코샤 기사(水交社記事)』에 1893 년 7월 그 개요가 소개되어. 1896년에는 『해상권력사론(海上權力史論)』 이라는 제목으로 완역되었다.41) 오가사와라 또한 『제국해군사론』에서 머핸의 『해상권력사론』의 요점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42) 『해상권 력사강의 서언(緒言)에서도 머해의 이론을 언급하고 있다.43)

이러한 해상권의 개념은 당시 해군의 확장을 바라던 일본 해군에 있 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던 일본에게 제해권 확 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었으므로, 해군은 해군력 확장을 통해 이 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893년 1월. 해군은 당시 육군 우위(優 位)의 체제를 개정하여 '해군 참모본부(海軍參謀本部)'의 창설 계획안을 내각에 제출하였으나 육군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44) 당시 국민은 해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45) 이 점을 육군이 파고들 어 반론을 제기한 것이었다. 일본 해군은 영국 해군을 목표로 삼고 있

⁴⁰⁾ 小笠原長生、『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1902.11(海軍大学校);1904(春陽堂)、「自序」、

⁴¹⁾ 松田十刻、『東郷平八郎と秋山真之』、PHP研究所、2008.

⁴²⁾ 小笠原長生, 『帝国海軍史論』, 春陽堂, 1898, p.195.

⁴³⁾ 小笠原長生、『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1902.11(海軍大学校); 1904(春陽堂), p.2.

⁴⁴⁾ 石川泰志 著, 김일상 역, 前掲書, p.24.

⁴⁵⁾ 田中宏巳. 前掲書. p.149.

었기 때문에, 일본이 섬나라인 이상 국방계획에서 해군은 적어도 육군과 대등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46)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은 머핸의 『해상권력사론』을 번역·도입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그 첫 과제로서 메이지 해군은 적극적으로 해상권의 중요성을 전파해나가기 시작했고, 해상권을 제압하여 성공한 사례, 혹은 제압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를 모아 책으로 낸 것이다.

그 사례의 하나로서 임진왜란과 이순신은 매우 적합했다. 불리하기 그지없던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이순신과 그의 함대는, 오가사와라는 물론 일본 해군이 원하던 해상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대중에게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해상권을 제압하지 못해 자신들이 실패한사례'로서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미 당시 출간된 일본 내 여러 서적에서 이순신의 활약 때문에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으며, 47) 이미 해군력 확장을 위한 주장의 근거로서 활용되기도했다. 48) 그러나 육군의 반대와 국민 공감의 부족으로 이전까지는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웠는데, 머핸의 『해상권력사론』이 출간됨으로써 해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오가사와라는 머핸의 이론을 기반으로 이순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평을 남긴 것이다.

임진왜란 같은 것을 사실대로 씀(直筆)으로 그 진면목을 기술하는 것은 자못불쾌한 감이 있으나, 만일 해상권력을 쥐는 것의 필요성을 말하길 원한다면,

⁴⁶⁾ 石川泰志 著, 김일상 역, 前掲書, 31쪽.

⁴⁷⁾ 다음 책들은 이순신이 수행한 한산도해전으로 인해 일본수군이 육군과 합류하지 못하였으며, 이로인해 육군 또한 진격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吉田利行, 『日本略史』巻之2下, 池園訓, 1888; 内藤耻叟 校閲, 『日本帝國史』, 博文館, 1889; 松井広吉, 『新撰大日本帝国史』, 博文館, 1891; 福田久松, 『大日本文明略史』, 福田久松, 1891; 秦政治郎, 『日本帝国歷史』, 博文館, 1892 등》).

⁴⁸⁾ 김준배,「『朝鮮李舜臣傳』著述目的に関する一考察--小田切万寿之助の『朝鮮』との関連性を中心に」、『일본언어문화』 제40집, 2017, 234쪽.

먼저 우리의 실패한 사전(事間)을 들어 은감(段艦 거울로 삼아이할 실패한 예)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히데요시(秀吉)는 동양에 둘도 없는 영걸(英傑)로서 부하 장수도 모두 천군만마 중 뛰어난 인물들이다. (중략) (그러나 그들은) 평양에서 북진할 수 없었다. (중략) 이것은 우리 수군(水軍)의 여러 장수들이 해전 전술에 졸렬(批学)하여 순신 때문에 시종 해상권력을 장악당한 죄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49)

위의 글에서 오가사와라는 '실패한 사적을 은감으로 삼기 위해' 임진 왜란의 예를 거론하였으며, 이는 '해상 권력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함 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서 활용된 것은 비단 이순신의 사 례 뿐만은 아니었다. 오가사와라는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이 영국 침공에 실패한 것도 넬슨(Horatio Nelson)의 함대에 패배하여 해 상권 장악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도 해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국민은 트라팔가(Trafalgar) 해정을 단순히 장렬하고 호쾌한(壯絕快絕) 전기(傳記)로서 읽으면 안 된다. (중략) 전 유럽 민족을 도탄(塗炭)에서 구해 평화를 지켜낸 것도 또한 이 한 번의 전투에 있다. (중략) 즉 이는 해상권력의 덕택이외에는 아니며, 해국민(海國民)이 가장 열독(熱讀)해야 하는 것이다.50)

청국의 함대는 황해(黃海)에서 격파당해 해상권을 잃었기에, 자연히 연안의 방비를 엄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중략) 해상권을 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51)

해상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들(청)의 대군(大軍)은 흡사 나무인형(木偶) 같아서. 결국 우리 군의 상륙을 막을 수 없었다.52)

⁴⁹⁾ 小笠原長生. 『帝国海軍史論』. 春陽堂, 1898, p.52.

⁵⁰⁾ 小笠原長生, 前掲書, p.188.

⁵¹⁾ 小笠原長生,『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学校); 1904(春陽堂), p.431.

⁵²⁾ 小笠原長生, 前掲書, p.433.

(청일전쟁의 승리는) 모두 해상권 획득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53)

오가사와라가 두 저술에서 이순신, 넬슨, 그리고 청일전쟁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종 해상권 장악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은 앞서 서문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해군의 확장'을 위해서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본문 내 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행동을 할 때도 우세한 해군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됨은 만세불변의 원리로서 또한 성공의 기초이다.⁵⁴⁾

제국의 위엄과 독립을 온전히 지킬(保持)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세한 해군을 갖고 해상권을 장악한 것에 있을 뿐이다. 55)

실로 제국 해군력은 제7위로서 영국의 6분의 1, 프랑스의 3분의 1, 러시아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가지고 족하다고 하지 않는다. 부단히도 악착같이 싸워 이(해군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은 그 목적으로 하는 바, 해상권 투쟁 이외에는 아니니,56)

정리하자면 『제국해군사론』과 『해상권력사강의』는 해군의 확장이라는 메이지 일본 해군의 목표를 집필 활동을 통해 가시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해군은 육군에 대해 해군력 확장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으며, 종래에는 사토 데쓰타로의 『제국국방사론』을 기점으로 육군 중심이었던 메이지 일본 국방사상을 해군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오가사와라의 저술이 '해주육종'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머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군의 확장을 위한 해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⁵³⁾ 小笠原長生, 前掲書, p.464.

⁵⁴⁾ 小笠原長生. 『帝国海軍史論』, 春陽堂, 1898, p.163.

⁵⁵⁾ 小笠原長生, 前掲書, p.191.

⁵⁶⁾ 小笠原長生. 前掲書. p.213.

이다. 이러한 그의 저술이 이후의 '해주육종론(論)'에 일부 기여했음에 는 틀림없으나, 엄연히 사토의 『제국국방사론』 저술목적과는 구분을 지 어야 할 것이다. 사토가 그 스스로 머해의 『해상권력사론』같은 이론서 를 집필하여 해주육종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인물이라면, 오가 사와라는 그에 앞서 해군의 확장을 위해 동양(東洋)의 사례, 즉 이순신 의 사례를 발굴한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군인의 귀감으로서의 이순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가사와라의 저술 속 이순신은 해상권의 중 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사례로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저술 속에서 이순신은 또 다른 측면의 역할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오가사와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사 편찬위원을 지낸 인물로서, 당시 전쟁사를 편찬하는 이유는 '군인의 귀감(龜鑑)'을 찾아 후진을 자극하고, 국가에의 봉사 정신을 일으키며. 전의 고양·애국심 을 고취하는 데에 있었다. 57) 이때의 '군인의 귀감'이란 단순한 용맹하 고 강한 군인이 아닌, 도쿠가와(徳川) 막부 시대 이래 유교사상에 기반 한 도덕관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군주제 국가인 일본 사회에서, 일본 인으로서의 규범적 행위를 한 인물을 가리켰다. 58) 이러한 '군인의 귀 감' 만들기는 군인의 명예를 고취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명예스 러운 것은 감추러는 경향을 보였다.59)

오가사와라는 이러한 '군인의 귀감 찾기'를 평생 동안 성공적으로 수

⁵⁷⁾ 田中宏巳. 「忠君愛国的「日露戦争」も伝承と軍国主義の形成ー小等原長生の役割を 通して」、『国史学』126、国史学会、1985、p.32、

⁵⁸⁾ 田中宏巳, 前掲書, p.34.

⁵⁹⁾ 田中宏巳. 前掲書. p.33.

행한 인물이다. 1921년의 『도고원수상전(東郷元帥詳伝)』을 시작으로 도고의 전기를 숱하게 집필하였고, 도고 사후에는 도고 신사 및 절 건립에 최선을 다했다. 60) 특히 그는 도고 전기를 집필할 때 항상 러일전쟁을 대단원으로서 막을 내리는 방식을 취했으며, 61) 도고의 모든 행동, 즉 그의 인격, 생활, 활약 등을 충군애국과 연결했다. 62) 이러한 그의도고 전기 집필방식은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그가 작성한 도고의 전기는 출간 2개월 만에 3판 인쇄가들어갈 정도였다. 63) '도고를 신으로 만든 인물'이라는 그에 대한 평가는, 64) 그가 도고 헤이하치로를 어떻게군인의 귀감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평가라할 수 있다.

메이지 일본 해군은 해군의 확장과 동시에, 이러한 '군인의 귀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1904년 당시 군령부 차장이었던 이주인 고로(伊集院五郎)는 해군 전반에 '군인의 귀감 사례를 수집하라'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배포한다.

무인의 귀감으로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은 제국군인의 명예를 현양(顯揚)하고 후대의 자제들을 격려하여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을 일으키는 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략) 그 아는 바를 기재하여⁶⁵⁾

오가사와라 또한 이와 거의 동시에 전사편찬상의 이유로 '후세의 귀 감이 될 만한 것'66)을 찾는 의뢰서를 해군 전반에 배포한다. 이주인과

⁶⁰⁾ 田中宏巳,「小笠原長生と東郷伝説」,『歴史読本』49(4), 新人物往来社, 2004, p.147.

⁶¹⁾ 田中宏巳, 前掲書, p.147.

⁶²⁾ 田中宏巳,「忠君愛国的「日露戦争」も伝承と軍国主義の形成一小笠原長生の役割を 通して」,『国史学』126, 国史学会,1985, p.43.

⁶³⁾ 田中宏巳, 前掲書, p.43.

⁶⁴⁾ 田中宏巳、「小笠原長生と東郷伝説」、『歴史読本』49(4)、新人物往来社、2004、p.147.

⁶⁵⁾ 防研図書館,「明治三十七八年海戦史編纂経過一般一二,海戦史材料蒐集方法」,『戦時日誌一覧表』.

⁶⁶⁾ 田中宏巳,「忠君愛国的「日露戦争」も伝承と軍国主義の形成一小笠原長生の役割を 通して」,『国史学』126, 国史学会,1985, p.31.

오가사와라의 노력의 결과물로서 1908년 해군교육본부에서 편찬. 충용 현창회(忠勇顯瞳/會)에서 발행한 『메이지 37 · 8년 전쟁 해군성충록(明 治三十七八戰役 海軍誠忠録)은 '군인의 귀감'의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 이다. 67) 수록 내용은 「적합과 육탄전을 벌여 적탄에 산화,하거나. 「충 신은 효자의 문(門)으로부터 나온다. 거나. 「일왕의 가르침을 받들어 전 투 중에 순직 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68) 공교롭게도 이러한 '군인의 귀 감' 사례로 나오는 것들은 이순신의 생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적탄에 산화하는 효자이자 충신, 그리고 전투 중 순직하는 모습은 이순신의 생 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오가사와라의 행적을 고려해본다면. 『제국해군사론』에서 서술된 다음과 같은 이순신의 모습은 의미가 있다.

(이순신이) 하늘에 빌며 말하길 "하느님시여 순신의 작은 충의를 가엾게 여기십시 오. 바라건대 전투에서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구구(區區)한 이 한 몸. 국가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치기는 오로지 바라는 바입니다 "69)

위의 이순신의 맹세는 그가 노량해전(露梁海戰)에 나아가기 직전 서 술된다. 위 글의 출처를 찾아보면. 1629년 『백사집(白沙集)』에서는 「오 늘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오니. 하늘에 바라건대 반드시 이 적을 섬멸하 게 하여 주소서(今日固决死願天必殲此賊) 이며, 이 말은 1795년 『이충 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卷) 9 행록(行錄)에서 노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이 한 말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 다(此讎若除死即無憾) 라는 말로 나온다. 어느 부분에서든 죽음을 각오 한 이순신의 다짐은 살펴볼 수 있으나. '국가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친 다'는 말은 없다. 이순신의 국가에 대한 충성은 그에 대한 기록 곳곳에

⁶⁷⁾ 田中宏巳, 前掲書, p.33.

⁶⁸⁾ 田中宏巳. 前掲書. p.34.

⁶⁹⁾ 小等原長生. 前掲書. p.50.

서 살펴볼 수 있으나, 이 부분에서의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는 발언은 오가사와라의 창작으로 보인다.

『제국해군사론』이 명백히 '사론(史論)'이며, 소설적 창작력을 발휘할 공간이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오가사와라의 위와 같은 창작은 유의미하다. 위의 발언은 '군인의 귀감'의 중요 요소인 '군주제 국가에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전투 중의순직을 각오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같은 저술 속 넬슨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제국해군사론』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함대를 앞에 두고 넬슨이 다음과 같이 하늘에 비는 장면이 나온다.

내가 존경하고 숭배하는 하느님이여, 바라건대 우리 영국에 혁혁(赫赫)한 대승을 주시옵소서. 전 유럽의 인민을 도탄으로부터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장졸로 하여금 한명도 비접한 행동을 하는 자가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중략) 단지 국가에 다하는 충절(忠節)을 애석하게 여기시어 가호를 내려 주십시오.70

위의 발언도 넬슨의 전기 등에서 그 출처를 확인해 볼 수 없다. 오가 사와라의 저술에서는 이순신의 경우처럼 넬슨도 전투를 앞두고 '국가에 대한 충절'을 다짐하며, 이후의 서술에서도 넬슨의 국가에 대한 '충절' 과, '진충(盡忠)'이 누차 강조된다. 오가사와라가 두 명의 훌륭한 해군 장수의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자살한 북양 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 정여창(丁汝昌)에 대한 서술을 할 때도 동일하 게 나타난다.

청 해군 중에서 가장 명예가 높은 정여창, 장문선(張文宣)이 국가를 위해 자살한 것을 듣기에 이르자,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고⁷¹⁾

⁷⁰⁾ 小笠原長生, 前掲書, pp.181-182.

⁷¹⁾ 小笠原長生、『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1902.11(海軍大学校);1904(春陽堂)、p.159.

위와 같이 오가사와라는 항복을 거부하며 자결한 정여창의 충의를 칭송하고 그를 '충의지사(忠義の十)'로 표현한다 72) 이러한 자결 또한 오가사와라는 '국가를 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의 서술 속에서 앞서 살펴본 이순신도. 넬슨도. 정여창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국해군사론』에서 오가사와라는 줄곧 해전에서 활약한 장수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활약 과 죽음을 '국가를 위한 것'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서술방식은 3년 전 그가 청일전쟁 직후 저술한 처녀작 『해전일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서도 오가사와라는 내내 충군애. 국정신과 진충보국(盡忠報國)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충군애국정신과 용기의 일념이 그들보다 뛰어나다면 칠천여 톤의 거함을 일갈하여 쳐부수겠으나⁷³⁾

그들은 출진의 명을 받자 실로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부모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돌아보는 것은 진충보국(盡忠報國)의 4글자뿐이었다. 74)

위의 서술을 통해 오가사와라가 해군의 전사편찬사업에 참여하기 이 전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을 그의 저술에서 누차 강조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그의 서술의 태도로 인해 그가 해군으로부터 『제국해군사 론, 저술과,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전사편찬사업에 적합한 인물로 선택 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4년 뒤의 『해상권력사강의』에서 오가사와라는 '군인의 귀감'으로서 이순신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한다. 이는 다음의 서술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⁷²⁾ 小笠原長生, 前掲書, p.147.

⁷³⁾ 小笠原長生, 前掲書, pp.130-131

⁷⁴⁾ 小笠原長生, 『海戦日録』, 春陽堂, 1895, p.134

이순신은 잘 싸울 뿐 아니라 만사에 장군다운 기량을 갖추었다. (중략) 일본의 대장이 공을 다툰 것과, 이순신의 행동과 대조해보면 매우 상이하다. 이것도 승패를 가르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75)

오가사와라는 이 대목에서 비록 적국의 장수이지만 이순신을 잘 싸울 뿐 아니라 만사에 장군다운 기량을 갖추었다며 이순신을 칭찬하고, 이를 일본의 수군 대장들과 비교하며 '승패를 가른 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순신을 '만사에 장군답다'고 서술한 『해상권력사강의』라는책이 해군대학교 교관 시절 해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록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오가사와라는 일본 해군장교가 만사에 이순신 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이순신의 면모가 그렇지 못했던 일본 대장들과 대조되어, 승패를 가르는한 요인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가사와라는 장군의 행동이 승패의 한 요인이나만큼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대장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며, 메이지 일본 해군장교들은 이순신의 행동을 배워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언급을 고려해본다면, 그에게 있어 군인의 귀감은 바로 이순신이었다고 봐도 무방할것이다.

그는 이 평가에 앞서 이순신의 약력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며, '조선을 평안케 한 것은 이 사람'이라는 평을 내린다. ⁷⁶⁾ 비록 러일전쟁 이후 오가사와라의 군인의 귀감은 도고로 바뀌게 되었지만, 적어도 이 시점까지 그는 이순신을 군인의 귀감으로서 생각하며, 그의 '국가에 대한 충절'과 그의 '만사에 장군다운' 행동은 물론, 활약상을 적극적으로 기술한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군인의 귀감'으로서의 이순신의 이미지는 사토 데쓰타로에게 이르러 더욱 구체화된다. 1908년 『제국국방사론』에서 사토가 이순신을

⁷⁵⁾ 小笠原長生,『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学校); 1904(春陽堂), p.136. 76) 小笠原長生, 前楊書, p.133.

높이 평가한 것은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77) 여 기에서 한 번 더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순신은 실로 세상을 뒤덮을(蓋世) 해군 장수로서, 불행히도 조선에서 살았기 때문에 용명(勇名)도 지명(智名)도 서양에 전해지지 않았으나. 불완전하지만 임진 왜라에 관한 전기를 보면 실로 훌륭한 해군 장수였다. 서양에 있어 이와 필적할 지를 찾는다면 확실히 네덜란드의 장수 드 로이터(Michiel de Ruyter) 이상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넬슨 같은 자는 인격에서 도저히 비견할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은 실로 장갑함(裝甲艦)의 창조자로서, 3백년 이전에 이미 훌륭한 해군전술로 싸운 장수이다.

사토는 이순신을 '세상을 뒤덮을 해군 장수'로서, '용명'과 '지명'이 있 으며, '훌륭'하고, 넬슨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 넬슨이 이미 널리 알려진 해군 장수이자 가장 유 명한 인물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사토의 이와 같은 이순신에 대한 평 가는 파격적이라 할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토는 「서언(緒言) 에서 이 순신 사적(事跡)을 조사하여 알게 된 이순신의 '숭고한 인격과 위대한 공적'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국방의 방침을 각성하게 했다고 한다.

(본인은 현재 일본의) 제국 국방의 방침이 과연 국가가 어려울 때 이에 응할 방법인가 아닌가 의심하였다. 이어 조선의 명장(名將) 이순신의 사적을 조사하여. 임진왜란 당시 (그가) 우리 수군을 격파한 것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인격과 위대한 공적은 격렬히 나의 정신을 일깨웠고. (나는) 공세적 국방의 의의(意義)에 관해 더욱 각성하는 바가 있었다. 78)

사토의 새로운 국방의 방침. 즉 공세적 국방 방침이란 『제국국방사 론, 전반에서 주장하는 해주육종론을 가리킨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⁷⁷⁾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 재」4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참고.

⁷⁸⁾ 佐藤鉄太郎, 前掲書, p.4.

결국 사토는 이순신을 통해 해주육종론의 의의를 각성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가사와라가 이순신을 통해 해상권의 중요성과 해 군장교들의 배워야 할 인격을 발견했다면, 사토는 그가 발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순신을 연구함으로써 일본의 국방방침을 발견, 일본 해군 의 전략적 기초를 세운 것이다.

메이지기가 끝나고 다이쇼(大正)기에 이르면, 이러한 오가사와라와 사토의 이순신 연구 이후 일본 해군에 이순신이 깊숙하게 전파되었음 을 알 수 있다. 1919년 해군 유종회(海軍有終會)에서 간행한 잡지 『유 종(有終)』 70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분로쿠·게이초(文禄慶長, 1592·1597년 당시 일본의 연호) 조선역(朝鮮役, 임진왜란)에서의 이순신의 사적은 늘 우리나라 사람(일본인)의 인구(人口)에 회자되는 것으로서, 그의 수군의 근거지였던 한산도(閑山島)에는 지금도 그 유적및 제승당(制勝堂)이 있다. 통영(統營)에는 순신을 제사드리는 충렬사(忠烈祠)가 있는 것은 우리 해군장병(將士)들이 숙지하는 바이다. 79)

위에 의하면 이순신의 사적이 일본인의 입에 늘 오르내리며, 특히 통영에 충렬사가 있는 것은 해군장병들이 숙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순신이 일본 해군에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29년에도 이순신을 군인의 귀감으로 생각했던 해군장교가 있었다. 국내에도 유명한 소설로서, 해군소좌(少佐, 소령)로 전역한 가와타 이사오(川田功)의 소설『포탄을 뚫고서(砲弾を潜りて)』에는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러일전쟁을 앞두고) 당연히 세계 제1의 해장인 조선의 이순신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인격, 그의 전술, 그의 발명, 그의 통솔능력, 그의 모계, 그의 용기. 하나라도 칭찬할 가치가 없는 것이 없다.80)

⁷⁹⁾ 聽壽生,「李舜臣忠烈廟碑文邦譯」,『有終』70, 海軍有終会, 1919.7, p.50.

⁸⁰⁾ 川田功, 『砲彈を潜りて』, 戦記名著刊行会, 1929, p.207.

이 말은 주인공인 수병(水兵) 분키치(文吉)가 러일전쟁을 앞두고 이 순신을 연상하는 장면이다. 실제 러일전쟁에 참전한 작가의 경험을 바 탕으로 쓴 소설이니만큼. 주인공의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은 사실 해군 장교였던 가와타의 존경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가사와라의 귀 감이었던 이순신은 비록 도고로 바뀌었지만. 그의 저술이 발간되고 약 30여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일본 해군장교는 그를 귀감으로 삼고 있 었던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메이지기 해군장교였던 오가사와라의 두 저술 속에서 이순 신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순신은 오가사와라의 저술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평가되고 있었으며, 그의 활약상은 오가사 와라의 두 저술 속에서 자세히 묘사되었다. 이렇듯 오가사와라가 이순 신의 활약상을 그의 저술 속에서 자세히 그려낸 것은 단순히 이순신에 대한 그 자신의 존경심 때문은 아니었다. 당시 해군력의 확장을 꾀하고 있었던 메이지 일본 해군 수뇌부의 지령을 받아 저술한 『제국해군사론』 과. 일본 해군장교들을 교육하던 고등기관 해군대학교에서 가르친 강 의록. 『해상권력사강의』에 이순신을 등장시킨 이유는 분명히 존재했다. 이순신의 활약상은 두 저술 속에서 궁극적으로 해군력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하나의 시례로 서 활용되었다. 이는 미국의 전사가 머핸의 저술을 이론적 기초로 삼아 일본 역사 속에서 그 사례를 찾은 것이었으며.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 수군의 패배. 그리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승리는 해상권의 중 요성을 보여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사례였다. 오가사와라 본인이 밝

히고 있듯, 그는 임진왜란을 기술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해 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순신의 활약상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이순신은 당시 일본 국민들이 배워야 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해군장교들이 배워야 할 '만사에 장군다 운' 인물이었다. 군주제 국가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오가사와라는 그의 일생동안 그 역할의 최선봉을 담당했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 이순신은 가장 이상적인 '군인의 귀감'이었다. 그렇기에 오가사와라는 이순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찬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가사와라는 이후에도 군인의 귀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이순신은 도고 이전에 그가 찾아내고 형상화한 군인의 귀감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오가사와라의 저술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순신을 다룬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제국해군사론』과 『해상권력사강의』 두 저술은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사토의 『제국국방사론』과 함께 메이지 해군 내에 이순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파해나갔음이 분명하다. 메이지 해군장교들의 이러한 저술활동은 이 시기 이미 발간된 역사서, 신문연재소설, 전기와 함께 일본 내 이순신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갔다.

(원고투고일 : 2018. 4. 6, 심시수정일 : 2018. 5. 2, 게재확정일 : 2018. 5. 14)

주제어: 이순신, 오가사와라 나가나리, 제국해군사론, 일본제국해상권력사 강의, 메이지 해군, 일본 해군, 李舜臣, 帝國海軍史論, 小笠原長生,

日本帝國海上權力史講義

〈참 고 문 헌〉

-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재』 4호.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 2011
- 司子州、「『朝鮮李舜臣傳』著述目的に関する一考察−小田切万寿之助の『朝鮮』と の関連性を中心に、『일본언어문화』제40집、2017
- 박현규·권혁태、「朴殷楠「李舜臣傳」의 全文 발굴과 분석」、「이순신연구」창간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3
- 石川泰志 著 김일상 역 『일본해군국방사상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5 宋判權、「旧日本軍関係者文書に見る李舜臣像」、『北東アジア文化研究』25号、鳥 取女子短期大学院。2007
- 石川泰志 著. 戰略研究學會 編. 『戰略論大系』9. 芙蓉書房出版. 2006
- 飯島直樹、「翻刻と紹介「小笠原長生日記 昭和八年」」、『東京大学日本史学研究室 紀要』21巻,東京大学人文社会系研究科。2017
- 岡田貞寛、『父と私の二 二六事件』、講談社、1989
- 小笠原長生、『海戦日録』春陽堂、1895
- 小笠原長生. 『帝国海軍史論』. 春陽堂. 1898
- 小笠原長生、『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1902.11(海軍大学校);1904(春陽堂)
- 小笠原長生、『東郷元帥詳伝』、春陽堂、1921
- 聽濤生,「李舜臣忠烈廟碑文邦譯」。『有終』70. 海軍有終会, 1919.7
- 佐藤鉄太郎、『帝国国防史論(上)』 原書房 1908
- 司馬遼太郎、『明治という国家』、日本放送出版協会、1989
- 太平洋学会, 「太平洋人物誌 佐藤鉄太郎」, 『太平洋学会誌,51号, 太平洋学会, 1991 7
- 田中宏巳、「日清・日露海戦史の編纂と小笠原長生」、『軍事史学』第18巻第3号、 軍事史学会. 1982
- 田中宏巳、「佐藤鉄太郎一海土陸従の理論的旗手」、『歴史読本』10巻4号、新人物 往来社 1985
- 田中宏巳、「忠君愛国的「日露戦争」も伝承と軍国主義の形成一小笠原長生の役割 を涌して」、『国史学』126、国史学会、1985

108 | 軍史 第107號(2018. 6.)

田中宏巳、「小笠原長生と東郷伝説」、『歴史読本』49(4)、新人物往来社、2004 防研図書館、「明治三十七八年海戦史編纂経過一般一二、海戦史材料蒐集方法」、 『戦時日誌一覧表』

松田十刻、『東郷平八郎と秋山真之』、PHP研究所、2008



<Abstract>

The images of Yi Sun-Sin reflected on the writings of a naval officer at the period of Meiji

- Focusing on the writings of Ogasawara Naganari -

Kim. Joon-bae

Among the Japanese Navy officers during the period of Meiji in Japan. Ogasawara Naganari was the first one to announce Yi Sun-sin to the Navy and the public. He published "The History of the Imperial Navy" and "The Lectures on the Sea-Power History of the Japanese Empire," in 1898, 1902 respectively. Both of them described Yi Sun-sin positively and highly praised. "The History of the Imperial Navy" was written for the general public and distributed to middle schools in the whole country. "The Lectures on the Sea-Power History of the Japanese Empire" affected naval officers because this book was a publications of compiling notes that he lectured when Ogasawara was a navy college instructor. Therefore, these two writings played a great role in spreading Yi Sun-sin in Japan.

Ogasawara's detailed description of Yi Sun-sin was not simply due to his respect for Yi Sun-sin. In both writings, the Sea-Power was emphasized, and Yi Sun-Sin was ultimately used to achieve the goal of the expansion of navy powers. It was written by the basis of the writings of Alfred Thayer Mahan, a US war historian, as the theoretical basis and found the case in Japanese history. The defeat of Japanese nav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the victory of the Korean navy led by Yi Sun-sin were very effective in showing the importance of 'the Sea-Power'. In addition, Yi Sun-sin was a "loyal to the nation" that the Japanese people had to learn at

that time, and he was a "ideal admiral" to be learned by naval officers. As a monarchical nation, loyalty to the nation was essential, and Ogasawara was at the forefront of his role during his lifetime. For him, Yi Sun—sin was the most "ideal soldier." So Ogasawara seems to have praised Yi Sun—sin more positively.

It is clear that these two writings of Ogasawara have propagated Yi Sun—sin in the positive direction in the Meiji Navy. His writings have formed images of Yi Sun—sin in Japan along with the history books, novels, and biographies already published at this time.

Key Words: the Japanese Meiji Navy, Ogasawara Naganari, Yi Sun-Sin,
The History of the Imperial Navy, The Lectures on the
Sea-Power History of the Japanese Empir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111-145 https://doi.org/10.29212/mh.2018..107.4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제주도 주둔 해병대사령부 위치에 대한 연구

박종상*

- 1. 문제제기
- 2. 해병대의 창설과 경남 진주 파견
- 3. 해병대의 제주도 주둔 이전 육군의 제주도 부대배치 현황
- 4. 해병대의 제주도 주둔
- 5. 제주도 해병대사령부 주둔 위치에 대한 검토
- 6. 결론

1. 문제제기

역사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면서 그 흔적은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군 이후에 많은 부대들이 창설되었다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워

증편되고, 다시 편제의 조정으로 인해 없어졌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부대들이 창설되기도 하였으며, 기존의 부대들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6·25전쟁과 전쟁 이후 산업발전에 따른 지리적인 변화 등의 이유로 건군 초기의 부대들에 대한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미 많은 곳이 부대 창설 당시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병대가 창설되면서 주둔했던 곳의 흔적도 다르지 않다. 해병대사 령부가 주둔하였던 곳의 위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남 진해에서 창설되어 제주도, 부산, 서울을 거쳐 현재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해병대가 창설되었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병대 처음 세운 곳" 이라는 탑이 있다. 즉, "해병대 발상탑"이다. 이곳이 해병대가 창설되어 최초로 주둔하였던 곳이다. 창설 이후 두 번째로 주둔했던 곳이 제주도이다. 비록 첫 번째 작전이 경남 진주이기는 하나 해병대사령부는 진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하여부대가 주둔하였기 때문에 제주도가 두 번째 주둔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의 조일약국 앞에는 제주도에 해병대 사령부가 주둔한 것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 표지석은 제주도에 해병대사령부가 주둔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2010년 9월 1일 제10회 제주 해병대의 날에 설치되었다. 1) '제주 해병대의 날'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제주도에서 모집된 해병대 3·4기생들이 제주도를 출발한 1950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날 설치된 '해병대사령부 주둔했던 터' 표지석에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되어 동년 12월 28일 제주도로 이동. 이곳에 사령부를 설치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¹⁾ 해병대 공식 블러그, http://rokmarineboy.tistory.com/201, 〈검색일 : 2018. 3. 13.〉



〈그림-1〉 조일약국 앞 제주도 해병대사령부 주둔 표지석

해병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했던 덕산비행장에서 1949년 4월 15일에 창설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이후 해병대는 8월 29일부터 경남 진주에서 4개월여 간의 작전을 수행하고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진주에서의 작전을 수행할 당시 해병대사령부는 진해에 위치하고 참모 장이었던 김성은 중령이 부대를 지휘하는 약 550여 명의 '김성은부대' 가 편성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후 해병대는 진해의 해병대사령부 와 진주의 김성은부대가 1949년 12월 28일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작전 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 쟁이 발발하자 제주도에서 해병 제3·4기생을 모집하여 1950년 9월 1 일 제주도를 떠나 전쟁에 참가하였다. '제주 해병대의 날'은 바로 이날 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해병대가 제주도에 주둔하였을 당시에는 해병대사령부와 제주읍부대 가 제주읍에, 모슬포에는 주력부대인 모슬포부대가 있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와 제주읍부대가 제주읍에 위치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단서가 될만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추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리적인 변동이 있었겠지만 제주도를 방문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련자료를 검토하던 중 6·25전쟁 당시 제주도의 대정고등학교 운동장이 워커운동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정고등학교를 방문하였으나 현재의 대정고등학교에는 워커운동장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즉, 현재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428번지에 위치한 대정고등학교는 1979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워커운동장은 대정고등학교에 없다는 것이다. 2)또한 제주도 방문 시에도 1945년 이후 주둔하였던 군 부대의 흔적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흔적을 찾는 것이 제한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지리적인 변동이 있었다면, 비록 기록을 찾기가 제한될 지라도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해병대사령부가 위치하였던 곳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 연구는 해병대가 창설된 이후 진주에서의 작전을 수행하고 제주 도로 이동하여 위치하였던 해병대사령부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해병대사령부가 주둔하였던 위치를 밝히기 위해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부대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 해 육군부대가 해병대에 작전지역을 인계해 주었던 위치와 주둔했던 위치를 찾아내어 해병대사령부의 주둔위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제주도 현지 방문을 통한 관련위치의 확인 및 관련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濟州道誌』, 제주 4·3사건 관련자료, 해 병대사령부 발간자료, 제주고등학교 관련자료, 회고록 등 각종 문헌자 료를 검토하였다.

²⁾ 대정고등학교총동창회, 『대정고 50년사』(상), (제주: 대정고등학교 총동창회, 2004), 520쪽.

2. 해병대의 창설과 경남 진주 파견

가. 경남 진해에서의 해병대 창설

대한민국 해병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덕산비행장에서 1949년 4월 15일에 창설되었다. 해병대가 창설된 데에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 10·19사건')의 교훈에 따라 그 필요성이 고조되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여순 $10 \cdot 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당시 전남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의 남로당계 장병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1948년 5월 4일에 신편되어 여수읍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 연대에는 남로당 군사부의 지령을 따르는 다수의 좌익분자들이 침투하여 있었다.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제주 4·3사건이 정부수립 이후에도 완전히 진압되지 않자 정부는 계속해서 경찰과 군병력을 투입하였다. 이에따라 당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가 1948년 10월 제주도출동명령을 받게 되었다. 당시 연대장은 10월 7일 보임된 박승훈 중령이었다. 육군 제14연대가 제주도에 증원부대로 출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남로당은 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에게 출동 직전에 반란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보냈다. 이에 지창수 상사는 연대 내 좌익분자 40여명을 동원하고 좌익분자인 연대 대전차포중대장 김지희 중위와 홍순석 중위 등으로 하여금 부대가 제주도로 출동하기 직전인 10월 19일 오후 8시를 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해군은 제주 $4 \cdot 3$ 사건 때처럼 여순 $10 \cdot 19$ 사건 진압에서도 육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해군은 제주 $4 \cdot 3$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함정 $3 \sim 4$ 척을 제주도 근해에 배치하여 육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JMS 302정은 제주도 남방해역을 경비하던 중 맥아더라인을 침범한 일 본어선 2척을 나포하여 여수 세관에 인계하기 위하여 10월 19일에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그러나 반란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여수항에서 함정을 출항시킨 후 10월 20일 새벽 3시 경 해군본부에 관련사실을 보고하였다. 해군본부로부터 여수에 주둔한 육군의 폭동사실을 보고받은 국방부는 정부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진압작전에 육군과 해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원된 병력은 육군 5개 연대 예하 10개 대대와 1개 비행대, 그리고 해군 1개 정대의 함정들이었다. 3) 해군의 임무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육군을 지원하고 반란군의 해상탈출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10월 25일 육군의 진압군이 순천, 벌교, 보성, 광양을 탈환하였을 때 해군의 JMS 302정은 부산에서 육군 제5연대 제1대대 병력을 탑승시켜 10월 26일에 부산항을 떠나 여수 오동도 인근의 남항부두에 상륙을 하려했지만 육상의 진압군에게 쫓겨 해상탈출을 시도하는 반란군들이 부두에 몰려있었다. 결국 육군의 진압군은 10월 27일 여수를 탈환하고 잔당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진압작전은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군은 바다에서 육지로 진입하는 상륙작전부대의 필요성을 깨닫게되었다. 즉, 이때부터 해병대 창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해군 임시정대 지휘관이었던 이상규 소령이 함정을 지휘하여 여수 앞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느낀 것은, 해군은 함정에서 함포지원만 할 뿐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여 전투하는 상륙군이 없으므로 해군에도 상륙작전부대를 가져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귀대 후작전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군총참모장인 손원일제독에게 보고하였다.

³⁾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해병대 전투사』(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2012), 30쪽.

⁴⁾ 위의 책, 31~32쪽.

- ① 아 함정은 방어무기의 불충분으로 접근교전에 불리를 면치 못하였음.
- ② 공격무기가 빈약하여 적을 철저히 제압할 수 없었음.
- ③ 통신연락에 있어서 총사령부, 기지, 함정의 파장이 동일함으로 통신에 지장이 있었음
- ④ 해군은 해상전투가 주목적이나 육전대의 필요를 절감하였음.5)

이 작전에 대한 보고는 해군작전 전반에 걸친 언급이었으나 이 가운 데서도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함정의 장비강화와 해병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이상규 소령만 느낀 것이 아니고 이소령과 교체하여 소탕전 지휘관으로 출동한 신현준 중령도 동감해서 해군총참모장인 손원일 제독에게 건의를 하였다. 이렇게 해병대 창설의 문제가 대두되어 논의되자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준장은 해군통제부참모장 신현준 중령에게 해병대 창설 문제를 연구하여 건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현준 중령은 진해의 해군통제부 법무관 강대성 대위와 그곳 민용식 소위를 선임하여 발령하고 3명이 서울의 해군본부에서해병대 창설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해병대 창설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해병대 창설준비 요원으로 활약하던 해군통제부 참모장 신현준 중령을 1949년 2월 1일부로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해병대 창설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창관(安昌寬) 소위, 김낙천(金洛泉) 소위 외 30명으로 편성된 작업선발대를 1949년 2월 21일 장차 해병대의 기지가 될 진해 덕산비 행장에 파견하였다. 안창관 소위를 비롯한 파견대원들은 연병장을 정비하고 병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서진 격납고를 수리하기 시작하여, 3월 28일 해군에서 전입된 장교 및 부사관 80명, 신병 300명 등 총 380명으로 병사수리, 연병장 건설작업은 점차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7)

⁵⁾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해방과 건군』(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 원회, 1967), 637쪽,

⁶⁾ 위의 책, 637~638쪽.

결국 해병대 창설의 문제가 제기된 1948년 11월 이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제한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극복하여 여러번의 목적과 임무가 변경되는 가운데 해군기지 경비의 명목으로 1개 대대병력의 해 병대를 창설할 것을 승인받아 만 5개월만에 해병대 창설은 실현되었다.

창설 당시 사령부(15명), 경리대(15명), 근무중대(70명), 정보대(10명), 소총 2개 중대(270명), 총병력 380명으로 편성되었던 해병대는 해군신병 제13기 중에서 300명을 인수하여 해병 제1기생(1949. 4.15.~7.30.)으로 훈련시켰고, 다시 해군신병 제14기 중에서 440명을 특모하여 제2기생(1949.8.1.~10.20.)으로서 훈련시켰다.⁸⁾ 장비는 주로 99식 소총이었고 M1소총은 1정밖에 없어서 각 중대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교육을 받았다.



〈표-1〉해병대 창설 당시 해군의 편성(1949. 6. 1.)⁹⁾

⁷⁾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 제1집(증보판)』(서울: 해병대사령부, 1962), 12~13쪽.

⁸⁾ 위의 책. 14쪽.

⁹⁾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충남 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 129쪽.

해병대의 창설 당시 편성과 훈련은 육군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미해병대와 같은 부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전대(陸戰隊)라고하지 않고 해병대라고 불렀다.¹⁰⁾

사령관 참모장 본부 경리대 근무중대 방첩대 제1중대 제2중대

(표-2) 창설 당시 해병대 편성표(1949. 4. 15)11)

해병대 창설의 법적 근거는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해병대령)의 공포였다. 해병대령의 공포로 1949년 4월 15일에 이미 창설된 해병대를 국군의 한 조직으로 추인하였다. 해병대령은 총 6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령의 조항에는 해병대의 임무와 소속, 편성과 배치에 관한 지휘권 문제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 법령의 제1조에 의하면, 해병대는 해군에 설치되어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전투에 임할 뿐 아니라 주둔지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병대의 수장은 해병대사령관이었으나, 해병대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권한은 해군총참모장에게 있었다. 12)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로 공포된 해병대령은 다음과 같다.

¹⁰⁾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해병대 20년사)』(해병대사령부, 1961년), 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18쪽.

¹¹⁾ 해병대사령부, 『해병대편제사(I 권)』(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2011), 1-58-33쪽.

^{12) 『}해병발전사(해병대 20년사)』(해병대사령부, 1961년), 8~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전쟁의 배경과 원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391~392쪽.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13)

-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에 소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통솔하다.
- 제4조. 해병대의 편성 및 배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 통제부 경비부 소재지에 있는 해병대는 특별한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이 없는한 당해 사령관 또는 사령관의 지휘통솔을 받는다.
- 제6조.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인가를 얻어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해병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해병대령은 1952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672호에 의거 전문 16조로 개정되었다. 이때 특기할 것은 제2조의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며 필요에 의하여 일반지상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로서 이는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위주로 하는 부대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나. 해병대의 경남 진주 파견

해병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했던 덕산비행장에서 1949년 4월 15일에 창설된 이후 1949년 7월 말까지 해병 제1기생이 기초훈련을 마치고 경상남도 진주에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주

^{13) 『}해병전투사 제1집(증보판)』(1962), 10~11쪽; 『6·25전쟁 해병대 전투사』(2012), 38쪽.

에서는 여순 10 · 19사건 시 도주한 잔당세력이 지리산을 근거지로 활동 하고 있었다.

육군은 이들의 진압이 완료된 1948년 10월 30일부터 기존의 진압부 대를 호남 방면 전투사령부(사령관 원용덕 대령)로 개편하여 지리산 등 지에서 소탕작전을 하였으나. 11월 30일에 해체한 후 1949년 3월 1일 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정일권 준장) 및 호남지구 전투사령 부(사령관 원용덕 준장)를 설치하여 다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광주 에 사령부를 둔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예하에 제20연대. 제15연대 1개 대대. 제3연대 1개 대대를 배속하였다. 남원에 사령부를 둔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는 예하에 제3연대 1개 대대. 제5연대 1개 대대. 제9연 대 1개 대대. 제19연대 1개 대대. 독립유격대대를 배속하였다. 14) 하지 만 5월 9일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남로당은 이 지역의 게릴라 잔당들에게 주변 지역에 대한 습격,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함으 로써 공포와 민심교란을 획책하려 하였다.

진주는 지리적으로 마산, 진해, 부산과 연결되는 중요도시이므로 육 군에서는 이곳에 부대를 주둔시켜 공비들의 준동을 저지하여 왔다. 따 라서 진주에서 멀지 않은 마산에 육군 제16연대가 1948년 11월 20일 이후 계속 주둔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상남도 서북부 일대의 공산 게릴 라들을 진압하기 위한 부대는 마산의 육군 제16연대 예하 1개 대대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군 부대만으로는 공비에 대한 진압이 어려워지자 1949년 8월 26일에 대구에서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과 해병대사령관 신현 준 대령 간의 협의에 따라 해병대가 진주에 주둔하여 공비를 소탕하게 되었다. 15)

^{14) 『6·25}전쟁사 1-전쟁의 배경과 원인」(2004), 469쪽.

^{15) 1949}년 8월 26일 당시의 육군총참모장은 채병덕 소장이다. 채병덕 소장은 1949 년 5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대 육군총참모장으로 보직되었으며, 10월 1일에 해임되어 총참모장 대리에 신태영 소장이 취임하였다. 다시 1950년 4월 10일에

이에 해병대사령부는 참모장인 김성은 중령을 부대장으로 하여 550 여 명으로 편성된 1개 대대 규모의 부대를 진주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일에 해군에서 장교와 하사관을 증원받고 해군 신병 제14기 중에서 해병 제2기생으로 440명을 특모하여 3개 소총중대로 증편하였던 해병대는 해병 제1기생으로 구성된 제1중대와 제5중대를 기간으로 김성은 부대를 편성하여 진주에 파견하였다. 김성은부대는 8월 29일 진주사범학교(現 진주교육대학교) 기숙사를 부대본부로 정하여 주둔하였다. 안창관 중위가 지휘하는 선발대를 비롯하여 각 중대는 경남 진주에 도착하여 진주를 중심으로 진주군, 창녕군, 함안군일대를 경비담당지구로 하여 공비소탕에 임하였다. 16)

이후 1949년 11월 17일에 해군 신병 제14기 수료자 중 200명이 해병대에 전입함에 따라 제7중대를 신편하여 병력이 1,200여 명으로 증원되었다. 17) 당시 진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대 김성은부대의 작전지휘권은 광주에 위치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인 김백일 대령이가지고 있었다. 18)

해병대의 일부병력이 진주에 주둔하면서 수행해야 할 임무는 지리산을 근거지로 부근 일대에 출몰하는 공비의 토벌만이 아니었다. 초창기인

제4대 총참모장에 보직되었다. 정일권 장군은 1950년 6월 30일부터 1951년 6월 22일까지 육군총참모장에 보직되었다. 따라서 『해병발전사(해병대 20년사)』(해병 대사령부, 1961년)의 10쪽에 기록된 "단기 4282년 8월 26일에 대구에서 국방부참 모총장 채병덕 소장,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준장과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 간에 맺은 협의에 의하여~"와 『해병전투사(제1집)』(해병대사령부, 1962)의 11쪽에 기록된 "단기 4282년 8월 26일에 대구에서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준장과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 간에 맺은 군사협의에 의하여~"는 잘못된 기록다. 1949년 8월 26일 당시에는 육군본부 작전국장이었다.

채병덕 소장의 육군총참모장 재임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책자를 참고할 것.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6) 『}해병전투사(제1집)』(1962), 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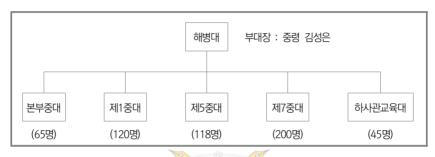
¹⁷⁾ 해군본부. 『해병사』 제7집(서울: 해군본부, 1975), 30쪽.

¹⁸⁾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전 국방부장관 김성은 회고록)』(서울: (주)아이템플 코리아, 2008), 142쪽.

이때 해병대 자체의 정신훈련과 아울러 전투훈련을 쌓아 강병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였고 민심을 수습하는 선무공작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 다 19)

진주 주둔시 부대 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3〉 진주 주둔 김성은부대의 편성표(1949년 8월 29일~12월 16일)²⁰⁾



〈표-4〉진주 파견 후 진해 본대 편성표21)



한편 해병대는 마산과 진주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부대의 미 고문관 인 하우스멘 대위가 해병대의 고문관도 겸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그의 조언에 의해서 1개 중대씩 교대로 진주시 부근의 산지 일대에 거점경계 초소를 만들어 정보수집에 힘쓰고 있었다. 수색조를 편성하여 농민

^{19) 『}해병전투사(제1집)』(1962), 17~18쪽.

²⁰⁾ 해병대사령부, 해병교육참고 제2호『해병전투사(제1부)』(서울: 해병대사령부, 단기 4286년 3월), 11쪽,

^{21) 『}해병전투사(제1집)』(1962), 16쪽.

혹은 노동자로 가장하고 근처의 부락에 1~2명을 잠복시켜 공비들의 세 포조직과 그 동향을 탐지하게 하고 공비의 습격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 이 해병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렬한 훈련과 경비로 공비의 습격에 대비한 방어준비를 하였고 진주시의 치안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진주에 주둔하고 있는 기간 중이던 1949년 10월 11일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인 육군의 김백일 대령으로부터 "경찰이 수집한 첩보에 의하면 백운산의 공비 약 300여 명이 진주를 습격할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해병대는 경찰과 협력하여 방어를 철저히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10월 27일에 진주를 기습하여 진주군청, 재판소, 형무소 등에 방화를 하고 시가전에 돌입한 공비들을 격퇴하였으며, 12월 13일에는 하동군 목계리 및 옥종면 부근에서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출동하여 공비를 격퇴하기도 하였다. 22)

이와 같이 해병대는 만 4개월동안 경남 진주에 주둔하면서 민심수 습, 선무공작, 훈련, 공비소탕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1949년 12월 26일에 진주를 출발하여 12월 28일에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이는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독립 제1대대와 교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23)

²²⁾ 위의 책, 24~25쪽.

^{23) 『}해병발전사(해병20년사)』(1961) 11쪽, 『해병전투사(제1집)』(1962) 25쪽, 『해병전투사(제1부)』(단기 4286) 16쪽에는 육군 제14연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다. 그러나 『해병사』 제7집(1975) 30쪽에는 육군 독립 제1대대와 교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제주도에는 육군 독립 제1대대만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 부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해병대는 제주도로 이동한 것이다. 해병대의 제주도 주둔 이전 육군의 제주도 부대배치 현황은 본문에 별도 기술하였다.

3 해병대의 제주도 주둔 이전 육군의 제주도 부대배치 현황

제주도가 1946년 8월 12일에 道로 승격됨에 따라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에 서귀포에 그 창설본부를 설치하고 창설요원으로 장창국 부 위를 비롯하여 안영길 참위(경비사관 제1기)와 경비사관학교 제2기생 인 김득용, 김복태, 윤충근 참위 등이 임관과 동시에 발령을 받고 제주 도에 도착하여 창설준비에 임하였다. 기간사병으로는 당시 광주에 있 는 제4연대 병력 중 가장 사고뭉치인 부랑병사 50명을 인수받아 이를 기간으로 하고 신병을 제주도 내에서 모병하여 A. B중대를 편성하였 다. 이리하여 1947년 3월 20일 초대 연대장 장창국 소령이 총사령부 작전참모로 전출될 무렵에는 대대편성을 완료하였다. 제2대 연대장으 로는 같은 해 6월 1일 이치업 소령이 부임하였다. 이치업 소령이 부임 하여 제2대대까지 편성을 하였으나 모병활동이 여의치 않아 실병력은 1개 대대병력에 불과하였다. 24)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1947년 7월 15일자로 국방경비대 제9연대를 제11연대에서 분리시키면서 제9연대장에는 제11연대 부연대장이던 송요찬 소령을, 제9연대 부연대장에는 제11연대 제1대대장인 서종철 대위를 임명하였다. 25) 그리고 제9연대 제1대대를 제11연대에서 배속해 제하고. 7월 21일 제3여단 소속 2개 대대를 차출하여 제주도로 이동시 켜 제9연대에 배속시켰다 26) 이로써 5월 15일 제11연대에 통합편성되 었던 제9연대가 제11연대에서 독립하여 3개 대대로 재편성된 것이다.

²⁴⁾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109쪽.

²⁵⁾ 위의 책.

²⁶⁾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9, July 23, 1948.



〈그림-2〉 제9보병연대 창설지 표지석27)

제9연대에 보충된 새로운 병력은 제3여단 소속인 부산의 제5연대에 서 1개 대대(대대장 소령 김창봉)와 대구의 제6연대에서 1개 대대(대대 장 소령 이철원)였다. 7월 24일, 제11연대는 3여단의 2개 대대를 싣고 온 선편으로 제주도에서 연대 창설지였던 경기도 수원으로 철수했 다 28)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1948년 제주 4·3사건 이후 악화되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다.

²⁷⁾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 내에 "제9보병연대 창설지"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 표지석에는 "연대는 1946, 11, 16 조국 수호를 위해 광주의 제4보병연대 둈 54명과 경비사관 기간요원으로 제주도 모슬포 대촌에서 창설되었다. ~(이하 생략)"라고 기록되어 있다.

^{28) 『}육군발전사』 상권, 246쪽.

그동안 부산의 제3여단 예하 부대였던 제주도 제9연대가 6월 1일부로 광주의 제5여단 소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령관에는 광주 주둔 제5여단장 김상겸(金相謙) 대령을 임명하였고. 부사령관에는 현지부대 장인 제9연대장 송요찬(宋堯讚) 소령을 임명하였다 29) 이로써 제주도 경비사령부는 제9연대. 제5연대 1개 대대. 제6연대 1개 대대. 제14연대 1개 대대. 해군소령 최용남부대. 제주경찰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육군본부는 제5연대와 제6연대의 1개 대대는 이미 제9연대 제2대대 및 제3대대로 편성되었으므로 제14연대 1개 대대(제1대대)를 10월 19 일 밤에 제주도로 출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여수에 있던 제14연 대가 제1대대의 승선 직전인 10월 19일 밤에 반란을 일으켰다. 제5여단 장으로써 제주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던 김상겸 대령은 제 5여단 예하 부대인 여수의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문책을 받 아 21일에 파면(김백일 대령으로 교체됨)되었다. 30) 이에 따라 부사령 관 겸 제9연대장인 송요찬 소령이 김상겸 대령의 후임으로 제주도경비 사령관직까지 맡게되어 제9연대는 물론 제주경찰과 해군 함정까지 휘 하에 두는 진압군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에 주둔하였던 부대가 제9연대(연대장 송 요찬 소령)에서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 중령)로 교체되었다. 연대 교체 계획에 따라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제2연대 선발대가 12월 16일 제주 도에 도착하였고. 제9연대 선발대가 12월 19일 대전에 도착하였으며. 12월 29일로 업무가 인수인계되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함병선 중령은 본부를 제주읍에 위치한 제주농업학교에 설치하고 제1대대는 서귀포 에. 제2대대는 기동부대로서 성산포 방면에. 제3대대는 제주읍 외곽지 역인 오등리에 배치하였다.31) 제2연대 본부는 1949년 1월 7일에 비행 장의 舊 제9연대 병사에서 읍내의 농업학교로 이동하였다. 32) 제9연대

²⁹⁾ 한용원, 『創軍』(서울: 박영사, 1984), 97쪽.

³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61쪽.

³¹⁾ 濟州道. 『濟州道誌』 제2권(1993). 105쪽.

가 제2연대에게 인계할 당시에는 게릴라 주력이 거의 소멸되고 잔여 게릴라의 소탕도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12월 31일에 제주도지구의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여순 $10 \cdot 19$ 사건이 진압되면서 주력이 지리산 방면으로 도주하자 정부는 호남방면 전투사령부(사령관 원용덕 대령)를 설치하고 10월 30일~11월 30일까지 한달여 동안 진압작전을 전개한 바 있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49년 초에 잔여 게릴라들이 활동지역을 넓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남·전북·경남지역에서 준동하므로 육군본부는 1949년 3월 2일로 지리산지구, 전남지구, 제주도지구 등 3개 전투부대를 편성하였다.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제주도에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창설되고, 사령관에 유재흥 대령, 참모장에 함병선 대령이 임명되었다. 330 따라서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참모장을 겸하게 되었다.

제주도지구 전투부대는 이미 제주도에 배치된 제2연대의 3개 대대와 제6여단 유격대대 등 4개 대대로서 변동이 없었으며, 지휘관만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에서 유재흥 대령(육군사관학교 부교장)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34) 신임 사령관인 유재흥 대령은 그때까지 해안마을에 주둔하였던 부대들을 한라산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따라서 연대본부만 제주읍에 남고, 제1대대는 지금의 제1횡단도로 수악교 부근, 제2대대는 관음사, 제3대대는 중산간 교래지경, 특수부대는 지금의 제2횡단도로 1,100고지 서쪽지대에 각각 주둔시켰다. 35)

5·10재선거가 무사히 실시되자 유재흥 대령은 5월 13일 제주를 떠 났고,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는 5월 15일자로 그 임무를 제2연대에게

^{32) 『}한국전쟁사 제1권-해방과 건군』(1967), 445쪽.

^{33) 『}육군발전사』 상권(1970), 248쪽;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共匪沿革』(서울: 육군본 부. 1971). 255쪽.

³⁴⁾ 제6여단 유격대대는 육본 작명 갑 제22호(1949. 1. 27.)에 따라 1949년 1월 31일 원주에서 제주도로 이동해 있었다.

^{35) 『}濟州道誌』제2권(1993), 109쪽.

맡기고 해체되었다. 또한 제2연대 제3대대는 5월 15일에 제주에서 철 수하였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경찰특별부대가 3개월간의 작전을 마 치고 서울로 돌아갔다.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해체 이후 제주도는 다시 제2연대 함병선 연 대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전투사령부 해체와 동시에 제 2연대 제3대대가 제주를 떠난데 이어 5월 25일에는 제6여단 유격대대 가 배속 해제돼 철수함으로써 제2연대는 가용병력이 4개 대대에서 2개 대대로 줄었다. 제2연대는 국방부 일반명령 제18호(1949, 6, 14,)에 의 하여 6월 20일 육군본부 직할로부터 해편되어 수도경비사령부에 편입 되었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제2대대가 제주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제2연대(1개 대대 규모)는 8월 13일에 임무를 독립 제1대대(대 대장 김용주 소령)에게 인계하고 제주를 출발하여 인천으로 이동하였 다. 36) 함병선 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의 제주도 주둔기간은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에 온 이래 7개월 남짓한 기간이었다.

김용주 소령이 지휘하는 '독립 제1대대'는 1949년 7월 15일에 제주도 로 이동하여 8월 13일부로 제2연대의 임무를 인수하였다. 독립 제1대 대는 육군수색학교(陸軍水色學校)의 후신이었다. 육군 수색학교(교장 김용주 소령)는 학교장이 이끄는 예하 유격대대가 1949년 1월 31일까 지 경남 산청으로 이동하여 제5여단장의 지휘를 받아 지리산지구 작전 에 참여한 바 있고. 2월 27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정일권 준 장) 편성 때에도 이 유격대대가 포함되는 등 주로 지리산에서 실전 경 헊을 쌓아온 전투부대였다. 육군 수색학교는 다시 옹진으로 이동하여 옹진전투에 투입되었으며 6월 20일부로 '독립 보병 제1대대'로 개칭되 었다. 그러나 독립 제1대대는 까치산 전투에서 북한군과의 격전으로 절 반정도의 병력손실을 입고 전선에서 철수하였으며, 수원을 경유하여 7월 15일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36) 『}육군발전사』 상권(1970), 248쪽.

시기	내 용
1948년 11월 25일	육군총사령부 직할로 경기도 고양군 수색 제1여단사령부 내에 陸軍水色學校를 창설
1948년 12월 6일	북한군의 남파 정치공작대를 소탕하기 위하여 독립 제1대대를 편성해서 훈련에 착수 (대대장 김용주 소령)
1948년 12월	서울유격대로 명명하고, 지리산지구반란군 토벌차 출동하여(진주 주둔), 1949년 5월 9일에 토벌작전을 일단락지우고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
1949년 6월 4일	옹진지구로 출동. 1949년 6월 6일 : 육군수색학교 통용명칭을 38부대로 호칭
1949년 6월 20일	육군수색학교를 독립 제1대대로 개칭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편입한 후, 1949년 7월 5일에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
1949년 7월 15일	38부대를 수도경비사령부에서 해편하여 제5사단에 편입. 주둔지 수원에서 제주도로 이동
1949년 12월	제주도에서 토벌임무를 종료후 경상남도 진주로 이동

〈표-5〉 제주도에 투입될 때까지의 육군 독립 제1대대 연혁37)

8월 13일부로 제2연대로부터 임무를 인수한 독립 제1대대는 일단 모슬포에 주둔하였다가 대대본부와 1개 중대는 제주읍에, 2개 중대는 모슬포에 분산 주둔하면서 주로 교육훈련과 부대정비를 하였다. 이후 독립 제1대대는 1949년 12월 27일까지 약 5개월간의 주둔을 마치고 해병대에 임무를 인계한 후 제주도에서 철수했다.

4. 해병대의 제주도 주둔

해병대가 제주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9년 12월 28일 5개 중 대병력이 제주도로 이동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제주도는 치안상황이 상 당히 회복되어 육군 1개 대대 병력만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육군 현

^{37) 『}한국전쟁사 제1권: 해방과 건군』(1967) 참조.

지부대는 병력교대, 물자수송, 환자이동 등을 전적으로 해군함정에 의 존해야 했기 때문에 해군에 일일이 협조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 었다. 그래서 육군측은 해군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병대가 제주도 지 역의 경비임무를 맡아 주도록 요청하였다. 38)

따라서 해병대는 경남 진해에 위치하였던 해병대사령부를 비롯하여 만 4개월 동안 경남 진주에 주둔하면서 민심수습, 선무공작, 훈련, 공비 소탕에 많은 성과를 거둔 김성은부대가 모두 진해에 집결하였다. 해군 공창부두(海軍工廠埠頭)에서 신현준 사령관 이하 전원이 해군 LST 단 양호에 승선하여 1949년 12월 27일에 제주도를 향해 출항하였다. 1949년 12월 28일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39)

제주 4·3사건 이후 1.700명 규모의 경찰들과 더불어 국방경비대 제 9연대 소속 1개 대대가 투입되었고. 이어 제11연대 본부 및 1개 대대가 파견되었다. 8개월 동안의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게릴라들의 준동이 계속되자 육군40)은 1949년 3월 2일 제2연대(1948년 말 제9연대와의 임무교대로 제주도에 주둔)를 중심으로 제주도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좀 더 강화된 군·경 합동작전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육군 독립 제1대대가 제2연대의 뒤를 이어 제주 경비임무를 맡 았으며, 4개월 만에 육군 독립 제1대대가 맡고 있던 임무를 해병대가 인수한 것이다.

1940년대 후반기는 道制 실시 직후여서 행정경험의 부족과 공무원 의 수적 열세. 그리고 공복의식의 결여로 행정기강이 확립되지 못하였 고 좌우익의 대립에 의한 사회적 무질서와 불안이 팽배했던 시기였다.

³⁸⁾ 신현주. 『노해병의 회고록』(서울: 가톨릭출판사. 1989). 111쪽.; 김성은. 앞의 책. 149쪽.

^{39) 『}한국전쟁사 제1권: 해방과 건군』(1967), 654쪽.

⁴⁰⁾ 국방경비대가 육군으로 개편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1개월 전인 7월 17일 반포된 헌법과 함께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 부가 공식적으로 설치된데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이 반영되어 이 당시의 행정정책은 행정기강확보, 치안확보, 반공정신 함양, 절량민에 대한 구호대책이 종합적으로 내세워지게 되었다. 특히 1948년에 발발한 제주 4·3사건으로 공비들의 만행과이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과정에서 중산간 부락 주민이 소개를 당하는 등 이재민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도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민생구호 및 선무공작에도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41)

이러한 시기에 해병대가 제주도에 주둔하면서 부여된 임무는 해병대 자체의 정신적·육체적 훈련, 4·3사건 이래 물심양면으로 피폐한 30만 도민에 재기의 힘을 주는 한편 그들을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 고 한라산을 근거로 한 공비를 토벌하는 것 등이었다. 42)

제주도에 도착한 해병대는 1950년 1월 1일 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 제주읍부대와 2개 대대의 모슬포부대로 개편하였다. 43) 그리고 1월 14 일에는 해병 제1기 사관후보생 30명이 태릉의 육사에서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간부진이 보강되었으며, 1월 31일에는 37mm 대전차포소대를 신편하였다. 44) 따라서 제주읍부대에는 본부를 비롯하여 하사관교육대, 3중대, 대전차포소대, 근무중대로 편성되었으며, 제주도 일대의 경비임무는 모슬포부대가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북제주군 일대를 담당하고, 제2대대는 남제주군 일대를 담당하였다. 그밖에 한림, 서귀포 및 성산포에는 정보대와 헌병대를 배치하였다. 45)

^{41) 『}濟州道誌』 제2권(1993), 362쪽.

⁴²⁾ 해병교육참고 제2호『해병전투사(제1부)』(단기 4286년 3월), 17쪽.

^{43) 『}해병사』 제7집(1975),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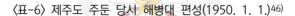
⁴⁴⁾ 위의 책, 30쪽,

^{45) 『}해병전투사(제1집)』(1962), 27쪽.



〈그림-3〉 제주도의 해병대 배치 현황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해병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⁴⁶⁾ 위의 책, 28쪽.

해병대가 제주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1950년에 6 · 25전쟁이 발 발하자 해병대는 작전 중인 각 부대를 철수시키고. 제주도 내 각 기관을 관장하면서 폭동예방과 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제주읍과 주요지역 의 경비초소를 강화하고 해안선 경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7월 8일에 제주도에 비상계엄이 선포됨47)에 따라 해병대는 치안을 확보하고 해안 감시 및 해상경비에 철저를 기합과 동시에 제주도에 상륙하는 적을 미 연에 방지하고 해상에 출현하는 적을 발견하는 즉시 포착, 섬멸하는 임 무를 맡았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신현준 대령)이 지휘하는 제주지역 계엄사령부가 관덕정에 위치한 제주도 임시도청사에 설치되었다. 왜냐 하면 당시 제주도청사는 관덕정 별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49년 1월에 제주도청사에 방화가 발생하여 서류와 비품이 전부 소각되어 행 정이 마비됨에 따라 도청사를 임시로 관덕정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48) 이후 해병대는 1950년 7월 13일 오전 8시 30분에 제주도를 출항한 해병대 고길후 부대는 15일 오전 8시 군산항에 입항하여 해양대학교사 에 본부를 설치하였다 49) 그리고 7월 26일에는 제주도에 있던 해병대 참모장 김성은 중령과 제7중대가 여수로 이동하였다. 제주도에서는 8 월 30일에 해병 제3·4기생 3.000여 명을 증모하여 3개 보병대대를 편 성하고, 9월 1일에 제주도를 출항하였다. 해병대는 함상에서 신병들을 교육훈련시키면서 진해로 이동하여 집결해서 다음 작전에 대비하였다. 9월 6일 부산항에 도착한 후 9월 11일까지 미 해병 제5연대와 함께 단 기간의 특수훈련을 마치고 김성은부대의 2개 중대와 함께 9월 12일 미 해군 LST Q3호와 피카웨이호로 부산을 출항하여 인천상륙작전에 참가

⁴⁷⁾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서울: 대한민국국방부, 단기 4287), C5쪽. 계엄사령관 육군소장 정일권에 의해 1950년 7월 8일을 기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48) 『}濟州道誌』 제2권(1993), 361쪽.

^{49) 『}해병전투사(제1부)』(단기 4286년 3월), 27쪽; 『해병발전사(해병20년사)』(1961) 13 쪽. 그러나 『해병전투사 제1집(증보판)』(1962)과 『6・25전쟁 해병대 전투사』(2012) 에는 7월 15일 제주도를 출항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였다. 이로써 해병대는 제주도를 떠나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가 하게 되었다.

5. 제주도 해병대사령부 주둔 위치에 대한 검토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에 주둔하였던 부대가 제9연대에서 제2연대로 교체되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은 1949년 1월 7일에 구 일본 해군 비행장의 舊 제9연대 병사에서 제주읍내의 제주농업학교에 본부를 설치하고 제1대대는 서귀포에, 제2대대는 기동부대로서 성산포 방면에, 제3대대는 제주읍 외곽지역인 오등리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8월 13일부로 제2연대로부터 임무를 인수한 독립 제1대대는 일단 모슬포에 주둔하였다가 대대본부와 1개 중대는 제주읍에, 2개 중대는 모슬포에 분산 주둔하면서 주로 교육훈련과 부대정비를 하였다. 즉, 이 독립 제1대대의 본부가 제주농고에 있었다. 이후 독립 제1대대는 1949년 12월 27일까지 약 5개월간의 주문을 마치고 해병대에임무를 인계한 후 제주도에서 철수했다.

독립 제1대대가 철수함에 따라 1949년 4월 15일에 진해에서 창설된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 참모장 김성은 중령)가 만 4개월 동안 진주에서의 임무를 종료하고 1949년 12월 28일 제주에 도착하였다. 1,200여 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해병대는 사령부와 일부부대(제3중대, 근무중대, 하사관교육대, 대전차포소대)만 제주읍에 두고, 제1대대와 제2대대 등 주력부대는 모슬포에 주둔시켰다.50)

당시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이었던 김성은은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육 군 대대본부를 찾아 그곳에서 대대장 김용주 중령으로부터 적정을 듣

^{50) 『}한국전쟁사 제1권: 해방과 건군』(1967), 654쪽.

고 인계인수작업을 마쳤다. ~ 중략 ~ 해병대사령부는 육군이 사용했던 2층 목조건물을 사용했는데 당시 제주도의 유일한 2층 건물이었다"51) 고 회고하고 있다.

그의 회고록에는 각급 부대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령부(사령관은 신현준 대령) 직할부대로는 제3중대(중대장 김낙천 대위), 하사관 교육대(교육대장 김용국 대위), 대전차포 소대(소대장 김동윤 소위), 근무중대(중대장 고상하 중위)를 두었다. 제3중대는 소총중대로서 제주읍 사령부를 경비하고 방어강화를 위한 전투부대였다.

또 932부대(전투정보대, 중대장 김종식)가 있었고, 대전차포 소대 (소대장 김동윤 소위)에는 6문의 37밀리 대전차포가 있었는데, 이는 장 총통이 진해를 방문했을 때 예포발사를 했던 유서깊은 무기였다. 비록 전투에는 큰 쓸모가 없었지만 버리기가 아까워 그냥 가져 온 것이었다.

제주도 서남쪽 모슬포에는 꽤 큰 활주로가 있는 일본군 폭격기 부대 비행장이 있었다. 이 비행장은 일본군이 상해와 양자강 일대를 폭격하 려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곳 모슬포에는 모슬포 부대(부대장 김동하 소령)를 주둔시켰다.

이곳에는 1, 2대대로 편성, 주둔했다. 1대대(대대장 김병호 대위, 해사 1기)는 1중대(중대장 한예택 대위), 2중대(중대장 김광식 중위, 해사 1기)로 편성하고, 2대대(대대장 고길훈 소령)는 5중대(중대장 김재주 대위), 6중대(중대장 황영 중위), 7중대(중대장 안창권 대위)로 편성했다.

모슬포 부대가 위치한 곳은 대정읍 상모리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삼방산 앞의 하모리라는 곳이었다. 일제 때 일본 공군이 건립한 7, 8개 의 건물을 병사(兵舍)로 사용했는데, 말이 건물이지 돌과 시멘트로 축

⁵¹⁾ 김성은, 앞의 책, 151쪽.

조한 폐사 같은 낮으막한 단층 건물이었다 "52)

이처럼 육군 제2연대가 제주농고에 본부를 설치한 이후 육군 독립 제1대대도 제주농고에서 육군 제2연대로부터 인계인수를 받고 주둔하 였던 것이다. 그리고 1949년 12월 28일에 독립 제1대대는 해병대에게 제주도에 대한 임무를 인계하고 제주도를 떠난 것이다.

당시의 제주농고는 현 제주고등학교의 전신이다. 제주고등학교의 연 혁에 의하면 제주농고는 1907년 7월 1일 '사립제주의신학교'로 설립되 어 개교하였으며, 1911년 11월 1일에 '제주공립농업학교'로 교명이 변경 되었고. 1940년 5월 26일에는 오현단 부지에서 '삼도리 283번지'로 이 전하였다. 이후 1951년 8월 31일에는 교육법 개정에 따라 3년제 '제주 농업고등학교'로 학제가 변경되었으며, 1976년 3월 1일에 광양 부지에 서 현 '제주시 1100로 3213번지'로 이설되었다. 그리고 2000년 3월 1 일에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다시 2008년 3월 1일에 '제주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53) 즉. 제주농고는 제 주고등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6 · 25전쟁 당시 제주농고는 현 제주고등학교의 위치인 '제주시 1100 로 3213번지'가 아니라 '삼도리 283번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위치에 육군 제2연대 본부에 이어 육군 독립 제1대대 지휘부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육군 독립 제1대대가 해병대사령부에 인계하고 제주도를 떠난 것이다.

당시 제주농고가 위치해 있던 삼도리 283번지에는 현재 '제주국제교 육정보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 옛 제주농고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54) 이곳이 해병대가 제주도에 도착한 1949년 12월 28일부터 6·25전쟁 발발로 제주도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1950년 7월 8일

⁵²⁾ 위의 책. 151~152쪽.

⁵³⁾ 제주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jeju.jje.hs.kr 참조(검색일: 2018. 3. 13.)

⁵⁴⁾ 도로명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번지(삼도일동)'이다.

까지의 해병대사령부 위치인 것이다.



〈그림-4〉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내에 옛 제주농고 터임을 알리는 표지석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에 주둔하던 해병대는 진행 중이던 무장대 진압작전을 중지하고, 해안선 경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7월 8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해병대는 치안을 확보하고해안감시 및 해상경비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제주도에 상륙하는 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에 출현하는 적을 발견 즉시로 포착 섬멸하는 임무를 맡았다.

제주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제주도청에 제주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당시 제주도청은 관덕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1949년 1월에 도청사로 사용 중이던 관덕정 별관에 방화가 발생하여 서류와비품이 전소되어 행정이 마비됨에 따라 도청을 임시로 관덕정(觀德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55) 1949년 11월 15일에 제5대 제주도지사로 부임한 김충희 씨는 결국 현 제주시청 자리로 결정하고 '도청건립 11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사업이 유보되었다.

^{55) 『}濟州道誌』 제2권(1993), 361쪽.

1950년 7월 8일 제주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제주도청에 계엄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제주도지구계엄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하 영다 56) 즉 현재 제주시 과덕정에 임시로 설치되 제주도청에 계엄사 령부가 설치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은 前 국방부장관의 회고록에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과덕정(관디창이라 발음)이라는 정자의 마당 뒤에 있는 단층 목조 건물이 도청. 그 옆에 단층으로 길죽한 형태의 건물이 경찰국이었 다"57)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관덕정에 도청이 있었으며, 도청에 계엄 사령부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계엄사령부로서의 해병대사령부 가 제주도청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 현 표지석 위치와 제주도 주둔 초기 해병대사령부 위치

^{56) 『6·25}전쟁 해병대 전투사』(2012), 67쪽.

⁵⁷⁾ 김성은, 앞의 책, 155쪽,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덕로 조일약국 앞에는 1949년 12월 28일부터 1950년 9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부가 주둔했다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2010년 9월 1일 "제10회 제주해병대의 날"에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이 표지석의 위치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해병대가 제주도에 도착한 1949년 12월 28일부터 주둔했던 곳은 조일약국앞이 아니라 옛 제주농고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0년 7월 8일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해병대가 제주도를 떠날 때까지인 1950년 9월 1일까지는 관덕정 임시도청사에 해병대사령부가 제주도지구 계엄사령부로서 주둔하였기 때문이다.

6. 결 론

대한민국 건군 이후에 많은 부대들이 창설되어 증편되고, 편제의 조정으로 인해 없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부대들이 창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과 전쟁 이후 산업발전에 따른 지리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 건군 초기에 창설되었던 부대들의 위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곳이 부대 창설 당시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병대가 창설되면서 주둔했던 곳의 위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해병대가 창설되었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병대 처음 세운 곳" 이라는 탑이 세워져 있을 뿐, 창설 당시의 지리적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에서도 다르지 않다. 창설 이후 두 번째로 주둔 했던 곳인 제주도에도 관덕로 일대 조일약국 앞에 해병대사령부가 주 둔했던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표지석의 설치는 역사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지석의 위치와

명문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고증이 필요할 것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했던 덕산비행장에서 1949년 4월 15일에 창설된 해병대는 8월부터 4개월 동안 경남 진주에서의 작전수행을 마 치고 12월 28일에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당시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이 었던 김성은 前 국방부장관은 해병대가 제주도에 도착하여 당시 제주 도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독립 제1대대의 대대본부를 찾아가 그곳에서 대대장 김용주 중령으로부터 적정을 듣고 인계인수작업을 마쳤으며, 해병대사령부는 육군이 사용하였던 2층 목조건물을 사용하였다고 회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사령부와 제주읍부대를 제주읍에, 모슬포 지역에는 모슬포부대를 주둔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병대가 제주도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육군 제2연대에게 임무를 인 계받은 육군 독립 제1대대만 있었다. 따라서 해병대는 1949년 12월 28 일에 육군 독립 제1대대로부터 임무를 인계받았던 것이다. 이 당시 육 군 독립 제1대대는 제2연대 본부가 위치해 있던 제주농고에 지휘부가 있었으며 해병대는 이곳에서 인계인수를 마치고 주둔하였던 것이다.

즉. 당시 제주농고에 위치하고 있었던 삼도리 283번지(현 '제주국제 교육정보원'의 위치)에 해병대사령부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제주농 고는 1976년 3월 1일에 제주시 1100로 3213번지로 학교의 위치를 옮 겼으며, 2000년 3월 1일에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 였고. 다시 2008년 3월 1일에는 제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당시의 제주농고는 제주고등학교의 전신으로 현재의 제주고등학교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였으며, 그 위치 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주국제정보교육원 에 옛 제주농고의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증언자의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는 증언자가 그 현장에 있었거 나, 증언자가 직접 관계가 되거나, 증언자가 직접 본 경우이다. 이 경 우에 있어 김성은 前 국방부장관의 회고록에 기록된 내용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의 회고록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의 조일약국 앞에는 제주도에 해병대 사령부가 주둔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2010년 9월 1일 제10회 제주 해병대의 날에 설치된 표지석이 있다. 이 표지석은 1949년 12월 28일 부터 해병대사령부가 위치하였던 옛 제주농고의 위치인 제주국제교육 정보원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의 해병대사령부는 관덕정에 위치한 임시 도청사이므로 현재의 표지석이 설치된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지석의 명문도 1949년 12월 28일부터 1950년 9월 1일까지가 아니라, 1949년 12월 28일 제주도에 도착하여 1950년 7월 7일까지와 제주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해병대사령부가 관덕정 임시도청사로 옮겨간 1950년 7월 8일부터 제주도를 떠난 1950년 9월 1일까지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4. 5, 심사수정일 : 2018. 5. 9, 게재확정일 : 2018. 5. 14)

주제어: 제주도,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김성은, 관덕정, 조일약국, 제주농고.

〈참 고 문 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울: 국방부 군사편 찬연구소, 20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 제1권: 解放과 建軍』, 서울: 국방부 전사편 찬위원회, 19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전 국방부장관 김성은 회고록)』, 서울: (주)아이템플 코리아. 2008.

대정고등학교총동창회, 『대정고 50년사』(상), 제주: 대정고등학교 총동창회, 2004.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 서울: 대한민국국방부, 단기 4287. 신현준, 『노해병의 회고록』,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9.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서울: 육군본부, 1970.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共匪沿革』, 서울: 육군본부, 1971.

濟州道,『濟州道誌』제2권, 1993.

한용원.『創軍』 서울: 박영사. 1984.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 충남 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 해군본부, 『해병사』 제7집, 서울: 해군본부, 1975.

해병대 공식 블러그, http://rokmarineboy.tistory.com/201, 〈검색일: 2018. 3. 13.〉 해병대사령부, 해병교육참고 제2호『해병전투사(제1부)』, 서울: 해병대사령부, 단기 4286년 3월.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해병대 20년사)』, 서울: 해병대사령부, 1961년.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제1집)』, 서울: 해병대사령부, 1962. 해병대사령부, 『해병대편제사(I권)』,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2011.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해병대 전투사』,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2012. 제주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http://jeju.jje.hs.kr (검색일: 2018. 3. 1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9. July 23. 1948.

<Abstract>

A Study on the Position of the Marine Corps Headquarters in Jeju Island

Park, Jong-sa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ne Corps of Republic of Korea, the locations of the HQ has been changed a lot and many units have created and expanded over the time, and they have been lost due to the adjustment of the organization. And new units were created, and existing units moved to new places.

It is not easy to find the positions of the troops that were formed in the early days of the army due to such a large number of changes. It is because many places do not appear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unit.

It is located on Jeju Island, which is the second station after the foundation, in front of Joil Pharmacy at Gwangdeok-ro. It is equipped with a marker that the Marine Corps HQ. is stationed on. However, the position and the position of the marker should be more thoroughly researched historically.

Former Defense Minister Kim Seong—eun, who was Marine Corps Commander's Chief of Staff at the time, arrived at Jeju Island when the Marine Corps arrived at Jeju Island, where he visited the Battalion headquarters of the Army's 1st Independence Battalion, and received orders from Colonel Kim Yong—Ju And that he used the two—story wooden building used by the army. Because Jeju Island was the 1st Army Independent Battalion that was assigned to the 2nd Army Army. Thus, the Marines were taken over from the 1st Army Independent Battalion on December 28, 1949.

At that time, the 1st Army Independent Battalion had a commanding post in the Jeju agricultural high school, where the 2nd Army Rgt, hg, was located, and the Marine Corps was stationed after the takeover of this area. There was a Marine Corps HQ. at 283 Samdo-ri (currently located at Jeju Inter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Center), which was located in the Jeju agricultural High School at that time.

Therefore, it should be installed at Jeju Inter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Center, which is the location of the old Jeju agricultural high school where the Marine Corps HQ, was located since December 28, 1949.

After the emergency martial law was declared on July 8, 1950, the Marine Corps HQ, was located in Gwandeokjeong. Also, the contents of marker should be corrected.

Key Words: Jeju, Marine Corps, Marine Corps HQ., Kim Seong-Eun, Gwandeokjeo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147-192 https://doi.org/10.29212/mh.2018..10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젼바오섬 사건은 중국의 의도적 선제공격이었는가?

- 위기관리 전략 구사의 한계에 대한 조직이론적 해석 -

박상연*

- 1. 문제제기
- 2. 단일 행위자 모형의 한계: 중-소국경분쟁은 중국의 의도된 기습이었는가?
- 3. 위기관리 전략에 대한 조직이론적 분석
- 4. 중국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전략과 지방 군사조직의 전략 수행과정 분석
- 5 결 론

1 문제제기

1969년 3월 2일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인 우수리강(乌苏里江.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강사

Ussuri River)의 전바오섬(珍宝岛, Damansky Island)에서 중국 군의 기습적인 선제 조준사격에 의해 소련국경경비대원 3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¹⁾ 이렇게 촉발된 무장 충돌은 전차 및 다연장로켓포까지 투입된 연대급 규모의 교전으로 확전(escalation)되었다.²⁾ 중국군과 소련군의 무장충돌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중—소 국경지대에서의 무력도발로 이어졌고, 중국과 소련 중앙정부는 언론 및 외교채널을 통해 전략적 위협을 주고받았다.

특히 소련은 1969년 8월에 이르러서 중국에 대한 핵공격 및 지도부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을 위협했다. 9월 11일 코시킨(Alexei Kosygin) 소련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来)중국국무원 총리가 추가적인 군사행동의 중단과 국경지역의 현상유지에 합의하면서 화

¹⁾ 중국군의 공격이 선제적인 조준공격이었으며 중소국경분쟁의 시발점이었다고 평가하는 연구 및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Yu M 갈레노비치, 『20세기 러시아와 중국: 국경』, p. 342; Dmitri S. Ryabushkin, "New Documents on the Sino-Soviet Ussuri Border Clashes of 1969", pp. 166-6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irectorate of Intelligence, "Intelligence Memorandum, Sino-Soviet Border Talks: Problems and Prospects", p. 10; Gerson,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 Deterrence, Escalation,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in 1969, pp. 24-25; 서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 517; Burr, "Sino-American Relations, 1969", p. 82; 牛军, "1969年中苏边界冲突与中国外交的调整". 当代中国史研究 1期(1999), p. 71; Allen Whiting, "Letter from Allen S. Whiting to Henry Kissinger, Sino-Soviet Hostilitie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Burr, "Sino-American Relations, 1969", p. 82; Whiting, "China's Use of Force, 1590-96, and Taiwan", p. 118.

²⁾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 및 해결과 관련하여서 다음의 논문을 참조. Gerson,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 Deterrence, Escalation,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in 1969.; Goldstein, "Do Nascent WMD Arsenals Deter? The Sino-Soviet Crisis of 1969", pp. 53-80.; Chen and Wilson, "All Under Heaven Is Great Chaos: Beijing, the Sino-Soviet Border Clashes, and the Turn Toward Sino-American Rapproachement, 1968-69", pp. 155-175.; 서 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262-596.; Thomas Robinson,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s of 1969: New Evidence Three Decades Later," pp. 198-216.

해 국면에 접어들고, 마침내 10월 7일 중국과 소련의 국경충돌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어서야 위기는 일단락되었다.

이 일련의 사태를 지칭하는 1969년 중소국경분쟁(이하 중소국경분 쟁)은 핵보유국 간의 재래식 무력충돌이 실재했던 희귀한 사례로서 위 기관리(crisis management) 및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연구자 와 중국 러시아 지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기존 연 구는 중소국경분쟁의 원인이 ① 해당 접경지역에서 지속되어온 갈등. ② 중소 간의 경쟁(rivalry)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소련의 국제전략 수 정으로 인한 대외 압력의 증대. ③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국내정치적으 로 난관에 봉착한 마오쩌둥의 위기 해결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라고 분석한다.3)

그러나 어떤 요인이 보다 결정적인 요인이었는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략적 의도를 강조하는 연구와 접경지대의 지역적 갈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4) 이 때, 각 입장의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 바로 3월 2일 젼바오섬에서 발생한 중국 국경경비대 의 선제사격에 대한 해석이다.

접경지대의 지역적 갈등을 강조하는 연구는 중국군의 선제사격을 불

³⁾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는 글은 다 음을 참조. Gerson.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 Deterrence. Escalation,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in 1969, pp.53-59, Robinson, "China Confronts the Soviet Union: Warfare and Diplomacy on China's Inner Asia Frontiers," pp. 261-64;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pp. 201-215;徐焰. "1969 年中苏边界的武装冲突". 中共党史研究资料,5期(1994). pp. 2-13.; Radchenko. "The Sino-Soviet Split." pp. 356-370.

⁴⁾ 중-소 접경지역의 지역적·역사적 맥락을 강조한 글은 다음을 참조. Maxwell, "The Chinese Account of the 1969 Fighting at Chenpao", 730-739;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204-6.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중소갈등의 국내적 ·국제적 맥락을 강조한 글은 다음을 참조. Kissinger, On China. pp.217-8; 『중 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p. 462-516 ; Goldstein, "Return to Zhenbao Island: Who Started Shooting and Why It Matters," pp. 986-997; Lewis and Xue, Imagined Enemies: China Prepares for Uncertain War, pp.; Li. Mao's China and the Sino-Soviet Split: Ideological Dilemma, pp. 143-152.

가피하고 우발적인 자위적 조치에 따른 충돌이라고 본다. 현지의 생활 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불평등하게 획정된 중—소 국경 때문 에 중국인의 월경행위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소련군이 순찰을 강화 하면서 중국인 피해가 증가한 것에 대한 중국국경경비대의 조치강화가 불의의 충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5)

그러나 중국군의 선제사격은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와 명령에 따른 순찰조치 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및 군 지휘부를 배제하고 현지상황만 살펴보는 것으로는 중국군 선제사격의 의도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는 1970년대 실시된 현지조사 과정에서 중국정부에 의해 통제된 입장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위급 의사결정자보다는 작전에 직접 참여했던 현장지휘관 및 지역주민의 증언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동학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난다.6)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새롭게 공개된 중국과 소련의 공식문건 및 지위부 증언들을 반영한 연구들은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연속적인 충돌들이 1969년 3월 2일의 선제사격으로 이어진 것은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의 확전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7)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이라는

⁵⁾ Maxwell, "The Chinese Account of the 1969 Fighting at Chenpao", pp. 731-3;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pp. 204-6.

⁶⁾ 이러한 한계를 지적한 글은 다음을 참조. Goldstein, "Return to Zhenbao Island: Who Started Shooting and Why It Matters"; Arthur A. Cohen, "The Sino-Soviet Border Crisis of 1969", pp. 278-79.

또한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인 네빌 멕스웰(Neville Maxwell)은 2000년대 들어 새롭게 공개된 중국의 공식 문건 및 지휘부 증언 등을 참고하여 현지의 동학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기존 입장을 수정한 바 있다. Maxwell, "How the Sino-Russian Boundary Conflict Was Finally Settled".

⁷⁾ Christian F. Ostermann, "New Evidence on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1969-71: East German Documents on the Border Conflict, 1969", pp. 189-91.; 牛军, "1969年中苏边界冲突与中国外交的调整"; Yang, "The Sino-Soviet Border Clash of 1969", pp. 27-29; 李丹慧, "1969年中苏边界冲突:缘起和结果";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 505-518; Lewis and Xue, Imagined Enemies: China Prepares for Uncertain War, p. 48; ; Robinson,

행위자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정치-군사전략 결정자에 의 해 일사불란하게 통제될 것이라 믿는 단일행위자 모형(Unitary Actor Model)에 입각하여 사건을 분석했다. 8)

그러나 단일행위자 모형에 입각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한계를 노정한다. 첫째, 단일 행위자 모형은 모든 행동 결과에 대해서 중 앙정부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중앙정부가 처한 여러 정 황들을 끌어와 벌어진 사건을 설명하려 시도한다. 이는 단일 행위 자 모형이 모든 사건은 중앙정부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찍이 클라우제비츠가 마찰(fric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적한 바 있고. 여러 조직이론가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중앙정부의 전략적 결정은 전술단위를 통해 실시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의도 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한다.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서 무리한 설명을 시도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앨리슨 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설치 과정을 미국에 게 노출시킨 것은 의도치 않은 현지 지휘관의 실책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단일행위자 모형에 입각한 합리적 행위자 모형(Rational Actor Model)이 이를 의도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 는지를 보인 바 있다 9)

[&]quot;The Sino-Sovit Border Conflicts of 1969: New Evidence Three Deceades Later," pp.203-208.

⁸⁾ 정치-군사전략(politico-military strategy)은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전략 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모든 국가 간의 위기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 과 '군사적 위기의 회피'라는 딜레마 상황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간의 갈등을 낳 는다. 이러한 갈등이 조직이론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추후 활용하는 '전략' 이라는 용어는 '정치-군사전략'을 내포하고 있음을 사전에 밝혀두다. 정치-구사전략의 딜레마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George. "The Tension Between "Military Logic" and Requirements of Diplomacy in Crisis Management," pp. 16-7.

⁹⁾ Allison and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pp. 210-217

둘째, 단일행위자 모형은 간결한 설명을 위해 사료에 대한 엄밀한 고찰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군의 선제사격이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였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여러 1차 자료 및 증언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1969년 3월 2일 발생한 순찰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국경경비대의 사격행위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은 3월 2일 당시 중국 중앙정부 및 총참모부, 지방군구의 통제대로라면 중국 경비대가 총기를 발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의 작전 입안명령 하달 및 지방군구의 작전안 상신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면, 기존연구에서 중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시되는 대내외적 정황이 전개되던 시점이 실제 중국 중앙정부의 명령하달 및 군부의 작전준비 시점과의 시차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10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69년 중소국경분쟁의 촉발 과정을 상호억제 상황 하의 정치-군사 지도부가 현지의 전술적 위기에 대해 대응하는 위기관리 전략의 수행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중앙에서 입안된 위기관리전략이 현지 군사조직으로 하달되어 실시되는 과정을 조직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중국 중앙정부의 위기관리전략이 군사조직을 통해 실시되는 과정에서 조직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선제사격이 발생하였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1차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군의 교전수칙상의 권한에 대한 중국 총참모부의 지침을 살펴보았다. 군사조직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교전수칙은 위기관리 전략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중국 총참모부의 교전수칙은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사료를

¹⁰⁾ 오히려 사료의 제작 시점을 통해 볼 때, 중국 중앙의 전략 결정에 따른 명령하달 은 중-소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국지적 위기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2장에서 후술하겠다.

재검토함으로써 중국군의 선제사격이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공 격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진 논리적 한계를 보일 것이 다. 3장에서는 기존 이론의 비판적 재검토를 통해 중앙에 의해 결정 된 위기관리전략이 현지의 군사조직을 통해 하달되고 실시되는 과 정 및 방식을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분류할 것이다. 4장에서는 3장 에서 논의된 분석틀에 입각하여 중국군 선제사격의 원인을 재고찰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함의를 밝힐 것이다.

2 단일 행위자 모형의 한계: 중-소국경분쟁은 중국 의 의도된 기습이었는가?

이 장에서는 당시 중국 중앙정부를 둘러싼 국제적 국내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연구에서 증거로 제시한 사료에 입각한 분석이 당시 국제적・국내적 정황과 어떤 시차를 보이는지를 검토할 것 이다. 또한 중국 총참모부 및 지방군구의 명령안을 검토함으로써. 3월 2일 중국 국경 경비대는 명령대로라면 총기를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 었음을 보일 것이다.

단일행위자로서 중앙정부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역사 적으로 지속되어 온 중-소 국경지대의 충돌과 중국군의 선제사격은 질 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제사격과 같은 조치는 최고 지도자 인 마오쩌둥 및 중국 중앙 군사지도부의 확전 결정 및 지휘통제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임을 주장했다.11) 그리고 마오쩌둥 및 중국 지도 부가 이러한 확전 결정을 하게 된 국내외적 맥락으로 소련의 국제전략 변경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국내정치적 위기를 들고 있다.

^{11)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p. 517-18.

국제 전략 환경변화는 1968년 소련이 개입주의로 노선을 변경한 것을 의미한다. 1968년 8월 20일 소련을 위시한 바르샤바 조약기 구는 프라하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감행했다.

이어서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 소련 서기장은 1968년 11월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천명하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발표했다. 브레즈네프 독트린과 체코에 대한 군사개입은 소련의 개입이 단순한 이념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 군사적 조치로 이어질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기존 연구는 중국과 소련의 이념 갈등이점증되던 이 시기, 체코에 대한 소련의 공격이 중국 중앙정부의 전략적우려를 낳았고, 이것이 선제공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12)

국내정치적 위기는 문화대혁명(1966-76)의 혼란 속에서 마오쩌둥을 비롯한 지도부가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3] 당시 중국은 당-정부 내의 정치권력이 분열되어 류샤오치(劉少奇)를 중심으로 한 주자파(走資派)가 마오쩌둥과 그의 후계자인 린뱌오(林彪)를 친소 구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으며, 사회는 혼란상태에 빠져있었고, 군에 대한 장악력 역시 감소해 있었다. [4] 이런 상황에서 마오쩌둥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린뱌오를 1969년 봄에 개최할 중국공산당 제9차

¹²⁾ 牛军, "1969年中苏边界冲突与中国外交的调整", pp. 28-29;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p. 504-16; Chen and Wilson, "All Under Heaven Is Great Chaos: Beijing, the Sino-Soviet Border Clashes, and the Turn Toward Sino-American Rapproachement, 1968-69", p. 155.

¹³⁾ Goldstein, "Return to Zhenbao Island: Who Started Shooting and Why It Matters", pp. 989-96; 李丹慧, "1969 年中苏边界冲突: 缘起和结果", 39-50; Yang, "The Sino-Soviet Border Clash of 1969", p. 30.

¹⁴⁾ Lewis and Xue, Imagined Enemies: China Prepares for Uncertain War, pp. 48-50; Goldstein, "Return to Zhenbao Island: Who Started Shooting and Why It Matters", pp. 994-95; Harding, "The Chinese State in Crisis", pp. 219-30.

전국대표회의에서 영웅적 인물로 부상시키고. 소련과의 갈등을 이용해 고조된 반소감정을 촉발시켜 분열된 중국 내 인민들을 규합하고 동원 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15)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선제공격을 위한 작전 수립을 지 시하는 명령을 하달하고. 이에 따라 1969년 1월 헤이룽장성군구(黑龙 江城军区)가 작전방안을 상신하여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중 앙정부 군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일사불란하고 의도적 선제 기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한다. 16) 그러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 및 증언을 시간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중국이 감행한 3월 2일의 선제 사격을 소련의 전략 변화나 중국 국내정치 상황에 따른 중국 중앙정부 의 공격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첫째. 지방군구의 반격작전 수립을 지시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명령 은 소련의 전략 변화 이전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전략적 변화에 대해 중국이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통한 억제를 시도한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17) 중국 중앙정부의 명령하달 증거로 제시되는 1차 자료인 '중국 중앙정부가 션양군구(沈阳军区) 및 베이징군구(北京军区) 에 하달한 반격작전 수립 명령'은 브레즈네프 독트린 발표(1968년 11 월)나 소련의 체코 개입(1968년 8월) 이전인 1968년 1월 24일 하달된 것이었다. 게다가 당시 명령의 내용은 소련의 도발에 대해 다양한 시나 리오를 고려한 사전준비를 통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간, 장소, 상황에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을 감행하라는 것이었으며, 반격은 철저히 비례원칙(tit-for-tat, 원문 : 镇奉相对)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18)

¹⁵⁾ 李丹慧, "1969 年中苏边界冲突: 缘起和结果", p. 46.

¹⁶⁾ Goldstein, "Return to Zhenbao Island: Who Started Shooting and Why It Matters", pp. 987-89.; Robinson. "The Sino-Sovit Border Conflicts of 1969: New Evidence Three Deceades Later," pp.203-208, pp. 205-208.

¹⁷⁾ Goldstein, pp. 990-92.

¹⁸⁾ 李可 & 郝悅 . ""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军』, pp. 317-18; 徐焰, "1969 年 中苏边界的武装冲突". p. 5.

여기서 언급되는 '소련의 도발'은 국경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었다. [19] 따라서 1968년 중앙정부가 하달한 작전 수립 명령은 중국 중앙정부가 소련의 노선변경에 따른 국경지역의 위협에 대해 선제적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1969년 3월 2일 실시된 전바오섬의 작전을 위한 1969년 헤이룽장성의 작전방안 및 션양군구 및 총참모부의 승인안 작성을 위한 명령도 아니었다. 20)

둘째, 기존연구는 3월 15일의 작전을 3월 2일의 작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3월 15일에 해당하는 사료를 3월 2일의 공격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3월 2일 발생한 중국군의 선제공격은 확전이 일어난 이후 발생한 3월 15일의 전투와 엄연히 다른 성격이며, 3월 2일 이후에 취해진 조치는 3월 2일의 선제공격과는 구분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오쩌둥이 국내정치 동원을 위해 전바오섬 사건을 지시했고 션양군구 및 중앙군사위원회가 작전 실시를 주관했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당시 션양군구 지휘관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21) 당시 션양군구사령관 쳰스리엔(陈锡联)은 션양군구 예하의 3개 군 중에서 전투경험을 가진 2~3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3개의 순찰 중대를 구성했

¹⁹⁾ 실제로 이 명령의 하달 직전인 1968년 1월 5일 진보도 북쪽에 있었던 키르킨시섬 (Kirkinsi island, 七里沁岛)에서 강화된 순찰 조치의 일환으로 장갑차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중국인 월경자를 구축하던 소련국경경비대가 중국인을 사망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오히려 1968년 중국 중앙정부의 작전입안 명령이 하달되던 시기의 정황을 살펴보면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던 중소 변경의 국경지대의 동학이 이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빠져서는 안 될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沉志华 & 于沛, 『苏联共产党九十三年: 1898 至 1991 年苏共历史大事实录』, p. 387; 李丹慧, "1969 年中苏边界冲突: 缘起和结果", p. 43; 李可 & 郝悅 , 「"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军』, p. 317.

²⁰⁾ 일부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1968년' 1월 24일을 '1969년' 1월 24일로 혼동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명령을 소련의 전략적 변화(브레즈네프 독트린 발표/체코 개입) 이후로 분석하게 되면서 중국 중앙정부의 전략적 의도를 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의 사례를 참고. Lewis and Xue, Imagined Enemies: China Prepares for Uncertain War, p. 49;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 498.

²¹⁾ Yang, "The Sino-Soviet Border Clash of 1969", pp. 27-30.

고, 해당 순찰 부대에게 특수한 장비와 훈련을 제공했고 젼바오섬에 사 전 투입했으며, 3월 15일의 작전은 명백히 중앙정부 및 션양군구의 지 휘 하에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3월 2일 투입된 부대가 전투능력을 보유한 부대였으며 현지 도발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는 점에서 3월 2일의 작전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 졌을 것이라는 점은 알 수 있다. 그러나 3월 2일 현지 순찰 부대를 중 앙정부나 션양군구가 통제했다는 점은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오 히려 3월 2일의 전투 이후 쳰스리엔이 전선 부대와의 직접 통신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특수전화선을 개설시켰다는 내용을 통해 판단컨대. 3월 2일에는 션양군구사령관이 현지 전선 상황 에 대한 즉각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2)

셋째. 마오쩌둥이 젼바오섬 사건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하기에 중 국 중앙정부의 국내정치 동원은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수행되지 못 했다. 다수의 연구가 전바오섬 사건이 국내정치적인 동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증거로 중국 공산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 개최 시기 직전에 위기가 촉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23)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경지대의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련을 비판했을 뿐, 이에 대한 정치적 동원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24) 실 제 9차 대표대회 과정에서 중국은 소련이 아닌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 한 적개심을 더 드러냈다. 25)

한편. 1969년 3월 2일 중국국경경비대의 순찰에 대한 구체적인 작

²²⁾ Yang, p. 29.

^{23)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511; 李丹慧, "1969 年中苏边界冲突: 缘起和结 果". p. 46.

²⁴⁾ 이러한 평가와 관해 다음을 참조.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pp.214-5.

^{25) 9}차 전국대표대회의 주요 내용분석은 다음을 참조. Garver. ""Chinese foreign policy in 1970: the tilt towards the Soviet Union". pp. 214-49.

전내용을 담고 있는 1969년 헤이룽장성군구가 상신한 작전 방안과 이에 대한 션양군구 및 총참모부의 승인안의 내용은 중국국경경비대의 증강된 순찰방안이 선제공격이 아닌 소련의 전술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반격을 하기 위한 작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격을 통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68년 12월부터 전바오섬 일대에서 발생한 소련군의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해 헤이룽장성군구는 1969년 1월 증강된 순찰 계획을 상신했고, 이 안은 2월 19일 중국 총참모부 및 외교부의 승인을 받았다. 26) 이 작전 방안은 소련군의 선제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증강된 매복 부대를 통해 확실하게 소련군을 제압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며, 이 작전은 선제공격이 아닌 반격작전(원문:后发制人)임을 명시하며, 엄격한비례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27)

또한 헤이룽장성군구가 계획한 작전안에서 선제사격과 관련된 내용은 2월 23일 총참모부의 채택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다음은 당시 2월 23일 총참모부의 사격지침이다.

만약 소련군이 냉병기(목봉, 곤봉 등)을 사용하여 중국군을 공격하거나 차량을 통한 충돌을 시도하는 경우 중국측은 둔기를 통해 자위반격을 실시해야 하며, 작약을 통해서 차량을 불태우되, 절대 사격을 통한 반격은 실시하지 않는다. 만약 소련군이 중국측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경우, 중국군은 먼저 경고사격을 실시하고, 경고 사격이 무효하여 중국측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격을 실시한다. 만약 소련군이 소련측 영토 내에서 중국측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경우, 중국군은 즉시 은폐하는 동시에 사격 시간, 지점 및 사격 방향 등을 기록하고 가용 증거를 획득한다. 만약 소련군이 중국 영토를 침범하는 경우, 소수의 적인

²⁶⁾ Maxwell, "The Chinese Account of the 1969 Fighting at Chenpao";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pp. 208-9; 李可 & 郝悅, 「"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军』, pp. 317-18; 徐焰, "1969 年中苏边界的武装冲突", p. 196.

²⁷⁾ 总参谋部,中国人民解放军军事工作大事记(1949. 10-1987. 12). 总参谋部:《中国人民解放军军事工作大事记(1949. 10-1987. 12)》(1988. 12),余汝信,1969:对苏战备中的军委办事组.林彪与毛泽东에서 재익용

경우 생포하고 무기를 나포한다. 만약 소련군이 헬리콥터를 통해 상공에서 지휘하 는 경우 절대 사격하지 말고, 대신 꼭 증거를 확보하라 28)

위에서 알 수 있듯 중국국경경비대의 선제사격은 구체적인 지침 을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3월 2일 중국군은 소련군이 선제사격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경고사격 후 중국측 사상자가 발생해 아만 대응 사격할 수 있었다 29) 즉. 공개된 명령에 의거하면 3월 2일 중국군의 선제사격은 중국 총참모부가 승인한 작전지침을 어기는 대 응이었다

한편, 만약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총참모부의 명령에 선제사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3월 2일의 사격은 중앙정부의 통제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그랬다면 중국군의 조준사격 은 3월 2일이 아닌 2월 22일이나 25일에 일어났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국경경비대는 총참모부의 승인 후, 두 차례(2월 22일, 2월 25일)에 걸쳐 젼바오섬에서 200명 정도로 증강된 부대로 순찰을 감행 했는데, 이 시기에는 총참모부의 사격 관련 지침을 준수했다. 3월 2일 과 달리 2월 22일과 25일에는 중국국경경비대는 개머리판과 몽둥이를 사용한 소련군의 강경한 대응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련군이 냉 병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응수준을 높이지 않고 물러났다.

요컨대. 현재까지 공개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3월 2일

²⁸⁾ 李可 & 郝悅 . 『"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军』, pp. 319-20.; 总参谋部. 中国人民 解放军军事工作大事记(1949. 10-1987. 12). 总参谋部:《中国人民解放军军事工作 大事记(1949, 10-1987, 12)》(1988, 12), 余汝信, 1969: 对苏战备中的军委办事组, 林彪与毛泽东에서 재인용

²⁹⁾ 소련군의 선제사격 여부와 관련하여 3월 2일 중국국경경비대와 소련국경경비대의 조우 상황에서 소련측에서 총성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소련군의 의도적인 조준사 격이었을 수 있다는 논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Gerson.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 Deterrence, Escalation,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in 1969, 23-24; Maxwell, "The Chinese Account of the 1969 Fighting at Chenpao", p. 487; Yu M. 『20세기 러시아와 중국: 국경』, pp. 344-45;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p. 528-30.

중국군의 선제공격이 중국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분석은 불완전한 설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동안 중국 중앙정부가 소련에 의해 야기된 국경지대의 위협을 해결하 기 위해 구사한 위기관리 전략이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위기관리 전략에 대한 조직이론적 분석

이 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하달한 전략이 지방 군사조 직에서 수행되는 과정에서 위기가 야기된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 한 분석틀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가조직과 군사조직의 딜레마를 '일상사고 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유 형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군사조직이 맞이하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군사조 직의 노력이 어떻게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국가 조직과 군사 조직의 딜레마: '일상 사고 이론'을 중심으로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를 상정하는 이론들은 조직의 리더십이 전체 조직의 안전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적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조직이론가인 페로우(Charles Perrow)가 제시한 '일상사고 이론'은 조직의 리더가 적절한 목표를 상정하더라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위기란 중앙의 잘못된 전략 판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부 단위에서 발생하는 사건(incident)들이 전체 조직을 위협하는사고(accident)로 확대되면서 촉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0)

이러한 일상사고 이론은 특정한 사건이 각 조직의 층위와 어떤 관계 를 맺고 있고, 어떠한 규모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 는 사고의 형태와 이에 따라 중앙조직이 하부조직과 어떤 관계를 상정 하는지를 아래 표 1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선형관계 (linear)	복잡한 상호관계 (complex)
높은 파급력	사례	대, 전력 공급 망, 교통 및 철도망	핵시설, 무기(군사조직), 항공 및 우주 작전 등
(tightly coupled)	조직 관계	중앙집중화	중앙집중회와 탈집중화(양립불기능)
낮은 파급력 (loosely	사례	일반 생산 시설 및 학교, 단일 목표를 수행하는 관공서	연구 및 개발조직, 대학교, 다목적 수행 시설
coupled)	조직 관계	모든 형태 가능	탈집중화

표 1. 상호작용의 복잡성 및 파급력의 분류 및 사례31)

조직의 하위 수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은 하위 조직의 탈집중화를 강조하는 상호관계의 복잡성

³⁰⁾ 앨리슨은 단일한 국가행위자의 대립항으로 조직을 상정하는 이분법을 채택한 반 면, 페로우는 모든 조직을 일상적인 업무(event)를 다루는 미시수준 단위(unit)부 터 전체를 포괄하는 최상위 수준의 체계(system)로 이어지는 층위로 연결되어 있 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직이론에서 '체계'의 대립항으로 제시되는 '조 직' (organization)은 페로우의 일상사고이론에서는 하위체계(sub system)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각 '조직'은 그 하부 수준으로 '단위', 개별 사안을 미시적으로 직접 다루는 부품(part)으로 나뉘다.

결국, 일상사고 이론에서 정의되는 사고(accident)란 하위조직인 '부품'과 '단위' 의 실패로 발생하는 사건(incident)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위 체계의 목표달성 및 안전에 위협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다. Essence of the Decision, pp. 146-7.; Perrow,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ies, pp. 63-66.

³¹⁾ The Limits of Safety, Organizations, Accidents, and Nuclear Wegpons, p.327;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ies, p. 332에서 저자 재구성

(interactive complexity)과 최상위 조직의 집중화를 강조하는 긴밀성(tightness of coupling)에 영향을 받는다. '상호 작용의 복잡성'은 하부조직이 다루는 사건이 전체 시스템과 작용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지를 의미한다. 상호작용의 복잡성은 사안해결을 위한 기술적 요구치가 높거나, 즉각적이고 유연한 현장대응이 요구되는 경우에 높아지게 된다. 32) 따라서 상호작용의 복잡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최상위 조직이 사안을 이해하고 시의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미시 수준의 개별단위의 역할이 강조된다.

한편, '연계의 긴밀성'은 연쇄반응의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스케줄이 빠듯해서 하위수준에서 발생한 사건이 급격하게 전체 조직의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³³⁾ 사안의 긴밀성이 높아질수록 해당 사안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상위 조직이 통제할 틈 없이 전체 시스템으로 위기가 증폭된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상위 조직은 개별 사안을다루는 미시적 하부조직의 이상(異常)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표준 절차(Standard Operational Process) 준수와 통제를 강조한다.

이처럼 상위조직과 하위조직의 관계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데 스콧 세이건(Scott Sagan)은 이를 중심화(centr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³⁴⁾ 중심화는 상-하 조직 간의 목표가 충돌되는 경우 하위 조직의 목표 추구 허용 범위라고 볼 수 있다.

모든 하부 조직은 전체 조직의 목표와는 별개로 스스로의 '생존'과 '안전'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만약 사건이 복잡해서 상위조직의 인식 및 결정보다는 현장의 하위 단위의 즉각적인 인식과 대응이 강조되면

³²⁾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ies. pp. 72-78.

³³⁾ The Limits of Safety: Organizations, Accidents, and Nuclear Weapons, pp. 34-35.

³⁴⁾ The Limits of Safety: Organizations, Accidents, and Nuclear Weapons, pp. 18-25; pp. 37-38.

하위조직은 상위조직의 목표와는 별개로 스스로의 생존과 안전을 우선 시하는데, 이를 탈중심화(decentralization)라 한다. 반면, 사안의 긴 밀성이 높은 경우에는 중심성이 갓조되는데 이는 하위조직이 스스로 의 생존과 안전을 추구하느라 중앙 조직이 하달한 목표에서 이반(離反)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조직이 당면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복잡성과 긴밀성이라는 상 충된 속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35) 사건이 복잡하면서도 긴밀한 경우 상부 조직은 하위 단위에 대한 집중화를 요구하는데, 하부 조직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탈집중화를 추구하는 양립 불가능한 조직 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 한 딜레마는 국가의 핵심이익은 수호하면서. 확전은 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상부 국가조직의 위기관리 전략이 하부의 군사조직 차워에서 실시되는 과정에서 빈발한다. 36)

다음 절에서는 위기관리 이론에서 유형화된 정치-군사 전략이 사안 의 복잡성과 기밀성에 따라 교전수칙(rules of engagement)이라는 수 단을 활용하여 '중심화' 정도를 설정함을 보이고. 군사조직이 위기관리 전략 실시과정에서 중심화의 딜레마에 봉착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나 위기관리전략에서 군사조직의 딜레마

국가 간의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는 확전 방지와 자국의 이 익 수호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관리 전략을 통

³⁵⁾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ies, pp.329-334.

³⁶⁾ 국가조직의 위기관리 전략과 관련의 내용 및 함의는 다음을 참고. George and Smoke, "Deterrence and Foreign Policy"; George,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pp. 3-30; pp. 371-394; pp. 545-566; Levy, "Deterrence and coercive diplomacy: The contributions of Alexander George"; George and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해 상대 국가와 정치적/군사적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를 위해 국가 최상위 조직은 정치외교 수단뿐만 아니라 군사적 수단도 신호 전달 활용된다.

이러한 위기관리전략은 현상변경국(challenger)과 현상유지국(defender)에 따라서 다르게 구사된다.

현상변경국가의 위기관리 전략은 크게 협박(blackmail), 제한적/가역적 순찰(limited/reversible probe), 통제된 압박 전략(controlled pressure), 기정사실화 전략(fait accompli), 소모전략(attrition)이 있다. 37)

이 중에서 군사력의 전투적 사용을 수반하는 전략은 크게 소모, 통제된 압박, 기정사실화 전략이 있다. 38) 소모전략은 현상변경국가가 확보하고자 하는 이익에 대해 현상유지국가가 가진 전술적 우위가 지나치게 큰 경우 게릴라전이나 테러 등의 소모적인 방법을 통해 현상유지국가의 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통제된 압박 전략은 현상변경국가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지점에 대해서 현상유지국 역시 방어 의지를 가지고 있고, 피아의 전술적 우위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활용되며, 현상유지국이 확전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통제된 압력을 통해서 점차 현상변경국에게 유리한 전술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행하면 현상변경국의 전술적 우위가 공고해지면서 현상유지국이 해당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의지와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³⁷⁾ George, "Strategies for Crisis Management", pp. 378-83.

³⁸⁾ 본 연구의 목표는 국가 간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치-군사전략의 수단으로서 군 사조직의 딜레마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설명-범위를 군사력의 적대적 활용을 수반 하는 위기관리전략으로 한정하였다. 제한적/가역적 순찰은 군사력을 활용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비군사적 행위를 위해 군사력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논의 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범위 설정은 교전수칙의 원칙에 대한 스콧 세이건의 분 류 기준을 참조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조. Sagan, "Rules of Engagement", pp. 443-70.

이런 일련의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이익에 대한 현상유지국의 방어 능력과 의지가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상변경국은 기정사실화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속전속결을 통해 해당 목표에 대한 탈취를 시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전략 종류	현상유지국의 의자에 대한 현상변경국의 인식	전략구사국의 전술적 우위	군사력 사용 형태
소모	높음	열세	선별적 작전과 장기적 피해야기 를 통해 현상유지국 의지 감소
통제된 압박	보통	대등	현상유지국의 전술적 이점 잠식
기정사실화	낮음	우세	속전속결을 통한 목표 탈취

(표 2) 무력충돌 상황에서 현상변경국가의 위기관리전략

이에 대해 현상유지국은 강압 전략(coercive diplomacy), 부분적 확전(limited escalation). 비례성원칙의 전략(tit-for-tat strategy), 능력의 시험(the test of capabilities), 선긋기(drawing a line). 도전자의 오판을 막기 위해 명확한 의지와 결심 전달하기 (conveying commitment and resolve). 시간 끌기(buying time) 전 략을 구사할 수 있다. 39) 이 중에서 군사력의 전투적 활용을 수반하는 위기관리 전략은 능력의 시험, 비례성원칙, 부분적 확전 전략이다.

능력의 시험 전략은 특정한 이익에 대한 현상변경국의 도전을 현장의 가용자산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확전가능성은 현저 하게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전술적 열세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능력의 시험 전략은 해당 이익에 대한 현상유지국의 의지가 크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된다.

비례성원칙의 전략은 현상변경국가가 구사하는 군사적 수단과 동일한 수준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즉. 현상변경국가의 군사적 도발 수준에 따라 확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이익에 대한 현상유지

³⁹⁾ George, pp. 383-93

국의 의지 및 전술적 우위가 중간 정도일 때 주로 활용되는 전략이다. 끝으로, 부분적 확전 전략은 현상변경국가의 도발에 대해 제한적 확전을 통한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해당 이익에서의 전술적열세를 상쇄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확전을 감수할 만큼 해당 이익에 대한 의지가 큰 경우 활용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전략 종류	현상유지국의 의지	전략구사국의 전술적 우위	군사력 사용 형태
부분적 확전	높음	열세	도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력 사용
비례 전략	중간	대등	도발 수준과 동등한 군사력 사용
능력의 시험	낮음	우세	도발 수준 이하의 군사력 사용

〈표 3〉 무력충돌 상황에서 현상유지국가의 위기관리전략

위와 같이 전략구시국의 '전술적 우위'와 현상유지국의 '의지'를 통해 군사력 사용을 수반한 위기관리 전략을 분류함으로써, 특정한 안보 위기를 '시안의 긴밀성' 및 '복잡성'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⁴⁰⁾ 전술적 우위 여부는 사안의 복잡성과 관련되어 있다. 현지의 군사 작전은 기본적으로 일선의 전술 제대가 처한 환경, 무기체계의 우열 관계, 구체적인 기동및 방어계획 등의 전문적인 영역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일선 제대가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게 되면 현지의 군사 조직은 더 유동적이고 마찰 요소에 노출된 불리한 상황에서 작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중앙조직이 탈집중화를 허용하여 현지 작전 지휘관이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⁴⁰⁾ 본 연구가 현상변경국의 의지가 아닌 현상유지국의 의지 및 이에 대한 현상변경국 의 인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갈등 상황에서 현상변경국의 의지는 항상 현상유지국 보다 높다는 점에서 상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상유지국보다 현상변경국의 의지 가 높다면 해당 지점에 대한 현상변경시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존성과 일선의 작전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지키거나 탈취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현상유 지국의 의지가 높다면 위기관리전략을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현지 군사조직은 탈집중화에 제약을 받는다. '특정 이익에 대한 현상유지 국의 의지'가 높은 경우 해당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현상유지국가 의 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해당 이익에 대한 현상유지국의 의지는 '사안의 긴밀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핵무기의 보유 및 확산으로 인해 상호억제를 위한 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과 즉각적 보복(prompt retaliation) 등의 전략 등이 구사됨에 따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우발적 충돌이 전체 조직 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현상 유지국의 의지가 '사건의 긴밀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상술한 바 있듯이 이런 경우 중앙 조직은 미시적 단위인 일선 군사 조직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집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위기를 방지하 고자 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하부의 군사조직은 상부조직이 하달한 위 기관리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위기 관리론은 정치-군사지도부에서 하달된 위기관리전략을 수행하는 하부의 군사조직이 구사하는 군사작전이 순수한 군사전략에서의 작 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관리 전략 수행 상황에서 군 사조직의 작전 형태를 ①작전적 약점의 제거. ②전투행위를 위한 준비 태세 강화. ③목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 ④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지의 제한을 보여주기 위한 신호전달. ⑤확전 위협 을 배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의 침해를 막기 위한 비군사 작전. ⑥ 상대방의 확전 및 군사작전 개시를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활용. ⑦상대 방의 강압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군사력 활용. ⑧상대방에게 강 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작전으로 분류했다. 41) 이런 상황에서 특정 이익에 대한 방어를 실제로 담당하는 최하부의 군사조직은 상부조직이 채택한 위기관리 전략을 군사력을 통해 수행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생존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①작전적 약점의 제거, ②전투행위를 위한 준비태세 강화는 상대방에게 정치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군사력 활용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용이성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위기관리 전략 수행을 위한 작전이 아닌 군사조직의 순수한 조직적 목표(생존, 안전)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전에 가깝다.

이때, 위기관리 전략을 채택하는 최상위의 정치-군사 전략 결정조직이 최하위의 군사조직을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상위의 정치-군사전략을 결정한 조직이 원하는 대로 최하위의 군사조직이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최상위조직이 원하는 정도의 집중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42 세이건 (Scott Sagan)은 군사조직에 대한 집중화(centralization)는 교전 수칙(Rules of Engagement)의 형태로 통제된다고 설명한다. 43 위기관리전략을 수행하는 군사조직은 중앙정부 및 중앙군조직이 개입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행이 가능한 '거부에 의한 지휘'(command by negation)와 중앙정부 및 상급 부대의하가 있어야만 수행 가능한 '허가에 의한 지휘'(positive command)로 통제된다. 최상위 조직인 국가와 차상위 조직(sub system)인 중앙군사조직(국방부, 총참모부 등)은 사안의 복잡성과 파급력에 따라서 작전의 지휘 형태를 구성함으로써 군사조직의 집중화 정도를 조정한다.

⁴¹⁾ George, "The Tension Between 'Military Logic' and Requirements of Diplomacy in Crisis Management", pp. 13-16.

⁴²⁾ 정치-군사전략 결정조직과 하부의 전술제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심화'의 문 제는 다음을 참조. George, "The Tension Between 'Military Logic' and Requirements of Diplomacy in Crisis Management", pp. 17-19.

⁴³⁾ Sagan, "Rules of Engagement", pp. 443-70; George, "The Tension Between 'Military Logic' and Requirements of Diplomacy in Crisis Management". 17-19.

만약 전략구사국가가 전술적으로는 열세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해당 이익에 대한 현상유지국의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확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현장의 지휘관에게 지휘권을 일임하고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만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거부 적 지휘'가 이루질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6.25전쟁(1950 년 6월 25일-38도선 수복 시기까지)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현상유지국 인 미국의 입장에서 1950년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은 핵을 보유한 국가 들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아니었고, 즉각적으로 소련에 대한 확전을 결정할 정도의 의지를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지의 전술 적 상황은 극도로 불리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복잡성이 높았다. 따라서 전쟁초기 미국 중앙정부는 일선 조직의 대응이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 성이 높은 경우에만 개입하고, 기타 현지 군사작전은 미 극동군사령부 와 예하 부대에 일임했다.

전략구사국가가 전술적으로 우세한 상황에 처해있으나. 해당 이 익에 대한 현상유지국의 의지가 매우 크다면, 확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사안의 긴밀성을 고려하여 중앙 정부는 모든 작전이 중 앙 정부의 허가 없이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허가에 의한 지휘'를 추구 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은 쿠바 에 소련의 핵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전술적으로는 쿠바 및 주변에 대한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모든 군사행동이 철저히 중앙 조직의 승인을 받도록 통제함으로써 확전을 방지하려고 했다.45)

⁴⁴⁾ 시기를 38선 수복 시기까지로 놓은 것은 38선 수복 이후 사안의 긴밀도가 달라졌 기 때문이다. 38선 수복 후 북진 시기에는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확 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중앙 정부는 맥아더에게 일임된 지휘권을 통 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고. Dingman, "Atomic Diplomacy During the Korean War", pp. 55-60; George, "American Policy-Making and the North Korean Agression", pp. 209-32.

⁴⁵⁾ 조직이론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앨리슨과 젤리코우의 연구가 분석한 군사조직

그러나 현지의 전술적 환경이 불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현상 유지국의 의지도 높아서 사안의 복잡성과 긴밀성이 모두 높은 경우, 국가와 군사조직의 관계는 집중화—탈집중화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국가 조직은 불리한 현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부 군사 조직의 탈집중화를 허용해야 하지만,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화를 추구해야 하는 모순 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1969년 중소국경 분쟁에서 중국이 직면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이런 딜레마가 심한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 조직은 현상유지국의 의지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데 집중하는 반면, 현장의 전술적 상황은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최상위 조직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지 조직이 추구하는 생존적 목표보다는 전체 조직의 생존과 안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 조직은 해당 사안의 긴밀성에 더 주목하게 되고 현지군사조직에 대해서 '허가에 의한 지휘'를 발휘하여 집중화를 높이려한다. 그러나 실제 적대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하부 군사조직은 중앙 조직이 채택한 위기관리 전략이 부여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함과동시에 현지의 불리한 상황 하에서 생존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한다.

문제는 중앙 조직의 정보처리 능력 및 통제 능력의 한계로 인해 미시적 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허가에 의한 지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의 군사 조직은 '허가에 의한 지휘'가 명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작전적 약점의 제거'와 '전투준비를 위한 태세 강화 조

⁽미 국방부, 각 군 참모부)은 일상사고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차상위 조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상정하고 있는 조직 이론의 수준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분석이다. 반대로 스콧 세이건은 일상사고이론의 견지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분석하기 위해 미시적인 단위인 현장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쿠바 미사일 위기가기존 연구들의 진단보다 더 위험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The Limits of Safety: Organizations, Accidents, and Nuclear Weapons, ch. 2-3; Allison and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ch. 3-4; 쿠바 미사일 위기시 미국의 교전수칙 적용과 관련하여는 다음을 참고 Sagan, "Rules of Engagement", pp. 453-56.

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조직의 조치들 역시 특정한 작전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부 군사 조직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은 중앙 조직이 예측하지 못한 형태의 사건을 촉발시켜 확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전형으로서 1969년 3월 2일의 전 바오섬의 선제사격 사건을 재해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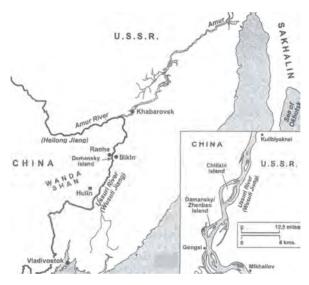
4. 중국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전략과 지방 군사조직 의 전략 수행과정 분석

이 장에서는 전바오섬을 포함한 중—소 국경지대에서의 소련의 압박에 대해 중국 중앙 정부가 채택한 위기관리전략 및 군사조직을 통제 방식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중앙 정부의 조치 하에서 해당 지역의 일선 군사조직이 맞이한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3월 2일의 선제사격이 발생했던 과정을 추적해본다.

전바오섬에서 중국군의 선제공격이 발생하기 이전인 1960년대 중반부터 중—소 국경지대에서는 소련의 전략변화에 따른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소련은 중국에 비해 전략적으로 우세했지만 소련 극동—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인구, 군사력 면에서 열세에 놓여있었다. 특히 항해로를 기준으로 획정된 우수리강 유역의 중—소국경지역은 젼바오섬을 포함한 하중도들이 소련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국이 획정된영토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접경지대에서 농경 및 어로 활동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던 중국인이 소련인보다 많았다 46) 그 중에서도 젼바오섬은 중국 영토에 더 근접해 있었기

⁴⁶⁾ 중소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Maxwell, "How the Sino-Russian

때문에 중국이 실질적인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1959년부터1966년까지 젼바오섬을 포함한 중소 접경지역에서 '제한적/가역적 순찰 전략'을 구사하여 이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었다.⁴⁷⁾



〈그림 1〉 젼바오섬 일대의 중-소국경지대48〉

이에 대해 소련국경경비대를 활용한 '비례전략'으로 대응하던 흐루쇼 프(Nikita Khrushchev) 서기장을 축출하고 집권한 브레즈네프 서기 장은 1966년부터 극동 및 몽골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중—소 국경지역에 대한 중국의 현상변경시도에 대해서 '부분적인 확전'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소련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했다. 49) 먼

Boundary Conflict Was Finally Settled", pp. 48-59.

⁴⁷⁾ 이러한 중국 중앙정부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국경경비대는 비무장 순찰을 실시하다가, 소련군의 통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섬에서 후퇴했다. Arthur A. Cohen, "The Sino-Soviet Border Crisis of 1969", pp. 271-72.

^{48) &}quot;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s of 1969 : New Evidence Three Decades Later," p. 200

저 소련은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고 강화된 순 찰 조치를 통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월경 행위를 가혹하게 탄압하고 중국군의 순찰행위를 무력으로 격퇴하기 시작했다. 1968년 1 월 5일 키르킨시섬의 장갑차가 순찰 과정에서 중국인을 치어 사망시키 는 사건으로 시작된 소련의 '부분적인 확전' 전략은 전바오섬 일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1968년 12월 27일 소련 국경수비대가 장갑차 를 동원하여 순찰하고 있던 중국군을 폭행하고 기관단총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어서 1969년 1월 4일에는 소련군 30여 명이 중국 군의 순찰을 저지하면서 중국군 4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1월 6일에 는 소련군이 젼바오섬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중국 민간인 2명을 생포하 여 폭행했고. 1월 23일에는 소련군 76명이 헬리콥터의 엄호 하에 4대 의 군용 차량에 탑승하여 군격까지 동원하여 젼바오섬에서 순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국 변방군을 기습 공격하여 28명을 부상시키고 총기 및 탄화을 강탈했다 50)

젼바오섬에서 일어난 소련의 '부분적인 확전' 전략을 통해 소련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중국 중앙정부는 소련과의 확전은 피하는 한편. 현지에서 유지하고 있는 실질적 우위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었다. 따라서 중국 중앙정부가 택할 수 있는 위기관리전략은 '통제된 압력' 전략이었다

1969년 1월 지방군구가 상신한 작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중앙정 부의 '통제된 압력' 전략을 군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

⁴⁹⁾ 흐루쇼프 시기 소련의 대응을 '비례전략'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소련은 불공평하게 획정된 기존의 국경에 대한 변경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 과 항해로가 아닌 하천의 중앙선을 국경으로 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 다. 또한 중국의 월경행위 및 순찰행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련국경경비대의 규모를 브레즈네프 시기보다 적게 유지했다. 흐루쇼프와 브레즈네프의 위기관리전 략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Cohen, "The Sino-Soviet Border Crisis of 1969", pp.270-276.

⁵⁰⁾ 李可 & 郝悅 . 『"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军』, pp. 317-18;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pp. 208-9; 徐焰, "1969 年中苏边界的武装冲突", p. 196.

고 있다. 1969년 1월 25일 헤이룽장성군구는 젼바오섬에 대한 소련 군의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을 보고하고, 이러한 간섭을 격퇴할 수 있 는 순찰 방안을 상신했다. 헤이룽장성군구가 상신한 작전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개 중대(连)규모의 병력이 진보도 지역의 투쟁에 참가한다. 일부 병력은 섬에 매복한 후 소련군이 무력을 통해 중국군의 임무수행을 간섭하는 경우 매복한 부대원이 상황을 지원한다. 진보도 부근의 변방 검안소에는 합강군사분구 참모장 왕즈량(王子良) 등 5인이 지휘소를 조성한다.51)

위 내용은 헤이룽장성군구가 추구한 군사작전이 소련군의 적대적 행위 하에서 순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임을 보여준다. 즉,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매복을 하는 방안을 상신한 것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군사조직의 목표(생존성 보장을 위한 작전준비태세의 증강 및 전술적 이점유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소련의 '제한적 확전' 전략에 대응하여 전술적 대치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상대의 전술적 이점과 의지를 잠식해 나간다는 '통제된 압력' 전략의 군사적 실시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헤이룽장성군구가 상신한 증강된 순찰방안은 션양군구를 통해 중국 중앙정부로 상신되면서 구체화되었다. 1969년 2월 션양군구는 또한 헤이룽장성군구의 작전안을 상신함과 동시에 헤이룽장성군구로 하여금 합강군사분구의 지휘 및 방어태세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고, 46군 133사단의 두 개의 순찰 소대와 23군 67사단의 두 개 중대를 차출하여 전바오섬의 주변 지역인 합강 분구 변방의 '후터우'(虎头)와 '라오허'(饶河)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52) 이러한 조치에 더해 헤이룽장성

⁵¹⁾ 합강군사분구는 헤이룽장성군구의 예하에서 젼바오섬을 포함한 우수리 강의 중 소 접경지역 일대를 담당하는 군구이다. 徐汝信, "1969: 对苏战备中的军委办事组,林 彪与毛泽东".

⁵²⁾ 원문에는 후(虎)와 라오(饶河)로만 기록되어 있다. 작전 지점을 특정한 것은 그림

군구는 합강군사분구의 임시 야전 지휘소를 최전방의 전초 기지에 설치하고. 합강군구 참모장인 왕즈량이 국경방어의 총책임을 지게 행다 53)

이처럼 작전안이 결정되던 중. 현지 군사조직은 기존 순찰 방안으로 는 '통제된 압력' 전략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1969년 2월 7일 중국측의 2개 순찰 소대가 전바오섬에서 순찰을 실시하던 중 소련군과 무장충돌을 일으켰는데. 중국측은 소련의 강력 한 대응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션양군구를 경유하여 상신된 작전방안은 2월 19일 중국 총참모부와 외교부의 동의를 득했다. 2월 19일 중국 총참모부와 외교부는 또 다른 중-소 접경지역인 수이펀허(绥芬河) 지역에 철조망 을 설치하는 조치를 잠시 연기하고 젼바오섬을 국경 투쟁의 목표로 삼 겠다고 하는 션양군구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 내용을 션양군구, 헤이룽 장혁명위원회 및 헤이룽장성군구에 하달했다. 중국 중앙 정부가 소련 의 '부분적 확전'에 대응하여 현상유지를 인정하는 철조망 설치를 실시 하지 않고 강화된 순찰을 유지한 것에 동의한 것은 중국 중앙 정부 역 시 해당 지역에서 '현상 변경적 위기관리 전략'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명령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중앙정부는 엄격하게 '통 제된 압력'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확전 가능성은 최소화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총참모부와 외교부는 순찰은 정해진 순찰선을 지키되 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한 번에 2-3개의 순찰조를 보내고 이 때 필수적 으로 1개 이상의 소대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자위반격이 발생하는 경우 엄격한 통제를 통해 주항도중심선의 중국 방면에서 일어나야 하 며. 기습적이고 빠른 행동으로 반격하며, 절대 투쟁하거나 확전하지 말

¹의 지도 등을 참조하여 당시의 작전 지역 주변 지명을 참고하여 판단한 것이다.

⁵³⁾ 总参谋部,中国人民解放军军事工作大事记(1949. 10-1987. 12),余汝信,1969:对 苏战备中的军委办事组,林彪与毛泽东에서 재인용

고 승리 이후에는 바로 유리한 지점으로 후퇴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전투가 벌어질 경우 중국 중앙은 한 개의 순찰 중대가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합강군구의 한 명의 주요 군간부가 책임지게 하였다. 54) 또한 총참모부는 션양군구를 통해 헤이룽장군구에 재차 비례의 원칙(镇奉行对)을 준수할 것과 소련군이 선제공격을 감행한 후에 공격할 것(后发制人)을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들에 의거하여 2월 23일 젼바오섬에서 충돌 발생시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션양군구가 보고하고 총참모부에 의해 채택된 안을 통해 상술했던 총기사용에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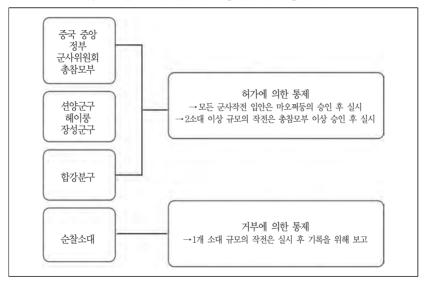
동시에 중국은 핵을 보유한 소련이 확전을 감행하는 경우 변방의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위기에 의해 급격하게 전체 조직이 위협에 빠질수 있음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자 했다. 즉, 중국 정부는 현지 군사조직의 작전을 철저히 중앙정부(중국 공산당,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외교부 및 중국문화혁명위원회)의 승인 하에 두는 '허가에 의한 지휘'를 추구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취한 '허가에 의한 지휘' 형태는 1969년 1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중국중앙군사위원회가 발표한 '군의 작전 권한에 대한 규정' 및 '1968년 4월 26일 제정된 군의 작전사용권한에 관한 규정의 수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1968-9년 당시 젼바오섬 일대의 지휘계통 및 지휘통제 형태를 구조화한 것이다. 1월 10일 중국중앙군사위원회가 베이징 근방을 위수하는 부대에 하달한 군사작전 권한에 대한 8개 규정에 따르면 1개소대 이하의 규모의 작전은 해 부대에서 결정한 후 기록을 위해 총참모부에 보고하고, 2개소개 규모의 작전은 총참모부의 비준을 득해야 하며, 2개소대 이상, 2개중대 이하 규모의 작전은 총참모부를 통해 군

⁵⁴⁾ 总参谋部,中国人民解放军军事工作大事记(1949, 10-1987, 12),余汝信,1969:对苏战备中的军委办事组,林彪与毛泽东에서 재인용;李可 & 郝悅,『"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军』,pp,319-20.

사위원회의 비준을 득해야 하며, 2개 중대 이상 규모의 작전은 마오쩌둥, 린뱌오 및 중국공산당인민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중앙문화혁명위원회에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 한편, 1월 11일 하달된 군의 작전사용권한에 대한 수정안은 육해공군의 각종 임무(비군사활동)는 대대급 규모인 경우 마오쩌둥과 린뱌오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모든 군사 작전의 경우 부대의 규모와 관계없이 마오쩌둥에게 실시방안을 비준 받은 후 실시하게 했다. 55) 또한 모든 군사 동원 활동은 당위원의 각 급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각급 주요 군정권자의 서명 및 전문이었어야 유효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림 2〉 교전수칙에 따른 중국의 지휘 통제 구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허가에 의한 지휘'가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단

⁵⁵⁾ 기타 건설 및 생산활동과 야전훈련과 산즈량권(三支两军, 문화대혁명을 위한 동원활동) 임무에 참가하는 부대의 작전은 중대 이상 대대 이하 규모인 경우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중대 이하의 규모인 경우 해당 군구와 각 군(육, 해, 공)의비준을 받는다.

위는 2개 소대 이상이라는 점이다. 즉, 한 개 소대 규모의 작전은 군사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오쩌둥에게 실시방안을 비준받은 후에는 해 부 대가 작전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중국 중앙정부는 '허가에 의한 통제'를 극대화하고자 했지만 그 영향력이 개별 소대 단위까지는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교전수칙 및 방침에 따라서 젼바오섬에서의 순찰작전 역시 '허가에 의한 통제' 하에 계획·실시되었다. 2월 헤이룽장성군구의 작전 방안을 상신하던 션양군구는 합강군사분구의 지휘관이 직접 전투를 조직/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해서 군사조직에 대한 집중화를 재차 강조했다. 56)

이에 션양군구는 샤오췐푸(肖全夫) 부사령관으로 하여금 1개 공작조를 보내 후터우, 라오허 지역의 작전준비를 검사하게 했으며, 추후 부사령관 샤오췐푸와 부정치위원 리샤오웬(李少元)이 전권을 통제하고, 헤이룽장성군구, 합강분구, 육군 제 23군에서 파견된 간부를 중심으로 후터우와 라오허 지역을 담당케 했다. 57) 또한 현장의 국경 순찰을 보호하기 위해 2개의 중대와 1개 순찰 중대, 3개의 순찰소대 및 무반동총소대와 1개 중기관총소대가 젼바오섬 부근으로 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일 지침을 어긴 선제사격은 왜 일어났을까? 이를 위해 현지의 군사단위가 순찰작전을 수행했던 경과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바오섬에서의 순찰 작전은 합강분구 사령관인 왕즈량의 지휘 하에서 이루어졌고, 현장 지휘는 마시엔쩌(马宪泽)가 주관했다. 58) 소련군

⁵⁶⁾ 이외에도 션양군구는 섬의 기후가 지나치게 추워 매복이 적합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⁵⁷⁾ 总参谋部,中国人民解放军军事工作大事记(1949. 10-1987. 12),余汝信,1969:对 苏战备中的军委办事组,林彪与毛泽东에서 재인용;李可 & 郝悅,『"文化大革命"中 的人民解放军』,pp.319-20.

⁵⁸⁾ 현장 지휘관 마시엔쩌의 지휘권한 및 내용에 대해서는 서상문의 논문을 제외하고 는 1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추가 확인이

과 접촉을 담당하는 순찰 소대는 변방초소장 순위구오(孙玉国)가 지휘 했다. 작전 중 소련군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순찰을 실시 하는 경우 순찰소대와 동등한 규모의 매복조를 두고, 매복조는 철저하 게 동계위장을 실시했으며, 순찰조를 지원하기 위해 진보서도의 기슭 에는 엄호조가 위치했으며, 해 지역에 중기관총과 무반동총을 배치 했다 59)

그러나 이와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에 비해 현지의 전술적 상황은 불리했다. 그 결과, 현지 군사조직은 사안의 복잡성에 직면하여 중앙의 엄격한 통제의 빈틈을 찾아 생존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강구했 다. 국경 지방에 대해 실효적 지배가 이어져온 점이나 해당 지역의 수 적 우위를 고려하여 위기관리 전략을 수립한 중국 중앙의 인식과는 달 리 소련 순찰대의 적대행위 속에서 순찰을 지속해야 했던 전방의 국경 순찰조는 중국 중앙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군사력 및 전술적 차원의 열 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 역의 사단 규모 면에서 중국은 59개 사단으로 34개 사단을 배치한 소 련군을 양적으로 압도했다 60) 그러나 당시 작전을 주도해야 했던 헤이 룽장성군관구 및 합강분구의 순찰대의 상황은 이러한 거시적인 상황과 는 달랐다 61)

당시 소련군은 1966년부터 69년까지 병력을 2배로 증가시키고 있었 으며. 그 중 70% 이상의 병력이 중-소 국경을 따라 지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Trans Siberian Railway)의 보호를 위해서 전진 배치되 어 있었기 때문에 국경지역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용이했다. 반면, 중 국군은 오직 9개 사단 규모만이 국경 지대에 배치되어 있었고 지원 부

요구된다.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 523.

⁵⁹⁾ Ryabushkin, "Мифы Даманского", р. 151.

⁶⁰⁾ National Intelligence Board, "The USSR and China, 1969", p. 5.

⁶¹⁾ 중국의 전술적 불리함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p. 520-21;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pp. 204-6.

대는 현장에서 50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전투력 차이는 더욱 컸다. 무기체계의 수준에서도 장갑차(APC), 헬리콥터 및 증강된 화력으로 무장한 기계화 사단을 배치한 소련군에 비해 중국군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한 경보병 부대를 보유했으며, 화력 및 기동성에서 소련군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은 전술적 환경 속에서 현지 군사조직은 중앙정부가 구사하려 했던 통제된 압력 전략을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월 19일 중국 중앙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된 2월 22일의 순찰이나 2월 25일의 순찰에서 발생한 소련군과 무력충돌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방증한다. 62) 2월의 작전에서 소련군과 접촉한 후 소련군에게 구타당하고 총을 강탈당한 후, 중국측 강안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순찰 소대는 중국군이 다시 한 번순찰을 실시하면 총을 쏘아 공격할 것이라는 소련군의 경고를 받았다. 63)

이렇게 다음 순찰에서는 소련군의 강력한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 군사작전을 실시한 합강 군사 분구의 순찰조는 '허가에 의한 통제'의 빈틈을 이용해서 나름의 목표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상술한 바 있듯이 소련군이 선제 사격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국군은 경고사격을 실시해야 했으며, 중국군의 사상이 발생한 이후에야 반격을 위한 조준 사격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3월 2일 순위구오의 순찰소대는 선제 조준 사격을 감행하게 된다. 이렇게 순찰 소대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작전 준비 태세 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소대 규모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허가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 있듯이

⁶²⁾ Maxwell, "The Chinese Account of the 1969 Fighting at Chenpao"; 徐炤, "1969 年中苏边界的武装冲突", pp. 5-6.

⁶³⁾ Maxwell, "The Chinese Account of the 1969 Fighting at Chenpao";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p. 500-501.

군사작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고 나면 실시과정에서 소대 규모의 작전은 해 부대에서 결정 후 총참모부에 보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순찰 작전의 방안 및 부대 배치까지는 중앙정부가 엄격한 '허 가에 의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었지만. 최전선의 순찰 소대의 구체적 작전 실시 과정에서는 '거부적 통제'가 유지되었던 것이다.64)

결과적으로 순위구오의 순찰소대원 30명은 사전에 매복한 정찰조 및 중국 강안에 집결한 지원조의 엄호 하에 300명 규모의 순찰을 선도했 으며, 접근하며 마오이즘 구호를 외쳤다.65)

이에 대해 소련군은 오전 소련 국경경비대장 이반 스트렐리니코프의 지휘 하에 영내의 32명의 병력이 장갑차와 군용차량에 분승하여 젼바 오섬에 진입하여 중국군의 월경 행위를 저지하려 했다. 이 때 소련군은 실탄을 장전한 무장상태였으며. 순위구오의 부대와 접촉한 소련 국경 경비대원의 뒤에는 70여 명의 무장병력이 전투대형을 이루고 있었 다 66)

소련군과 접촉한 순위구오는 확성기를 통해 소련군에게 항의하면서 섬의 서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 때 소련군은 중국군을 추격하며 몸싸움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소련군의 소총이 발사되었다 67) 그러

^{64)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션양군구 사령관 첸스리엔의 증언을 통해 현지의 지 휘 통제를 위한 통신시설이 부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당시 견바오섬의 상 황은 일선부대까지 '허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작전환경이었을 가 능성이 높다. .Yang, "The Sino-Soviet Border Clash of 1969". p. 29.

⁶⁵⁾ Ostermann, "New Evidence on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1969-71: East German Documents on the Border Conflict, 1969", pp. 189-91; Robinson.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s of 1969: New Evidence Three Decades Later," p 199.

^{66)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526-28.

⁶⁷⁾ 소련군의 선제사격이 실재(實在)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불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인지 의도적인 조준사격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 사실관계가 파악 되지 않았다. 본고는 소련군의 행위가 가장 중국국경경비대에게 위험한 경우로 해 석하여 소련군의 선제사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Gerson,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 Deterrence, Escalation,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in 1969, pp. 23-24; Maxwell. "The Chinese Account of the

자 중국군 측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전 경고사격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순위구오의 즉시 순찰소대는 조준사격을 통해 소련군을 사살했고, 이에 맞추어 매복조와 엄호부대도 가세하여 소련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중국국경경비대의 선제사격은 중국정부의 전략적 의도가 잘 못 수행된 결과였다. 전선 상황에 대해 일일이 '허가에 의한 지휘'를 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일선 작전 부대는 스스로의 조직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작전준비태세를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국경순찰대는 중국 중앙 정부가 추구했던 '통제된 압력' 전략을 위한 군사적 태세보다 과도한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선제사격은 중국 중앙 정부가 의도한 정치적 의도와는 다른 신호를 소련측에 전달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조준 사격이 현장에 있었던 소련군을 대부분 사살함으로써 젼바오섬에 대한 군사적 탈취를 시도하는 형태가 되었다. ⁽⁶⁸⁾ 그 결과, 소련은 이를 중국 중앙정부의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중소국경분쟁은 본격적으로 확전된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중소국경분쟁의 발생상황을 조직이론을 통해 재해석

¹⁹⁶⁹ Fighting at Chenpao", p. 487; Yu M, 『20세기 러시아와 중국 : 국경』, 344-45; 『중국의 국경전쟁 : 1949-1979』, pp. 528-30.

^{68) 3}월 2일 소련군이 제대로 된 대응사격을 하지 못하고 전원 사망하게 된 것은 소련군이 중국군에 비해서 엄격한 '허가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강분구에 의해서 통제받았던 중국 순찰대와 달리 소련국경경비대는 소련중앙의 KGB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었다. 소련국경경비대 조직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 Knight, "International Security", pp. 790-96.

함으로써 1969년 3월 2일의 선제 조준 사격은 결코 중국 중앙정부 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다. 조직이론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이는 지방에서 발생한 소련의 제한적 확전 시도에 대해 순찰을 지속함으로써 통제된 압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중국 중앙정부의 전 략이 생존을 추구하던 지방 군사조직에 의해 잘못 수행되어 발생한 위기였다

이러한 주장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추가 자료가 필 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 중국 중앙정부가 선제공 격을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을 반박할 수는 있으나, 지방의 일 선 군사조직이 어떻게 스스로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제 조 준 사격을 실시하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무엇 보다도 중국측에서 제시된 사료의 사후적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 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 자료에만 근거하여 조직 이론적 해석을 시 도한 것은 자칫 섣부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일행위자 논리에 근거하여 국가 간의 안보 위기를 분석하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이론적 시도와 결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알렉산더 조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위기관리론은 합리적이고 단일한 행위자를 전제하여 핵보유 국가 간의 위기를 단순한 논리로 설명한 합리적 억제이론을 구조적인 비교연구를 통한 중범위 이론으로 보완했 다.69) 그러나 국가조직의 전략실시 과정에서 군사조직과 국가조직의 관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쿠바 미사일 사례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사례를 구조적으로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출발점

⁶⁹⁾ 알렉산더 조지의 위기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평가는 다음을 참조. Stein, "Crisis management: Looking back to look forward." pp. 553-569; Levy. "Deterrence and coercive diplomacy: The contributions of Alexander George," pp. 537-52.

184 | 軍史 第107號(2018. 6.)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8. 3. 14, 심사수정일: 2018. 5. 10, 게재확정일: 2018. 5. 14)

주제어 : 중소국경분쟁, 억제이론, 위기관리론, 알렉산더 조지, 조직이론,

일상사고이론



〈참고 문 헌〉

1차 사료 및 재인용 자료

- 李可 & 郝牛章 『"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军。北京:中共党史资料出版社。1989. 总参谋部. 『中国人民解放军军事工作大事记(1949. 10 - 1987. 12)』, 1988. 12.
- Allen Whiting, "Letter from Allen S. Whiting to Henry Kissinger. Sino-Soviet Hostilitie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1969. 08. 16. National Archives.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irectorate of Intelligence, "Intelligence Memorandum. Sino-Soviet Border Talks: Problems and Prospects", 10th, November, 1969, CIA FOIA release to National Security Archive.
- National Intelligence Board, "The USSR and China, 196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69. Washington, D.C.

단행본 및 논문

- 李丹慧 "1969 年中苏边界冲突: 缘起和结果" 当代中国史研究 3 (1996): 39-50. 徐汝信。"1969:对苏战备中的军委办事组、林彪与毛泽东"。华夏文描译刊。524 期 (2006, 09, 04).
- 徐焰 "1969 年中苏边界的武装冲突" 中共党史研究资料,5期(1994): 2-13.
- 牛军 "1969年中苏边界冲突与中国外交的调整" 当代中国史研究 1期 (1999): 66-77.
- 沉志华 & 于沛 (eds.). 『苏联共产党九十三年: 1898 至 1991 年苏共历史大事 实录』。当代中国出版社,1993。
- Allison, Graham Tand Zelikow Phillip,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 Longman, 1999.
- Dmitri S. Ryabushkin, "New Documents on the Sino-Soviet Ussuri Border Clashes of 1969". Eurasia Border Review Special Issue : China's Post-Revolutionary Borders, 1940s-1960s, 2012, 161-159

- ——. "Мифы Даманского". ACT, 2004.
- Arthur A. Cohen. "The Sino-Soviet Border Crisis of 1969". In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Ed.: Alexander L. George, 269–298, Westview Press, 1991.
- Burr, W. "Sino-American Relations, 1969: The Sino-Soviet Border War and Steps Towards Rapprochement". Cold War History 3(1) (2001. April): 73-112, https://doi.org/10.1080/713999930
- Christian F. Ostermann. "New Evidence on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1969-71: East German Documents on the Border Conflict, 196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186-205.
- Dingman, Roger. "Atomic Diplomacy During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ecurity 13(3) (Winter, 1988/1989): 50-91, https://doi.org/10.2307/2538736.
- Fravel, M. Taylor.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Garver, John. "Chinese foreign policy in 1970: the tilt towards the Soviet Union". The China Quarterly 82 (1980): 214-49.
- George, Alexander L. "American Policy—Making and the North Korean Agression". World Politics 7(2) (1955): 209–32. https://doi.org/10.2307/2009145.
- ——. Ed.,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NY: Westview Press, 1991.
- ----. "Strategies for Crisis Management". In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Ed.: Alexander L. George, 371–94. NY: Westview Press, 1991.
- ——. "the Cuban Missile Crisis". In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Ed.: Alexander L. George, 222–68. NY: Westview Press, 1991.
- -----. "The Tension Between 'Military Logic' and Requirements of

- Diplomacy in Crisis Management". In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13-21 NY: Westview Press, 1991.
- George, Alexander L., and Richard Smoke, "Deterrence and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41(2) (Jan 1989): 170-82. https://doi.org/10.2307/2010406.
-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 Gerson, Michael S.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 Deterrence. Escalation,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in 1969 CNA Analysis&Solutions, 2010.
- Goldstein, Lyle J. "Do Nascent WMD Arsenals Deter? The Sino-Soviet Crisis of 1969".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8(1) (2003): 53-80.
- "Return to Zhenbao Island: Who Started Shooting and Why It Matters". The China Quarterly, 168 (2001): 985-97.
- Harding, Harry. "The Chinese State in Crisi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Revolutions within the Chinese Revolution, 1966-1982, Part 2, Eds.: John K. Fairbank and Roderick MacFarguhar, 209-10, vol. 15, 1991.
- Chen, Jian and Wilson, David L. "All Under Heaven Is Great Chaos: Beijing, the Sino-Soviet Border Clashes, and the Turn Toward Sino-American Rapproachement, 1968-69". Cold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1 (1998): 155-75.
- Knight, A. W. "International Security". In A Country Studies: Soviet Union. Washington, D. C.: Library of Congress, 1989.
- Levy, Jack S. "Deterrence and coercive diplomacy: The contributions of Alexander George". Political Psychology 29(4) (2008): 537-52.
- Lewis, John Wilson and Xue, Litai, Imagined Enemies: China Prepares for Uncertain Wa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Li, Mingjiang, Mao's China and the Sino-Soviet Split: Ideological Dilemma, NY: Routledge, 2012.
- Maxwell, Neville. "How the Sino-Russian Boundary Conflict Was Finally Settled: From Nerchinsk 1689 to Vladivostok 2005 via Zhenbao Island 1969". Critical Asian Studies 39(2) (2007): 229–53.
- ——. "The Chinese Account of the 1969 Fighting at Chenpao". The China Quarterly, 56 (1973): 730–39, https://doi.org/10.1017/S0305741000019573.
- Perrow, Charles.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ies.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Radchenko, Sergey. "The Sino-Soviet Split".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Eds.: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vol. 2: pp. 349-72.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Robinson, Thomas W. "China Confronts the Soviet Union: Warfare and DIplomacy on China's Inner Asia Frontier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Revolutions within the Chinese Revolution, 1966–1982, Part 2, Eds.: John K. Fairbank and Roderick MacFarquhar, 218–301. vol. 15.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Three Decades Later". In Chinese Warfighting: The PLA Experience Since 1949, Eds.: Mark A. Ryan, David M. Finkelstein and Michael A. McDevitt, 198–216. NY: Routledge, 2003.

- Sagan, Scott D. "Rules of Engagement". In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443-70. NY: Westview Press, 1991.
- —. The Limits of Safety: Organizations, Accidents, and Nuclear Weapons,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Yang, Kuisong, "The Sino-Soviet Border Clash of 1969: From Zhenbao Island to Sino-American Rapprochement". Cold War History 1 (1) (Aug. 2000): 21-52. https://doi.org/10.1080/713999906.
- Whiting, Allen S. "China's Use of Force, 1950-96, and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26 (2) (Fall. 2001): 103-31.
- Yu M, .갈레노비치. 이재훈(역). 『20세기 러시아와 중국 : 국경』.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서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소, 2013.

Organizational Limits in Strategic Implementation: Revisiting the Cause of the Chinese Gunfire on Soviet Borderguards in Zhenbao Island

Park, Sang-yeon

On March 2, 1969, the gunfire perpetrated by the Chinese Border Guards killed thirty one Soviet Border Guards. This incident triggered a strategic crisis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Most analytic work on this topic explaining this incident by way of the 'unitary actor model' considered it as an intentional attack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this view ignores the complexity inherent in a tactical situation in this border area. Moreover, the primary sources quoted by the literature fails to corroborate that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or the military command of the PRC Army literally ordered or commanded the gunfire on March 2nd.

This paper tries to reassess the cause of 1969 Sino-Soviet Border Conflict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theory. It focuses on how the military organization on the field can implement the crisis management strategy plan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 mistaken manner.

According to the Normal Accident Theory, when the unit (the lower level of the entire organization) deals with a complex and highly sensitive incident, it faces the dilemma of 'decentralization' as it has to cope with 'the interactive complexity' and 'the tightness of coupling' at the same time. As the incident is interactively complex, the system (the upper level of the entire organization) permits the decentralization of the unit (the lower level of the entire organization) in order to ensure a flexible response to a complex situ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incident is tightly coupled to the entire organization, the system tries to centralize the unit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the unit's engaging in an unexpected action. If the incident is complex and tightly coupled, however, the system faces problem of determining the right level of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system and the unit.

Th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military organization in a security crisis is emblematic of such an organizational dilemma in 'Normal Accident Theory'. As escalation between nuclear states results in mutual destruction. each state tries to tightly control its military organization in order to use it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diplomatic signals to the opposing states. This means that the state needs to be sure that the military fulfill the mission given without deviation, for the fear of sending an unintended wrong diplomatic signal. While this may be so from the state's level perspective, the military units in the field still face the organizational duty of survival in a complex tactical situation. This, in turn, demands decentralization in military actions and maximization of military readiness at the field. So if the state's control of the military is not strong enough, the military, given the challenges it faces, will enhance combat readiness, which likely leads to unintended diplomatic signals to its opposing states.

The preemptive gunfire by PRC border guards on 2nd of March was the result of the organizational dilemma of the PRC government-military organization relations rather than a well-coordinated ac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PRC central government tried to implement the 'controlled pressure' strategy which tries to maintain the patrolling operations carried out for years, in facing the USSR's 'limited escalation' strategy which tries to increase the intensity and the frequency of the border patrol operations. However, contrary to the perception of the PRC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military district, the tactical situation in the border area was unfavorable to PRC border guards. Moreover, the PRC rules of engagement exercised tight control only over the size of double-squads, and gave platoon -level operations significant discretion by commanding by negation. This means that platoons were allowed to act first and report later.

As a result, the border patrol squad in the Zhenbao Island tried to enhance the combat readiness by exploiting the loophole of the PRC army's rules of engagement. The border patrol platoon instantly returned fire when they heard the gunfiring sound from the Soviet side, although the PRC government and the military district issued strict limits on gunfire.

192 | 軍史 第107號(2018. 6.)

This research raises questions about the widely—accepted cause of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 Moreover, it tries to design a theoretical framework for organizational problems in a state's implementing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Keywords: Sino-Soviet Border Conflict, Deterrence Theory, Crisis Management, Alexander George, Organization Theory, Normal Accident Theor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193-235 https://doi.org/10.29212/mh.2018..107.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중국 전략

박민수*

- 1. 머리말
- 2. 만주의 중원 침공 배경
- 3. 對 중국 전략의 수립과 실천
- 4. 만주의 군사적 성과와 한계
- 5 맺음말

1. 머리말

"겪어보지 못한 자에게 전쟁이란 달콤한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 네 덜란드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는 전쟁이란 직접 경험하기에는 비참한 일이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예찬하였다. 이때 전쟁사라는 분야는 '왜 전쟁을 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본고는 入關 이전 만주니가 중원의 明을 상대로 펼친 여러 전투의 성과와 한계에 주목하여, 그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는 전쟁에 나서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전쟁들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본 연구이다. 소위 '入關'은 順治 원년(1644) 攝政王 도르곤(Dorgon, 多爾袞)²⁾이 이끈 淸軍이 만리장성의 관문 중 하나인 山海關을 통과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³⁾ 하지만 산해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면 만주는 이미 홍타이지 (Hong Taiji, 皇太極)⁴⁾ 집권 시기(1627-1643)에 수차례 장성의 다른 관문을 넘어 중국을 침공하였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만주의 군사적 업적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입관 이전 홍타이지 시기의 중원 공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전문적인 연구는 드문 편이다. 5) 그나마 피정복자이면서 인구

^{1) &#}x27;만주'라는 용어는 원래 민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지역의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만주를 지명으로 사용한 것은 18세기 말 일본과 유럽에서부터였고, 특히 20세기 초 일본의 대륙 침략과 '만주국'수립 이후 현재까지도 만주는 중국의 동북 지역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의 지명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만주족이 만주 지역 출신이어서 만주족이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는점이다. 또한, 본고는 '만주족'이라는 용어 대신 '만주'를 사용하려 하는데, 근대적개념인 '민족'을 떠올리는 혼란을 피하고 그들이 자칭한 이름인 '만주(manju)'를 만주어 그대로 불러주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²⁾ 본고에 등장하는 만주어 고유명사인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은 만주어 원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주어 고유 명사가 처음 나올 때 괄호 안에 만 주어의 로마자 전사 및 한자를 함께 적고, 이후에는 만주어의 한글 표기만을 사용한다. 만주어는 묄렌도르프 표기방식에 따라 로마자로 옮긴 것이다. 다만 사료에 한자로만 전사되어 있고 만주어 원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한자 전사로만 나타내기로 한다.

³⁾ 袁良義, 「淸兵入關的歷史功績 -爲紀念淸兵入關350周年而作」, 『史學集刊』, 1994-4, p.22. 이하에서는 번잡을 피하고자 다시 인용하는 문헌은 '저자, 출판연도' 식으로 약칭한다.

⁴⁾ 홍타이지는 한문으로 皇太極으로 표기되어 종종 그가 皇太子였던 것으로 오인되었다. 그러나 홍타이지라는 이름은 몽골인 사이에서 흔한 이름으로 '훌륭한 아들'이란 뜻이다. 홍타이지는 그의 姓인 아이신 기오로(Aisin Gioro, 愛新覺羅)를 제외한이름일 뿐이고 결코 그의 공식적인 호칭은 아니었다.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p,396-397.

대다수를 차지한 한족의 관점을 가지고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정복자인 만주의 입장과 고민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규명되지 않았 다 6)

이에 따라 만주의 중국 정복과 군사 활동에 관해 적지 않은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만주가 줄곧 중국 정복을 자신의 대업으로 생각 했다거나. 그들이 중원에 통일 왕조를 세우려는 청사진을 일찍부터 마 련해 왔다는 식으로 그들의 의도를 확대해석한 것이다. 7) 당시 명과의 대결 구도가 만주 정권에게 정당성 확보와 세력 확장의 원동력으로 활 용된 측면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것이 명을 완전히 정복하고 대체하 기 위한 군사행동으로 발전하였는지는 별도의 고증이 필요하다. 결과 적으로 드러난 만주의 군사적 성공을 설명하는 것과 원래 그들의 의도 와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을 규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워의 문제 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공의 결과로만 여겨졌던 만주의 군사 활동을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입관 전 홍타이지 시기 만주 내부의 상황과 이후 後金-淸 조정이 직면한 문제와 그 해결 과정, 그리고 명ㆍ첫 교체라는 시대 적 추이를 큰 시야에 놓고 연속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타

⁵⁾ 李鴻彬. 『滿族崛起與淸帝國建立』.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3; 王思治·李鴻彬. 「論皇太極時期聲彻作戰策略的演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明淸檔案與歷史研 究: 中國第一歷史檔案館六十周年紀念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8.

⁶⁾ 關文發,「試論我國古代的民族關係和淸兵入關戰爭的性質 -無評"統一戰爭"說」,『武 漢大學學報』 1986-1; 李凱燦. 「多爾袞與淸初民族關係」. 『河南師範大學學報』. 2003-5; 李光濤,「多爾袞入關始末」,『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25. 1954;李鴻彬,「多爾袞與山海關大戰-兼論淸初社會矛盾的變化」,中國人民大學 清史研究所編,『清史研究集』第五輯,北京:光明日報出版社,1986;吳燁南,「山 海關十紳與山海關之變 ——組甲申山海關之變新史料的發現及意義。『燕山大學學報』 2001-1; 王思治·呂元驄.「甲申之變與淸軍入關」. 『淸史研究』. 1994-2; 馮年臻. 「清入關時期的民族政策及其局限性」、『社會科學戰線』、2002-3.

⁷⁾ 劉承軍、「清代開國政權意識形態探析一以清太祖、太宗正統觀爲中心的考察」、『商丘師 範學院學報』,2012-11;吳剛,「"搶西邊"和"欲得中原" - "己巳之役"中滿洲貴族新舊 "戰爭理念"的碰撞和沖突」、『淸史研究』、2011-4、

이지 시기 만주의 군사 활동과 특히 중원 공략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정복자로서 만주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그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위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주에게 중원 공략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그들의 對 중국 전략과 군사 활동은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계획되고 실천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드러난 만주의 고민과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입관을 전후로 한 만주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이해하고 입관 후 淸의 중국정복과 통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만주가 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였고 어떠한 계기로 중원을 침공하기 시작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만주 내부의 역사적 상황을 검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홍타이지 시기중원 공략의 양상을 크게 天聰 연간(1627-1636)과 崇德 연간(1636-1643)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인데, 먼저 제3장에서는 누르하치를 계승한 홍타이지가 對 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된 만주 대신들과한인들이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천총 연간에 시도된 중원 침공의 사례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황제에 오른 홍타이지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중원 공략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만주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실제 전투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만주가 시도한 중원 공략의 특징을 도출해 볼 것이다.

이상의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개 부락에서 출발한 만주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중원의 승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만주의 눈부신 군사적 성공과 향후 본격적인 중국 정복에 나서게 된 원동력을 규명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홍타이지 시기 만주의 내부 상황과 군사활동에 주목한 본고의 분석을 통해, 중국 최후의 왕조로 부상한 淸의성공 요인을 규명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만주의 중원 침공 배경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는 부락을 통합하고 天命 원년(1616) 아이신 구른(Aisin Gurun, 金國)8). 즉 후금을 건국하였다.9) "영명한 지도자"라는 뜻의 경기연 한(genggiven han)을 칭한 누르하치는 자신 의 연호이기도 한 천명사상을 빌어 자신이 요동 지역을 정복한 것은 하늘의 뜻에 부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누르하치는 12세기 중원 진출에 성공한 여진 숲의 역사를 거울삼아 후금의 영토 확 장과 앞으로 다가올 중원 왕조와의 대결을 기약하였다.11)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도 이러한 전략을 계승하여 『金史』를 만주어로 번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潦史』와 『元史』 또한 만주어 및 몽골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12) 홍타이지는 潦一金一元과 중원 왕조 宋의 역사적 대결 구도를 차용하여 명과의 라이벌 관계를 설명하 고, 만주 정권의 합법성과 영속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홍타이지는 자 신이 중원의 천자가 되는 것이 만주의 기원 혹은 정체성과 절대 충돌하 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13) 이처럼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의식적으로

⁸⁾ 본고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원래 공식적인 국호였던 '아이신 구룬'이라는 만주 어 명칭 대신, 독자에게 익숙한 '후금'이라는 한자식 국호를 쓰기로 한다.

⁹⁾ 누르하치의 등장과 초기 부락 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劉小萌. 『滿族從部落到國家的 發展』,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의 자세한 설명을 참조.

¹⁰⁾ Mark C. Elliott, "Whose Empire Shall It Be?: Manchu Figurations of Historical Proces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Lynn Struve ed., Time, Temporality, and Imperial Transi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p.39-41.

^{11) 『}舊滿州檔』(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二), 天命 7년 4월 17일, p.1127.

¹²⁾ Mark C. Elliott, 2005, pp.31-32. 엘리엇은 이 번역 프로젝트가 만주 자신의 역 사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x27;만주'의 어워과 의미, 그리고 이 말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 는지는 여전히 다양한 추측과 설명이 존재한다. 천총 9년(1635) 홍타이지가 만주 를 민족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전에도, 만주는 자신의 집단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통용되었다. 본고에서는 따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근거를 일일 이 소개하지 않고,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 자신의 공동체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만주의 제국 건설을 이전 요-금-원이 보여준 성공의 역사와 연결시킴 으로써 정당화하려 하였다.¹⁴⁾

그러나 역사상 요와 금은 중국의 일부만을 정복하는 데에 그쳤고, 누르하지 또한 이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을 정복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주저하기도 하였다. 천총 원년(1627) 4월 8일¹⁵⁾ 홍타이지는 아버지 누르하치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天命 7년(1622)에 廣寧을 얻은 후, 모든 왕과 대신들이 곧바로 산해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자, 아버지 한(han, 汗)이 이르시기를, "예전 大遼, 大金, 大元이 각자의 땅에 살지 않고 漢人의 內地로 들어가 거주하여 사는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모두 한인이 되어 버렸다. 산해관으로 나아가 사느니, 우리의 요동 땅에서 사는 편이 낫다."고 하셨다. 16)

위 기록을 통해 당시 만주가 가지고 있었던 중원 진출에 대한 신중함, 혹은 경계심을 엿볼 수 있다. 누르하치뿐만 아니라 홍타이지 자신도 상황에 따라 만주를 금과 동일시하는 것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그는 천총 5년(1631) 8월 13일 大陵河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명과의관계를 설명하면서, 만주는 이전의 금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다음과같이 선전하였다.

그 후 북경에 우리의 군대가 갔을 때 계속 화의하자고 문서를 보냈지만, 명의 황제와 대신들은 계속 옛날 송 황제의 사례를 들면서 나에게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大明의 황제는 송 황제의 혈통이 아니다. 나 또한 이전 금 황제의 혈통이

용어로서 '만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다. 姚大力·孫靜, 「"滿洲"如何演變爲 民族」, 『社會科學』, 2006-7; Pamela Kyle Crossley, *The Manchus*, Cambridge, Mass.: Blackwell, 1997 등의 설명을 참조.

¹⁴⁾ Mark C. Elliott, 2005, pp.60-63.

¹⁵⁾ 본고의 날짜 표기는 後金 및 淸의 연호와 음력 날짜를 사용한다.

^{16) 『}舊滿洲檔』(六), 天聰 원년 4월 8일, pp.2605-2606. 이하 『舊滿洲檔』과 『滿文老檔』의 번역문은 譯註本의 일본어 번역을 따르지 않고 만주어 원문을 참고하여 필자가 새로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아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天時와 人心이 모두 다른 것이다. 대국에 어찌 현명한 자가 없는가. 때와 사람을 살펴 돌이켜 생각하지 않는구나.¹⁷⁾

여기서 홍타이지가 금과 만주를 구별하는 논리는 화의를 거부하는 명을 비난하고 설득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가 중국을 대할 때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대내적으로 부락을 통합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금은 만주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선례이지만,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하고 공략하는 과정에서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금이 중원의 송을 공격하여 남쪽으로 몰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끝내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18) 홍타이지가 직면한 현실 또한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홍타이지 시기후금은 이전 누르하치 시기와 마찬가지로 식량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19) 홍타이지가 즉위한 해에 마침 대기근이 발생하였는데, 천총 원년(1627) 6월 23일 후금의 열악한 식량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糧食 1金斗가 銀 8량에 달했다. 백성들이 人肉도 먹었다. 이때 나라에 銀은 풍부했지만 교역할 바가 없어서 은값은 싸고 물건값은 비쌌다. 駿馬 한 마리가 은 300량, 좋은 소 한 마리가 100량, 비단 한 필이 150량, 면포 한 필이 9량에 달했다. 도적이 일어나 말과 소를 훔치고 사람을 죽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20)

당시 만주 사회는 수렵·목축·채집 경제로부터 농업 경제로 이행해가는 '半農半牧'의 과도기적 발전 단계에 있었다. ²¹⁾ 후금은 명, 조선과

^{17) 『}滿文老檔』(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61) (5), pp.544-545.

^{18)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內國史院滿文檔案譯式崇德二·三年分)』(河內良弘 譯註·編著, 京都: 松香堂書店, 2010), 崇德 3년 7월 丁卯(6), p.417.

¹⁹⁾ 劉小萌, 2007, p.312.

^{20) 『}滿文老檔』(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9) (4), 天聰 원년 6월 23 일, pp.87-88.

의 변경 무역으로 상당량의 은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잦은 무력 충돌로 교역이 제한되기도 하고, 은은 풍부하지만 식량과 같은 실물은 부족한 의존적인 경제 구조하에서 기근이 발생했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²²⁾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홍타이지가 내세운 기본적인 방침은 약탈전을 통한 물자와 식량의 획득이었다. 23) 비록 출정의 비용은 병사 스스로가 부담해야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이상의 전리품을 분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정은 그들에게 부를 얻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24) 즉 전쟁 준비와 참여는 전리품을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였고 국가는 전쟁을 통해 사람들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5) 한인 농경 사회에 대한 침공은 북방 민족으로서 재화 획득을 위한 가장 일반적이면서 중요한 수단이었고, 26) 만주 또한 반농반목의 경제적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농경사회 중국에 대한 약탈과 정복에 나서게 되었다

천총 3년(1629) 10월 2일 홍타이지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제1차 중 원 침공에 나섰다 ²⁷⁾ 이때 처음으로 중원 공략이 시도된 이유는 앞서

²¹⁾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서울: 신서원, 2000, p.43.

²²⁾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 만주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식량 부족 상황은 谷井陽 子,「八旗制度再考(二) -經濟的背景」,『天理大學學報』57-2, 2006의 설명이 자세하다.

²³⁾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위태로운 변경: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p.518; 谷井陽子, 2006, p.47.

²⁴⁾ 李民爽, 『紫巖集』(韓國文集叢刊 82,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2) 卷6, 「建州聞見 錄」, pp.5b-6a.

²⁵⁾ 蘇燦永,「入關前 清朝의 經濟的 狀況 -崇德 年間의 掠奪戰과 奴僕(aha) 계층을 中心으로」,『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 34, 2010, pp.184-185.

²⁶⁾ 金浩東, 「古代 遊牧國家의 構造」, 서울大學校東洋史研究室 편, 『講座 中國史 2』, 서울: 지식산업사, 1989, pp.262-263.

^{27) 『}淸太宗實錄』卷5, 天聰 3년 10월 癸丑(2). 이하 實錄의 날짜 표기는 원래의 간지 와 더불어 괄호 안에 음력 날짜를 함께 적어 시간의 선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의 고질적인 식량난 때문이었다. 특히 천총 3년 (1629) 關外에는 큰 가뭄이 들어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였고, 귀부해 온 漠南 몽골 諸部도 먹을 식량이 없어 '人相食'할 정도였다.²⁸⁾ 홍타이지는 심각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중원 침공이라는 모험을 결행한 것이다.

홍타이지는 아민(Amin, 阿敏)으로 하여금 瀋陽을 지키게 하고, 지르 갈랑(Jirgalang, 濟爾哈朗)은 錦州와 寧遠 인근을 공격하게 하여 명의 薊遼督師 袁崇煥의 시선을 遼西 지역에 묶어놓은 다음, 자신은 직접 주력군과 몽골의 각 部에서 징발한 군사를 이끌고 西進하여 내몽골 초원 방면으로 만리장성을 넘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쳤다. 홍타이지는 원숭환이 굳게 지키고 있던 영원성과 산해관을 피해 永平 방면의 龍井關과 遵化 방면의 大安口, 喜峰口를 통해 직접 명의 수도 北京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다. 29) 산해관에서 영원성으로 이어지는 遼西回廊 방어에 집중하고 있던 명군은 그만 허를 찔리고 말았고, 10월 27일 홍타이지는 처음으로 장성을 넘어 주화 인근의 洪山口에 진입하였다. 30)

영원성을 방어하던 원숭환은 홍타이지의 중원 기습 소식을 접하고 병력을 끌어모아 북경을 향해 황급히 달려갔다. 원숭환은 산해관에 도 착한 직후 參將 趙率敎에게 준화를 구원하도록 명했다. 11월 3일 홍타 이지는 준화 공격에 나섰고 山海總兵 王元雅가 이끄는 명군이 힘껏 저 항했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했으며, 준화를 향해 달려오던 趙率敎 또한 중간에 복병을 만나 전사하였다. 31) 중원의 성 가운데 최초로 함락된 준 화에서는 대학살이 자행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북경의 명 조정은 경악 하였다. 이어 良鄉縣, 固安縣, 香河縣이 함락되었고 順義, 灤州, 遷安

^{28) 『}明淸史料』 甲編, 第八本, 「兵部行督師袁崇煥題稿」(崇禎 2년 3월 2일), pp.707a-b.

^{29) 『}淸太宗實錄』卷5, 天聰 3년 10월 乙亥(24).

^{30) 『}淸太宗實錄』卷5, 天聰 3년 10월 戊寅(27).

^{31) 『}滿文老檔』(中國第一歷史檔案館 ·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譯註, 北京: 中華書局, 1990) 下册, 天聰 3년 11월 3일, p.946.

등의 州縣은 저항 없이 곧바로 투항하였다.

한편 병력을 이끌고 밤낮으로 달려온 원숭환은 11월 17일 북경 廣渠 門 앞에 도달하였고, 20일에 후금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십여 차례의 사투 끝에 홍타이지는 결국 뒤로 물러났다. 32) 비록 원숭환의 재빠른 대응으로 홍타이지는 성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북경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기에는 충분하였다. 더구나 명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자신의 숙적이었던 원숭환을 反間計로 제거하는 뜻밖의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명 조정은 후금군이 산해관을 피해 華北으로 우회하여 북경으로 접근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서회랑을 지키던 원숭환이 홍타이지와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그를 처형해 버린 것이다. 33)



〈그림 1〉 천총 3년(1629) 제1차 중원 침공의 전황

후금군은 이듬해 2월까지 4개월여 동안 북경 인근 지역을 휩쓸면서

³²⁾ 閻崇年,「論明代保衛北京的民族英雄袁崇煥」,『北京史論文集』第1輯, 北京: 北京史研究會, 1980, pp.130-132.

³³⁾ 李鴻彬, 2003, pp.137-138.

많은 인구와 물자를 전리품으로 끌어모았다. 마침내 천총 4년(1630) 3월 홍타이지는 심양으로 귀환하였고. 대신 심양을 지키던 아민과 쇼 토(Šoto, 碩託)를 불러들여 永平. 遵化. 灤州. 遷安 등 4개 성을 지키 게 하였다. 34) 그러나 곧 명의 총병 祖大壽가 반격하여 난주를 수복하 였다. 이때 軍中의 대신들은 나머지 3개 성을 굳게 지키며 성안의 백성 을 보호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아민은 이를 듣지 않고 천안과 영평에서 대대적인 도살을 자행하였다. 아민은 학살 이후에 전리품을 챙겨 성을 버렸고 명군은 곧바로 황폐해진 성을 수복하면서, 만주의 제1차 중원 침공은 비로소 일단락되었다 35)

하지만 이번 제1차 중원 침공은 만주의 숙적이었던 원숭환을 제거하 고 새로운 루트를 통한 기습 작전이 명의 북경에 커다란 공포와 충격을 안김으로써, 이후 명을 상대로 한 전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최초 의 중원 침공이자 북경 쇄도였던 이번 전투를 통해 홍타이지는 명 공략 에 한층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원숭환이 반간계로 제거된 후 兵部尚書에 오른 孫承宗은 후금군이 점령했던 영평, 준화, 난주, 천안을 수복하고, 군대를 다시 산해관 외 곽으로 집중시켜 大陵河城을 수축하는 등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요서 지역에 새로운 방위 태세가 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홍타이지는 천총 5년(1631) 8월 2일 몽골 버일러들이 이끄는 부대를 출격시키고. 버일 러 더걸러이(Degelei. 德格類). 요토(Yoto, 岳托). 아지거(Ajige, 阿齊 格)에게 2만의 군대를 이끌고 금주와 대릉하 사이에 주둔하게 하였 다. 36) 홍타이지는 8월 5일 밤에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였고 계획대로 6일 두 부대가 대통하에 집결하였다. 37) 이때 조대수가 지키고 있는 대

^{34) 『}滿文老檔』下冊, pp.1006-1009.

³⁵⁾ Frederic Wakeman Jr.,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165.

^{36) 『}淸太宗實錄』卷9, 天聰 5년 8월 癸卯(2).

^{37) 『}清太宗實錄』卷9. 天聰 5년 8월 丙午(5).

릉하성의 군사가 1만 4천 정도에 불과하다는 첩보를 접한 홍타이지는 곧바로 그날 밤 대릉하성을 포위하였다.³⁸⁾

홍타이지는 천총 원년(1627)에 실패로 끝난 영원·금주 전투를 교훈 삼아 성벽을 향해 돌격하는 전통적인 공격법을 자제하고, 대릉하성에 서 금주로 이어지는 길에 군사를 배치하여 지원군의 접근을 차단하면 서 성을 고립시킨 상태로 장기전을 펼쳐 고사시키는 작전을 구사하였 다. 조대수는 소규모 국지전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자 하였으나 모두 실 패하였고, 인근 송산성과 금주성에서도 몇 차례 지원군을 보냈지만 이 또한 모두 격퇴당하였다. 이후 9월 27일 산해관 방면에서 출동한 지원 군마저 크게 패하자,³⁹⁾ 식량 고갈로 끝내 버티지 못한 조대수는 천총 5년(1631) 10월 28일 스스로 성문을 열고 투항하였다.⁴⁰⁾

3. 對 중국 전략의 수립과 실천

제1차 중원 침공에 이어 대릉하성까지 손에 얻은 홍타이지는 잠시숨을 고른 뒤, 천총 7년(1633) 6월 18일 명, 조선, 차하르 중 어느 곳을 먼저 공격해야 할지 만주의 최고위 대신들인 버일러와 구사어전 (gūsa—i ejen, 固山額眞)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밝히게 하였다. 실록에는 이날 '대토론'에 참석한 버일러 9명과 구사어전 7명, 총 16명의 의견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41)

^{38) 『}清太宗實錄』卷9, 天聰 5년 8월 丁未(6).

^{39) 『}淸太宗實錄』卷9. 天聰 5년 9월 戊戌(27).

^{40) 『}淸太宗實錄』 卷10, 天聰 5년 10월 戊辰(28). 그러나 이번 대릉하성 전투는 만주 와 몽골 장병들의 수확이 전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적 효과는 매우 미약 했다고 한다. 谷井陽子, 2015, p.223.

⁴¹⁾ 이하 본문에서 소개하는 만주 대신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별도의 주가 없는 한 『淸太宗實錄』卷14, 天聰 7년 6월 戊寅(18)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명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대신이 신속한 침입과 효율적인 약탈 을 통해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대업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 을 모았다. 이때 산해관 공략 여부를 두고 대신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갈렸는데. ⓐ 산해관 공략을 반대하고 내몽골 초원을 거쳐 중원으로 진 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 산해관을 언젠가는 공략해야 하고 이를 위해 潦西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또한, 북경을 공략하는 방법에서도 (b) 북경을 즉각 공격하여 약탈을 극대화하자는 단기전 주장과 ⓑ 북경을 포위하고 인근 도시를 점령하여 전략적 거점 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장기전 주장이 서로 맞섰다.

북경 산해관	⑤ 북경 즉각 공격, 단기전, 약탈과 <mark>분배</mark> 강조	⑥ 북경 포위 압박, 장기전, 전략 거점 마련	계
② 산해관 공략 반대, 내몽골 초원 경유 침투	버일러 아지거	吏部 버일러 도르곤	11
	버일러 도도		
	구사어전 여천	버일러 호오거	
	구사어전 피양구	구사어전 양구리	
	구사어전 일던		
	兵部 버일러 요토	工部 버일러 아버타이	
	구사어전 칵두리		
② 산해관 공략 기약,遼西 지역 확보 필요	구사어전 렁거리	刑部 버일러 지르갈랑	
		禮部 버일러 사할리얀	4
		구사어전 호쇼투	
Й	8	7	

〈표 1〉 천총 7년(1633) 6월 만주 대신 '대토론'의 의견 정리

※ 버일러 두두: 차하르 우선 공략 주장

우선 〈표 1〉에서 위·아래로 구분되는 @와 @' 산해관 공략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산해관 공략을 반대하고 내몽골 초원을 거쳐 중원으로 침투해야 한다는 @ 의견(11명)이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병사의

사기를 올리고 전쟁 자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많은 전리품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 전략은 차하르가 근접해 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몽골 초원을 통해 명의 경계를 비교적 쉽게 드나들 수 있고, 명이 모든 장성 지역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산해관을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더욱이 이 시기 명군은 중원에서 발생한 流賊의 토벌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화북으로 우회하는 만주의 침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화북 지역에 일단 진입하기만 하면 만주의 장군과 병사들은 수월하게 약탈을 행할 수 있었다. 42)

구체적으로 버일러 도도(Dodo, 多鐸)는 "우리 병사는 전쟁에 겁을 내지 않지만, 각자의 욕망을 채우게 해주면 죽더라도 거리낌 없이 달려 드는 데 반해,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싸울 뜻을 금세 접어버립니다. 만약 산해관 외곽의 성만 공격하는 데 그친다면 마치 엎어놓은 그릇 속에다 목표물을 놓아두고 활을 쏘아 맞히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얻지 못할 것입니다. 산해관 밖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북경이나 通州의성을 공격하는 것과 비록 이름은 같지 않지만, 거기에 드는 노고는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여, 기왕 공격에 나섰다면 즉각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는 북경이나 통주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였다. 이는당시 만주가 명과의 전쟁을 그들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투자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여겼음을 잘 보여준다.

도도의 형인 버일러 아지거도 명을 치고자 할 때 성을 차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버일러, 장수, 사졸에게 명하여 백성의 재물과 식량을 충분히 약탈하여 전리품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사어전 양구리(Yangguri, 楊古利)도 마찬가지로 명 원정에 있어서 승리의 원동력은 병사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약탈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

⁴²⁾ 谷井陽子, 2015, pp.223-229.

해관 바깥의 영원이나 금주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명의 내지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고. 일단 중원에 자리를 잡게 되면 조선 이나 차하르는 저절로 복속해 올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43)

이들이 화북 방면으로 우회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전리품에 대한 기 대 때문이기도 했지만. 산해관 공략 자체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홍타이지의 장자인 버일러 호오거(Hooge, 豪格)는 만주의 공성 전략을 명군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산해관 외곽의 영원과 금주 는 공격해도 이득이 없고. 더욱이 예전부터 공격에 실패했는데 이를 계 속 고집하면 병사들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구사어전 일단 (Ilden. 伊爾登)도 산해관 바깥에서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북 으로 우회하여 들어가 성을 취할 만하면 취하고, 취하지 못할 것 같으 면 백성을 죽이고 집을 불태워 약탈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는 산해관을 공략해야 하고 이를 위 해 영원과 금주 등 요서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 의견(4명) 이 제기되었다. 물론 이들 또한 중원에 침입하여 북경 인근의 인구와 물자를 약탈하는 전리품의 확보와 분배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산해관을 뚫어내기 위한 포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또 한, 북경을 포위하여 지원군을 차단하고 인근 거점을 확보하는 것도 결 국 산해관을 안팎으로 협공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다.

이 경우 명에 대한 침공 전략은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다. 예컨대 禮部 버일러 사할리얀(Sahaliyan, 薩哈廉)은 명 공략 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우선 명의 내지를 습격하여 포로들을 데리 고 귀화한 다음. 一片石으로 들어가 산해관을 공략하여 영원과 금주의 방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구사어전 렁거리 (Lenggeri. 楞顏帶)도 우선은 명의 내지로 깊숙이 파고들어 북경 주변

⁴³⁾ 양구리의 상주는 만주어 원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東 洋文庫淸代史研究室 譯註,東洋文庫淸代史研究委員會,2003),天聰 7년 6월 27 일. pp.93-94.

을 마음껏 짓밟고 약탈하되, 그 다음에는 군대를 정비하여 다시 산해관으로 들어가서 험한 요새에 기대어 그간 쌓아 놓은 식량으로 나중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⁴⁴⁾ 이러한 의견들은 당장 명의 내지에 침투하여 약탈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획득한 전리품은 결국 산해관을 견제하고 공략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해관을 공략해 내는 것이 명과의 대결에 기반이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더 나아가 구사어전 호쇼투(Hošotu, 和碩圖)는 산해관 주변의 城堡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명과 접경하는 성들을 거점으로 하여 개간과 경작에 힘쓴 뒤에 비로소 명의 변경으로 들어가 식량을 취하고 말과 병사를 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병력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산해관 以東과 금주 以西로 진출하여 명의 경작과 방어체계를 교란하고, 나머지 반은 중원으로 진입하여 약탈을 행하자는 刑部 버일러 지르갈랑의 내외 협공 전략도 결국 산해관의 존재가 만주에게 중원 공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 의견들은 물론 신속하게 명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 의견과 다르지 않지만, 막상 전쟁을 시작한 후에는 상황에 대한 예측과 미래를 위한 대비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표 1〉에서 좌·우로 구분되는 북경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 가에 대해서도 ⑥와 ⑥'두 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북경을 비롯한 인근 주현을 약탈한 뒤 치고 빠지는 단기적 전략을 주장하는 ⑥ 측(8명)의 가장 큰 이유는, 병사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사기를 올리는 전리품의 획득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구사어전 여천(Yecen, 葉臣)의 주장에 따르면, 북경 주변의 풍부한 물자와 인구를 약탈하는 것이야말

⁴⁴⁾ 렁거리의 상주도 內國史院檔에 만주어 원문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한문 실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內國史院檔: 天聰七年』, 天聰 7년 6월 27일, p.95.

로 명 원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당장 북경을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병사의 소득과 사기를 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 다. 그러나 이때 군량을 어떻게 확보할지. 차하르의 공격은 어떻게 견 제해야 할지. 북경을 구하러 사방에서 몰려드는 지원군을 어떻게 격퇴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당시로써는 북경 주변을 오랜 시간 포위하는 장기적인 전략 자체가 현실적으로 요원해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 측의 논자들은 구사어전 피양구(Fiyanggū. 篇古)처럼 그저 "수도에 가까운 城堡를 불태워 없애고 백성을 죽이고 실컷 약탈한다면, 일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호탕한 장담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 ' 측(7명)은 북경의 완벽한 공략을 위해서는 인근의 여러 주 현을 점령하여 거점으로 마련하거나. 나중의 공격을 위한 식량을 비축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원에 침공한 이후 거점을 버리 고 급하게 귀환하면 고생한 보람도 없고, 나중의 공격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훗날 홍타이지 死後 함께 攝政에 나서게 되는 도 르곤(Dorgon, 多爾袞)과 지르갈랑, 그리고 도르곤의 가장 큰 경쟁자였 던 호오거 또한 북경의 신속한 공격을 강조하되. 근처에 通州와 같은 전략적인 거점을 마련하여 이후 계속되는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45) 또한, 북경 사방의 도로를 끊고 식량을 자체조달하며 거점 을 마련하여 굳게 지키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2~3년 안에는 기회를 보 아 큰 공을 세울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경 포위 작전을 제안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진지하게 북경 점령을 목표로 했다면, 중원 내의 거점

⁴⁵⁾ 통주는 大運河를 통해 1년에 약 400만 석의 漕糧을 유송하는 漕運船의 종착 지로서, 북경에 공급하는 물자와 식량이 운집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요충지 였다. 명의 수도 북경과 대운하의 역할에 대해서는 曺永憲. 「北京 首都論과 大運河 -明朝를 중심으로」、『中國史研究』 55, 2008, pp.127-139의 설명을 참조.

에서는 물론이고 심양 본진으로부터의 병력 교체와 물자의 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최단거리의 관문인산해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논의는 다시 @와 @'산해관공략 논쟁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산해관 공략과 북경 점령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던 셈이다. 몽골의 여러부족이 아직 완전히 복속해 오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산해관을 피해 내몽골 초원을 경유하는 원정 경로는 만주에게 너무나 멀고 험난하였다. 46) 이러한 상황에서 군량과 마초는 전적으로 현지 조달에 의존할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명군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겨우 몇 개의 성을점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현지 조달도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산해관을 돌파하여 북경을 향하는 최단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행군 거리를 최소화하고 차하르의 기습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명을 공략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따라 영원과 금주에서 산해관을 동쪽에서 공격하는 동시에, 화북으로 우회하여 확보한 북경 부근의 거점으로부터 산해관을 서쪽에서 협공하자는 작전이제안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만주에 투항한 명의 관원 및 서생들 또한 獨石口나 密雲 등 되도록 동쪽으로부터 만리장성을 깨고 들어가야한다거나, 47) 바다로부터 산해관을 공격하여 수륙 양면에서 협공하자는 등의 산해관 공략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48)

그러나 홍타이지는 이러한 제안을 모두 안이한 생각이라며 질책하였다. 홍타이지는 천총 7년(1633) 10월 10일 한인 啓心郎과 生員들을 다음과 같이 추궁하였다.

⁴⁶⁾ 谷井陽子, 2015, pp.31-32,

^{47)『}天聰朝臣工奏議』,「寧完我等謹陳兵機奏」(天聰 6년 4월 24일);『天聰朝臣工奏議』,「(張弘謨)請乘時進取奏」(天聰 6년).

^{48) 『}天聰朝臣工奏議』,「周一元直陳愚見奏」(天聰 7년 5월);『天聰朝臣工奏議』,「(寧完我)請急圖山海奏」;『天聰朝臣工奏議』,「(馬光遠)請水陸幷進奏」.

한인 계심랑과 생원들 너희가 나에게 글을 올릴 때 즉시 바다를 건너 山東을 취하자거나, 굳게 지키고 있는 산해관을 공격하자고 상주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다른 사람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바다를 건너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고, 굳게 지키고 있는 성을 공격하면 병사가 상하지 않겠는가 49)

즉. 산해관의 확보는 분명 만주가 염원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당시로 써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 혹은 아직은 너무나 무모하 고 위험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편, 16명의 만주 대신 가운데 조선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차하르를 먼저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두두(Dudu, 朴度)가 유일했다. 조선과는 이미 화의를 맺었기. 때문에 다시 공격할 필요가 없다거나. 만약 명을 얻게 되면 원하는 것 들이 조선으로부터 저절로 이르게 되리라 전망하였다. 또한, 차하르는 가까이 접근하면 상대하되 멀리 도망쳐 버리면 형세를 관망하며 정벌 을 미루어 두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신 명에 대한 공격은 하루라 도 늦추면 그들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내란도 점차 진압 되어 반격할 여지를 주게 될 것이니 하루빨리 공격을 개시해야 하고. 명을 도모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멸하거나 훨씬 쉽게 도모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실제로 이후 홍타이지는 천총 8년(1634)부터 숭덕 3년(1638)에 이르 기까지 5년 동안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명을 공격하였다. 천총 3년 (1629) 제1차 침공에 이어 천총 8년(1634)에 시도된 제2차 중원 침공 은 앞서 살펴본 천총 7년(1633) 6월 만주 대신의 '대토론' 이후 홍타이 지가 처음으로 명 공략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멀리 내몽 골 초원을 거쳐 宣府와 大同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였는데. 이번 공격이 혼란에 빠져 있는 차하르의 버일러들과 官民을 적극적으로 귀순시킬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50) 즉 명을 공략하는 동시에 차하르

^{49) 『}内國史院檔: 天聰七年』 天聰 7년 10월 10일, p.167.

까지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천총 8년(1634) 5월 22일 홍타이지는 대버일러 다이샨(Daišan, 代善), 버일러 아바타이 (Abatai, 阿巴泰), 더걸러이, 아지거, 도르곤, 도도, 요토, 사할리얀, 호오거 등 거의 모든 만주 대신과 군대를 이끌고 盛京⁵¹⁾을 출발하였다. 52) 서쪽으로 내몽골 초원 깊숙이 진군하여 7월 上方堡로 들어가 山西의 선부와 대동 지역을 약탈한 뒤, 후금군은 별다른 저지를 받지 않은 채 9월 성경으로 귀환하였다. 53)

그리고 제3차 중원 침공은 다음 해 천총 9년(1635) 5월부터 7월까지 차하르의 잔여 세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54) 도르곤, 요토, 사할리얀, 호오거 등이 이끈 차하르 원정군은 명의 산서 지역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太原府의 忻州, 定襄, 五臺 등의 주현을 포위하고 행군에 필요한 군량을 약탈하였다. 또한 대동 등지에서 구원하러 온 명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여 8만여 명에 가까운 포로를 획득하였다. 55)

한편 홍타이지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효과적인 중원 공략을 위해 명에서 투항해 온 한인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대릉하 전투 승리 이후 많은 수의 한인 서생과 관원이 투항해 오자. 홍타이지는

^{50) 『}淸太宗實錄』 卷18, 天聰 8년 5월 丙申(11).

⁵¹⁾ 홍타이지는 천총 8년(1634) 4월 1일에 國語, 즉 민주어 사용을 강조하는 諭旨를 내려 總兵, 副將, 參將 등의 한어 관직명을 모두 임반장긴(amban-i janggin, 昂邦章京), 머이런장긴(meiren-i janggin, 梅勒章京), 잘란장긴(jalan-i janggin, 甲刺章京) 등의 만주어 관직명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는 한편, 기존의 수도 심양도 만주어로 묵던(mukden), 한문으로는 盛京으로 부르게 하고, 이전 한어 이름인 심양을 계속 쓰는 경우 국법을 어긴 죄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였다(「清太宗實錄」卷18, 天聰 8년 4월 辛酉). 즉 천총 8년 4월 이후 후금의 수도, 그리고 훗날 청의수도를 칭할 때는 반드시 묵던이라는 만주어 혹은 盛京이라는 한자 표기를 사용해야 했다. 본고에서도 천총 8년(1634) 이후 이 도시를 언급할 때에는 심양 대신 성경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52) 『}淸太宗實錄』卷18, 天聰 8년 5월 丁未(22).

^{53) 『}淸太宗實錄』卷20, 天聰 8년 9월 壬申(19).

^{54) 『}舊滿州檔: 天聰九年』(2), 天聰 9년 2월 26일, p.83.

^{55) 『}舊滿州檔: 天聰九年』(2), 天聰 9년 8월 26일, pp.250-259.

명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인 문관의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렴하였다. 56) 먼저 천총 8년(1634) 7월 25일 大同에서 투항 해 온 監生 張文衡은 명의 부정부패를 비판한 뒤 명의 공략 대책을 다 음과 같이 내놓았다. 우선 선부와 대통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인근의 주 현을 포위해 나가면 총병관들이 머지않아 투항 권유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혹은 곧바로 북경으로 진격하여 동쪽으로는 식량의 운송 로를 막고 서쪽으로는 석탄 및 연료의 운송을 차단하며 지원군을 대비 한다면, 북경은 곧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겨우 두 세 곳의 작은 성만을 얻고 대군을 돌린다면, 명의 황제는 기회를 엿보 며 훗날 준비를 단단히 할 것이니 그 이후로는 북경을 직접 공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계하였다. 57) 사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사 할리얀이나 양구리 같은 만주 대신들이 건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하였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명의 변경 지역에서 투항해 온 일개 감생의 견문이 당시 만주 최고위에 있는 사령관들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전략의 바탕이 되는 북경 주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 도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58)

천총 9년(1635) 2월 8일에는 儒學生員 沈佩瑞가 중원 공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건의를 올려 주목된다. 그는 북경 공략이 아닌 산해관 돌파와 영원·금주 공략이 명을 공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⁵⁶⁾ Frederic Wakeman Jr., 1985, pp.160-170.

^{57) 『}淸太宗實錄』卷19, 天聰 8년 7월 己酉(25).

⁵⁸⁾ 감생 장문형은 다음 해 천총 9년(1635) 2월 3일에도 조속한 출병을 촉구하는 건 의를 올렸다. 지금 명의 상황은 작년보다 더 악화되었으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만약 지금 산해관을 공략하지 못한다면 번거로움이 늘고 재 정 부담이 늘어나 만주가 생활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더 나아가 수도인 성경 또한 오래 편안하게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후환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다소 도발적인 표현으로 조속한 출병을 촉구하였다. 『舊滿州檔: 天聰九年』(1) (神田信夫·松村潤・岡田英弘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72), pp.52-55; 『清太宗實錄』 권22, 天聰 9년 2월 甲申; 『明淸史料』 丙編,第一本,「張文衡奏本」, p.32.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軍餉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中田의 활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건의하였다. 廣寧 지역 間陽驛 일대 황무지에 6만 馬兵에 속한 步兵 중에 농사에 익숙한 자를 선발하여 둔전에 종사 하게 하고. 빈부에 따라 각각 소와 농기구를 갖추게 하며. 농사에 정통 한 자를 파견하여 농사를 감독하게 하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그리고 馬兵을 주둔시켜 경작지를 방어하게 하고 강물이 녹 을 때 추수한 곡식을 운반하게 하면 된다는 운송 방안까지 세세하게 마 련하였다. 이를 통해 兵餉을 충분히 축적하고 나면 앞으로 산해관을 공 략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경을 직접 타격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 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구나 지금 농민군이 북경의 서쪽에서 난리 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 병사들은 동쪽을 괴롭히고 있으니 명은 진퇴양 난에 빠져 오히려 그들이 먼저 화의를 요청하게 될 것이니. 둔전의 방 책이야말로 일거양득이라고 주장하였다. 59) 이상의 건의는 요동과 북경 의 상세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찰력 있는 방안이어서. 앞서 살 퍼본 어떠한 전략보다도 구체적이고 당시 만주의 내외 상황을 잘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를 받아본 홍타이지 또한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천총 9년(1635) 2월 18일에는 귀순한 한인 생원 楊明顯, 楊譽顯, 楊生輝 등이 명 공략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종합하여 보고하였다. 60) 우선 ① "한께서 하루라도 빨리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북경을 공략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북경은 천하의 머리요. 천하는 곧

^{59) 『}舊滿州檔: 天聰九年』(1), pp.64-67.

⁶⁰⁾ 楊明顯, 楊譽顯, 楊生輝는 성명으로 미루어 볼 때 서로 형제지간이거나 사촌 간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의 자세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의 상주문은 만주어로 작성된 『舊滿洲檔』에는 물론이고, 한문본인 『淸太宗實錄』과 『天聰朝臣工奏議』, 그리고 현대 중국어로 번역된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釋編』에 모두 실려 있는데, 각각의 문장과 세세한 표현이 서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당시의 어감을 살리기 위해 『舊滿洲檔』에 수록된 만주어본을 활용하였다. 『舊滿州檔: 天聰九年』(1), 天聰 9년 2월 18일, pp.72-76.

북경의 팔다리이니, 머리를 제거해 버리면 팔다리는 자연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안과 밖에 돕는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북경이 함락되어 민심이 흩어졌을 때 한께서 군대를 내신다면 그야말로 돌로 계란을 치 고 대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힘을 한번 써 서 최대한 빨리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어 ② "한께서 느긋하게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북경에 가까운 府와 縣을 공격하 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부와 현은 북경의 날개요. 북경은 부와 현 의 몸통이니. 날개를 제거해 버리면 몸통은 자연히 시들 것입니다. 게 다가 북경 남쪽의 군대는 방어 준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고 성도 견고 하지 않으니. 한께서 훈련시킨 병사가 한번 출동하기만 하면 주머니 속 의 물건을 취하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북경 인근의 성을 얻고 나서. 북경의 동쪽으로 식량 운송로를 끊고 서쪽으로 연료 운송로를 끊은 채 오래도록 포위하면 북경은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을 수 있을 것입 니다. 이것이야말로 힘들이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③ "한께서 천천히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둔전을 개척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영원과 금주 근처에 주둔하고 둔전을 개척하면서 수시로 약탈에 나서 그들의 경작을 방해하면, 결국 명군은 영원과 금주를 버릴 것이고 산해관 또한 손쉽게 얻을 것입니다. 산해관이 우리 것이 되면 우리가 중원에 들어가고 나갈 때 험난함을 피 해 멀리 돌아가는 수고가 없어질 것이니. 그들은 입술이 없어져 이빨이 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점차로 진입해 들어가는 방법이고 고생하지 않고 만금을 거두는 방법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분류한 다양한 전략을 단순히 上策. 中策. 下策 의 구분이 아니라. 각자의 장점이 있고 모두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 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명 공략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증가하는 것은 그 만큼 만주에게 중원 침공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이 뒷받침되었음을 반 증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북경의 전략적 중요성 및 북경 공략이 중대한 현실적 과제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한인 감생과 생원들도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정작 최고 결정권자 홍타이지는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오히려 한인들의 도발적인 명 공략 건의에 대해서 홍타이지는 대부분 실망을 표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61) 천총 9년(1635) 2월 7일 홍타이지는 한인들의 천편일률적인 상주문에 불만을 터뜨리고, 이들이 전쟁의 참혹함과 긴박함은 모르고 공을 세우기에 급급하여 탁상 공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차하르 몽골이 이제 막 귀부한 상태에서 대군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리인지 설명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속한 명 정벌과 군대 동원만 주장하는 이들을 꾸짖었다. 대신 홍타이지는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홍타이지의 고민은 ① 명 황제에 대한 추격 여부와북경 공략의 방침, ② 혹시 당장 있을 수도 있는 명의 화의 요청에 대한 대응과 ③ 장차 북경 포위 후 명의 화의 요청에 대한 대응, 그리고 향후 북경 점령 후 ④ 백성의 안정화 정책과 ⑤ 만주 귀족들의 통제 방침 등 다섯 가지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62)

4일 후 2월 11일에 刑部承政 머이런장긴 高鴻中은 홍타이지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였다. 우선 ① 명 황제가 남쪽으로 도망한다면 굳이 뒤쫓을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설령 많은 황족을 사로잡는다 해도 명은 결국 남은 사람 중의 한 명을 황제로 추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들이 결사 항전하며 南遷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성의 방비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므로, 이때에는 북경을 고립시켜 변란이 발생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② 명의 화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

⁶¹⁾ 谷井陽子, 2015, p.491.

^{62) 『}舊滿州檔: 天聰九年』(1), 天聰 9년 2월 7일, pp.63-64.

진위 여하를 따져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도 진심으로 허 락하되. 그들이 여전히 명분을 중히 여긴다면 화의를 맺을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차 ③ 포위된 명이 급히 화의를 청하며 黃河를 경계로 삼자고 하면 허락해 줄 수 있지만, 산해관을 경계로 하자고 하 면 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북경 점령 후 백성의 안정화 방책에 대해 서는 ④ 둔전을 실시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이 모두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하였으며. ⑤ 창고에 있는 錢糧을 조사 하고 만주 귀족이 분수에 넘치게 재물을 빼돌리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6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항 한 한인 서생들이 명 조정에 대해 다분히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가 앞선 반면, 한인 고관으로서 고홍중은 자신의 답변에 대한 근거를 충분 히 제시하는 동시에 명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都察院 承政 張存仁도 우선 명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되. 앞 으로의 중원 공격은 이전과 같은 잔혹한 도살과 약탈보다는 백성을 안 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4) 그의 주장은 한인 관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명분'의 중요성과 궤를 같이하는데, 중 원과 중원의 백성을 약탈의 대상이 아닌 대업을 완성하는 목표로 삼아 야 한다는 對 중국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만주 대신들의 '대토론'에서는 이러한 중원 백성에 대한 고려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좋은 대비를 이룬다. 즉 만주 대신들은 對 중국 전략을 논의할 때 만주 병사의 사기나 전리품의 분배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반면. 한인 관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명을 상대 로 한 완전한 승리, 즉 중국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 하는 것이었다.

^{63) 『}明淸史料』 丙編. 第一本. 「高鴻中奏本」(天聰 9년 2월 11일), p.45.

^{64) 『}舊滿州檔: 天聰九年』(2) (神田信夫·松村潤·岡田英弘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75). 天聰 9년 12월 21일. pp.361-367.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천총 연간의 홍타이지에게는 당장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군대와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자와 인구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다. 이때 논의되고 시도되었던 명에 대한 침공도 장기적인 중국 정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필요가무엇보다 우선시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의 對 중국 전략 또한 신속하고효율적인 약탈전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렇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만주의 對 중국 전략은 결국 중국 내부에서 발생할 새로운 변수를 기다리거나, 혹은 만주 내부에서 중국 정복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체화할 때에 비로소 수정될 수 있었다.

4. 만주의 군사적 성과와 한계

천총 10년(1636) 4월 다이칭 구룬(Daicing Gurun, 大淸國)⁶⁵⁾의 황제로 즉위한 홍타이지는 마치 이를 과시하려는 듯 숭덕 원년(1636)⁶⁶⁾ 5월 30일 아지거, 아바타이, 양구리 등으로 하여금 제4차 중원 침공에 나서게 하였다.⁶⁷⁾ '후금군'에서 '청군'으로 새롭게 탄생한 만주의 군대는

^{65) &#}x27;다이칭' 이라는 국호가 어디서 기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예컨대 샤머니즘에서 숭상하는 글자 '靑'에서 따왔다는 설, '眀'이 火德이기 때문에 이를 제압하는 水德을 상징하는 '淸'을 채택했다는 설, '淸'과 '金'이 만주어로는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후에 그저 표기를 다르게 한 것뿐이라는 설 등이 있다. 그리고 몽골인이 흔히 사용하는 귀족의 호칭으로 '통솔자' 혹은 '용감한 전사'를 의미하는 칭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鄭天挺, 『淸史探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pp.72-73; Mark C. Elliott, 2001, pp.402-403의 설명을 참조. 본고에서는 '아이신 구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국호였던 '다이칭 구룬' 이라는 만주어 명칭 대신 독자에게 익숙한 '청'이라는 한자식 국호를 쓰기로 한다.

⁶⁶⁾ 천총 10년(1636) 4월 11일 홍타이지가 황제에 올라 숭덕으로 개원하면서, 4월 12 일부터는 숭덕 워년으로 불리게 된다.

^{67) 『}淸太宗實錄』卷29, 崇德 원년 5월 癸酉(30).

6월 27일 獨石口를 통해 장성을 넘은 뒤 延慶을 거쳐 居庸關으로 진입하여 順義, 昌平 등 북경 인근의 성을 공략하였다. 청군은 이때 10여곳의 주현을 유린하고 20만에 가까운 人畜을 획득하였으며, 68) 9월 초冷口關을 넘어 9월 28일 성경으로 귀환하였다. 69)

중원 침공이 한창이던 8월 12일에는 和碩睿親王 도르곤을 右翼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中後所로 들어가게 하고, 和碩豫親王 도도를 左翼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錦州로 들어가게 하였다. 70) 이는 산해관 외곽에 주둔해 있는 명군이 내지로 이동하여 중원 침공 부대의 후방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선 분산 작전이었다. 도르곤과 도도 등은 아지거가 이끈 중원 침공 부대가 귀환한 직후인 10월 2일에 성경으로 돌아왔다. 71)

2년 후 숭덕 3년(1638) 9월 청군은 다섯 번째로 내몽골 초원을 거쳐 중원에 침입하였다. 영원 방면으로 진군하여 명군의 시선을 돌린 홍타이지는 도르곤과 요토로 하여급 화북으로 우회하여 장성을 넘게 하였다. 도르곤은 淸山關, 요토는 墻子橫을 넘어 중원으로 진입한 뒤 북경주변 지역은 물론 산동 濟南까지 무인지경으로 휩쓸고 다녔다. 72) 이때 홍타이지 자신은 영원과 금주 일대에서 명의 주력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였다. 제5차 중원 침공에서는 비록 요토가 전사하는 손실을 보았으나 총 70여 개 성을 함락시키고 德王 朱由樞를 사로잡아 성경으로 압송하였으며, 포로 46만 명에 은 100만 량 이상을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3) 도르곤의 청군은 이듬해 숭덕 4년(1639) 3월 산동에서 천

^{68) 『}淸太宗實錄』卷30, 崇德 원년 7월 辛酉(19). 이 시기 만주의 전리품 기록을 보면 "人畜 몇만"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사람과 가축을 같은 맥락으로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즉 포로와 가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경제적인 잣대로 파악했다는 말이다.

^{69) 『}滿文老檔』(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63) (7), 崇德 원년 9월, pp.1246-1276; 崇德 원년 9월 28일, pp.1292-1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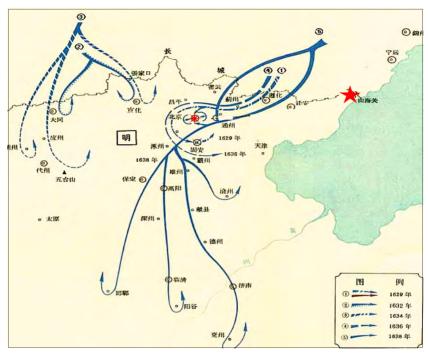
^{70) 『}淸太宗實錄』卷30, 崇德 원년 8월 癸未(12).

^{71) 『}淸太宗實錄』卷31, 崇徳 원년 10월 癸酉(2).

⁷²⁾ 정하영 등 역주, 『瀋陽狀啓 -심양에서 온 편지』, 서울: 창비, 2008, pp.290-291.

진을 거쳐 靑山關을 넘어 성경으로 귀환하였다. 74)

지금까지 살펴본 총 다섯 차례에 걸친 만주의 중원 침공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홍타이지 시기 중원 침공의 경로

〈그림 2〉에 보이는 만주의 중원 침공은 예외 없이 모두 산해관을 피해 화북으로 우회하여 만리장성의 다른 관문을 넘어 이루어졌다. 일단 중원에 진입한 부대는 신속한 약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약탈이 끝나면 다시 장성을 넘어 성경으로 귀환하였다. 이는 만주 대신들의

⁷³⁾ 이번 제5차 중원 침공 때 거두어들인 전리품은 이전까지 시도한 총 네 차례에 걸 친 중원 침공의 전리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다고 한다. 王先謙, 『東華錄』, 崇德 4년 3월 丙寅(9).

^{74) 『}清太宗實錄』 卷45, 崇徳 4년 3월 乙亥(18).

'대토론' 의견을 도식화한 〈표 1〉 중에서 @ 산해관 우회 - ⓑ 전리품 획득 중심의 단기적 전략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총 다섯 차 례의 중원 침공 모두 성경을 출발한 지 보통 6개월 이내로 귀화하는 단 기전이었다

그렇다면 홍타이지는 왜 이토록 수차례에 걸쳐 중원 침공을 시도했 을까? 그것도 산해관을 직접 돌파하지 못하고 내몽골 초원으로 멀리 우회하여 화북으로 진입하는 공격을 계속 되풀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 까? 이는 천총 연간과 숭덕 연간 중원 침공의 성과를 당시 사료에서 어 떻게 적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전 리품의 기록에 빠지지 않는 항목은 금. 은. 비단 등의 재화도 있지만. 가장 중시된 것은 다름 아닌 人口. 즉 한인 포로였다.

이전 누르하치의 한인 탄압 정책으로 요동 지역에는 노동 인구가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고. 홍타이지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인구와 토지를 재편하기 위해 "計丁授田" "編丁立莊" 등과 같은 새로운 토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작의 경험이 풍부한 한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75) 즉 홍타이지는 만주의 새로운 근거지가 된 요동 지역 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문적인 농업 노동력을 확보해야 했고. 수차례에 걸친 중원 침공은 바로 한인 포로와 가축을 획득하기 위한 가 장 중요한 공급 방식이었던 것이다. 76)

이를 위해 만주의 군대는 화북 각지의 주현을 점령하더라도 수성을 고집하지 않고 인구와 재물을 약탈한 뒤 곧바로 퇴각하는 게릴라식 전 술을 활용하였다. 홍타이지 시기 중원 침공은 정복이나 영토 지배보다 는 약탈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그 파괴상은 더욱 심각하였고. 그 결과

⁷⁵⁾ 周藤吉之는 일찍이 관행 보고서와 滿鐵이 펴낸 다양한 조사 보고를 활용하여 奉 天. 吉林. 黑龍汀 지역의 입관 이전 토지 제도와 경제 형태의 특수성을 고찰한 바 있다. 周藤吉之, 『清代滿洲土地政策の研究 -特に旗地政策を中心として』, 東京: 河 出書房, 1944.

⁷⁶⁾ 정병철, 『'天崩地裂'의 時代, 明末淸初의 華北社會』,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p.69.

해당 지역의 민심을 크게 동요시켜 국지적인 반란을 촉발하기도 하였다.77) 만주의 군대가 계속해서 화북 지역을 짓밟음으로써 지역 사회의 황폐화와 백성의 유망을 초래하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경 인근 지역과 산동 곳곳에서 土賊의 반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된 것이다.78)

그러나 산해관을 얻지 못하는 한 만주의 군대는 계속해서 먼 길을 우회하여 만리장성의 다른 관문을 돌파해야 했고, 너무 길어진 행군 경로로 인해 불의의 습격을 받거나 퇴로가 차단당할 가능성도 상존하였다. 결국, 홍타이지는 수차례 중원 침공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해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코 명을 상대로 결정타를 날릴 수가 없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중원 침공 중에 북경성을 포위하기도 하고 북경 인근 지역과 산서 · 산동의 여러 주현을 약탈하며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성도 거점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산해관을 피해 화북으로 우회하는 행군이 명의 허를 찌르는 효과적인 전략이기는 했지만, 산해관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정복 전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성공을 뒤로 한 채 홍타이지의 눈은 비로소 산해관을 향하기 시작했다. 천총 5년(1631) 대릉하성이 만주의 세력권에 들어 옴에 따라 錦州가 청 쪽으로 돌출해 있는 명의 최전선이 되었다. 금주는 명 요서 지역의 군사 重鎭으로, 남쪽으로 18리에는 松山城이 있고 서남 40리에는 杏山城이 있었으며, 杏山에서 다시 서남으로 20리에는 塔山城이 있어 후방기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또 다른 요서회랑의 중진인 寧遠은 금주에서 서남쪽으로 120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79) 명에게 영원과 금주는 산해관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요동

^{77)『}明清史料』 乙編,第六本,「兵部行兵科抄出山東巡按余日新題稿」(崇禎 16년 4월 10일),pp.539a-b;『明清史料』 壬編,第五本,「兵部題行兵科抄出分守倒 馬關副總兵劉有實題稿」,pp.473a-b.

⁷⁸⁾ 정병철, 2008, pp.73-76.

⁷⁹⁾ 周遠廉·趙世瑜, 『清攝政王多爾袞全傳』,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8, pp.88-89.

방어선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다. 반면 청의 입장에서는 영원과 금주 를 얻지 못하면 산해관은 공략하기 어려웠고. 산해관을 얻지 못하면 청 군은 이전처럼 계속 내몽골 초원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홍타이 지는 먼저 산해관 외곽의 4개 城, 즉 금주, 송산, 행산, 탑산을 공략하 여 산해관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80)

이로부터 시작된 전투가 바로 유명한 松山 : 錦州 전투이다. 소위 '松 錦 전투'는 숭덕 5년(1640) 3월부터 숭덕 7년(1642) 4월에 걸쳐 2년여 간 지속된 전투로서, 만주가 유례없이 긴 시간을 투자한 회심의 승부였 다. 숭덕 5년(1640) 3월 18일 홍타이지는 지르갈랑과 도도를 각각 좌· 우익 군의 대장으로 임명하여 금주 근방에 주둔시키고 둔전을 행하여 공격 거점을 구축하게 하였다. 81) 그리고 6월 15일에는 도르곤, 호오거.



〈그림 3〉 松錦 전투의 경과

두두. 아바타이 등으로 하여금 수하 병력의 절반을 동원하여 먼저 파격된 지르갈랑과 교대 하여 성을 쌓고 둔전하게 하여 금주를 더욱 압박하였다 82)

명은 금주의 포위를 뚫기 위 해 수차례 군대를 파격하였으 나 도르곤이 이를 요격하면서 포위망을 지켜냈다. 83) 그리고 9월에는 지르갈랑이 돌아와 도르곤과 교대하였고.⁸⁴⁾ 12월 ┷╫ 중 보다시 도르곤, 호오거.

⁸⁰⁾ 魏源、『聖武記』(北京:中華書局, 1984) 卷1, 開國龍興記三, p.29.

^{81) 『}清太宗實錄』 卷51. 崇徳 5년 3월 己亥(18).

^{82) 『}淸太宗實錄』卷52, 崇徳 5년 6월 乙丑(15).

^{83) 『}淸太宗實錄』卷52, 崇德 5년 7월 乙酉(6).

^{84) 『}淸太宗實錄』 卷52. 崇徳 5년 9월 丙戌(8).

두두, 아바타이가 금주를 포위하러 왔다. 85) 이렇게 물샐 틈 없이 포위 망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소규모 전투를 일으켜 영원과 금주 지역에서 제대로 경작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86) 홍타이지는 두 달마다친히 이 지역을 순찰하였고 군사들로 하여금 금주성 주변을 약탈하게하였으며, 금주를 포위하는 병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하였다. 홍타이지는 그동안 금주 공략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단기전이아닌 장기적인 포위 공격의 방침을 세운 것이다. 87)

이때 금주성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다름 아닌 前鋒總兵官 祖大壽로서, 10년 전 대릉하성 전투 때 홍타이지에게 항복했다가 몰래 배반하고다시 명에 귀순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조대수가 아무리 명장이라 하더라도 인원과 병사를 계속 교대시키면서 금주를 압박하는 청군의 포위를 쉽사리 뚫어낼 수가 없었다. 이에 명 조정은 13만 대군을 금주의 서남쪽 영원성에 집결시키고 薊遼總督 洪承疇로 하여금 금주성을 지원하게 하였다. 이때 홍승주는 군량과 군수품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성을 굳게 지키며 청군을 피로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으나, 그의정치적 라이벌인 병부상서 陳新甲은 지구전에 따른 전비 급증을 이유로 속전속결을 주장하였고 황제 역시 洪承疇에게 단기전을 독려하였다. 88)

드디어 숭덕 6년(1641) 8월 양 진영 간에 첫 전투가 벌어졌다. 처음

^{85) 『}清太宗實錄』 卷53, 崇徳 5년 12월 庚戌(3).

⁸⁶⁾ 이 전략은 앞서 천총 9년(1635) 儒學生員 沈佩瑞가 제출한 요서 지역의 둔전 활용 방안을 거의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舊滿州檔: 天聰九年』(1), 天聰 9년 2월 8일, pp.64-67.

⁸⁷⁾ 숭덕 6년(1641) 3월에 지르갈랑이 도르곤과 교대하기 위해 다시 성경에서 금주로 출발하였는데, 도르곤이 지르갈랑의 부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군사를 빼내 빨리 복귀하는 바람에 홍타이지가 크게 노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홍타이지는 도르곤을 親王에서 郡王으로 격하시키고 罰銀 1만 량과 두 개 니루의 戶口를 빼앗았을뿐 아니라, 이 사건과 연루된 호오거, 아바타이, 두두 등 수많은 만주 대신과 장수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이처럼 당시 홍타이지에게 금주 포위 작전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淸太宗實錄』卷55, 崇德 6년 3월 丁酉(22).

^{88) 『}崇禎實錄』, 崇禎 14년 6월 乙巳(1).

에는 홍승주의 명군이 기선을 잡아 청군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패전 소식이 성경에 전해지자 홍타이지는 친히 정예기병을 이끌고 엿새 밤 낮으로 달려 8월 19일 송산에 도착하였다⁸⁹⁾ 홍타이지의 참전으로 사 기가 오른 청군은 명군의 후방을 찔러 퇴로를 차단하고 군량미와 건초 의 공급 루트를 차단하였다. 그 결과 포위된 명군은 크게 동요하였고. 吳三桂 등은 야밤을 틈타 후방 거점 영원성으로 달아나려다 도중에 청 군의 매복에 걸려 크게 패하였다.90)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명군 53.783명을 베고 군마 7.440필. 낙타 66마리와 갑옷 9.346벌을 노획 하였다. 杏山에서 남쪽의 塔山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다급한 나머지 바다로 뛰어들다가 목숨을 잃은 명군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들이 팽개 친 갑옷과 군마는 수없이 많았고 해수면에 떠 있는 시신은 기러기나 오 리 떼처럼 보였다 "고 하였다 91)

홍승주는 패잔병을 이끌고 송산성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하였고. 홍타이지는 송산성을 포위한 채 다시 시간을 끌었다 92) 해가 바뀌어 숭덕 7년(1642) 2월 청군은 마침내 야간에 성안으로 진입해 결국 홍승 주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다 93) 송산성의 함락과 홍승주의 생포 소식 이 전해지면서 금주성의 軍心은 크게 흔들렸고, 또다시 '人相食'하는 군 량 부족 상황에 이르자 조대수 또한 결국 청에 투항하였다 94) 기세가

⁸⁹⁾ 이때 홋타이지는 너무나 다급하게 달려온 나머지 흐르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그릇 으로 받아냈고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멈추었다고 한다. 『淸太宗實錄』卷57, 崇 德 6년 8월 壬戌(19).

^{90) 『}淸太宗實錄』卷57, 崇徳 6년 8월 壬戌(19).

⁹¹⁾ 谷應泰.『明朝紀事本末補遺』卷5. 錦寧戰守.

⁹²⁾ 하지만 당시 청군 또한 포위를 지속하기 위한 보급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譯註 昭顯瀋陽日記 2』(奎章閣所藏東宮日記譯註叢書 10, 서울: 민 속원, 2008), p.230.

^{93) 『}淸太宗實錄』卷59, 崇徳 7년 2월 辛酉(21).

^{94) 『}淸太宗實錄』卷59, 崇德 7년 3월 己卯(10). 조대수가 투항해 오자 청의 대신들은 10년 전 대릉하성 함락 당시 항복했다가 금주성을 설득해 바치겠다고 속여 탈출 한 죄를 물어 그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홍타이지는 예전과 같이 그를 후 대하였다.

오른 청군은 4월 9일 탑산성을 함락시켰고, 21일에는 행산성의 항복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홍타이지는 명의 관외 주요 거점 가운데 영원성을 제외한 금주와 송산, 행산, 탑산 등 4개 성을 수중에 넣게 되었다.

이번 송금 전투에서 명군과 청군이 직접 전투를 벌인 것은 불과 며칠에 불과했지만, 그 전후 과정은 무려 2년이 소요되었다. 송금 전투의결과 명은 산해관 외곽 2백 리 지역의 군사 거점을 상실하여 크게 위축된 반면, 청은 관외 지역을 석권하고 산해관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산해관을 통한 중원 진입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셨다.

청군이 숭덕 7년(1642) 4월 송금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요서 지역을 거점으로 확보하자, 한인 관원들은 좀 더 과감하게 북경을 직접 공격할 것을 상주하였다. 특히 숭덕 7년(1642) 9월 5일 구사어전 머르건 히야 툴라이(Tulai, 圖賴)와 祖澤潤, 그리고 머이런장긴祖可法과 張存仁은 기존의 약탈전이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만유리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장군은 거느리는 從役이 많고 부유한 자는 말이 많고 건장하니 얻는 것이 많지만, 가난한 군사는 그저 자기 한몸과 말 한 필밖에 없으니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전리품의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95) 결국, 북경을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모두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까지 만주 대신들이 강조해 온 對 중국 전략의 경제적 효과를 다른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다. 천총 9년(1635) 차하르 몽골복속과 숭덕 원년(1636) 조선 침공 이후 만주 내부의 역량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반대로 명의 내부 사정은 잇따른 자연재해와 유적의 횡행

^{95) &#}x27;從役'이란 만주어로 쿠툴러(kutule, 庫圖勒)를 가리키는데, 跟馬人 혹은 控馬奴라고 의역하여 주로 말을 관리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하지만 쿠툴러는 참전하여말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잡일을 담당하였고, 무엇보다 쿠툴러가 많으면많을수록 더 많은 노획물을 약탈하고 운반할 수 있었다. 이상 이훈, 「조선의 거덜과 만주족의 쿠툴러」, 웹진 民研, 2012년 9월호 통권 17호를 참조.

등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관원들은 새로운 對 중국 전략의 전환을 건의하였다.96)

그러나 홍타이지는 또다시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너희들이 건의한 대로 북경을 곧바로 취하라는 것은 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경을 취하는 것은 마치 큰 나무를 벌목하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먼저 양쪽에서 계속 찍어 들어가면 큰 나무가 스스로 넘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산해관 바깥의 성을 모두 취하지 못했는데 어찌 곧바로 산해관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지금 명나라의 정예부대가 이미 소진되었으니 우리 군대가 사방에서 약탈을 가하면, 저들의 세력은 나날이 쇠퇴할 것이고 우리의 병력은 나날이 강해질 것이니, 그제야 비로소 북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7)

위 내용에 따르면, 한인 관원들의 끈질긴 주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여전히 북경 공략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북경을 취하는 것을 "큰 나무를 베는"일에 비유한 것은 당시 홍타이지가 북경 공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 한 번의 공격으로 단숨에 끝낼 수는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홍타이지는 북경 공략에 앞서 산해관 공략을 선결 과제로 삼았고, 산해관 공략을 위해서는 산해관 외곽의 성들을 정복하여 서로의 연계를 끊어놔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활용하였다. 즉, 북경이건 산해관이건 기습적으로 곧바로 나아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 근방을 우선 점령해 놓고 이를 거점으로 삼아 사방에서 포위해 나가는 정공법에 가까운 전략을 고수하였다. 이미 천총 연간부터 만주 대신들은 물론, 투항해 온 명의 감생과생원을 비롯해 기존의 한인 관원들까지도 홍타이지에게 북경 공략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여전히 기존의약탈전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신중한 관점을 쉽게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96)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89) 上冊, 崇德 7년 9월 5일, p.479.

^{97)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上冊, 崇徳 7년 9월 5일, p.479.

마지막으로 홍타이지 생전 최후의 중원 공략인 제6차 중원 침공을 살펴보도록 하자. 숭덕 7년(1642) 10월 홍타이지는 아바타이를 奉命大 將軍에 임명하여 중원 침공에 나서게 하였다. 98) 이번에도 산해관을 우 회하여 界嶺口와 黃厓口를 통해 장성을 넘어간 청군은 북경 외곽을 거 쳐 산동까지 거침없이 누비며 약탈전을 수행하였다. 이때 총 88개 성 을 점령하고 금 1만 2천여 량, 은 220만 량, 포로 37만 명, 駝馬・騾 驢・牛羊 32만 마리를 획득하였다. 99) 이듬해 6월 성경으로 귀환할 때 까지 청군은 장장 8개월간 북경 인근 지역과 산동 일대를 무인지경으 로 휩쓸고 다녔다. 100)

지금까지 살펴본 숭덕 연간 청군의 중원 공략은 평균 2년 정도의 휴식기를 가진 뒤 이루어지는 계획적인 약탈전으로서, 신생국가 청의 주요한 경제활동의 일환이었다. [101] 그러나 약탈은 결코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없었다. 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 물적 손실을 차치하고 약탈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초토화되면 점점 더 중국 내지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위험 부담도 증가하였다. [102] 횟수를 거듭할수록 청군의 공략 범위는 장성과 인접한 산서와 북경 인근 지역으로부터 산동과 하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차 중원의 한복판으로 확대되었다. 더구나 청군이 한 번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더 이상 충분한 약탈

^{98) 『}淸太宗實錄』卷63, 崇徳 7년 10월 辛亥(14).

^{99) 『}淸太宗實錄』卷64, 崇德 8년 5월 癸卯(11).

¹⁰⁰⁾ 이때 청군은 명군의 저항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8개월 동안 신속한 이동으로 군사들이 피로하여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다고 한다. 周遠廉· 趙世瑜, 2008, p.129.

¹⁰¹⁾ 정병철, 2008, p.69; 谷井陽子, 2006, p.47.

¹⁰²⁾ 특히 농경 국가를 상대로 한 약탈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목 국가의 화평 제안 패턴을 바필드는 '외부변경 전략'이라 정의하였다(김호동, 『몽골제국 과 세계사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0, pp.55-56). 물론 만주는 유목 집단이 아니고, 명과 청의 대결을 농경 국가와 유목 국가의 대결로 보기에도 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홍타이지가 약탈전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명과 화의를 맺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은 사실은, 만주도 당시 약탈전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다.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원 내부로 진입해 들어가 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103)

홋타이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송금 전투 이후 청에 확실하게 유리한 전황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명과의 화의 노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예컨대 숭덕 7년(1642) 3월 16일 명 의 병부상서 진신갑이 보낸 다급한 講和 요청을 받고 홍타이지는 서신 의 무례함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의가 양국의 군신과 백성이 공존하는 길이고 자신도 오랫동안 바라온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04) 또 한, 금주성을 함락한 뒤 숭덕 7년(1642) 10월 마지막 제6차 중원 침공 에 나설 때까지도 홍타이지는 명과 화의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105) 즉. 홍타이지는 무리해서 산해관을 통해 입관하거나 북경을 점령할 의도가 없었고. 가능하다면 명과 화의를 맺고 첫 내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요컨대 홍타이지가 황제에 오른 숭덕 연간에 이르면 중원 약탈전이 확대되고 송금 전투 승리를 토대로 요서 진출이 성사되었으나, 홍타이 지는 여전히 對 중국 화의를 염두에 두면서 산해관과 북경에 대한 공략 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았다. 천총 연간에 이어 숭덕 연간까지 홍타이지 는 명과 수차례 전쟁을 벌였지만. 산해관 돌파는 한 번도 고려되거나 시도되지 않았다. 홍타이지는 예전의 중원 침공 방식, 즉 단기적인 약 탈전을 계속해야만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정의 원동력으 로 삼을 수 있었다. 결국, 산해관을 넘어 북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인물과 새로운 변수의 등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¹⁰³⁾ 周遠廉·趙世瑜, 2008, p.129.

¹⁰⁴⁾ 다만 양국 간에 진정한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모두 명이 청을 멸시하는 오만함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淸太宗實錄』卷59, 崇德 7년 3월 乙酉(16).

^{105) 『}清太宗實錄』 卷63. 崇徳 7년 10월 辛亥(14).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만주의 중국 정복과 군사 활동에 관한 오해를 바로 잡고, 무관심으로 가려져 있던 홍타이지 시기 중원 공략의 성과와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이전 요, 금, 원의 역사를 통해 만주 정권의 합법성과 영속성을 강조하였으나, 중원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함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누르하치 시기부터 만주는 고질적인 식량난에 시달렸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홍타이지는 명의 변경을 공격하여 물자와 식량 등의 전리품을 획득하려 하였다. 106)

홍타이지는 만주 대신과의 토론을 통해 차하르나 조선보다는 명을 상대로 한 신속한 침입과 약탈이 만주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 을 확인하였다. 만주 대신들은 산해관 공략 여부와 북경의 공격 방법 등에서 각자 의견을 달리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최대한의 전리품을 획 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산해관을 돌파하여 북경을 향하는 최단 루 트를 확보하는 것이 명을 공략하는 안정적인 방법이었지만, 산해관의 확보는 당시 만주에게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만주에게 새로 투항해 온 명의 감생과 생원들은 만주 대신들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북경 공략을 건의하 였다. 그리고 기존 한인 관원들은 중원을 약탈의 대상이 아닌 대업을

¹⁰⁶⁾ 천총 원년(1627) 조선을 침공한 정묘호란과 승덕 원년(1636)의 병자호란도 당시 연이은 기근으로 식량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사정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주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병자호란 종전 직후 청은 조선 측에 세폐미 1만 석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開市를 통해 곡물 교역에 소극적이었던 조선을 확실한 식량 공급원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은 명과의 시장 단절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으며 배후의 위협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홍타이지는 명과의 전면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 2012, pp.337-338; Frederic Wakeman Jr., 1985, p.163.

완성하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對 중국 전략의 근본적인 전화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하면서 한인들의 이 상적인 낙관론을 비판하고 기존의 약탈전을 고수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그 결과 천총 연간에 시도된 중원 공략은 장기적인 중국 정 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 결하고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필요가 우선시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對 중국 전략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약탈전에 무게가 실 렸다. 107)

황제에 오른 홍타이지는 계속해서 중원 침공에 나섰고. 숭덕 연간 '후금군'에서 '청군'으로 새롭게 탄생한 만주의 군대는 약탈의 범위와 규 모를 더욱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청군의 중원 침공은 모두 산 해관을 피해 화북으로 우회하여 장성의 다른 관문을 넘어 이루어졌다. 일단 중원에 진입한 청군은 신속한 약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약탈이 끝나면 곧바로 성경으로 귀환하였다. 천총 연간과 숭덕 연간에 시도된 총 여섯 차례의 중위 침공은 모두 성경을 출발한 지 6개월 이내 로 귀화하는 단기전이었다. 산해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군은 먼 길을 우회해야 했고. 너무 길어진 행군 경로로 인해 불의의 습격을 받거나 퇴로가 차단당할 가능성도 상존했기 때문이다. 청군은 화북 각 지의 주현을 점령하더라도 수성을 고집하지 않고 인구와 재물을 약탈 한 뒤 곧바로 퇴각하는 게릴라식 전술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홍타이지는 수차례 중원 침공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 음에도. 산해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코 명을 상대로 결정타 를 날릴 수가 없었다. 그가의 중워 침공 중에 북경성을 포위하기도 하

¹⁰⁷⁾ 본고는 만주의 중워 침공의 워인 중 하나로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만 주 내부의 경제적 곤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당시 명이나 조선과의 관계에서 불거졌던 대외 명분, 권력 관계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여 좀 더 총체적으로 입관 전 만주의 상황과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고 북경 인근 지역과 산서·산동의 여러 주현을 약탈하며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성도 거점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산해관을 피해 화북으로 우회하는 행군이 명의 허를 찌르는 효과적인 전략이기는 했지만, 산해관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정복 전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청군은 유례없이 긴 시간을 투자하여 숭덕 7년(1642) 송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요서 지역을 거점으로 확보하였지만, 홍타이지는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북경 공략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였고 명과의 화의 노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산해관을 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인물과 변수의 등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이러한 만주의 역사적 과업은 1644년 홍타이지의 계승자인 순치제와 도르곤에 의해 완수되었다. 108)

(원고투고일 : 2018. 3. 28, 심사수정일 : 2018. 5. 10, 게재확정일 : 2018. 5. 14)

주제어: 만주. 산해관(山海關), 청군(淸軍), 홍타이지, 약탈전, 북경(北京)

¹⁰⁸⁾ 홍타이지 사후 도르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청군의 입관과 구체적인 북경 입성 과정에 대해서는 졸고,「1644년 山海關 전투와 淸軍의 北京 입성」,『中國史研究』 110, 2017을 참조.

〈참 고 문 헌〉

- 『舊滿洲檔』(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 『舊滿州檔: 天聰九年(1·2)』(神田信夫·松村潤·岡田英弘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72-1975)
- 『內國史院檔: 天聰七年』(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譯註, 東洋文庫清代史研究委員會, 2003)
- 『東華錄』(蔣良騏 撰. 『續修四庫全書』368. 史部. 編年類)
- 『滿文老檔』(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譯註, 北京:中華書局, 1990)
- 『滿文老檔(1-7)』(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5-1963)
- 『明清史料(甲-辛編)』(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編 臺北: 商務印書館, 1930-1936)
- 『譯註 昭顯審場日記 2』(奎章閣所藏東宮日記譯註叢書 10、서울:민속원、2008)
-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崇德二·三年分)』(河內良弘 譯註·編著,京都: 松香堂書店,2010)
- 『天聰朝臣工奏議』(潘喆 等編,『淸入關前史料選輯』(第2輯),北京:中國人民大學 出版社,1989)
- 『淸實錄』(北京:中華書局,1985)
-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上册)』(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北京:光明日報出版社,1989)
- 정병철, 『'天崩地裂'의 時代, 明末淸初의 華北社會』,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 劉小萌,『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李鴻彬. 『滿族崛起與淸帝國建立』,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3.
- 鄭天挺, 『清史探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 周遠廉·趙世瑜, 『清攝政王多爾袞全傳』,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8.
- 谷井陽子,『八旗制度の研究』,京都:京都大學學術出版會,2015.
- Frederic Wakeman Jr.,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Pamela Kyle Crossley. The Manchus. Cambridge, Mass.: Blackwell, 1997.
-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85. 2012. http://uci.or.kr/G704-001396.2012..85.013
- 蘇燦永. 「入關前 清朝의 經濟的 狀況 —崇德 年間의 掠奪戰과 奴僕(aha) 계층을 中心으로」、『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34,2010.
- 劉承軍.「清代開國政權意識形態探析 -以清太祖、太宗正統觀爲中心的考察」. 『商 丘師範學院學報』, 2012-11.
- 沈一民,「入關前清(後金)南略次數考 一兼論《清實錄》之失載」, 『滿語研究』 2007 - 1.
- 閻崇年,「論明代保衛北京的民族英雄袁崇煥」、『北京史論文集』第1輯. 北京: 北京 史研究會. 1980
- 吳剛 「"搶西邊"和"欲得中原" —"己巳之役" 中滿洲貴族新舊 "戰爭理念" 的碰撞和 沖突」、『清史研究』、2011-4
- 王思治·李鸿彬, 「論皇太極時期對明作戰策略的演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明淸檔案與歷史研究:中國第一歷史檔案館六十周年紀念論文集』,北 京:中華書局. 1988
- 袁良義,「清兵入關的歷史功績 -爲紀念清兵入關350周年而作」, 『史學集刊』, 1994 - 4
- Mark C. Elliott, "Whose Empire Shall It Be?: Manchu Figurations of Historical Proces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Lynn Struve ed., Time, Temporality, and Imperial Transi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Abstract>

Eyes on the 'Central Plains': The Manchus' Military Strategies and Tactics during the Early 17th Century

Park, Min-su

Since the founding of the empire, Nurhaci and his followers suffered from continuous shortage of food, and repeatedly attacked the Ming frontier to secure supplies and other essential materials. Later, in his discussion with the high-ranking Manchu officials, we can see that Hong Taiji considered these frontier raids as the most effective way of raising the morale of the Manchus. In theory, Hong Taiji knew that attacking Beijing via the Shanhai Pass was the most effective way of conquering the Ming, but he also realized that this strategy was unrealistic and risky. Collaborators from the Ming also proposed detailed and systematic plans to achieve this seemingly impossible plan of overtaking Beijing, However, Hong Taiji clearly rejected this optimistic idea of the Ming defectors and Manchu officials, and maintained a more cautious approach of staying to the raiding expeditions against the Ming. The scale and frequency of the raids increased over time, but Hong Taiji still avoided any contact with Shanhai Pass itself and focused the attacks to the frontier area around Beijing. Despite his continuous success in the raids to the Ming territory, as long has he did not secure Shanhai Pass the raids were only raids; they did not evolve into conquest war in a real meaning.

Key Words: Manchu, Shanhai Pass, Qing army, Hong Taiji, Predatory war, Beiji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237–247 https://doi.org/10.29212/mh.2018..107.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軍事'. 韓中關係史의 새로운 視覺

김경록 지음,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林常董*

최근 한반도에 薰風이 불어옴에 따라 '統一'에 대한 기대가 한창 부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미국·중국 등 강대국의 체害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의 관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듯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이미 비슷한 문제에 대해 고심했던 우리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우리는 교훈을 얻고, 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歷史學'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와 미래를 탐구하는 일종의 '未來學'인 것이다.

역대 한중관계 속에서 특히 元末明初의 14세기 중후반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중국 대륙에서는 元과 明의 교체가 진행되고, 얼마 안 있어 한반도에서도 역시 高麗를 무너뜨리고 朝鮮이 세워지는 激浪의 시기였던 것이다. 원의 몰락과 신생국 명의 탄생, 그 사이에 낀 고려의 대처. 그리고 서서히 권력을 장악해가는 조선의 건국 세력과

^{*} 順天鄉大 中國學科

대중국 관계 설정, 이 시기 약 반 세기에 걸친 한중 간의 외교전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박하고 치열했다. 학계에서도 그간이 시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쌓아왔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고려와 원·명, 혹은 조선과 명의 전반적인 관계에 집중한 연구부터 세세하게 교역을 통해 당시 한중관계를 고찰했던 연구까지 각 분야에서 이 시기 한중관계를 다루어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냈다. 1) 하지만, 최근 이 시기 한중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연구성과가 등장했다. 그것은 바로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金暻綠의 최근작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의로 본서는 전문학술서로서 높은 가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취했던 선조들의 경험이절실한 현재의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¹⁾ 국내의 연구로는 강상운, 「여명(한중) 국제관계연구」(『중앙대 논문집』, 서울: 중앙 대학교, 1959), pp.235-268; 고석원, 「여말선초의 대명관계」(『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1977); 황운룡, 「고려 공민왕대의 대원명관계 -관제변 개를 중심으로」(『동국사학』14. 서울: 동국대학교, 1980), pp.1-14; 김성준, 「고려 와 워 · 명관계」(『한국사』 8.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1). pp.177-203; 황원구. 「 여말선초의 대명관계」(『한국사의 재조명』, 서울: 민성사, 1986), pp.305-311; 김순 자. 「여말선초 대원、명관계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2000);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역사와 현실』 64,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7). pp.197-231; 「여말선초 국제질서의 변화와 조ㆍ중관 계」(『세계 속의 한국사』, 파주: 태학사, 2009), pp.155-184, 임상훈, 「明初 洪武帝 의 말 强要와 麗明關係」,(『中國史研究』 99, 대구: 중국사학회, 2015)등의 훌륭한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 외국의 연구로도 張士尊, 「高麗與北元關係對明與高麗關係 的影響」(『綏化學院學報』1. 中國 黑龍江: 綏化學院, 1997), pp.48-50; 薛瑩, 「明 洪武年間明朝與高麗朝關係略論」(『社會科學戰線』 4. 中國 吉林: 吉林師範學院, 1997), pp.165-169; 刁書仁,「洪武時期高麗、李朝與明朝關係探析」(『揚州大學學報 』8-1. 中國 江蘇: 揚州大學, 2004), pp.58-63; 姜龍范、劉子敏, 「明太祖在位時大 明與高麗的關係」(『延邊大學學報』 2. 中國 吉林: 延邊大學 1998), pp. 61-65; 末 松保和、「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青丘史草』1、日本 東京: 笠井出版印刷社、 1965), pp.295-485; 宮崎市定, 「洪武から永樂へ -初期明朝政權の性格-」(『東洋史 研究』27-4, 日本 東京: 京都大學, 1969) 등이 존재한다.

²⁾ 김경록,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상·하(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그간 조선시대 한중관계의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아온 저자3)는 스스로 '韓國史' 전공자라고 겸허히 말하지만 '中國史' 전공자 인 필자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중국사에도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4) 이처럼 한중관계사에 박학한 지식을 가진 저자는 '軍事關係史' 라는 새로운 용어와 시각을 중심으로 당시 한중관계의 새로운 일면을 서술해 나갔다. 평소 저자의 글에 흥미를 가지고 拜讀해왔던 저자 역시 본서의 問世에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책의 제목에 기술한 '군 사관계사'라는 생소한 용어에 큰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갔으며 매 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본서의 장절별 대략적인 내용과 필자가 느낀 점 등에 대 해 略述하겠다. 먼저 본서는 약 740여 쪽에 달하는 상 하권의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졌고. 아래와 같은 목차로 나뉘다.

제1장 조선시대 군사관계사란 무엇인가?

제1절 조선시대 군사관계사 개념 제2절 조선시대 구사관계사와 구사전략 제3절 조선시대 군사와 외교의 관련성

제2장 변화와 혁명 : 여말선초 한중군사관계의 급변

³⁾ 저자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편의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내고 있기에 여기에 서는 일일이 그 성과를 거론하지 않겠다.

⁴⁾ 한 예로 저자는 최근 明 太祖 洪武帝에 큰 관심을 가지며, 257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明太祖實錄』을 정독하였으며, 실제로 필자가 본 저자의 『명태조실록』에는 각 쪽마다 주요한 내용을 기록한 표지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저자는 최근 홍 무제가 명의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도나 사상이 명대 전반을 거쳐 청 대에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주목하여 홍무제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실 시하고 있다. 최근 그 성과로 저자는 홋무제의 법률정책(「명초 홋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53, 2016) · 군사정책(「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99, 2016) · 종교정책(「명초 홍무제의 종교정책과 통치구상 - 불 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46, 2016)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홍무제에 대 한 심도 있는 연구를 내놓았다.

제1절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 제2절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여·명관계의 전개 제3절 조선의 건국과 조·명관계의 긴장

제3장 건국과 정통 : 15세기 초 명 중심 국제질서와 군사관계 제1절 홍무 · 영락연간 명 중심 국제질서의 정립 제2절 조선초기 종계변무와 군사관계 제3절 태종대 국방정책과 군사외교

제4장 분화와 대응 : 15세기 중기 조선의 국제인식과 군사정책 제1절 몽골의 흥기와 명 중심 국제질서의 변화 제2절 세종대 국방정책과 군사관계 제3절 세조대 부국강병과 군사정책

제5장 안정과 국방 : 15세기 말 한중군사관계의 전개과정 제1절 동북아 국제정세와 명 중심 국제질서의 정착 제2절 조선의 국방체제 정비와 군사정책 제3절 15세기 명 중심 국제질서와 조선의 해양정책

저자는 14세기 중후반 元末明初와 麗末鮮初 시기부터 15세기 말까지의 조선과 중국의 관계사를 '군사'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고, 이 개념은 시종일관 본서를 관통하고 있다. 본서의 핵심 개념이지만, 다소 생소한 용어인 '군사관계사'란 용어에 대해 독자들의 공감을얻기 위해 저자는 본서의 서두에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저자는 조선시대 군사관계사의 핵심인 군사 분야의 외교 즉, '군사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조선시대 군사외교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국가목표에 따른 외교목표 및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 결정된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군사부문의 대외적 활동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저자는 제1장에서 약 100여 쪽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을 통해 '군 사관계사'라 용어를 定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저자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면 서도 워낙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여전히 독자들의 쟁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자 역시 이 점을 확실히 인지하였는 지 '선험적인 개념정의'라고 인정하며 향후 보다 진척된 연구를 통해 수정 ·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제1장의 제1절은 이렇듯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려는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후의 내 용은 조선과 명의 군사에 관한 각종 제도와 개념에 대한 설명이 많아 배울 점이 많았다. 특히 2장에서는 명과 조선의 군사제도의 근원이 되 는 고대 중국의 군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많아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묘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제3장에서는 군사외교 외에 기타 여러 형 식의 조명 간의 외교에 대하여 다루었다. 조명관계의 핵심이었던 朝貢 과 册封이라는 큰 개념에서 시작하여 이를 실천하는 세세한 각종 제도 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조선시대 대명외교의 흐름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제1장에서 군사관계사란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2장부터는 원말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중 간의 군사관계사를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본서의 대단원의 서막인 여말선초 시기의 격변하는 군사관계사를 다루었다. 제1절에서는 원말의 급변하는 중국의 군사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하였다. 원말의 혼란 상황이 발생한원인에 대해 규명하며, 紅巾賊의 亂과 朱元璋・陳友諒과 같은 群雄들이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제2절에서는 제1절의 원말 혼란기에 즉위한 고려의 恭愍王과 그가 원과 명

사이에서 취한 군사정책에 대해 소상히 다루었다. 흔히 공민왕은 反元 親明政策만을 실시했던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나. 저자는 고려와 원 명 간의 군사관계사를 상세히 다루면서 사실 공민왕은 親明性向이 강 했지만, 실상은 고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 제로 洪武帝의 遼東都司를 통한 고려의 압박 등에 강한 불만을 품은 공 민왕은 北元과 交通하는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복잡다단한 공 민왕대 고려의 對북원 · 명과의 관계를 저자는 군사라는 독특한 시각으 로 다루어 이 시기 한중관계의 긴장된 일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제3절에서는 조선의 건국 이후 명과의 긴장관계를 다루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스스로 명의 국제질서에 편입하였다. 하지만, 당 시 조명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홍무제는 고려를 전복하고 새운 신 생국 조선을 탐탁지 않아 했다. 조선 태조는 홍무제의 인정을 받기 위 해 건국 초기부터 國號를 정해달라는 등 명에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돌아온 건 홍무제의 각종 위협. 무리한 강요들과 '朝鮮國王' 이 아닌 '高麗權知國事'의 직함 등뿐이었다. 이러자 鄭道傳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명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여 양대 신생국 간에 심 각한 긴장관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시기 조선의 지속적인 북 진 정책과 女眞 招撫에 강한 불만을 품은 홍무제의 鐵嶺衛 설치 통보는 그 정점을 찍었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홍무제의 병사와 王子의 亂 으로 정도전이 암살당하며 강경파의 세가 꺾이자 사태는 일단락을 맺 었다. 저자는 이 시기 이러한 일련의 조명 간 군사관계사를 서술하며 군사 및 군마 등에 대한 상세한 수치와 조선과 명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다 생동감 있게 당시의 긴장관계를 재현해 내었다.

제3장에서는 명과 조선의 건국 초기 긴장관계를 벗어나 '典型的인 朝 貢册封 關係'를 맺는 과정에 대하여 다루었다. 명과 조선의 강경파였던 홍무제와 정도전이 사라지자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하였다. 靖難의 役을 통해 황위에 오른 永樂帝는 명 중심 국제질서의 확립에 박 차를 가하며 사방으로 명을 확장시켜나갔다. 5차례의 몽골 親征. 鄭和 의 大航海, 安南 정벌 그리고 티무르 제국과의 전쟁 불사 등은 영락년 간 명의 대대적인 확장을 나타내는 사건들로서 폐쇄적인 성격이 강한 명대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 과정에서 오직 조선은 명의 침략 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매우 우호적이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저자는 제1절에서 洪武·永樂年間의 명 중심 국제질서의 확립과 조명 간 군사관계의 확립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시기의 군사제도는 명과 조 선 군사제도의 기초가 되며 淸代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필자는 본절에서 여러 사료를 통해 그 내용을 일목요. 연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이는 향후 관련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2절에서는 조선 太祖 李成桂가 고려말 權臣 李仁 任의 후손이라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宗系辨誣'와 이를 둘러싼 조명 양국의 군사관계사에 대해 다루었다. 종계변무 문제는 명대 전반에 걸 쳐 조선이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중대 외교 사안이었다. 저자 는 본절에서 종계변무가 최초로 시작하는 『皇明相訓』을 통해 그 발생과 정을 상세히 다루며 이와 관련한 양국의 군사관계사에 대해 다루었다. 제3절의 太宗代 국방정책과 군사외교에서는 조선 태종대의 가장 큰 현 안인 女眞族에 대한 정책과 정난의 역에서 발생한 漫散軍人 문제를 다 루었다. 여진족 문제는 명초 홍무년간부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명은 이미 조선의 진출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 하여 영락년간 명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조선 태종은 명의 요구에 부응하며 가능한 최소의 인원만 명에 刷還하는 정책을 펼쳤다. 저자는 또 조선의 만산군인 쇄환 문제를 군사관계사의 각도에서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태종대 조명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정착하면서 발생했던 긴장 국면을 독특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土木堡의 變 이후 명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제1절에서는 몽골의 흥기와 토목보의 변 이후 발생한 명 중 심 국제질서의 변화를 살펴봤다. 영락년간의 대대적인 확장 이후 명은 소극적인 폐쇄 정책으로 돌아섰다. 물론 仁宣의 治라는 중흥기가 있었 지만. 이후 명은 우매한 황제의 연속 출현과 환관의 점차적인 정권 장 악으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군사 정책에서도 대대적 인 변화가 발생했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명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어난 世宗과 世祖代의 군사관계사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제2절 세 종대의 군사관계에서는 조선의 事大交隣이라는 외교 정책에 주목하여 명·일본·여진과 조선의 군시관계사를 고찰하였다. 면밀한 사료 검토 를 통해 세종대의 군사력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마도와 여진 정 벌의 상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3절에서는 점점 확장하는 여진 세력 에 대한 조선의 군사관계사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명과 조선의 연합군이 建州女眞을 정벌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저자는 다양 한 사료를 통해 본서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재현하고 있다. 특히 이 시 기 이후 여진족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후에 명의 멸망을 초래하기 때 문에 당시 명과 조선, 그리고 여진의 군사관계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 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당시 조명의 군사제도뿐만 아니라 당시 참전했던 여러 장수들의 특징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고찰하여 이 시기 동 북아 국제관계 변화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저자는 마지막 제5장에서 한중군사관계사를 최종 정리하면서 본서를 마무리하였다. 필자는 제1-4장과 같이 시간의 순서대로 명의 멸망과 조선 중기의 군사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저자는 15세기 말까지의 군사관계사만을 본서의 대상으로 삼아 마지막 부분에서는 명과 조선의 대몽골·여진 군사정책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서의 막을 내렸다. 특히 저자는 명대 군사정책 이해에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고 여기는 명대의 公文體系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저자가약 50쪽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을 통해 자세하게 정리한 명대의 공문체계는 명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조선사 전공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一讀을 권한다. 제2절에서는 조선의 국방체제와 군사정책을 다루었다. 저자의 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본서에서도 많은 사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기 좋게 잘 정리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필자는 특히 조선의 典章制度를 기록한 『經國大典·兵典』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필자가 정리한 도표는 일종의 工具書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많은 同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마지막 절인 제3절에서 저자는 15세기 명 중심의 국제질서와 조선의 해양정책을 다루었다.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명이 취한海禁政策과 명초 홍무제의 조선 사신의 陸路를 통한 入明 금지 등의 조치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처를 살펴보았다. 또한 저자는 조선의 해양정책이 소극적인 점에서 출발하여 壬辰倭亂을 고찰하였으며,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조명 연합군과 일본의 군사관계사를 자세히 다루며 본서를마우리하였다.

필자는 본서를 배독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먼저 '군사관계사'란 모호한 용어의 문제이다.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한중 양국의 군사를 중심으로 관계사를 다루겠다는 저자의 의도를 느낄 수 있으나, '군사관계사'란 표현은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물론 저자는 제1장에서 군사관계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생소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추상적인 내용을 사용하여 논술하다 보니 더욱 이해가 쉽지 않았다. 이보다는 '군사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았다면 독자들도 쉽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저자 역시 제1장의 내용을 더 쉽게 서술할 수 있지 않았음까 생각하다.

둘째는 문제라기보다는 독자로서의 아쉬움으로, 본서의 내용이 조선 건국초부터 15세기말까지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책의 제목에 서도 명기하였고, 홍무제가 쌓은 기초가 명말까지 큰 변동 없이 지속되 었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제2장부터 시대순으로 명과 조선 의 군사관계사를 더듬어가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15세기 말의 한중군 사관계를 다루었다. 그런데 본서의 마지막 절인 제3절에서는 조선의 해양정책을 다루면서 임진왜란을 주로 언급하였다. 임진왜란은 16세기 말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실상 시대를 명말까지 확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임진왜란이라는 대형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한중일 군사 관계사를 논해도 충분히 여러 권의 저서가 될 정도의 분량이 되리라 생 각하여 간략하게 언급하는 수준에서 넘어간 듯하나, 조선 초기에만 머 물다보니 뭔가 갑작스레 내용이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실 명말 의 임진왜란과 여진과의 전쟁은 더욱 명초의 전쟁들보다 더욱 빈번하 고 대규모였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다. 이와 같은 아쉬 움은 저자가 향후 이어지는 연구에서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느낀 문제는 可讀性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과 장절의 제목과 실제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사료를 이용하여 도표의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내용들이 雨後竹筍 격으로 난립하여 가독성을 해쳤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서에서 저자가 정리한 많은 도표들은 여러 동학들이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자료들이지만, 불필요한 내용들 역시 적지 않다. 이들을 과감하게 삭제했다면 더욱 보기 좋은 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제5장 제1절에서는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았다. 명 중심 국제질서의 정착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명대 公文體系에 관한 내용이주를 이루었다. 물론 명의 군사정책을 포함한 명의 제반 정책에 대해이해하려면 명대 공문체계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이 공문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역시 연구자들이 工具書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제목에 '명대 공문체계'라는 말을 간접적으로나마 명기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본서는 비록 위와 같은 소소한 문제가 있지만, 이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 익한 책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저자는 주전공인 조선사 외에도 『明太 祖實錄이나 『明會典』과 같은 중국 史料 역시 다량 정독하여 명대사에 도 상당히 조예가 깊다. 이러한 功力을 바탕으로 풀어나간 본서는 시대 의 큰 흐름과 함께 여러 제도의 상세한 설명, 일목요연한 정리로 명대 사와 조선사 연구자 모두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더욱이 강대국 사이에서 外交에 신중해야 하는 현재의 우리에게 본 서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익힐 수 있는 良書이다.

한 가지 다시 강조하자면, 저자가 圖表로 정리한 많은 내용들은 후에 이 분야 연구에 중요한 工具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마지막에 약 100여 쪽을 할애한 부록 중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연표'의 내용 은 조명 양국 군사외교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이 시 기 조명관계의 대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향후 이 분야 연구에 적지 않 은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저자의 다음 연구성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본 서의 一讀을 추천하며 書評을 마무리하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249-260 https://doi.org/10.29212/mh.2018..107.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한국학계의 새로운 연구를 자극하는 영미학계의 한국전쟁 연구

- 스티븐 케이시(Steven Casev) 외 지음, 이상호·박성진 옮김,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접근』(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이동워*

1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에 대한 영미학계의 시선

이 책은 2010년 4월에 발간된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3 No 2에 게재된 여섯 편의 논문들을 저자 중 한 명인 런던정치 경제대학교 국제사학과 교수 스티븐 케이시(Steven Casey)가 『한국전 쟁 60년: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접근(The Korean War at Sixty: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Korean War)』이란 책으로 엮어내고. 이를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호와 한국학중앙연구 워 책임연구원 박성진이 번역하여 2017년 국내에 소개한 결과물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워

2010년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 전쟁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던 해였다.1) 이 연구들은 전쟁의 기원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겪어냈던 한국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실제적 경험과, 전쟁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 이 전쟁이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시각과 범위를 다각화하고 확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대 다양한 한국전쟁 관련 연구서들의 출간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한국전쟁연구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2)

따라서 이 책은 『한국전쟁의 국제사(Korean War as International History)』의 저자로 한국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윌리엄 스툭 (William Stueck)을 필두로 스티븐 케이시, 찰스 S. 영(Charles S. Young) 등 영미 학계 한국전쟁 연구자들의 연구 수준과 경향을 이 시기 국내 학계와 비교하여 가늠해볼 수 있는 훌륭한 비교 대상이다. 로 버트 반스(Robert Barnes)가 책의 서론에서 자평하였듯이 이 책은 "동

¹⁾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역사문제연구소, 포츠담현대사연구센터 공동기획,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역사비평사, 2010;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서중석 외, 『전장과 사람들: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인, 2010; 김동춘 외,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한울아카데미, 2010; Bruce Cum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New York: Modern Library, 2010)

²⁾ 서중석 외, 『전쟁 속의 또다른 전쟁』, 선인, 2011;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선인, 201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이임하, 『적을 삐라로 묻어라』, 철수와 영희, 2012;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 중 관계』, 선인, 2012; 김태우, 『폭격』, 창비, 2013; 정병준 외,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2014;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아카데미, 2015;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2016; 김보영, 『전쟁과 휴전』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백원담 외,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 진인진, 2017;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맹 외교. 군사 전략. 여론과 역사 기억에 관해서". "여러 편의 논문이 적절히 잘 조합된 것"이며, "한국전쟁의 여러 측면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2 낯설고도 익숙한 이야기들

아쉽게도 이 책에 실린 여섯 편의 논문들이 모두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윌 리엄 스툭과 션즈화(沈志華)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있 지만 새로운 통찰과 시각 면에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연구이다.

윌리엄 스툭과 그의 제자인 볼티모어대학 조교수 이보람이 함께 쓴 이 책의 첫 번째 논문, 「'혈맹': 미국의 남한 점령, 한국전쟁, 그리고 한 미 동맹은 해방 이후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가 왜 불안정했 는지를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점령-피점령 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 경험 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일본군과 싸웠던 미군 병사들은 한국인 에 대해서도 "아시아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오만하고 무례한 "미군 병사들의 활동에 명백한 혐 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전혀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점령-피점령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오해와 갈등을 직접 경험자들의 회고를 통해 미시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이 논문이 로버트 반스가 서론에서 평가하였듯이 "방대한 한 국 측 자료들과 미군 문서들을 활용해 기존의 전통적 해석을 뛰어넘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한국 측 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 고. '미국인의 시선에서' 정리된 점령자 측의 경험과 인식을 정리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피점령자인 한국인들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점령자의 시선에서 이해된 수준에서만 설명되었다. "한국인들은 만연한 가난과 일본인 지주와의 두 세대에 걸쳐 굳어진 관습 때문에 미 점령군과보급창에 대한 좀도둑질에 가담했다.(52쪽)"는 식의 서술은 점령 정책실패와 점령 행위 자체에 대한 항의 및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가난과 관습의 탓으로 돌리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이다.한국을 '해방 공간'이 아니라 패전국 일본의 일부로 인식했던 미군정의 '점령군으로서의 태도'가 미군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끼친 영향과 해방이후 주권국가 수립을 열망했던 한국인들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부정, 친일 세력의 기득권 유지가 한국인들에게 준 좌절감을 외면한 채 인종적편견과 문화적, 관습적 차이로 이 시기 점령—피점령 관계의 갈등과 긴장을 설명하는 것은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정용욱의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으로 대표되는 한국학계의 미군정기 연구는 점령 정책의 문제점과 한미간 갈등 구조의 원인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세밀하게 드러냈고, 이러한 연구들이야말로 "방대한 한국 측 자료들과 미군 문서들을 활용"하여 '준비부족론'이나 '선의의 무지론' 같은 "기존의 전통적해석"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③ 따라서 역자 후기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하였듯이 이 연구는 "주한미군정 시기에 대한 미국 학계의수준(제1차 자료에 대한 인식, 특히 한국 자료,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이해 부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신선함보다는 이쉬움이 더커 보인다.

두 번째 논문인 션즈화의 「중국과 소련 공군의 파견: 한국전쟁 초기 북중소 동맹의 형성」은 국내에도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한국전쟁과 북 중소 관계에 대한 필자의 저서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이다.⁴⁾ 소련

³⁾ 정용욱 외,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른역사, 2018.

⁴⁾ 션즈화 지음, 최만원 옮김,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션즈화 지음, 김동길 옮김,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 소련, 조선의 협력과 갈등-』, 선인,

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특히 이 논 문은 한국전쟁기 중국군에 대한 소련의 공군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 어졌던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갈등과 긴장 관계에 주목하였다. 스탈린 은 미국 개입에 대응해 중국이 파병할 경우 항공 지원 제공을 약속했으 나. 실제로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을 결정했던 1950년 10월에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련 공군 지원이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션즈화 에 따르면 스탈린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미국과의 직접 충돌에 대한 우려, 비밀 외교 채널을 통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희망, 유엔군 의 38선 돌파로 인한 전황 변화가 그 원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 짜둥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중국이 처했던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주 의권에서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위상 및 책임을 역으로 고려"하여 "모 든 위험을 감수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싸우기로 결정(101쪽)"했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션즈화의 논의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에서 그려 낸 중소 관계의 기본 구도와 일맥상통 한다. 스탈린은 소련의 국익이 라는 협소한 이해에 천착하여 한국전쟁을 승인하였고 미국 참전 이후 북한의 구원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는 이기적인 지도자로 묘사되는데 비해, 마오쩌둥은 사회주의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중국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로 묘사된다. 이 러한 그의 주장은 모택동의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후의 천조』 에서는 1970년대 북중소 관계까지 확장되어 중국의 북한에 대한 변함 없는 우의와 지원은 마오쩌둥의 전통적 '천조(天朝) 의식'의 표현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션즈화의 주장은 영미권 학계나 한국 학계에서 접근하기 힘든 중국

^{2014;} 션즈화 지음, 김동길 옮김, 『최후의 천조』, 선인, 2017, 이 중 앞의 두 권은 모두 沈志華, 『毛澤東, 斯大林與朝鮮戰爭』(廣東: 廣東人民出版社, 2003)을 번역한 책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재출간한 것이다.

당안관 문서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장점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아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마오 짜등과 중국을 긍정적으로만 묘사하는 '자국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연구들에서 이미 상세하게 밝혀진 한국전쟁 참전을 둘러싼 중국 내 갈등, 중국의 국익을 고려한 마오짜등의 참전 동기, 국공내전 당시 마오짜등을 도와 '동북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북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폄하하면서 마오짜등과 중국의 의도 및 동기에 대해서는 순수하고 선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5)

3. 새로운 영역의 개척 가능성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논문인 로버트 반스의 「침략자로 규정하기: 영연방과 유엔 그리고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1950년 11월~1951년 1월)」과 스티븐 케이시의 「사상자 보도와 국내의 전쟁 지지: 한국전쟁기 미국의 경험」은 한국전쟁 연구에서 비교적 새로운 영역을 다루면서 영국학계의 독창적 시선을 보여준다.

영국 요크세인트존대학교(York St John University) 전임강사인 로버트 반스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 유엔 내에서 이루어진 대응 과 관련하여 "역사학자들 상당수가 영연방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했 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남 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영연방 국가들이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려

⁵⁾ 주지안롱(朱建榮) 지음, 서각수 옮김,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 넷, 2005; 길재준, 리상전,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후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에 위치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는 미국 주도의 유엔 '침략자' 결의안에 대응한 방식과. 결국 미국의 일 정한 양보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그려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영연 방이 영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대립한 것 이 아니라 이 시기 각국이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51년 1월에 이르면 '태평양안전보장조 약의 체결 가능성을 중시했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미국의 결 의안 초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원 했던 캐나다도 미국 편으로 돌아서는 등 영연방의 균열상이 명확해졌 다. 영국은 인도와 함께 영연방 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결의안에 반 대했었지만. 영·미 모두 서구 동맹의 분열을 우려하면서 결국은 결의안 초안 수정이라는 미국의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는 선에서 '침략자' 결의 안에 찬성 투표함으로써 결국에는 영국도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유엔 내의 이러한 갈등과 조정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더욱 뚜렷해진 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면 서도 미국을 경제함으로써 또 다른 파국을 막고자 했던 영연방 국가들 의 고민과 역할의 일단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립블록을 형성 하고 비동맹주의로 나아갔던 인도의 역할과 입장에 새삼 주목하게 한 다. 이 논문은 유엔의 중국 결의안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짧은 시기 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지만 한국전쟁을 전후한 유엔과 비동맹의 역할, 제3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 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븐 케이시의 논문도 한국전쟁 사상자 보도가 미국 대중의 전쟁 지지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개척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전쟁 초기 전투가 극도로 유동적인 상황에서 정확한 사상자 보고는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맥아더가 미군 사상 자 수를 축소 발표하면서 여론 주도층과 언론은 공식 발표된 사상자

수를 의심했고 오히려 인명피해를 과장하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상자 논쟁이 치열했던 "1951년 1월과 1952년 10월의 두 주요한 순간에 한 국전쟁에 대한 미국 내 지지가 갑자기 하락했다.(207쪽)" 1951년 1월 사상자에 대한 과장된 언론 보도 속에서 "징병자 위반자 수가 제2차 세계대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었다.(209쪽)" 또한 1952년 10월 백마고 지 전투의 사상자 수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아이 젠하워의 계속된 요구는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다시 한 번 촉 발했다.(211쪽)"

이 연구는 "사상자가 늘면 지지는 감소한다."는 뮐러의 보편적 명제가 한국전쟁 시기에 반드시 옳은 명제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사상자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상자수를 다루는 군과 정부의태도와 접근 방식, 언론과 정치인 등 여론 주도층의 이에 대한 평가가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 방법을 한국전쟁기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수 있다. 파병에 대한 찬반 입장을 선택할수 있었던 미국 대중들과 달리 선택의 여지없이 삶의 터전에서 일어난 전쟁을 고스란히 겪어내야했던 한국인들에게 사상자 보도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엘리트들의 노력과 복잡한 상호작용, 나아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혹은거부했던 대중들의 전쟁 경험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관심과 연구가필요할 것이다.

4. 역사적 상상력의 효용과 한계

네 번째와 여섯 번째 논문인 콜린 F. 잭슨(Colin F. Jackson)의 「잃

어버린 기회인가, 아니면 모험인가? 한국에서의 전략적 기회와 위기의 고조(1951년 4~7월) 와 찰스 S. 영의 「전쟁포로: 한국전쟁이 잊혀진 숨겨진 이유는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상상력이 역사적 사실들과 충돌할 때 생기는 불편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미국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 교수인 콜린 F. 잭슨은 밴 플리 트(James Van Fleet) 미 제8군사령관이 1951년 5월말 입안했으나 리 지웨이(Matthew Ridgway) 유엔군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거 부되어 무산된 통천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당시 중국군은 1951년 1월과 4월의 공세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반면 유엔군은 화력, 기동성, 병참 부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 문에 전장의 주도권은 유엔군으로 넘어온 상태였다. 이때 밴 플리트가 제안한 대로 통천 상륙작전을 실행했다면 "유엔군사령부는 평양에서 원산을 가로지르는 좁은 목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153쪽)"할 수 있었 고. "적의 수도 점령과 더불어 짧은 방어선 구축을 통해 방어가 수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통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것이라는 잭슨 의 주장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도 인정했듯이 리지웨이와 합참이 통천상륙작전에 반대했던 것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해임과 상원 청문회 개최 등 미국 국내 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 다. "확전에 반대하는 워싱턴의 분위기" 속에서 "밴 플리트의 안은 맥 아더의 거대한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다. 1951년 5월 17일에 확정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문서인 NSC 48/5도 "전쟁 이전 국경선에 기초하여 평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국 의 정책 목표를 수립했다 (173쪽)" 따라서 리지웨이와 합참은 군인으로 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 목표에 충실했을 뿐이고. 오히려 밴 플리트가 자신의 계획안을 사후에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물

론 밴 플리트의 안은 "그 의도와 기원, 자원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맥아더의 구상과 완전히 달랐다." "중국의 생산 시설을 공격하려는 맥아더의 구상과 달리 밴 플리트의 상륙작전안은 한반도에 국한(168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와 무관한 전쟁은 있을 수 없고 전략적 목표를 거스르는 군사 작전은 그 자체가 이미 '순수한 군사적'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미국 서던이칸소대학교(Southern Arkansas University) 교수인 찰스 S. 영의 논문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한국전쟁 포로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군이 제시했던 '자원 송환' 원칙이 미국에서는 결코 '승리의 대체물'이 될 수 없었던 맥락을 밝히고 있다. 영은 잭슨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만약트루먼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여 재난을 불러일으키기보다 38선에서 맥아더의 북진을 중단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상상해보자. 전쟁은 인천에서의 대성공으로 4개월 안에 승리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베를린 봉쇄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무색케 하는, 냉전에서 미국이 거둔 최고의 순간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219쪽)"는 가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유엔군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했고, 예상과 달리 중국이 참전하였으며 어느 쪽도 군사적 승리를 쟁취하지 못 한 채 지루한 휴전회담 끝에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전쟁의 핵심 요인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특히 휴전회담을 2년여 이상 끌게 만든 것은 18개월에 걸쳐 논쟁이 된 포로 문제였는데, 미국은 제네바 협정의 '본국 송환' 원칙을 '강제 송환'이라 비판하면서 '자원 송환'이라는 "승리의 대체물"을 발견하였지만, 정작 '자원 송환' 원칙을 대중적으로 선전할 수는 없었다. 6) 자원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휴전회담이 중단되었기

⁶⁾ Roeme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의 가족들이 참전한 자식들을 다시 안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유엔군의 손에 달려 있는 공산군 포 로들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전쟁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 단"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송화을 거부하는 전쟁포로들의 권리를 둘 러싼 싸움"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자원 송환은 결코 전쟁 목표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하는 것"뿐이었 던 셈이다

따라서 영은 휴전회담을 장기화함으로써 더 많은 희생을 낳았던 포 로의 '자원 송화' 원칙이 미국에게 결코 "승리의 대체물"이 될 수 없었 으며. 이러한 정책 실패가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송환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 거나, 공산군 측이 이를 곧 받아들였다면 전쟁은 더 빨리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컸다.(233쪽)"는 그의 또 다른 역사적 상상은 그래서 더욱 씁 쓸한 뒷맛을 남긴다. 그는 "한 국가가 실존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나섰지만. 그 전쟁이 사리사욕과 제국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기억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 다."고 미국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에게 이 전쟁은 잊고자 한들 잊을 수 없는 '현재진행형'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5. 한국전쟁을 '역사'의 영역으로 돌려보내기

2010년에 영미 학계를 중심으로 제출된 위와 같은 6편의 한국전쟁 관련 연구 성과들이 전쟁 발발 60주년을 그들의 시선에서 돌아본 것 이라면, 이러한 연구가 부지런한 역자들에 의해 뒤늦게나마 국내에 출간되어 소개된 것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한국전쟁 70 주년을 앞두고 국내의 한국전쟁 연구를 추동하는 훌륭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실존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치적 종전 선언만으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오해, 편견이 중첩되어 있는 이 전쟁을 진정한 의미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역사학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인식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작업은 오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평화,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현재진행형'인 이 전쟁을 드디어 '역사'의 영역으로 돌려보내는 오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O 18-1차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

일시 / 장소 : '18. 3. 29.(목) / 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50여 명(연구소, 군사사학회, 군 및 일반연구자 등)

- 세부진행

15:00~15:1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5:10~16:00	제1주제 : 소정방의 침공전략과 백제의 대응 발표자 : 이재준(영남대) 토론자 : 서영교(중원대)
16:00~16:50	제2주제: 군수품의 일상품으로의 전환 (러일전쟁기 통조림산업을 중심으로) 발표자: 박영선(이화여대) 토론자: 조재곤(서강대)
16:50~17:00	휴식
17:00~17:50	제3주제 : 청산리 전역시 독립군의 전술과 무기체계 발표자 : 신효승(독립기념관) 토론자 : 김주용(원광대)
17:50~19:00	사진촬영 / 만찬

2. 인사이동

o (퇴직) 윤영휘 : '18. 2. 28. 부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훈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內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군사제도·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이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논문」『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 예 : 홍길동,「00에 관한 연구」「군사」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 예: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 은 포함시키지 않음.
-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doi.org/10.12345 / imhmnd.2017.105..103.010
 -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 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 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 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 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02-748-1667(윤재두)
- FAX: 02-709-3111
- E-mail: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대상269
제3조	적용범위269
제 4 조	용어의 정의269
제 5 조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270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71
제7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272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	부정행위제보 및 접수273

268 | 軍史第107號(2018.6.)

제 9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273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273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274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274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275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275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276
제16조	판 정276
제17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276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277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277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278
보 치.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 1. "연구 원자료" 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하다.
- 2. "연구자료" 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 3. "연구결과" 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 4. "연구결과물" 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 변조ㆍ표절ㆍ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 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

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 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 되어야 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을 견지한다.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 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 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1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 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다.

- ③ 당해 조사 시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 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 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 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 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 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광서(조선대학교) 김강식(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연세대학교) 이근욱(서강대학교) 유경진(경상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전호수(군사평찬연구소) 정용욱(서울대학교)

🌝 편집간사

유재두(군사편찬연구소)

重 史 2018/6(第107號)

2018년6월8일印刷2018년6월15일發行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748-1667 FAX: 709-3111

印刷處_ 국군인쇄창 (M18050573)

本誌에 실린 論文内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07. 2018.6.

Yun, En-seok The Spiritual Combat Power led by the Activities of the Protestant

Churches in ROK Armed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Focused

on Chaplains and Protestant worshipping Soldiers

Shin, Seong-Jae The Transitional History of the Korean Naval Officer's

Rank Insignia

Kim, Joon-bae The images of Yi Sun-Sin reflected on the writings of a

naval officer at the period of Meiji

Park, Jong-sang A Study on the Position of the Marine Corps Head-

quarters in Jeju Island

Park, Sang-yeon Organizational Limits in Strategic Implementation: Revis-

iting the Cause of the Chinese Gunfire on Soviet Border-

guards in Zhenbao Island

Park, Min-su Eyes on the 'Central Plains': The Manchus' Military

Strategies and Tactics during the Early 17th Century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